2024
제주경제백서

제주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발 간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도전 속에서 우리 지역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고물가 등 대외적인 환경 악화로 인해 지역 경제는 여전히 회복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제주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해외 교역국들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지원 정책 건의, 경제동향 조사, 수출 및 고용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현재의 경제적 도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제주상공회의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년 제주경제백서는 제주가 지난 수년간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며,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백서가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백서의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위원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 문 석**

Contents …

제1편 국내외 경제 동향

제1장 세계경제 동향 …… 11
제1절 실물경제 …… 11
제2절 금융시장 …… 15

제2장 국내경제 동향 …… 19
제1절 경제성장 …… 19
제2절 고용 및 임금 …… 24
제3절 물가 …… 28
제4절 경상수지 …… 31

제3장 국내금융 동향 …… 35
제1절 금리 …… 35
제2절 주가 …… 39
제3절 금융기관 여수신 …… 41

제2편 제주경제여건 및 동향

제4장 제주경제여건 …… 47
제1절 개황 …… 47
제2절 경제구조 …… 53

제5장 실물경제 동향 ····· 58
제1절 개황 ····· 58
제2절 산업활동 동향 ····· 60

제6장 지역금융 동향 ····· 69
제1절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 69
제2절 기타 자금 사정 ····· 77

제7장 지역부동산 동향 ····· 79
제1절 부동산 현황 ····· 79
제2절 부동산 거래 동향 ····· 84
제3절 부동산 가격 동향 ····· 91
제4절 주택 공급 동향 ····· 95
제5절 부동산업 ····· 98

제8장 지방재정 ····· 101
제1절 세입 ····· 101
제2절 세출 ····· 106
제3절 재정지표 ····· 111
제4절 부채 및 지방채 ····· 114

제3편 분야별 산업경제정책 추진 성과

제9장 고용 동향과 일자리 창출 ····· 119

제1절 현황 ····· 119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134
제3절 성과 ····· 141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149

제10장 농축수산업 ····· 155
제1절 현황 ····· 155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179
제3절 성과 ····· 183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193

제11장 제조업 ····· 196
제1절 현황 ····· 196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214
제3절 성과 ····· 240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256

제12장 관광산업 ····· 267
제1절 현황 ····· 267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283
제3절 성과 ····· 286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288

제13장 건설업 및 교통 ····· 293
제1절 현황 ····· 293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309

제3절 성과 ····· 317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321

제14장 유통 및 물류 ····· 327
제1절 현황 ····· 327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347
제3절 성과 ····· 356
제4절 육성 과제 및 제언 ····· 361

제15장 투자유치 및 기업 이전 ····· 369
제1절 현황 ····· 369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382
제3절 성과 ····· 390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396

제16장 과학기술 진흥 ····· 401
제1절 현황 ····· 401
제2절 정책지원 현황 ····· 428
제3절 성과 ····· 437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 442

부록 1. 해외 및 국내·제주 경제 일지 ····· 449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513

제Ⅰ편 국내외 경제동향

제1장 세계경제 동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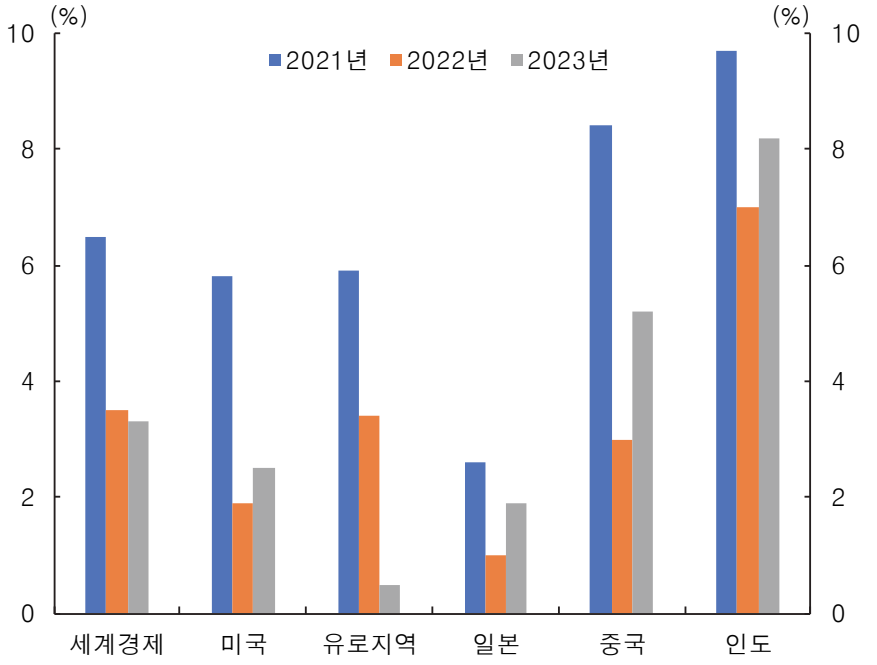
제1절 실물경제

1. 경제성장률

2023년 중 세계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는 제조업 비중 및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견조한 고용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한 반면, 유로지역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독일 및 이탈리아 등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역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은 펜트업 수요 및 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경기 위축, 대외수요 부진으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조치 영향으로 부진이 완화되었다. 한편 아시아 신흥국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1) 한국은행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그림 1-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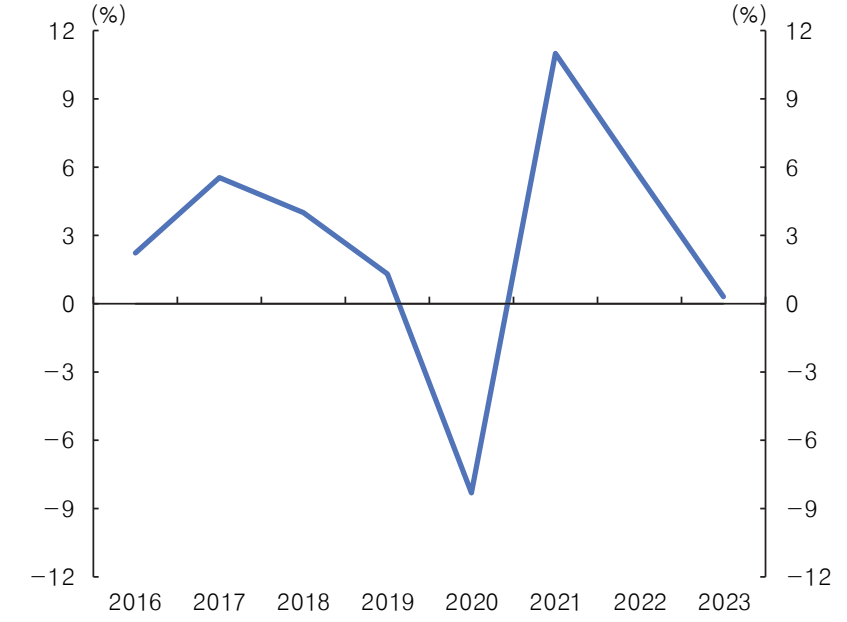
자료 : IMF

2. 세계교역

세계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큰 폭 둔화되었다.[2] 상품교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 및 중국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른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위축되었다. 한편 서비스 교역은 서비스로의 소비전환 등에 힘입어 여행 및 운송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2) 세계교역 신장률(IMF기준): 2021년 11.0% → 2022년 5.6% → 2023년 0.3%

〈그림 1-2〉 세계교역 신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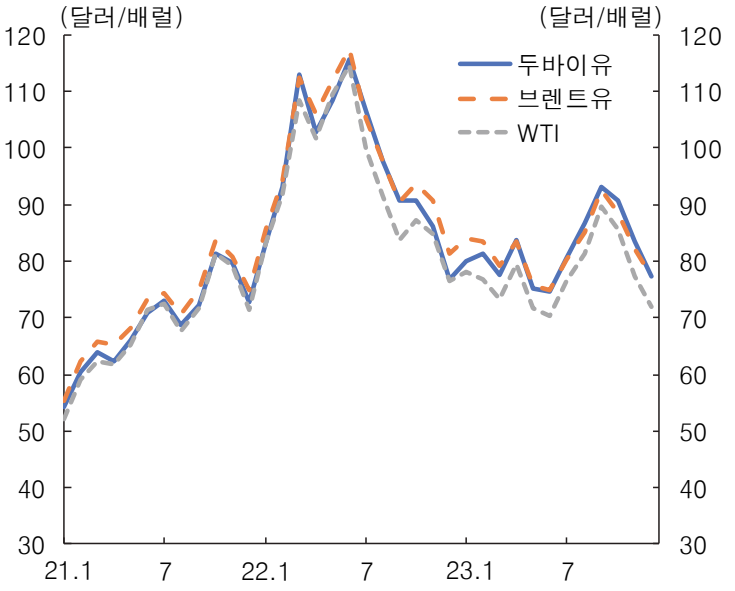
자료 : IMF

3. 국제유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증가 기대, 미 실리콘밸리 은행 및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 금융불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며 80달러를 중심으로 등락하였다. 이후 하반기 들어 주요 산유국의 감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지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9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하였다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2022년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3)]

3)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는 2022년(기간평균) 97.0에서 2023년 81.9로 낮아졌다.

〈그림 1-3〉 국제유가(월평균)



자료 : Bloomberg

제2절 금융시장

1. 국제금리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3월 SVB·CS 사태[4]에 따른 주요국 은행불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견조한 경기상황, 연준의 금리인상 및 고금리 지속 기대(higher for longer) 등으로 9월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와 함께 연준의 긴축기조 조기 종료 기대가 국채시장에 선반영되는 가운데 11월 들어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독일 장기금리도 9월까지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경제지표 예상치 하회 등으로 경기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년말보다 낮은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였다. 신흥국의 EMBI+[5] 가산금리는 주요국 은행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증대로 상승하였다가 6월 이후 선진국 주가 상승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하락하였다. 8월 이후에는 미 국채금리 움직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등락하였다.

---

4) 2023년 3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일부 은행이 파산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글로벌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위험을 겪은 후 UBS에 인수되었다.

5)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는 투자은행인 JP Morgan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신흥시장국채권펀드 투자수익률 지수이며, EMBI+ 가산금리는 EMBI+ 수익률에서 미 국채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표 1-1〉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기말 기준)

(단위 : 연%,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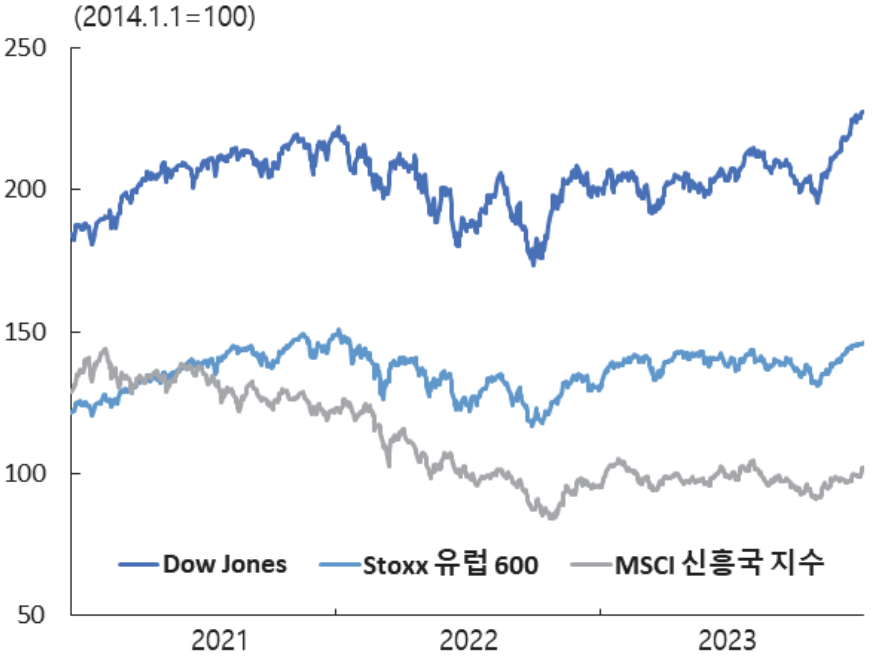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3월	6월	9월	12월
장기금리					
(미국)	3.87	3.47	3.84	4.57	3.88
(독일)	2.57	2.29	2.39	2.84	2.02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1]	188	216	185	182	158
(신흥국 CDS 프리미엄)[2]	239	230	213	225	167
(신흥국 가산금리)[3]	375	414	390	396	345

주 :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 Bloomberg, JP Morgan, Markit

2. 글로벌 주가

미국 주가(다우지수)는 3월 SVB·CS 사태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단기간 하락하였으나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 기술주 강세 등으로 7월까지 대체로 상승하였다. 8월 이후에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0월말 이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와 함께 경기 연착륙 기대가 중첩되며 상승세를 이어가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와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지수)도 대체로 미국의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럽 및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그림 1-4〉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흥국 MSCI 지수



자료 : Bloomberg

3. 미 달러화

미 달러화는 중앙은행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 등에 따라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게 부각되면서 연간 3.3% 약세를 시현하였다.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회 가능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영향을 미치면서 7.4% 절상되었다. 한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된 11월 이후에는 미 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다.

〈그림 Ⅰ-5〉 주요 환율

자료 :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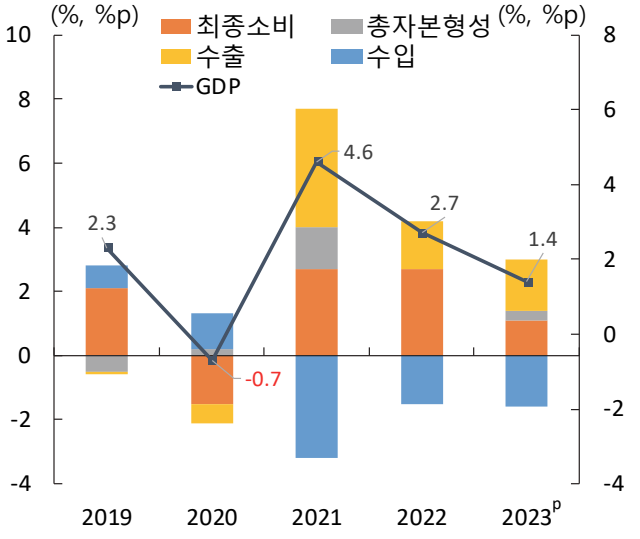
제2장 국내경제동향[1)]

제1절 경제성장

1. 개황

2023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의 회복모멘텀이 약화되고 글로벌 제조업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어 성장률이 전년(2.7%)보다 낮은 1.4%를 기록하였다.

〈그림 2-1〉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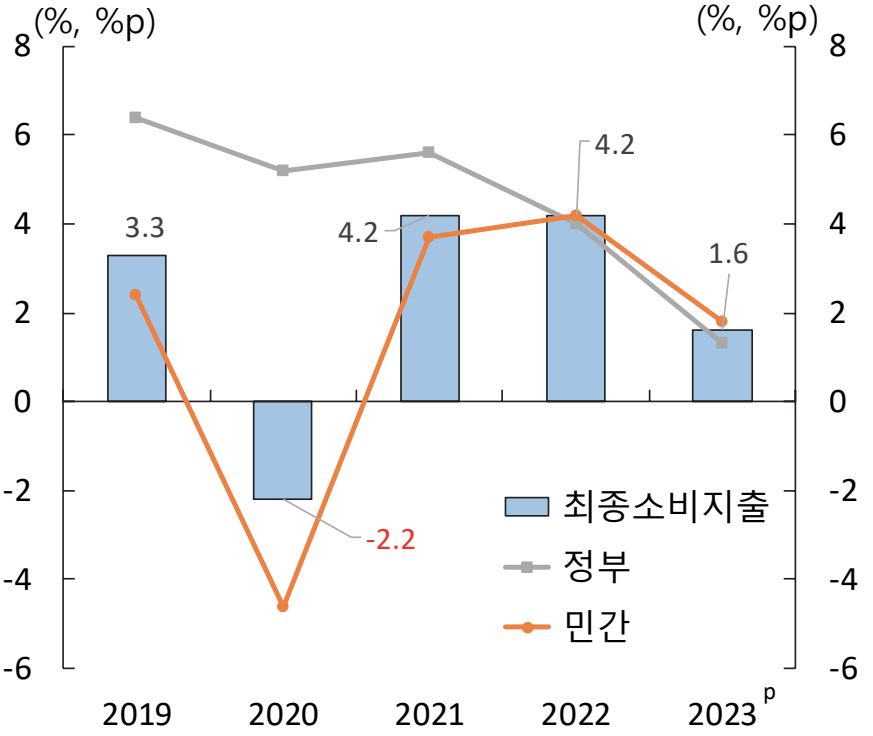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연차보고서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4.2%)보다 낮은 1.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늘어난 데다 실질 소득도 둔화됨에 따라 1.8% 증가에 그쳤다.

〈그림 2-2〉 소비 증감률(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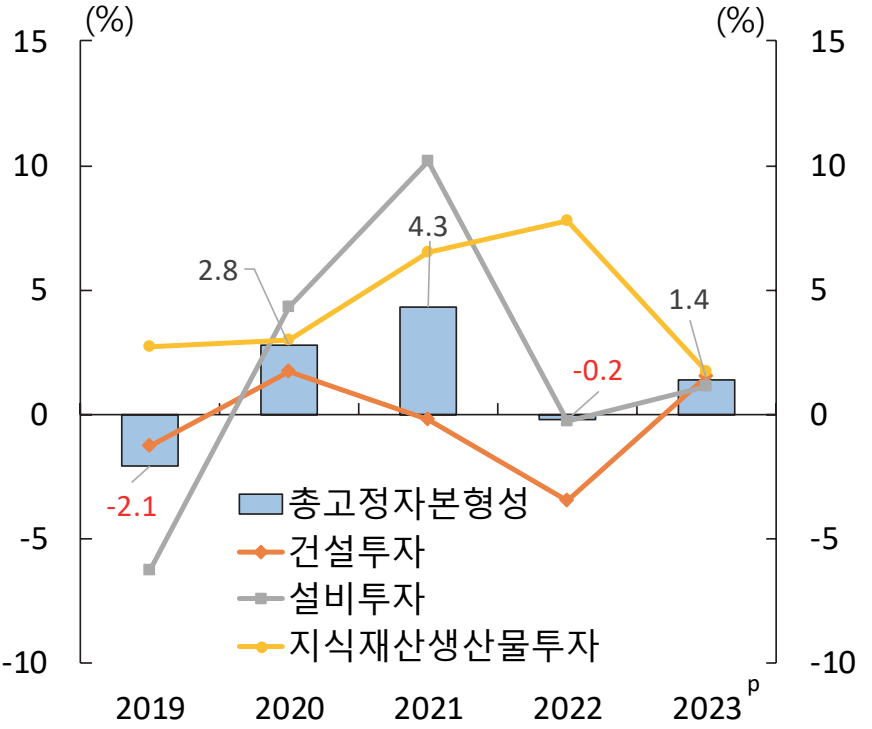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기준)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늘면서 1.4% 증가로 전환하였다. 설비투자는 제조업 경기 둔화로 기계류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여행수요 회복으로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개선되어 1.1%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고금리 영향 등으로 신규착공이 부진하였지만, 건설자재 공급차질 완화로 기착공 공사물량이 늘어나 1.5%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둔화되고 소프트웨어 투자도 대면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조정됨에 따라 예년보다 낮은 1.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2-3〉 투자 증감률(실질)



자료 : 한국은행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부문은 크게 늘었으나, 글로벌 제조업 부진과 중국 성장세 둔화로 증가율이

전년(3.9%) 수준을 하회하는 3.6%를 기록하였다. 재화 수출의 경우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다가 하반기 들어 글로벌 IT 경기 반등 등으로 개선되어 연간 2.9%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늘면서 7.7% 성장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은 경기 둔화로 재화 수입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4.2%)보다 다소 낮은 3.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 업종별 성장률

산업별 생산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제조업은 IT 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IT 업종도 일부 신성장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하여 전년(2.5%)보다 낮은 전년대비 1.7% 성장에 그쳤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글로벌 IT경기 하강으로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는 AI 관련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고성능·고용량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비IT 업종의 경우 운송장비가 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 흐름을 이어갔으나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등 여타 업종들은 국내외 수요 둔화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서비스업도 2.1% 증가하여 전년(3.8%)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운수업과 보건·복지업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재화소비 위축, 대면서비스 펜트업 수요 약화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은 부진하였다.

건설업은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공사 물량이 늘면서 건물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0.9%)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농림어업(-2.6%)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2.9%)은 각각 작황 부진, 전기 및 가스 판매 부진으로 감소로 전환하였다.

〈표 2-1〉 업종별 성장률

(단위 : 전기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p
국내총생산	2.3	△0.7	4.6	2.7	1.4
농림어업	2.9	△6.7	3.4	0.8	△2.6
제조업	0.5	△2.0	6.5	2.5	1.7
화학제품	△0.5	0.4	2.3	1.1	0.2
1차금속	1.3	△2.8	△5.2	△17.7	0.6
금속제품	△0.8	△6.0	△13.4	△12.5	△0.5
컴퓨터, 전자·광학	4.9	5.5	12.8	6.4	5.3
기계 및 장비	△1.0	△0.4	12.0	6.4	△4.0
운송장비	0.8	△10.3	6.2	11.0	10.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8	5.7	1.7	3.5	△2.9
건설업	△1.7	△0.4	△0.9	0.9	3.1
서비스업	3.8	△0.4	4.3	3.8	2.1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8	△4.2	2.2	5.6	△1.3
운수업	1.9	△13.5	10.6	12.4	12.2
금융 및 보험업	3.0	9.8	6.7	2.8	0.9
사업서비스	3.6	0.2	1.9	2.4	1.8
보건 및 사회복지	10.2	1.6	6.0	6.1	4.6

자료 : 한국은행

제2절 고용 및 임금

1. 고용

노동시장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고용이 부진하였으나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취업자수 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업황 부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15~29세 청년층에서는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2.7%로 0.2%p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9%로 0.5%p 하락하였다.

〈표 2-2〉 고용 지표

(단위 : 만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활동인구	2,819	2,801	2,831	2,892	2,920
(증가율)	1.0	△0.6	1.1	2.2	1.0
경제활동참가율	63.3	62.5	62.8	63.9	64.3
취업자 수	2,712	2,690	2,727	2,809	2,842
(증 감)	30.1	△21.8	36.9	81.6	32.7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업률	3.8	4.0	3.7	2.9	2.7
(15~29세)	8.9	9.0	7.8	6.4	5.9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15~64세)	66.8	65.9	66.5	68.5	69.2
〈산업별〉					
제조업	△8.1	△5.3	△0.8	13.5	△4.3
서비스업	34.8	△21.6	29.2	57.5	38.5
농림어업	5.5	5.0	1.3	6.7	△1.3
건설업	△1.5	△0.4	7.4	3.3	△0.9
기타	△0.7	0.4	△0.3	0.6	0.7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35.7	△10.8	42.1	74.9	32.7
(상용근로자)	44.4	30.5	36.6	80.5	47.8
(임시근로자)	△5.6	△31.3	15.2	4.3	△6.1
(일용근로자)	△3.1	△10.1	△9.6	△10.0	△9.0
비임금근로자	△5.6	△11.0	△5.3	6.8	0.0
〈연령별〉					
15~29세	4.1	△18.3	11.5	11.9	△9.8
30~59세	△11.7	△41.1	△7.6	24.6	5.9
60세 이상	37.7	37.5	33.0	45.2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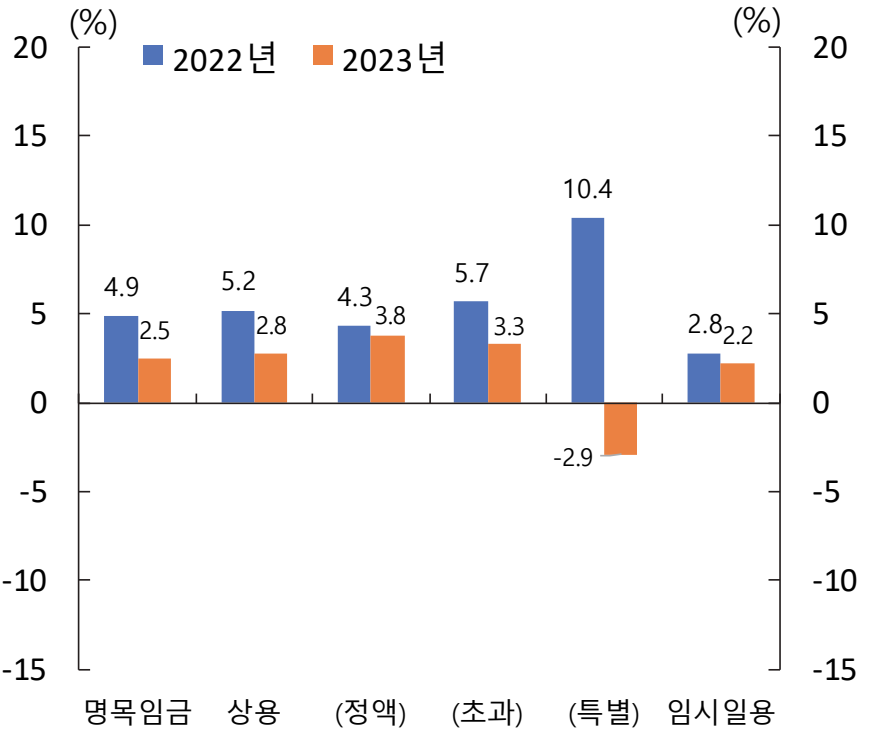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임금

명목임금은 2.5% 상승하여 전년(4.9%)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기조적 임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특별급여도 감소한 데 기인한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확대되고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그림 2-4〉 종사자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표 2-3〉 임금 지표 상승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임금[1]	3.4	1.1	4.6	4.9	2.5
(실질임금)[2]	3.0	0.5	2.0	△0.2	△1.1
시간당 명목임금[3]	3.9	2.6	4.5	6.2	4.1
노동생산성[4]	1.9	1.8	2.8	1.5	2.0
단위노동비용[5]	2.0	0.8	1.6	4.6	2.0

주 :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 고용노동부

제3절 물가

1. 소비자물가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전년대비)로 물가안정목표(2.0%)를 상당폭 웃도는 오름세가 지속되었으나 전년(5.1%)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되었다. 연중 흐름을 보면, 연초 5.0%에서 7월 중 2.4%까지 빠르게 둔화된 후 8월부터 유가·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여 10월 중 3.8%까지 높아졌으나 11월부터 둔화 흐름을 재개하여 12월에는 3.2%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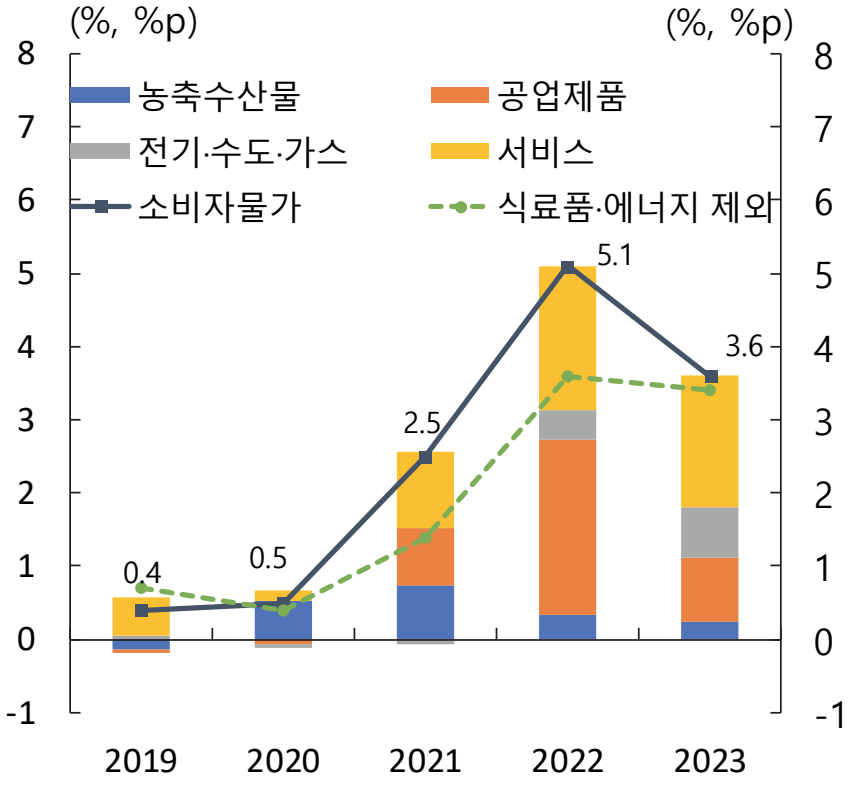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나타낸 것은 유가, 국제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낮아진 데다 그간의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수요측 물가압력도 완화된 데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가 낮아지면서 2월부터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가격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오름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상반기 중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중 동결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물가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집세와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전년말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2023년 연간으로는 전년(3.6%)보다 다소 낮아진

3.4%를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5월까지 3.8%에서 4.0%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6월 중 3.3%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완만히 둔화하여 12월 중 2.8%로 낮아졌다.

〈그림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자료 : 통계청

2. 주택가격

주택 매매가격은 하반기 중 상승 전환하였으나 고금리,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반기 중 큰 폭의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 전체로는 3.6%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하였다.

주택 전·월세가격은 하반기 중 상승 전환하였으나 고금리,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크게 낮아짐에 따라 연간으로는 각각 5.1%, 0.8% 하락하였다.

〈표 2-4〉 주택가격 상승률(전기말월대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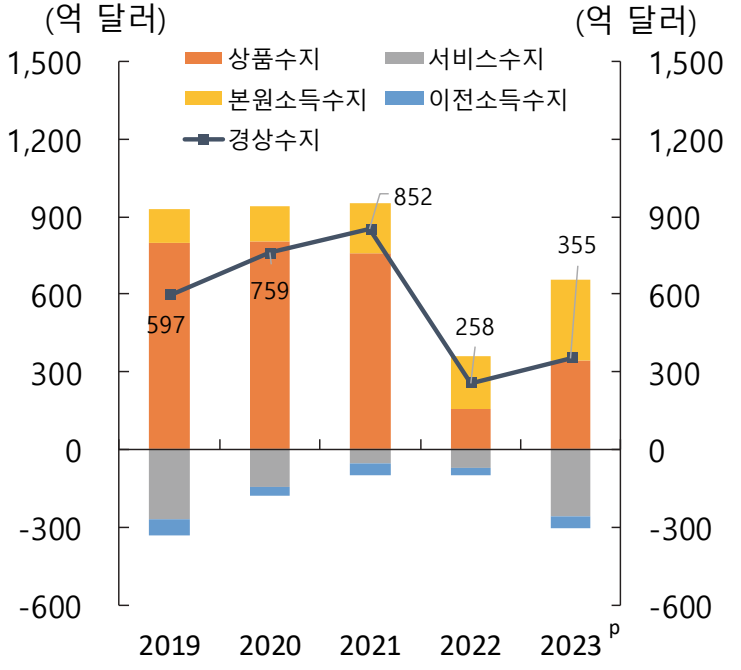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주택매매가격	△4.7	△3.6	△4.1	0.6
〈수 도 권〉	△6.5	△3.6	△4.7	1.1
〈비수도권〉	△3.0	△3.5	△3.6	0.1
주택전세가격	△5.6	△5.1	△6.2	1.2
주택월세가격	1.0	△0.8	△1.3	0.5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제4절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년(258억달러)보다 확대된 3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수입이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출보다 더 감소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본원소득수지도 세제개편 영향 등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2-6〉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1. 수출

수출(통관 기준)은 글로벌 IT경기 부진,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한 6,3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IT제품이 글로벌 금리인상 영향, 반도체 부문의 공급과잉 등으로 부진하였고, 비IT제품도 화공품·철강 등 경기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기계류는 미국 등에서의 신성장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출 부진을 일부 완충하였다.

〈표 2-5〉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 %)

구분	2022		2023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제품	2.5	〈34.1〉	△19.9	〈29.5〉
반도체	1.3	〈19.3〉	△23.8	〈15.9〉
무선통신기기	△10.4	〈2.5〉	△1.2	〈2.4〉
디스플레이패널	△1.1	〈3.1〉	△12.2	〈2.9〉
컴퓨터	7.8	〈2.6〉	△48.9	〈1.4〉
비IT제품	8.1	〈65.9〉	△1.1	〈70.5〉
화공품	6.6	〈14.3〉	△11.7	〈13.7〉
자동차	12.3	〈11.4〉	20.7	〈14.9〉
석유제품	63.1	〈9.3〉	△17.3	〈8.3〉
기계류	0.3	〈8.4〉	6.3	〈9.7〉
철강	5.1	〈8.1〉	△9.9	〈7.9〉
총수출[1)]	6.1	[6,836]	△7.5	[6,322]

주 :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2. 수입

수입(통관 기준)도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한 6,4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류의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여 큰 폭 줄어들었다. 자본재 및 소비재도 투자와 소비가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각각 전기·전자기기, 곡물·직접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표 2-6〉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

구분	2022		2023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30.1	〈53.8〉	△16.6	〈51.1〉
에너지	69.7	〈26.1〉	△22.8	〈23.0〉
자본재	7.5	〈31.3〉	△7.6	〈32.9〉
전기·전자기기	13.4	〈19.8〉	△10.7	〈20.1〉
기계류·정밀기기	△1.9	〈9.4〉	△3.8	〈10.3〉
(반도체제조장비)	△10.6	〈3.2〉	△8.4	〈3.3〉
소비재	9.1	〈14.9〉	△5.5	〈16.0〉
총수입[1)]	18.9	[7,314]	△12.1	[6,426]

주 : 1)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3.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팬데믹 이후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했던 공급병목, 해외 여행 제약 등이 완화되면서 적자폭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유사한 257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운송수지는 글로벌 상품교역 위축 여파로 해상운임이 하락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여행수지도 내국인의 해외관광 수요 급증으로 적자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가공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이 전년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표 2-7〉 서비스수지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비스수지	△268.5	△146.7	△52.9	△72.5	△256.6
가공서비스	△76.1	△52.6	△61.2	△62.1	△67.9
운송	△17.3	11.0	128.8	131.0	△15.5
여행	△118.7	△58.2	△70.3	△83.7	△125.3
건설	67.8	58.6	42.7	48.4	45.0
기타	△124.0	△105.5	△92.8	△106.2	△93.0

자료 : 한국은행

제3장 국내금융동향[1)]

제1절 금리

2023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이에 따른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 등락하였으며, 연중으로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월 중순에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3월 중순에는 SVB 사태 등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각각 1개월 및 3개월 정도 기준금리를 하회하였다. 이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 등으로 고금리 장기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미 국채금리와 함께 반등[2)]하였다가 11월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말 대비 0.57%p 하락한 3.15%를 기록하였다.

1) 한국은행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2) 국고채 3년물은 4.11%(10.4일), 10년물은 4.39%(10.26일)까지 상승하여 각각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3-1〉 국고채 금리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3]는 2023년 들어 2022년 하반기 PF-ABCP 시장 불안의 영향에서 벗어나 상당폭 축소되었다. 3~4월 중 SVB 파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한국은행[4]의 신속한 시장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

3) 회사채 신용스프레드(AA- 3년물 기준, 국고채 대비)는 2022년 12월말 148bp에서 2023년 2월말 69bp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3월말 83bp, 6월말 80bp로 확대되었다가 9월말 77bp, 12월말 74bp로 다시 축소되었다.

4) 한국은행은 SVB 파산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22.11.1일 시행)를 두 차례 연장(1.13일, 4.11일)하였다.

어 비교적 조기에 회복되었다.

〈그림 3-2〉 회사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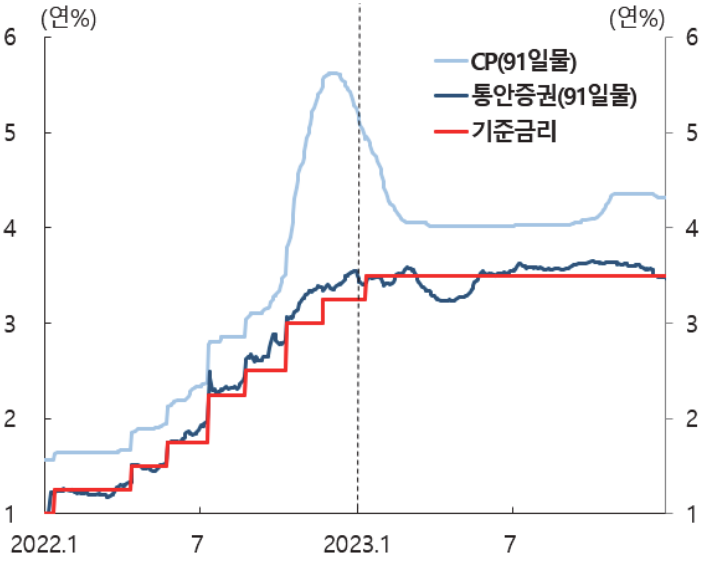
주 : 회사채(3년, AA-)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단기금리는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1월 중 25bp)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였다. 통화안정증권 (91일) 금리는 SVB 파산 사태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3월 하순 이후 기준금리를 상당폭 하회하였으나 5월 들어 장기금리 상승, 발행규모 확대[5]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며, 연말에는 기준금리 수준을 나타내었다. CP(91일, A1등급) 금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큰 폭 하락한 뒤 상당 기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연말을 앞둔 계절

5) 통안증권(91일) 발행액은 5월중 큰 폭 확대되었다.(2023.3월 4.4조원 → 4월 5.5조원 → 5월 8.5조원)

적 요인[6], 발행규모 확대[7]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3-3〉 주요 단기금리



자료 : 한국은행

6) 통상 4/4분기 중에는 CP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10월 이후 발행되는 3개월물의 경우 만기가 다음 해에 도래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연말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내 만기물을 선호하여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7) CP·단기사채는 정기예금 ABCP 등을 중심으로 10월 중 큰 폭 순발행 전환되었다(2023년 8월 -3.1조원 → 9월 -3.4조원 → 10월 +9.0조원).

제2절 주가

2023년 중 코스피는 주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중심의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연중으로는 큰 폭 상승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연초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SVB 파산 사태, 미국 지역은행 불안 등으로 일시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연준의 통화긴축 종료 기대감 및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상승하며 8월초 연고점(2,667, 8월 1일)을 기록하였다.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미 고용·물가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피벗 기대 확산과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등으로 반등하여 2022년말 대비 18.7% 상승한 2,655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하다 2차전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867, 2022년말 대비 27.6% 상승).

〈그림 3-4〉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 한국거래소

제3절 금융기관 여수신

1. 은행 수신 증가폭 축소

2023년 중 은행 수신은 2022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수시입출식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의 자금이동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출수요 둔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등 양호한 규제 비율 등으로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유인이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저축은행, 신협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일부 업권의 건전성 우려[8], 금리메리트 축소 등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가 상승, 대내외 긴축기조 완화기대 등으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9]

〈표 3-1〉 주요 금융기관 수신(기간 중 증감액 기준)

(단위 :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은행수신[1]	106.3	188.4	198.5	110.4	76.4
(수시입출식)	65.9	189.3	131.0	△104.9	△0.7
(정기예금)	48.3	△14.4	41.8	200.1	24.8
(시장성수신[2])	△14.6	14.6	33.9	16.6	40.2

8) 새마을금고 수신은 2023년 7월 들어 일부 금고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 유출된 바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 발족 등)에 힘입어 유출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9) 2023년 중 자산운용사 수신을 펀드 유형별로 보면 채권형펀드(+16.5조원) 및 주식형펀드(+12.1조원)는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었고, MMF(+18.3조원) 및 기타펀드(+50.5조원)로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운용회사[3]	98.6	42.2	93.9	45.4	93.7
상호저축은행	6.1	13.2	23.3	17.8	△13.1
신용협동기구[4]	60.7	50.1	69.4	86.0	34.9

주 :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혼합형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2.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가계대출 증가 전환

2023년 중 기업대출은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모두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 축소[10]되었다. 한편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 대출은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면서[11]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원대출의 상환이 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 매매거래 증가[12] 및 대출규제 완화[13], 주택금융

10) 2023년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2015년(+10.7조원)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11) 기업들은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로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정금리부 장기 회사채 보다 변동금리부 은행대출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12) 주택 매매거래는 2022년 하반기 중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3년 2월 이후 증가

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등 정책 금융 상품[14] 공급 확대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기타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하였다. 다만 높은 금리수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예금은행 기타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표 3-2〉 금융기관 대출(기간 중 증감액 기준)

(단위 :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업대출	90.2	169.6	171.5	198.0	102.9
은행	47.7	110.8	94.1	114.9	88.0
(대기업)	△1.8	20.9	9.0	44.3	37.3
(중소기업)	49.4	90.0	85.1	70.6	50.7
비은행예금취급기관[1]	42.5	58.8	77.4	83.1	14.9
가계대출[2]	58.3	128.7	123.5	△7.8	18.4
예금은행	54.6	82.2	60.2	△7.5	13.4
(주택담보대출)	39.7	49.9	45.7	14.6	28.0
(기타대출)	14.9	32.2	14.6	△22.1	△14.6
비은행예금취급기관[3]	△4.5	7.6	27.6	△6.0	△27.6
기타금융기관 등[4]	8.1	39.0	35.7	5.7	32.6

주 :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3) 주택가격에 따른 LTV 차등적용 폐지 및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2022년 12월),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2023년 3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14)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외에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제Ⅱ편 제주경제 여건 및 동향

제4장 제주경제여건

제1절 개황

1. 경제규모

2023년 중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26.0조 원으로 전년대비 1.7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08%로 전년에 비해 0.0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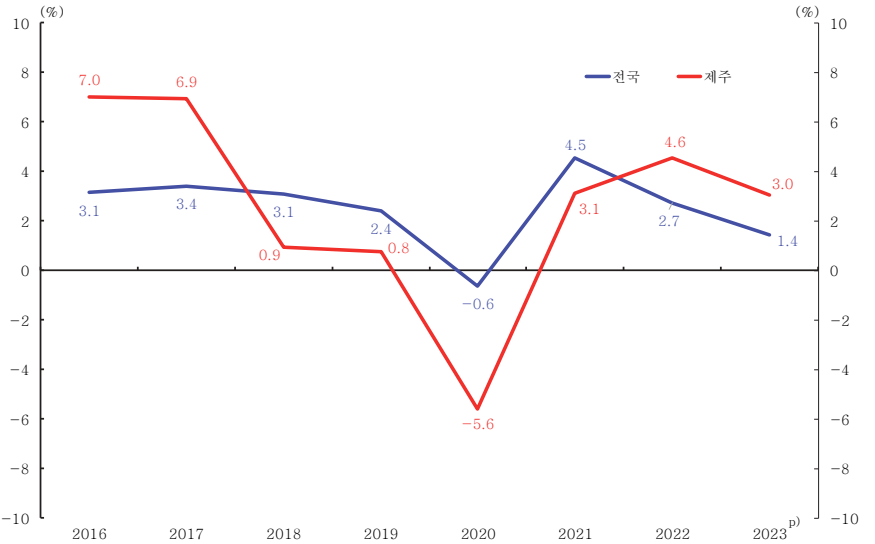
<그림 4-1>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및 전국대비 비중

주 : 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

2. 경제성장률

2023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인 3.0%를 기록하였다. 이는 내국인 관광객 하락세로 인한 숙박 및 음식점업(기여도 -14.7) 부진 등 관광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4-2〉 전국 및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주 : 2020년 기준년가격(연쇄)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표 4-1> 전국 및 제주지역 성장 기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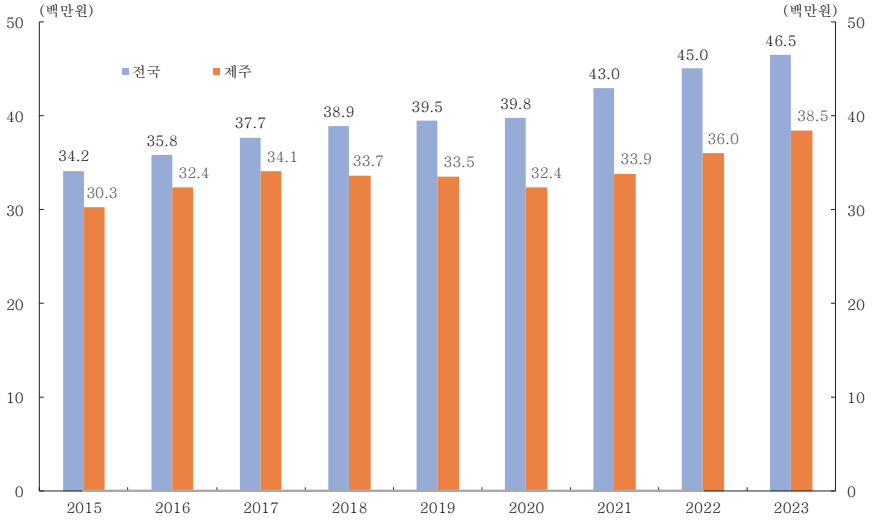
구분	제 주					전 국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0.8	△5.6	3.1	4.6	3.0	2.4	△0.6	4.5	2.7	1.4
농림어업	△0.5	0.1	0.2	0.5	0.8	0.1	△0.1	0.1	0.0	0.0
광업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0.2	△0.1	0.2	△0.1	0.0	0.1	△0.5	1.7	0.7	0.5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0	0.2	0.0	0.3	△0.1	0.1	0.1	0.1	0.1	0.0
건설업	△0.8	△1.5	△1.2	0.1	1.0	△0.1	0.0	△0.1	0.1	0.2
서비스업	2.4	△3.5	3.6	3.7	1.3	2.2	△0.1	2.4	2.2	1.3

자료 : 통계청

3. 1인당 GRDP

2023년 중 제주지역 1인당 GRDP는 3,845만 원 수준으로 전국평균(4,649만 원)의 82.7% 수준이다. 이는 산업구조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낮고 농림어업,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다 지역내 기업체들도 상당수가 규모가 작고 영세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4-3〉 전국 및 제주지역 1인당 GRDP 추이



주 : 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

〈표 4-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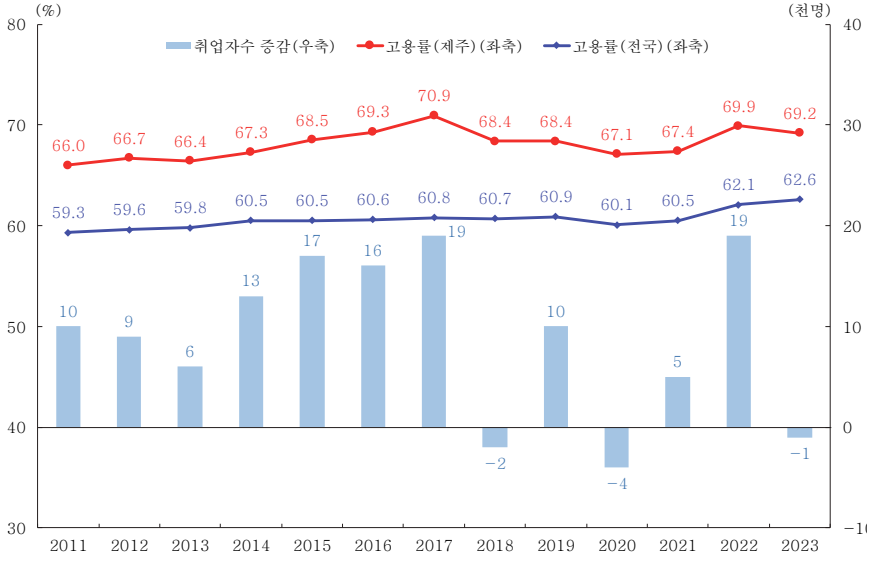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종사자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 ~ 9명	95.4	96.4	53.7	46.5
10 ~ 49명	4.0	3.1	22.4	18.7
50 ~ 99명	0.4	0.3	7.4	5.9
100 ~ 299명	0.2	0.1	8.3	7.8
300명 이상	0.0	0.1	8.2	21.0

주 : 202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4. 고용

2023년 중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농업·임업 및 어업(-1.1만 명), 건설업(-0.2만 명) 등은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2만명)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40.2만 명)과 비슷한 40.1만명을 기록하였다. 고용률은 69.2%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0.7%p)하였다.

〈그림 4-4〉 제주지역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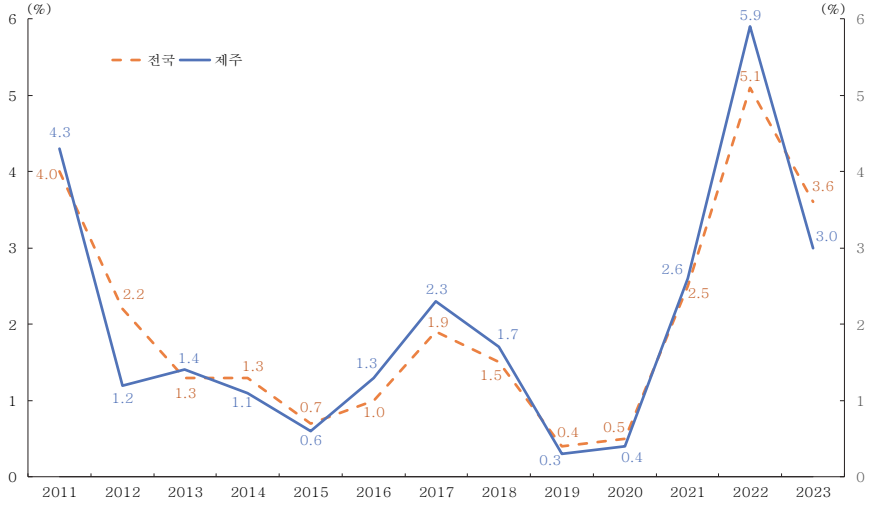


주 : 고용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기준
자료 : 통계청

5. 물가

2023년 중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5%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전기·가스·수도가 전년대비 19.3%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개인서비스와 공공서비스는 각각 4.3%, 1.2% 상승하였다.

〈그림 4-5〉 전국 및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표 4-3〉 전국 및 제주지역 물가상승률

(단위 : %)

구분	제 주					전 국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비자물가지수	0.3	0.4	2.6	5.9	3.0	0.4	0.5	2.5	5.1	3.6
생활물가지수	0.3	0.8	3.5	6.4	3.3	0.2	0.4	3.2	6.0	3.9
신선식품지수	△3.7	8.1	6.5	5.2	7.3	△5.1	9.0	6.2	5.4	6.8

자료 : 통계청

제2절 경제구조

1. 산업구조

제주경제에서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3%와 10.2%로 전국평균(63.7% 및 1.6%)에 비해 각각 14.6%p 및 8.5%p가 높다. 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국평균(27.6%)보다 24.2%p 낮은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관광지역 특성으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이, 특별자치 행정구역 특성에 기인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 등이 전국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국 및 제주지역 산업별 GRDP 비중

(단위 : %, %p)

구분	제주(A)	전국(B)	(A - B)
농림어업	10.2	1.6	8.5
광업	0.1	0.1	0.0
제조업	3.4	27.6	△2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8	1.2	△0.4
건설업	7.2	5.8	1.4
서비스업	78.3	63.7	14.6
도매 및 소매업	8.5	9.2	△0.7
운수업	5.4	4.1	1.3
숙박 및 음식점업	8.0	2.8	5.1
정보통신업	3.2	4.9	△1.6
금융 및 보험업	5.6	6.2	△0.6
부동산업	10.3	7.2	3.2
사업서비스업	6.3	8.5	△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3.3	7.0	6.3
교육 서비스업	5.9	4.7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5	5.9	0.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3	3.2	2.1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0	100.0	0.0

주 : 2023년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2. 지출구조

제주지역은 최종소비지출과 건설투자를 통한 총자본형성이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순이입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전국에 비해 22.3%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광관련 서비스업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비중이 큰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총자본형성은 지식생산생산물 투자 등의 영향으로 전국보다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제주 및 전국 지출구조

(단위 : %, %p)

구분	제주(A)	전국(B)	(A - B)
최종소비지출	89.8	67.5	22.3
민간최종소비지출	61.4	49.9	11.5
정부최종소비지출	28.4	17.6	10.8
총자본형성	30.4	32.2	△1.8
총고정자본형성	30.3	32.0	△1.7
건설투자	19.1	15.3	3.8
설비투자	8.2	9.6	△1.5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3.0	7.1	△4.1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이득	0.1	0.2	△0.1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	△19.8	0.3	△20.1
통계상 불일치	△0.4	0.0	△0.4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100.0	100.0	0.0

주 : 2023년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3.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22년 말 현재 제주도내 사업체 수는 약 9.6만 개로 전국(614.0만 개)의 1.6%수준이다. 업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종이 전체 사업체의 84.2%를 차지하여 전국보다 3.8%p 높은 수준이며, 그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는 24.6%로 전국보다 10.6%p가 높다. 종사자 수는 32.0만 명으로 전국(2,521.7만 명)의 1.3% 수준이며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도 서비스업종이 84.1%로 전국보다 10.2%p 높다. 세부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중이 18.7%로 전국보다 9.9%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6〉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천 개, 천 명, %)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제주	비중	전국	비중	제주	비중	전국	비중
농림어업	0.8	0.8	13.1	0.2	3.5	1.1	66.6	0.3
광업	0.0	0.0	1.9	0.0	0.2	0.1	14.4	0.1
제조업	3.7	3.8	586.5	9.6	13.6	4.2	4,253.9	16.9
건설업	9.5	9.9	494.2	8.0	29.9	9.3	1,955.6	7.8
서비스업	81.1	84.2	4,939.1	80.4	269.5	84.1	18,631.6	73.9
도매 및 소매업	21.3	22.2	1,519.5	24.7	49.6	15.5	3,577.4	14.2
운수 및 창고업	8.2	8.5	644.4	10.5	17.1	5.3	1,383.5	5.5
숙박 및 음식점업	23.7	24.6	858.6	14.0	60.1	18.7	2,215.2	8.8
정보통신업	1.0	1.1	128.0	2.1	5.6	1.8	872.9	3.5
금융 및 보험업	0.9	0.9	65.1	1.1	8.8	2.8	731.2	2.9
부동산업	4.0	4.2	290.1	4.7	7.1	2.2	692.0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	2.9	226.6	3.7	10.1	3.2	1,436.8	5.7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제주	비중	전국	비중	제주	비중	전국	비중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8	2.9	138.2	2.3	14.0	4.4	1,300.1	5.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2	0.2	12.6	0.2	18.1	5.7	889.0	3.5
교육 서비스업	3.8	4.0	256.1	4.2	22.8	7.1	1,723.1	6.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3	2.3	167.1	2.7	29.2	9.1	2,457.5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	2.8	144.9	2.4	12.4	3.9	444.3	1.8
기타서비스업	7.3	7.6	488.0	7.9	14.4	4.5	908.6	3.6
기타	1.3	1.3	105.0	1.7	3.9	1.2	294.9	1.2
합계	96.3	100.0	6,139.9	100.0	320.4	100.0	25,217.1	100.0

주 : 2022년 기준 “기타”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자료 : 통계청

4. 기업경영 현황

제주지역 기업들은 주로 관광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어 2021, 2022년중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인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증가율도 상승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모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다만 동 기간중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차입금의존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는 소폭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7〉 주요 기업경영분석 지표

(단위 : %)

구분		전산업			
		제주		전국	
		2021	2022	2021	2022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6.8	16.5	17.0	15.1
	총자산증가율	8.1	9.4	12.7	9.7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6.3	7.5	5.6	4.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8.7	12.0	6.5	4.6
안정성	부채비율	137.5	139.2	120.3	122.3
	차입금의존도	36.1	35.4	30.2	31.3

자료 : 한국은행

제5장 실물경제동향

제1절 개황

2023년 제주지역 경제는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제약으로 관광 특수효과를 누리던 2021~22년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관광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둔화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관광경기 부진에 따라 식료품 및 음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비금속광물 생산의 경우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농림어업은 농산물 출하액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축산물 및 수산물 생산의 부진세는 완화되었다.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소비는 앤데믹 이후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수주액과 착공면적이 큰 폭 감소하고 허가면적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2022년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감소 전환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제조업 및 건설업은 감소 전환하였다. 농림어업의 감소폭도 더욱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국 수준을 0.6%p 하회하는 3.0%로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큰 폭 축소되었다. 이는 상품가격이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

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오름세가 둔화되고, 서비스가격 또한 관광객 소비 등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다.

〈표 5-1〉 제주지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관광객 수	17.3	15.7	△3.7	2.7	△7.3	△4.8	△4.5
농산물 출하액	3.9	6.9	5.4	6.3	△1.8	△7.2	20.9
수산물 출하량	△5.9	△12.7	△1.0	8.5	△5.4	7.8	△11.3
축산물 출하량	△3.4	△2.2	3.3	△0.6	3.4	4.6	6.2
제조업 생산	5.5	0.2	△2.9	1.4	△2.1	△3.0	△7.2
소매판매액지수[1]	5.9	0.6	△4.1	0.4	△6.5	△7.2	△2.9
신용카드 사용액[2]	6.9	13.0	△1.8	9.3	△6.8	△4.5	△3.4
소비자심리지수[3]	102.2	96.8	94.4	88.5	95.7	98.7	94.6
건설수주액	65.7	74.1	△27.8	△17.6	△18.5	△32.1	△44.0
건축허가면적	20.1	33.5	8.9	28.3	△18.3	△1.6	46.4
건축착공면적	24.8	9.3	△39.6	△36.5	△15.3	△63.5	△43.3
취업자 수 증감(만 명)	0.5	1.9	△0.1	△0.1	0.4	0.1	△0.7
실업률	3.1	2.1	1.9	2.7	2.1	1.4	1.4
소비자물가	2.6	5.9	3.0	4.4	2.6	2.2	2.7
주택매매가격[4]	6.6	△0.2	△2.3	△1.0	△0.8	△0.3	△0.2
주택전세가격[4]	5.3	0.0	△2.2	△1.1	△0.8	△0.2	△0.1
수출[5]	45.8	△13.9	△0.1	△22.6	△21.1	18.8	28.2
수입[5]	24.5	17.9	9.6	△15.0	△10.0	△20.2	95.0

주 : 1) 불변지수(2020년 = 100) 기준
2) 제주지역 가맹점 기준 개인사용 실적
3) 기준 = 100, 연간 및 분기자료는 월평균
4) 전기대비
5) 통관기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은행,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제2절 산업활동동향

1. 생산

가. 관광

2023년 중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1,337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전년대비 8.3% 감소한 1,266만 명이 제주를 방문하였다. 개별관광객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본격화로 전년대비 8.6% 감소하였다. 단체관광객도 수학여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제주공항 국제선 증편 및 크루즈 운항 재개 등으로 전년대비 720.6%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일본인 관광객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표 5-2〉 제주방문 관광객 수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관광객 수	17.3	15.7	△3.7	2.7	△7.3	△4.8	△4.5
내국인	19.3	15.4	△8.3	1.1	△11.1	△11.4	△10.3
(개별관광)	18.3	12.9	△8.6	△1.2	△14.4	△10.3	△7.0
(단체관광[1)])	83.1	115.9	△2.4	132.6	86.9	△31.3	△49.6
외국인	△77.3	79.1	720.6	468.6	1,018.8	1,086.2	488.4
(일본)	△87.3	230.6	1,564.6	1,332.5	4,063.3	4,083.2	248.4
(중국)	△93.8	55.0	4,050.6	127.8	4,742.2	4,876.6	4,272.6

주 : 1) 10인 이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농축수산업

2023년 제주지역 농산물 출하액은 기상 호조에 따른 감귤 상품성 개선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수산물 출하량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수온 상승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다. 또한 축산물 출하량도 돼지 사육두수 및 도축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표 5-3〉 제주지역 농축수산물 출하 현황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농산물 출하액	3.9	6.9	5.4	6.3	△1.8	△7.2	20.9
수산물 출하량	△5.9	△12.7	△1.0	8.5	△5.4	7.8	△11.3
(갈치)	△3.9	△7.5	1.5	△3.3	△6.7	13.7	△8.2
(양식넙치)	△8.4	4.8	△6.4	7.7	△6.3	△10.1	△14.4
축산물 출하량	△3.4	△2.2	3.3	△0.6	3.4	4.6	6.2
(소)	△2.6	6.3	△1.8	8.2	△9.0	6.2	△13.2
(돼지)	△3.4	△2.3	3.3	△0.7	3.5	4.5	6.3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다. 제조업

2023년 제주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대비 2.9%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및 음료가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에 따라 각각 4.4%, 7.4% 감소하였다. 비금속광물은 건설경기 부진에도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투자가 증가하며 0.9% 증가하였다.

한편 제조업 출하는 5.1% 증가하였고, 재고는 29.0% 감소하였다.

〈표 5-4〉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출하·재고지수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제조업 생산	5.5	0.2	△2.9	1.4	△2.1	△3.0	△7.2
(식료품)	2.5	3.3	△4.4	△4.7	△10.9	△2.0	0.1
(음료)	4.4	0.7	△7.4	6.3	△5.1	△10.7	△18.4
(비금속광물)	4.1	1.4	0.9	2.2	18.9	△8.4	△7.3
제조업 출하	4.5	△0.8	5.1	5.6	6.2	5.5	3.4
제조업 재고	△1.7	△20.7	△29.0	△35.5	△38.3	△34.7	△29.0

자료 : 통계청

2. 수요

가. 소비

2023년 중 제주지역 소비는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를 반영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대비 4.1%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면세점은 19.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94.4를 기록하였다. 한편 도민 및 내국인 관광객의 전반적인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하였다.

〈표 5-5〉 제주지역 소비관련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소매판매액지수[1]	5.9	0.6	△4.1	0.4	△6.5	△7.2	△2.9
면세점	27.0	0.6	△19.0	△31.1	△27.5	△15.1	2.7
대형마트	1.4	△3.6	△0.6	△5.9	0.7	2.5	0.0
신용카드 사용액[2]	6.9	13.0	△1.8	9.3	△6.8	△4.5	△3.4
소비자심리지수[3]	102.2	96.8	94.4	88.5	95.7	98.7	94.6

주 1) 불변지수(2020년 = 100) 기준
2) 제주지역 가맹점 기준 개인사용 실적
3) 기준 = 100, 연간 및 분기자료는 월평균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나. 건설투자

2023년 제주지역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액 및 건축착공면적은 감소 전환하였고 건축허가면적은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건설수주액은 민간을 중심으로 부진하여 전년대비 27.8% 감소했고 건축착공면적은 39.6% 감소했다. 건축허가면적은 공공부분 관급 공사 발주 등으로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8.9% 증가하였다.

〈표 5-6〉 제주지역 건설투자관련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건설수주액	65.7	74.1	△27.8	△17.6	△18.5	△32.1	△44.0
(민간)	128.8	77.6	△40.6	△33.1	△55.7	△32.2	△37.1
(공공)	△19.9	64.3	25.1	141.6	189.4	△30.7	△49.6
건축허가면적	20.1	33.5	8.9	28.3	△18.3	△1.6	46.4
(주거)	44.4	75.2	△18.2	△2.1	△53.9	△3.2	11.5
(비주거)	7.5	4.6	40.4	51.7	35.6	0.1	88.0
건축착공면적	24.8	9.3	△39.6	△36.5	△15.3	△63.5	△43.3
(주거)	57.9	19.1	△49.4	△38.4	△20.2	△79.1	△53.9
(비주거)	5.6	0.8	△29.6	△34.9	△10.6	△41.3	△33.6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국토교통부

3. 기타 경제동향

가. 고용

2023년 중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실업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69.2%를 나타냈다.

〈표 5-7〉 제주지역 고용관련 지표

(단위 : 만 명,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경제활동인구(A=B+C)	39.5	41.0	40.9	40.3	40.9	41.1	41.2
취업자 수(B)	38.3	40.2	40.1	39.2	40.1	40.5	40.6
(전년동기대비 증감)	0.5	1.9	△0.1	△0.1	0.4	0.1	△0.7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실업자 수(C)	1.2	0.9	0.8	1.1	0.9	0.6	0.6
경제활동참가율	69.6	71.4	70.6	69.7	70.7	70.8	71.0
고용률	67.4	69.9	69.2	67.8	69.2	69.9	70.0
실업률	3.1	2.1	1.9	2.7	2.1	1.4	1.4

주 : 분기 및 연간자료는 월평균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1.4만명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1.2만명 감소하였고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수도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수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0만명 증가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는 6.7만명 감소하였다.

〈표 5-8〉 제주지역 산업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만 명)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취업자 수 증감		0.5	1.9	△0.1	△0.1	0.4	0.1	△0.7
산업별	농림어업	△0.7	△0.4	△1.2	△0.8	△1.3	△1.3	△1.2
	제조업	0.2	0.1	△0.1	△0.1	0.0	△0.1	△0.3
	건설업	0.3	0.0	△0.2	△0.4	0.2	△0.3	△0.4
	서비스업	0.7	2.1	1.4	1.2	1.5	1.9	1.2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	△4.1	2.3	△6.7	△6.2	△10.4	△6.6	△3.5
	임금	8.9	16.5	6.0	5.3	14.5	7.7	△3.4
	(상용)	12.5	10.4	8.9	12.2	10.2	9.4	3.8
	(임시·일용)	△3.7	6	△2.9	△6.9	4.4	△1.7	△7.3

주 : 분기 및 연간자료는 월평균
자료 : 통계청

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2023년 중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3.0% 상승하면서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상품은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며 상품가격 상승세 둔화를 주도하였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며 전년대비 4.3%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 가격은 전년대비 1.2% 상승하였다. 생활물가도 전기·수도·가스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의해 전년대비 3.3% 상승하였다.

〈표 5-9〉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소비자물가	2.6	5.9	3.0	4.4	2.6	2.2	2.7
(전국)	2.5	5.1	3.6	4.6	3.3	3.1	3.4
상품	4.0	7.5	2.9	4.8	1.4	2.1	3.4
(농축수산물)	8.9	4.8	2.5	2.6	0.8	1.1	5.6
(공업제품)	3.2	8.0	2.0	4.1	0.4	1.4	2.4
(전기·수도·가스)	△0.6	10.1	19.3	25.1	21.9	19.6	11.8
서비스	1.3	4.4	3.0	4.1	3.6	2.3	2.2
(공공서비스)	0.7	1.1	1.2	1.5	1.0	1.0	1.2
(개인서비스)	1.9	6.6	4.3	5.9	5.3	3.1	2.8
생활물가지수	3.5	6.4	3.3	4.9	2.5	2.6	3.4

자료 : 통계청

2023년 중 제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각각 전년대비 2.3%, 2.2%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각각 전년대비

4.5%, 4.5%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둔화세는 대출금리 부담, 투자심리 등으로 주택시장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도 전년대비 0.4% 하락하였다.

〈표 5-10〉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단위 : 전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주택매매가격	6.6	△0.2	△2.3	△1.0	△0.8	△0.3	△0.2
(아파트)	18.5	△1.4	△4.5	△2.0	△1.6	△0.6	△0.4
주택전세가격	5.3	0.0	△2.2	△1.1	△0.8	△0.2	△0.1
(아파트)	14.0	△0.6	△4.5	△2.4	△1.6	△0.4	△0.2
토지가격	1.8	1.9	△0.4	△0.3	△0.1	0.0	△0.1

주 :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 기준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다. 수출입

2023년 중 제주지역 총 수출액은 1억 9,424만 달러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상품별로 보면 전자전기제품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7.5% 감소하고 농림수산품도 5.2% 감소하며 수출액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수입액도 5억 4,035만 달러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항공기 수입으로 기계류 수입이 전년 대비 155.2% 상승한 데 기인하였다.

〈표 5-11〉 제주지역 수출입관련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수출액	45.8	△13.9	△0.1	△22.6	△21.1	18.8	28.2
농림수산물	15.5	△9.8	△5.2	10.0	△22.8	△18.0	5.7
전자전기제품	86.9	△16.5	△7.5	△43.5	△27.9	25.5	39.8
수입액	24.5	17.9	9.6	△15.0	△10.0	△20.2	95.0
화학공업제품	12.6	10.3	△33.1	△39.5	△39.5	△31.5	△16.8
농림수산물	32.5	2.6	△18.1	△23.4	△33.4	△10.6	1.4
기계류	66.6	67.5	155.2	0.8	109.0	1.8	559.3
전자전기제품	3.4	17.9	△12.4	△12.2	△20.5	△46.9	46.1

주 : 분기 및 연간자료는 월평균
자료 : 통계청

제6장 지역금융동향

제1절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2023년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은 모두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다만 예금은행 수신규모가 전년말 대비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증가세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원화대출금)은 39.3조 원, 수신(원화예수금 및 시장성수신)은 37.2조 원으로 각각 전년 말 대비 2.2%(+0.9조 원), 1.0%(+0.4조 원) 증가하였다.

〈표 6-1〉 제주지역 여수신 규모[1)]

(단위 :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액	증가율
여신	예금은행	18.3	20.2	21.1	21.6	22.0	0.4	1.8
	비은행금융기관[2)]	12.8	13.7	15.4	16.9	17.3	0.5	2.7
	계	31.1	33.9	36.5	38.5	39.3	0.9	2.2
수신	예금은행	10.2	10.7	11.3	13.3	12.8	△0.5	△3.9
	비은행금융기관[2)]	20.2	20.2	20.8	23.5	24.4	0.9	3.8
	계	30.5	30.9	32.1	36.8	37.2	0.4	1.0

주 : 1) 말잔 기준
2)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우체국, 자산운용사 등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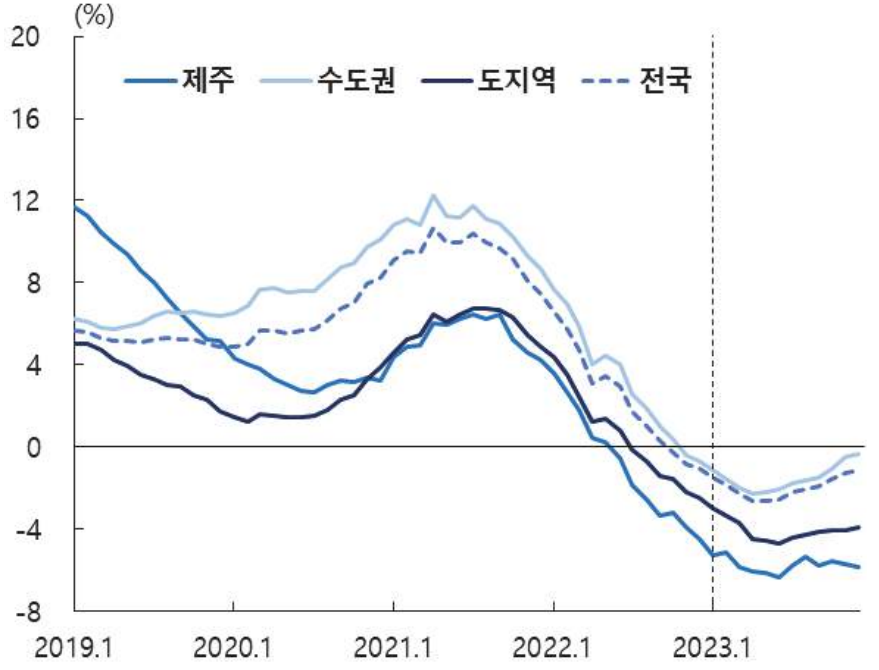
2023년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감소세 지속

2023년 말 제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5.9조 원(전국의 1.3%)으로 전년 말 대비 5.8% 감소(-1.0조 원)하였다. 제주지역의 가계대출 증감율은 2022년 6월 전년대비 −0.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감소전환한 이후 감소세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금은행(-0.3조 원, -3.5%)과 비은행금융기관(-0.7조 원, -8.5%)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 사태, 금리메리트 축소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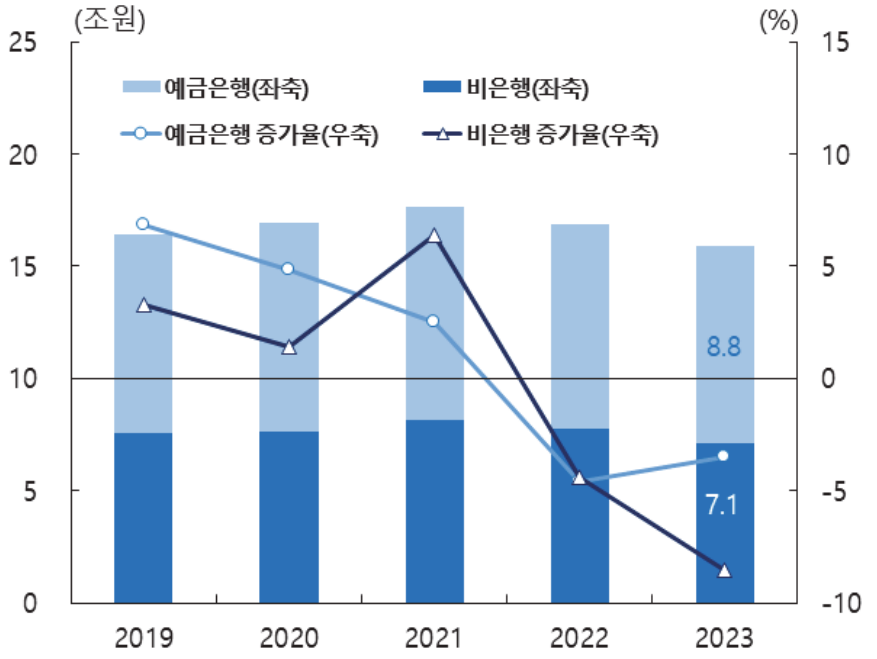
제주지역 가계대출 감소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높은 금리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은(+0.03조 원)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타대출(-1.0조 원)이 크게 줄며 전체 가계대출 감소를 이끌었다.

〈그림 6-1〉 가계대출[1] 증감률[2]



주 : 1)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
2)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2〉 권역별 가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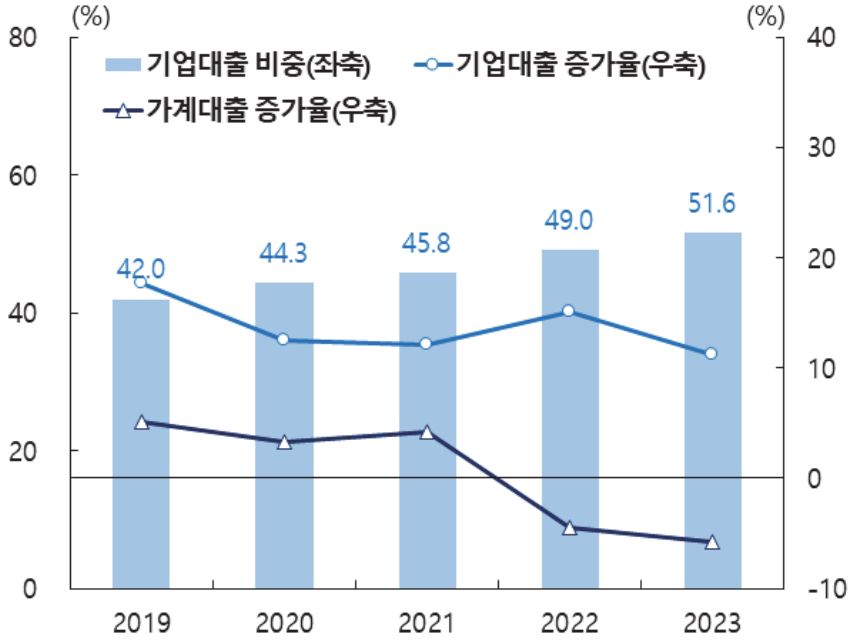
주 : 가계대출은 말잔,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2023년 말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전년 말 대비 7.5% 증가한 20.7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수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경기 둔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감소하였다. 다만 2023년 중 기업대출은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 전체 대출 중 기업대출의 비중(49.0→51.6)이 증가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산업별[1]로는 공공행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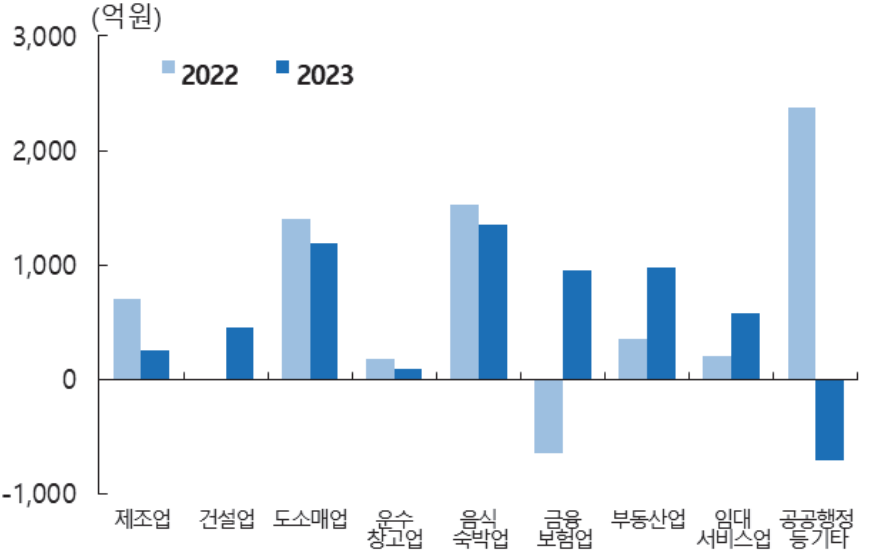
〈그림 6-3〉 기업대출비중



주 :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1) 예금은행 기준(비은행 금융기관의 산업별 기업대출은 시계열 제약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

〈그림 6-4〉 산업별 기업대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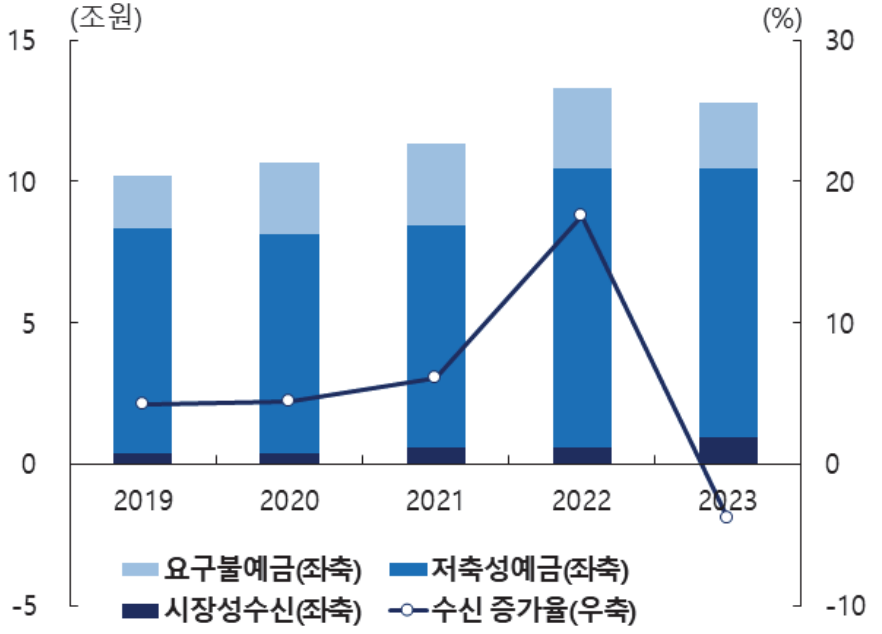
주 : 예금은행 기준
자료 : 한국은행

3. 은행 수신 감소 전환에 따른 수신 증가폭 축소

2023년 말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0% 증가한 37.2조 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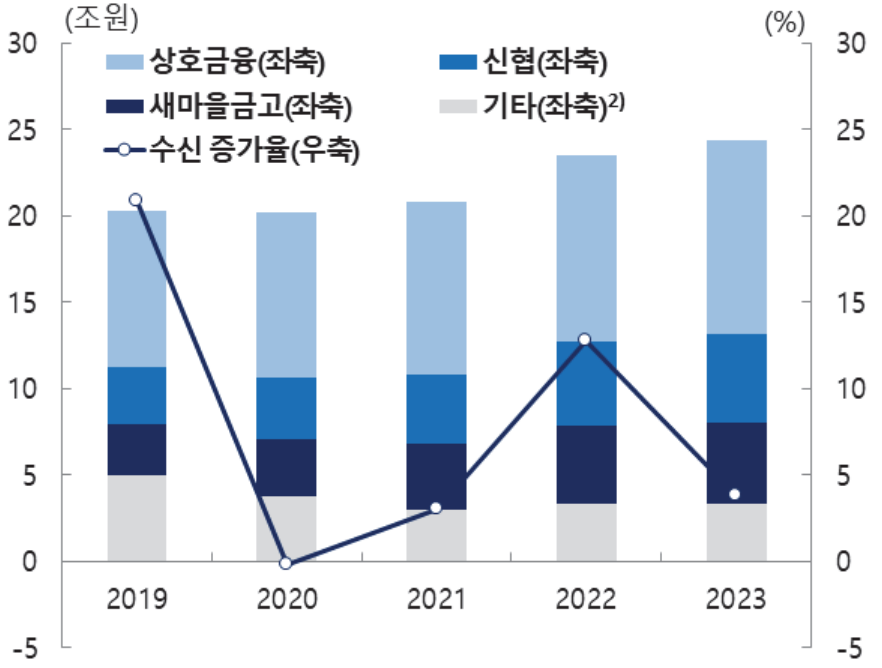
금융기관 권역별로는 예금은행(+2.0조→-0.6조 원, 전년 말 대비 -3.9%) 수신은 감소 전환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2.7조 원→+0.9조 원, 전년 말 대비 +3.8%)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그림 6-5〉 예금은행 상품별 수신(말잔)



주 : 수신은 말잔,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6〉 비은행금융기관 기관별 수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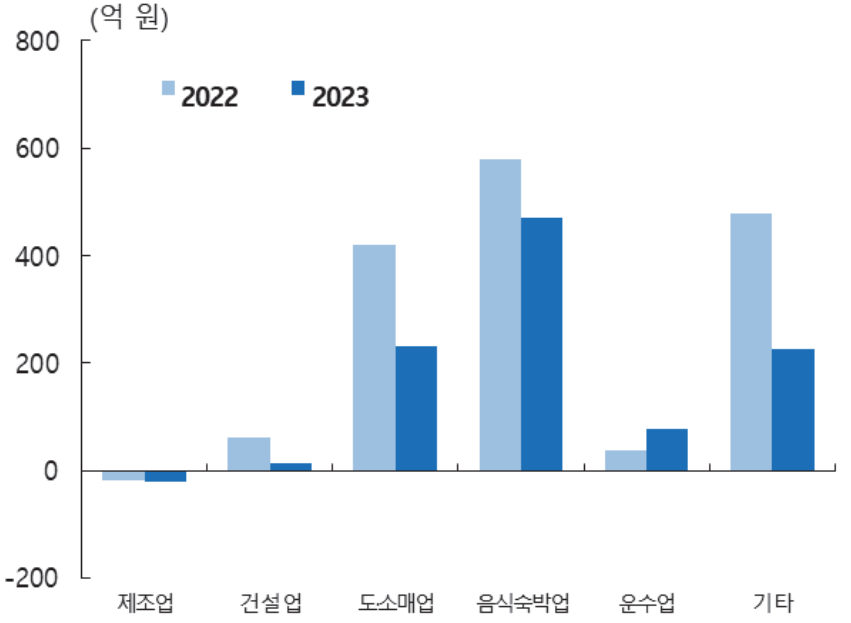
주 : 1) 수신은 말잔,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기준
2) 저축은행, 우체국, 신탁계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제2절 기타 자금사정

2023년 말 제주지역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1.5조 원으로 전년 말(1.4조 원) 대비 995억 원 증가하였다.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보증잔액이 증가하였으나 증가 규모는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업종별 증감액은 음식숙박업(469억 원), 도소매업(230억 원), 운수업(77억 원) 등을 기록하였다.

〈그림 6-7〉 업종별 보증규모 증감



주 : 전년 말 대비 증감
자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2023년 중 제주지역 어음부도율은 0.48%로 전년 대비 높은 상승폭(+0.46%p)을 나타내었다. 이는 2023년 어음교환액이 2.9조원으로 전년대비 9천억원 감소한 반면 어음부도액은 138.8억원으로 전년대비 132.1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23년 중 부도업체 수는 총 4개로 전년보다 2개 증가하였다.

〈표 6-2〉 제주지역 어음교환 및 부도

(단위 : 억 원, %, 개)

구분	어음교환액	어음부도액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2019	36,257.4	59.0	0.16	5
2020	31,631.2	11.6	0.04	4
2021	31,311.9	134.7	0.43	1
2022	37,852.9	6.7	0.02	2
2023	29,193.7	138.8	0.48	4

자료 : 한국은행

제7장 지역부동산 동향

제1절 부동산 현황

1. 토지

가. 지목별 현황

2022년 제주도의 토지면적은 1,850.2㎢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8%[1]에 해당한다.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861.5㎢(제주도 토지면적의 46.6% 비중)이며, 그 다음은 전으로 353.0㎢(19.1%)이다. 행정구역별로는 제주시가 978.8㎢(비중 52.9%), 서귀포시가 871.5㎢(비중 47.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 1차 산업에 투입되는 토지(임야, 전, 과수원, 목장용지 등)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 제주도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 %)

구분	임야	전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대지	기타	합계
2018	867.8	357.5	162.1	153.7	88.4	74.5	146.2	1,850.2
2019	866.3	356.5	161.3	152.2	89.1	76.6	148.2	1,850.2
2020	864.7	355.3	160.7	151.7	89.6	78.3	149.9	1,850.2
2021	862.9	354.1	160.0	150.4	90.0	79.7	153.1	1,850.2

1)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00,444㎢이다(국토교통부 지적통계 연보).

구분	임야	전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대지	기타	합계
2022	861.5	353.0	159.7	150.0	90.3	81.4	154.3	1,850.2
비중	46.6	19.1	8.6	8.1	4.9	4.4	8.3	100.0
제주시	438.7	202.1	57.1	96.9	50.8	48.2	85.0	978.8
비중	44.8	20.6	5.8	9.9	5.2	4.9	8.7	100.0
서귀포시	422.8	150.9	102.6	53.0	36.7	33.2	72.3	871.5
비중	48.5	17.3	11.8	6.1	4.2	3.8	8.3	100.0

자료 : 2022년 기준 제63회 제주통계연보

나. 용도지역별 현황

2022년 제주도의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면적은 469.7㎢로 전체 면적에서 22.9%를 차지하며, 비도시지역의 면적은 1,581.0㎢로 77.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여 보면 도시지역은 0.9㎢(0.2%) 감소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은 0.3㎢(0.02%) 증가하였다.

〈표 7-2〉 제주도 토지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 %)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소계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소계	
2018	53.2	6.9	5.4	389.0	16.2	470.6	1,085.8	107.9	386.9	1,580.7	2,051.3
2019	53.2	6.9	5.4	389.0	16.2	470.6	1,085.8	107.9	386.9	1,580.7	2,051.3
2020	53.3	6.7	5.4	388.2	16.2	469.7	1,086.2	107.9	386.9	1,581.0	2,050.7
2021	53.2	6.7	5.4	388.2	16.2	469.7	1,086.2	107.9	386.9	1,581.0	2,050.7
2022	53.2	6.7	5.4	388.2	16.2	469.7	1,086.2	107.9	386.9	1,581.0	2,050.7
비중	2.6	0.3	0.3	18.9	0.8	22.9	53.0	5.3	18.9	77.1	100.0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소계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소계	
제주시	29.5	4.2	3.5	183.8	9.2	230.3	596.9	37.7	238.1	872.7	1,103.0
비중	2.7	0.4	0.3	16.7	0.8	20.9	54.1	3.4	21.6	79.1	100
서귀포시	23.7	2.4	1.9	204.5	7.0	239.4	489.3	70.2	148.8	708.3	947.7
비중	2.5	0.3	0.2	21.6	0.7	25.3	51.6	7.4	15.7	74.7	100.0

주 : 〈표 7-1〉의 면적과 〈표 7-2〉의 면적이 다른 이유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항만, 공유수면 등의 면적에 기인함
자료 : 2022년 기준 제63회 제주통계연보

2. 주택

가. 주택 현황

2023년 제주도의 주택은 257.9천호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99.4천호(비중 38.6%), 아파트는 81.5천호(비중 31.6%), 연립주택은 33.1천호(비중 12.8%)이다.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19.8%, 아파트는 64.6%, 연립주택은 2.8%[2]임을 감안해 보면 제주도는 전국 및 여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의 주택은 181.3천호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서귀포시의 주택은 76.1천호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2)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9,546천호이며 단독주택은 3,861천호, 아파트는 12,632천호, 연립주택은 539천호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가구 주택을 한 동으로 계산하는지와 구분거처 호수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주택수가 달라짐을 유의하기 바란다.

〈표 7-3〉 제주도 주택 유형별 현황

(단위 : 천호, %)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합계
2019	94.7	14.5	76.5	29.5	35.4	5.7	241.8
2020	95.9	14.2	78.1	30.6	35.9	5.9	246.5
2021	96.8	11.0	79.4	31.1	36.2	6.1	249.6
2022	97.9	14.2	80.0	31.9	36.8	6.2	252.9
2023	99.4	14.2	81.5	33.1	37.6	6.3	257.9
비중	38.6	5.5	31.6	12.8	14.6	2.5	100.0
제주시	63.8	11.1	61.4	21.4	30.4	4.3	181.3
비중	35.2	6.1	33.9	11.8	16.8	2.4	100.0
서귀포시	35.7	3.2	20.1	11.7	7.1	2.0	76.6
비중	46.6	4.2	26.2	15.3	9.3	2.6	100.0

자료 : 통계청

나.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3]은 주택 수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지표로써 100%를 넘었다는 의미는 일반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2022년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은 104.3%로 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전국(102.1%)보다 2.2%p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하락한 이유는 주택 수 증가에 비해 일반가구 수가 더 증가하

3)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로 산정한다. 여기서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이고, 일반가구수는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혈연가구수로서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이다.

였기 때문이다. 주택 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나 가구 수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은 11번째 순이다. 제주도보다 주택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수도권(서울 93.7%, 인천 97.9%, 경기 98.6%)과 대전(97.2%), 대구(101.4%), 부산(102.6%), 광주 (106.8%)이다.

〈표 7-4〉 제주도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주택 수	증감률	주택 보급률	주택 수	증감률	주택 보급률	주택 수	증감률	주택 보급률	주택 수	증감률	주택 보급률
전국	21,310.1	2.4	104.8	21,673.5	1.7	103.6	21,917.2	1.1	102.2	22,236.9	1.5	102.1
수도권	9,840.9	2.6	99.2	10,027.2	1.9	98.0	10,183.9	1.6	96.8	10,357.8	1.7	96.6
지방권	11,469.2	2.1	110.1	11,646.3	1.5	108.9	11,733.2	0.7	107.4	11,879.1	1.2	107.5
제주	277.1	4.0	109.2	281.4	1.6	107.0	284.7	1.2	105.0	288.0	1.2	104.3

주 : 〈표 7-3〉의 주택수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주택보급률 산출시 다가구주택은 구분거처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임

자료 :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절 부동산 거래동향

1. 토지

가. 지목별 거래동향

2023년에 거래된 토지의 면적은 28,717천㎡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4,467천㎡ 거래되어 전체 거래면적의 50.4%, 전이 6,129천㎡(21.3%), 기타 지목이 4,935천㎡(22.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 거래된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6,002천㎡(17.3%) 감소하였다. 지목별로 전이 3,296천㎡(53.8%), 기타는 3,787천㎡(76.7%), 대지는 1,022천㎡(33.5%) 감소하였고, 임야는 2,229천㎡(15.4%) 증가하였다. 농지(지목 : 전, 답, 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주도민 이외의 사람이 제주도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목이 전인 토지의 거래감소는 제주도민에 의해 거래된 면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2021년에는 전년대비 20.9%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7-5〉 제주도 토지 지목별 거래현황

(단위 : 천㎡)

구분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	합계
2019	10,170	156	3,819	17,206	74	9,556	40,981
2020	9,160	169	3,527	13,279	49	7,402	33,583
2021	11,118	223	5,217	15,032	64	8,940	40,597
2022	9,425	194	4,072	12,238	68	8,722	34,719

구분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	합계
2023	6,129	86	3,050	14,467	52	4,935	28,717
제주시	3,801	54	1,881	6,886	34	2,691	15,347
서귀포시	2,327	36	1,170	7,580	16	2,242	13,371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나. 용도지역별 거래동향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의 토지가 20,624천㎡(비중 71.8%), 녹지지역이 6,459천㎡(비중 22.5%)가 거래되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거래면적이 감소하였고, 관리지역은 전년대비 2,478천㎡(10.7%), 녹지지역은 2,764㎡(30.0%) 감소하였다.

〈표 7-6〉 제주도 토지 용도지역별 거래현황

(단위 : 천㎡)

구분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관리	농림	자연환경	
2019	1,566	206	27	9,444	10	29,561	22	145	40,981
2020	1,936	132	63	9,017	7	22,129	34	267	33,583
2021	1,824	208	39	10,763	25	27,287	9	444	40,597
2022	1,672	174	59	9,223	15	23,102	17	451	34,717
2023	1,350	109	35	6,459	16	20,624	10	112	28,717
제주시	874	78	27	3,591	15	10,650	10	101	15,347
서귀포시	474	31	8	2,869	-	9,976	-	12	13,371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다. 거래 원인별 거래동향

2023년 토지 거래량에서 매매에 의한 거래는 13,591천㎡로 전체 거래량의 47.3%를 차지하며, 기타(협의취득계약, 현물출자 등)는 5,689천㎡로 19.8%, 증여는 5,501천㎡로 19.2%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 원인별로 살펴보면 매매는 전년대비 4,930천㎡(26.6%), 증여는 5,111천㎡(48.2%) 감소한 반면에, 판결은 2,482천㎡(217.1%), 기타는 2,377천㎡(71.8%) 증가하였다.

<표 7-7> 제주도 거래 원인별 거래량 추이

(단위 : 천㎡)

구분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기타	합계
2019	18,075	2,204	223	14,596	352	5,531	40,981
2020	16,465	2,040	173	11,889	153	2,863	33,583
2021	22,491	2,099	213	12,557	347	2,891	40,597
2022	18,521	1,143	545	10,612	586	3,312	34,717
2023	13,591	3,625	126	5,501	183	5,689	28,717
제주시	7,715	3,378	56	2,997	121	1,076	15,347
서귀포시	5,874	248	68	2,505	62	4,610	13,371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라. 토지 거래자의 거주지 동향

2023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토지를 거래한 거래자의 거주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이 거래한 비중은 69.2%, 서울 거주자는 7.1%, 서울 외 거주자는 23.7%이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등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8〉 제주도 토지 거래자의 거주지별 현황

(단위 : 천㎡, %)

구분	제주도 내		제주도 외_서울		제주도 외_기타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9	28,714	70.1	4,377	10.7	7,890	19.3	40,981	100.0
2020	22,804	67.9	3,438	10.2	7,339	21.9	33,583	100.0
2021	26,545	65.4	5,411	13.3	8,645	21.3	40,597	100.0
2022	23,654	68.1	4,560	13.1	6,503	18.7	34,717	100.0
2023	19,875	69.2	2,302	7.1	6,808	23.7	28,717	10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 주택

가. 주택 거래량

2023년 제주도의 주택 거래량은 9,754호로 전년대비 29.5% 감소하였다.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거래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제주도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뿐만 아니라 2023년 '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등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거래량의 비중으로 보면 아파트 34.3%, 단독주택 24.3%, 연립주택 23.9%, 다세대주택 16.1%, 다가구주택 1.4% 순이다.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2016년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하락 추세였으나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2022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9〉 제주도 주택 유형별 거래량 추이

(단위 : 동(호)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단독	3,978	4,771	4,858	4,743	4,192	3,338	3,683	4,137	3,364	2,371
다가구	323	419	418	89	111	240	207	275	180	138
다세대	2,508	2,880	3,904	3,536	3,007	2,455	2,372	2,395	2,214	1,566
연립	2,182	3,195	3,473	3,951	3,517	2,551	3,022	3,405	3,396	2,330
아파트	6,983	8,645	8,155	7,090	6,567	4,726	5,130	6,698	4,414	3,349
합계	15,974	19,910	20,808	19,409	17,394	13,310	14,414	16,910	13,568	9,754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나. 거래 원인별 거래동향

2023년 거래 원인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매매에 의한 거래는 6,69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8.6%를 차지하며, 기타는 1,709건으로 17.5%, 증여는 1,284건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거래 원인에서 전년대비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매는 전년대비 1,738호(20.6%) 감소하였으며, 기타는 1,514호(47.0%) 감소하였다.

〈표 7-10〉 제주도 거래 원인별 거래량 추이

(단위 : 동(호)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매	12,306	13,257	12,392	9,261	9,423	7,993	10,409	12,060	8,430	6,692
판결	32	54	75	97	98	114	102	79	115	62
교환	3	8	14	11	16	30	10	8	8	7
증여	1,372	1,670	2,098	2,242	2,116	2,045	2,198	1,937	1,792	1,284
기타	2,261	4,921	6,229	7,798	5,741	3,128	1,695	2,826	3,223	1,709
합계	15,974	19,910	20,808	19,409	17,394	13,310	14,414	16,910	13,568	9,754

주 : 기타는 분양권 전매, 협의취득, 현물출자 등이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거래원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매거래량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아파트는 2,277호가 거래되어 전체 매매거래량의 34.0%를 차지하였고, 연립주택은 1,624호(24.3%), 단독주택은 1,458호(21.8%)가 거래되었다.

2023년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20.6% 감소하였으며,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29.4%, 아파트는 24.3%, 다세대주택은 23.1%, 다가구주택은 19.0%, 연립주택은 0.6% 감소하였다.

〈표 7-11〉 제주도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량 추이

(단위 : 동(호)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단독	3,111	3,599	3,165	2,651	2,356	1,762	2,069	2,765	2,064	1,458
다가구	289	388	340	77	81	195	183	251	147	119
다세대	2,177	2,287	2,397	1,658	1,817	1,704	1,927	1,886	1,579	1,214
연립	1,603	1,958	1,934	1,785	1,734	1,363	2,079	2,455	1,634	1,624
아파트	5,126	5,025	4,556	3,090	3,435	2,969	4,151	4,703	3,006	2,277
합계	12,306	13,257	12,392	9,261	9,423	7,993	10,409	12,060	8,430	6,692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다. 주택 매입자 거주지 동향

2023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주택을 매입한 자의 거주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이 매입한 비중은 77.0%, 서울 거주자는 6.6%, 서울 외 거주자는 16.49%이다. 제주도민의 매입량은 전년대비 16.2%, 서울 거주자는 28.8%, 서울 외 거주자는 34.0% 감소하였다.

〈표 7-12〉 제주도 주택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

(단위 : 동(호)수)

구분	제주도 내		제주도 외_서울		제주도 외_기타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9	6,169	77.2	503	6.3	1,321	16.5	7,993	100.0
2020	7,716	74.1	663	6.4	2,030	19.5	10,409	100.0
2021	8,563	71.0	935	7.8	2,562	21.2	12,060	100.0
2022	6,144	72.9	622	7.4	1,664	19.7	8,430	100.0
2023	5,510	77.0	443	6.6	1,099	16.4	6,692	10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제3절 부동산 가격 동향

1.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제주도의 지가지수는 2019년 4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과 상승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하락 추세였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상승 추세였고, 2022년 10월부터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7-1〉 제주도 지가지수 추이

(2023.12=1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3년 제주도의 지가 변동률은 -0.412%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제주시 -0.408%, 서귀포시 -0.416%). 전국의 지가 변동률은 0.823%이며, 지자체 중에서는 세종(1.144%)이 가장 높고, 서울(1.106%), 경기(1.083%) 순이다.

2. 주택

가. 매매가격지수

지난 10여년간 제주도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2017년 9월, 단독주택은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에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4.55%(전국 -4.83%), 연립·다세대는 -1.90%(전국 -2.36%), 단독주택은 -0.55%(전국 0.13%)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7-2〉 제주도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2021. 6=1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나. 매매가격[4)]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5.4%, 연립·다세대는 2.5%, 단독주택은 0.6%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는 4.0%, 연립·다세대는 2.7% 하락한 반면에 단독주택은 0.7% 상승하였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제주의 주택가격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8위(1위 서울 1,051,458천원), 연립·다세대는 2위(1위 서울 340,427천원), 단독주택은 9위(1위 서울 1,114,709천원)이다.

〈표 7-13〉 제주도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파트	금액	293,074	284,321	327,078	320,116	302,772
	증감률	0.8	△3.0	15.0	△2.1	△5.4
연립 다세대	금액	185,856	189,773	206,257	205,723	200,591
	증감률	△1.1	2.1	8.7	△0.3	△2.5
단독	금액	387,355	380,259	306,945	307,550	305,790
	증감률	18.3	△1.8	△19.3	0.2	△0.6

주 : 금액은 평균가격이며 매년 12월 기준임. 증감률은 전년 12월 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4) 주택가격동향조사의 보조지표인 평균매매·전세가격은 표본의 가격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다(한국부동산원).

다. 전세가격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5.9%, 연립·다세대는 2.2%, 단독주택은 0.1%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은 아파트는 7.2%, 연립·다세대는 4.2%, 단독주택은 0.1% 하락하였다.

〈표 7-14〉 제주도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파트	금액	187,142	182,838	198,283	195,816	184,318
	증감률	△1.4	△2.3	8.4	△1.2	△5.9
연립 다세대	금액	120,836	124,552	136,965	137,194	134,230
	증감률	△1.3	3.1	10.0	0.2	△2.2
단독	금액	214,374	211,466	149,212	149,426	149,234
	증감률	14.6	△1.4	△29.4	0.1	△0.1

주 : 금액은 평균가격이며 매년 12월 기준임. 증감률은 전년 12월 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제4절 주택 공급 동향

1. 주택 인허가

2023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대비 3,178동(세대)이 감소한 7,550동(세대)으로 전년대비 29.6% 감소한 물량이다.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인허가 물량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전체 대비 각각 38.0%, 40.8%를 보였고,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당분간 주택 준공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7-15〉 제주도 주택 유형별 인허가 추이

(단위 : 동(세대)수,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증감률
단독	2,076	1,783	2,232	3,167	2,150	28.5	△32.1
다가구[5]	975	541	787	719	303	4.0	△57.9
다세대	429	227	834	703	399	5.3	△43.2
연립	1,726	802	2,363	2,066	1,620	21.5	△21.6
아파트	1,223	2,049	959	4,073	3,078	40.8	△24.4
합계	6,429	5,402	7,175	10,728	7,550	100.0	△29.6

주 : 단독주택은 동수, 다가구 등 그 외 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자료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 주택통계

5) 다가구주택은 구분거처별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동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으로 산정하게 되면 주택의 수가 낮게 산정되므로 구분거처로 산정하였으며,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에도 다가구주택은 구분거처로 반영하고 있다.

2. 주택 준공

제주도의 2023년 주택 준공물량은 5,018동(세대)으로 전년대비 583동(세대)이 증가(13.1%)하였다. 주택 준공물량은 2017년 21,377동(세대)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23년에는 아파트의 준공물량이 1,400세대로 전체 준공물량의 27.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6.0% 증가한 것이다.

<표 7-16> 제주도 주택 유형별 준공 추이

(단위 : 동(세대)수,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증감률
단독	2,081	1,711	1,627	1,620	1,558	31.0	△3.8
다가구	2,446	798	736	668	609	12.1	△8.8
다세대	1,233	491	461	511	549	10.9	7.4
연립	2,202	1,334	655	1,067	902	18.0	△15.5
아파트	1,188	1,909	856	569	1,400	27.9	146.0
합계	9,150	6,243	4,335	4,435	5,018	100.0	13.1

주 : 단독주택은 동수, 다가구 등 그 외 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자료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 주택통계

3. 주택 미분양

제주도의 미분양주택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9월부터는 1,000호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6월 이후 1,000호 미만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 2022년 4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3년 7월부터는 2,000호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12월 제주도의 미분양주택은 2,499호로 전년동월 대비 823호(49.1%) 증가하였다. 행정구역별로 제주시 미분양주택은 1,528호로 전년동월 대비 665호(77.1%) 증가하였으며, 서귀포시는 158호(19.4%) 증가하였다. 악성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1,059호로 전년동월 대비 391호(58.5%) 증가하였으며, 전체 미분양주택 대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비중은 42.4%로 전년동월 대비 2.5%p 증가하였다.

제주도의 미분양주택은 2022년에는 전국 미분양주택 대비 2.5%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4.0%로 증가하였다.

〈표 7-17〉 제주도 주택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구분		2022.12월				2023.12월			
		계	60㎡ 미만	60-85㎡	85㎡ 초과	계	60㎡ 미만	60-85㎡	85㎡ 초과
전체	제주도	1,676	200	863	613	2,499	206	1,577	716
	제주시	863	108	506	249	1,528	115	1,090	323
	서귀포시	813	92	357	364	971	91	487	393
준공후 미분양	제주도	668	51	527	90	1,059	72	827	160
	제주시	244	2	207	35	477	23	378	76
	서귀포시	424	49	320	55	582	49	449	84

자료 : 제주도청 내부자료

제5절 부동산업

1. 사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2023년을 기준으로 제주도 부동산업의 주력산업을 살펴보면 사업체수로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종사자수와 매출액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부동산업은 전년대비 사업체수는 1.6%, 종사자수는 1.2%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2.2% 하락하였다. 세부산업별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이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이다.

〈표 7-18〉 제주도 부동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비중	증감률
사업체수	부동산업	3,979	3,977	4,039	100.0	1.6
	부동산 임대업	943	963	935	23.1	△2.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814	874	873	21.6	△0.1
	부동산 관리업	418	436	461	11.4	5.7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1,647	1,687	41.8	2.4
	부동산 투자 자문업		36	61	1.5	69.4
	부동산 감정평가업		21	22	0.5	4.8
종사자수	부동산업	8,007	7,031	7,117	100.0	1.2
	부동산 임대업	1,457	1,576	1,443	20.3	△8.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899	1,832	1,932	27.1	5.5
	부동산 관리업	1,423	1,543	1,533	21.5	△0.6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1,840	1,915	26.9	4.1
	부동산 투자 자문업		49	83	1.2	69.4
	부동산 감정평가업		191	211	3.0	10.5

구분		2020	2021	2022		
					비중	증감률
매출액	부동산업	1,952,346	2,164,277	1,684,626	100.0	△22.2
	부동산 임대업	192,816	394,800	318,289	18.9	△19.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486,021	1,443,169	1,124,707	66.8	△22.1
	부동산 관리업	144,512	174,377	120,890	7.2	△30.7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125,389	87,455	5.2	△30.3
	부동산 투자 자문업		7,024	8,381	0.5	19.3
	부동산 감정평가업		19,518	24,904	1.5	27.6

자료 : 통계청

2. 부동산중개업

제주도내 부동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부동산중개업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4~2023년)간 부동산중개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9.5%를 보이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인구 천 명당 부동산중개업 수는 세종(3.24개소), 제주(2.92개소), 서울(2.83개소) 순이다.

<표 7-19> 제주도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인중개사	845	986	1,264	1,514	1,606	1,677	1,729	1,813	1,924	1,946
중개인	19	18	16	17	17	12	9	8	8	9
중개법인	6	13	12	13	10	15	16	17	15	15
합계	870	1,017	1,292	1,544	1,633	1,704	1,754	1,838	1,947	1,97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3. 주택건설사업

2023년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제주도의 주택사업자[6]는 372개로서 2014년 전국 3.3%의 비중에서 2023년에는 4.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경기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주택건설사업자는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지난 10년(2014~2023년)간 주택사업자의 증가율(CAGR)은 8.3%로 전국(6.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7-20〉 제주도 주택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5,418	6,567	7,236	7,681	7,669	7,874	8,686	9,926	10,049	9,390
제주	181	285	399	424	397	372	374	366	374	372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6) 「주택법」 제 4조에 의해 20호(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제8장 지방재정

제1절 세입

1. 세입규모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기준 세입규모(일반회계+공기업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는 9,360,309백만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566,890백만 원(70.2%), 공기업 특별회계 615,943백만 원(6.6%), 기타 특별회계 690,736백만 원(7.4%), 기금 1,486,741백만 원(15.9%)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1〉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규모	9,360,309	6,566,890	615,943	690,736	1,486,741
비중	100.0	70.2	6.6	7.4	15.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세입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은 전년대비 250,785백만 원이 감소하여 -2.6%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2019~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6.9%이며,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제주지역 세입규모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표 8-2〉 제주특별자치도 세입규모 변화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규모	7,168,094	7,740,986	8,054,950	9,611,094	9,360,309
성장률	4.6	8.0	4.1	19.3	△2.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 재원별 세입구조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재원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1,900,911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28.9%)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세(1,869,048백만 원, 28.4%), 보조금(1,353,496백만 원, 20.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1,113,096백만 원, 16.9%), 세외수입(262,638백만 원, 4.0%), 지방채(67,700백만 원, 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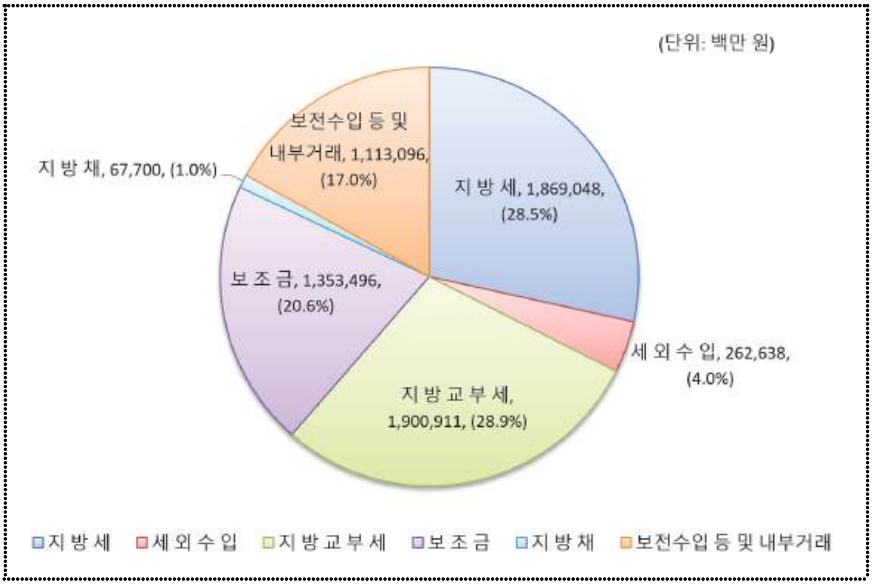
〈표 8-3〉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재원별 세입구조(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분	규모	비중
합 계	6,566,890	100.0
지 방 세	1,869,048	28.4
세 외 수 입	262,638	4.0
지 방 교 부 세	1,900,911	28.9
보 조 금	1,353,496	20.6
지 방 채	67,700	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3,096	16.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그림 8-1〉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재원별 세입구조(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22년 대비 338,905백만 원이 감소하여 -4.9%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2022년 대비 재원별 세입규모의 변화 추이를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39,703백만 원(43.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세외수입(2,393백만 원, 0.9%), 보조금(-67,013백만 원, -4.7%), 지방세(-101,917백만 원, -5.2%), 지방채(-138,900백만 원, -67.2%), 지방교부세(-373,172백만 원, -16.4%)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2022년 결산세입규모와 추계세입규모의 큰 차이로 인해 2023년 이월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 전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어 감소하였으며, 지방

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수가 줄어들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다수의 재정투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발행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2년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2023년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가장 큰 감소 규모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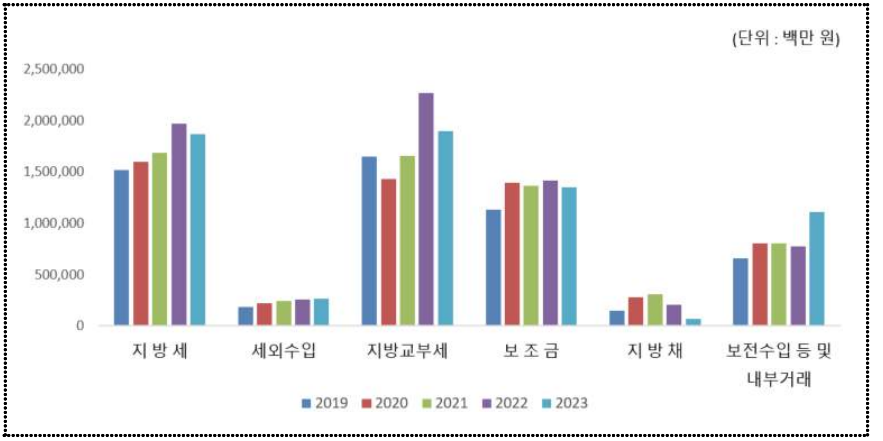
〈표 8-4〉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별 세입 변화추이(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규모	5,298,908	5,742,177	6,069,911	6,905,795	6,566,890
	증가율	6.5	8.4	5.7	13.8	△4.9
지 방 세	규모	1,519,568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증가율	4.2	5.4	5.2	16.9	△5.2
세외수입	규모	186,801	219,805	245,587	260,245	262,638
	증가율	△3.5	17.7	11.7	6.0	0.9
지방교부세	규모	1,650,032	1,434,826	1,657,434	2,274,083	1,900,911
	증가율	16.7	△13.0	15.5	37.2	△16.4
보 조 금	규모	1,130,176	1,395,712	1,366,768	1,420,509	1,353,496
	증가율	16.3	23.5	△2.1	3.9	△4.7
지 방 채	규모	150,000	281,800	310,600	206,600	67,700
	증가율	-	87.9	10.2	△33.5	△67.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규모	662,332	808,212	803,858	773,393	1,113,096
	증가율	△29.3	22.0	△0.5	△3.8	43.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그림 8-2〉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별 세입 변화추이(일반회계)



제2절 세출

1. 세출규모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기준 세출규모(일반회계+공기업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는 8,593,063백만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956,056백만 원(69.3%), 공기업 특별회계 543,426백만 원(6.3%), 기타 특별회계 611,200백만 원(7.1%), 기금 1,482,381백만 원(17.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5〉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세출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규모	8,593,063	5,956,056	543,426	611,200	1,482,381
비중	100.0	69.3	6.3	7.1	17.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세출규모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은 전년대비 38,421백만 원이 감소하여 -0.4%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2019~2023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7.2%를 나타내고 있다.

〈표 8-6〉 제주특별자치도 세출규모 변화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규모	6,509,299	6,956,519	7,246,855	8,631,484	8,593,063
성장률	8.1	6.9	4.2	19.1	△0.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 분야별 세출규모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424,385백만 원으로 가장 큰 세출규모(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744,332백만 원, 12.5%), 일반공공행정(737,240백만 원, 12.4%), 기타(603,465백만 원, 10.1%), 교통 및 물류(518,521백만 원, 8.7%), 환경(436,672백만 원, 7.3%), 국토 및 지역개발(358,706백만 원, 6.0%), 문화 및 관광(342,253백만 원, 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예산 투입의 가장 적은 분야로서는 과학기술분야가 1,434백만 원으로 0.0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122,775백만 원, 2.1%), 보건(127,892백만 원, 2.1%) 순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7>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분야별 세출구조(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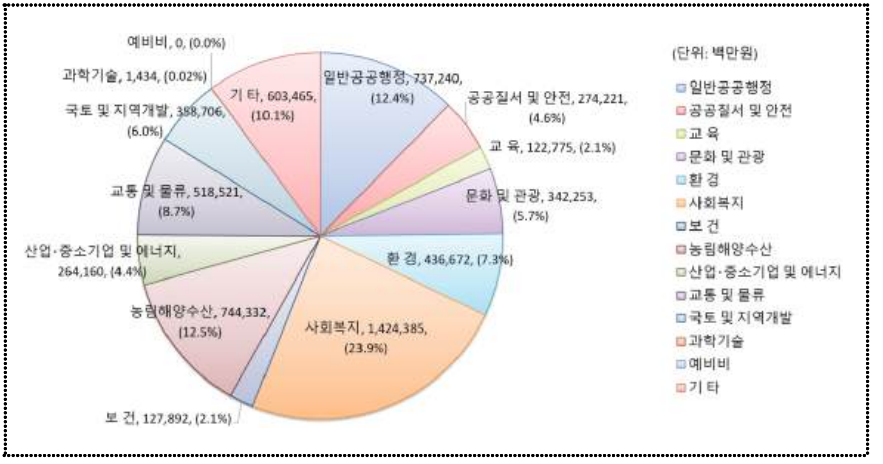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

구분	규모	비중
합 계	5,956,056	100.0
일반공공행정	737,240	12.4
공공질서 및 안전	274,221	4.6
교 육	122,775	2.1
문화 및 관광	342,253	5.7
환 경	436,672	7.3
사회복지	1,424,385	23.9
보 건	127,892	2.1
농림해양수산	744,332	12.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4,160	4.4
교통 및 물류	518,521	8.7

구분	규모	비중
국토 및 지역개발	358,706	6.0
과학기술	1,434	0.02
예비비	0	0.0
기 타	603,465	10.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그림 8-3〉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분야별 세출구조



2023년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2022년 대비 124,244백만 원이 감소하여 -2.0%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2022년 대비 분야별 세출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62,580백만 원 증가(16.7%)하여 가장 큰 규모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41,559백만 원, 5.9%), 기타(32,960백만 원, 5.8%), 사회복지(22,550백만 원, 1.6%), 교통 및 물류(5,622백만 원, 1.1%), 문화 및 관광(4,653백만 원,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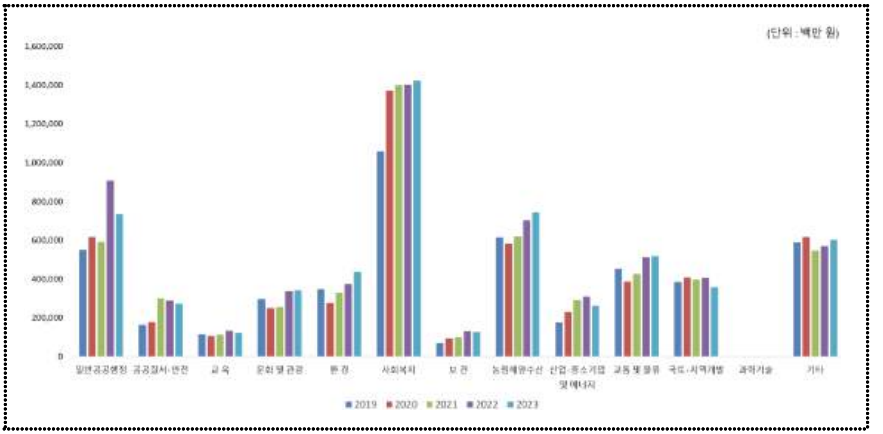
〈표 8-8〉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분야 변화추이(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규모	4,826,958	5,125,942	5,384,494	6,080,300	5,956,056
	증가율	9.9	6.2	5.0	12.9	△2.0
일반공공행정	규모	549,893	618,146	593,188	908,436	737,240
	증가율	△6.0	12.4	△4.0	53.1	△18.8
공공질서 및 안전	규모	165,068	178,307	300,671	288,673	274,221
	증가율	△5.1	8.0	68.6	△4.0	△5.0
교 육	규모	114,981	108,375	114,165	133,906	122,775
	증가율	7.2	△5.7	5.3	17.3	△8.3
문화 및 관광	규모	296,955	250,193	256,571	337,600	342,253
	증가율	△2.3	△15.7	2.5	31.6	1.4
환 경	규모	348,168	276,962	329,747	374,092	436,672
	증가율	12.3	△20.5	19.1	13.4	16.7
사회복지	규모	1,059,464	1,372,463	1,400,327	1,402,135	1,424,385
	증가율	22.4	29.5	2.0	0.1	1.6
보 건	규모	71,375	95,185	102,271	131,583	127,892
	증가율	1.9	33.4	7.4	28.7	△2.8
농림해양수산	규모	614,142	581,770	622,001	702,773	744,332
	증가율	13.2	△5.3	6.9	13.0	5.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규모	177,027	230,022	292,043	308,896	264,160
	증가율	△29.9	29.9	27.0	5.8	△14.5
교통 및 물류	규모	453,173	387,075	427,225	512,899	518,521
	증가율	△1.3	△14.6	10.4	20.1	1.1
국토 및 지역개발	규모	384,985	409,333	398,788	407,112	358,706
	증가율	134.5	6.3	△2.6	2.1	△11.9
과학기술	규모	810	862	827	1,690	1,434
	증가율	△87.5	6.4	△4.1	104.4	△15.1
예비비	규모	0	0	0	0	0
	증가율	–	–	–	–	–
기 타	규모	590,917	617,249	546,670	570,505	603,465
	증가율	7.0	4.5	△11.4	4.4	5.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그림 8-4〉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분야 변화추이(일반회계)



제3절 재정지표

1.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로써, 결산검사 시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재정이 적자인데도 많은 사업을 계획·시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023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5,88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9,560백만 원 감소하였다.

〈표 8-9〉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입 (A)	지출 (B)	순융자 (C)	통합재정규모 (D=B+C)	통합재정수지 (E=A-D)
규모	6,149,036	6,465,761	△843	6,464,918	△315,882

주)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재정수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0~2022년 기간 동안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흑자전환하였지만, 2023년 세입규모가 줄어들어 적자를 나타내었다.

〈표 8-1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수지 변화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	△212,143	△340,663	△92,043	523,678	△315,88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자체세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이 세입총액에 차지하는 백분비로 시산된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반대의 경우 지방재정의 자립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4.1%로 유사자치단체[1] 평균 34.3%보다 0.2%p 낮게 나타내고 있다.

〈표 8-11〉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 원, %)

구분	자체수입 (A)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B)	재정자립도 (A/Bx100)
규모	2,003,790	5,869,946	34.1

주)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8-1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자립도	32.8	32.0	32.4	32.8	34.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1) 유사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으로 시산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주도는 66.5%로 유사자치단체[2] 평균 45.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8-13〉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 원, %)

구분	자체수입(A)	자주재원(B)	자치단체세입결산규모(C)	재정자주도 (B/C)x100
규모	2,003,790	1,900,911	5,869,946	66.5

주)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자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주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2.0%p 감소하였다.

〈표 8-1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주도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자주도	67.1	58.7	62.0	68.5	66.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 유사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4절 부채 및 지방채

1.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가. 채무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 채무는 1,213,58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2,197백만 원 감소하였다.

<표 8-15>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채무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년 현재액(A)	증 감 액			2023년 현재액(E)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채무규모	1,296,500	△82,917	149,967	232,884	1,213,58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019~2023년 기간동안 지방채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채무규모는 연평균 25.2%의 증가하였으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546천 원으로 연평균 25.0%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8-16> 제주특별자치도 채무 변화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규모(백만 원)	493,644	735,890	1,046,225	1,296,500	1,213,583
인구수(명)	670,989	674,635	676,759	678,159	675,252
주민 1인당채무(천 원)	736	1,091	1,546	1,912	1,79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나. 부채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 부채는 1,988,190백만 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90%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0.71%p 감소하였다.

〈표 8-17〉 제주특별자치도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년도	부채	자산	자산대비 부채비율
2023	1,988,190	28,797,889	6.90
2022	2,144,923	28,195,704	7.61
2021	1,789,566	26,571,449	6.73
2020	1,332,957	25,407,635	5.25
2019	1,046,965	24,304,872	4.31
2018	912,024	23,201,334	3.9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 지방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증서이다. 지방채는 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자금 지출시 유용한 자금조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세대간 재정부담의 형평성과 건전재정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 지방채 발행액은 149,967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55.2%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2019~2021년 기간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다수의 재정투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8-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액 변화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 발행 한도액	365,608	482,935	432,252	426,130	368,667
지방채 발행액	210,408	332,235	387,852	334,730	149,967
증가율	222.4	57.9	16.7	△13.7	△55.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그림 8-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액 변화추이

제Ⅲ편 분야별 산업경제정책 추진 성과

제9장 고용 동향과 일자리 창출

제1절 현황

1. 고용동향

가. 제주의 고용동향

제주지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며 2022년 이후 다시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산업구조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전국과 제주지역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는 〈표 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 정량지표는 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전국 및 제주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주의 1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579천 명으로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409천 명으로 2019년 대비 19천 명이 증가하여 4.8% 상승하였으며 전국대비 경제활동인구비중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국은 2023년 기준 16,204천 명으로 연평균-0.2% 감소하였으나, 제주지역은 171천 명으로 연평균 0.4% 증가하였다. 전국의 취업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28,416천 명으로 2019년

대비 1,293명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1.2% 증가하였다. 제주는 19천 명 증가한 401천 명으로 기록되어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자 수의 경우, 전국은 787천 명으로 2019년 대비 276명 감소하였으며, 제주는 8천 명으로 2019년과 동일수치를 보인다. 전국의 실업률은 연평균 0.3% 감소한 반면 제주는 0.1%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9-1> 전국 및 제주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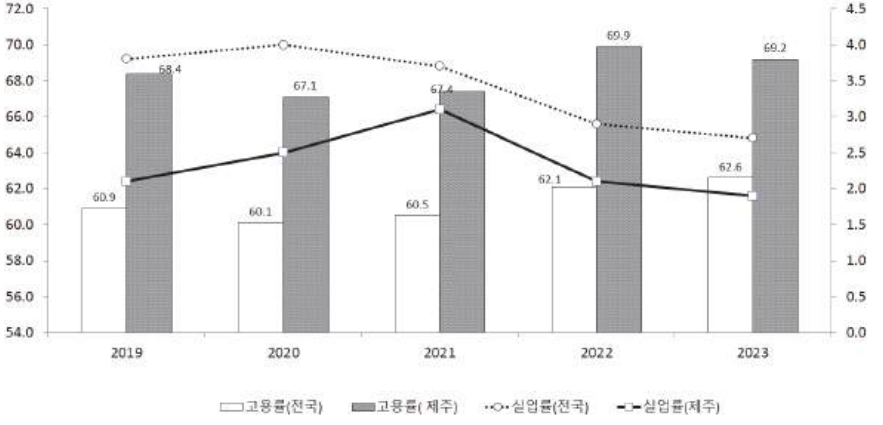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전국	15세이상인구(천 명)	44,504	44,785	45,080	45,260	45,407	0.5
	경제활동인구(천 명)	28,186	28,012	28,310	28,922	29,203	0.9
	취업자(천 명)	27,123	26,904	27,273	28,089	28,416	1.2
	실업자(천 명)	1,063	1,108	1,037	833	787	△7.2
	비경제활동인구(천 명)	16,318	16,773	16,770	16,339	16,204	△0.2
	경제활동참가율(%)	63.3	62.5	62.8	63.9	64.3	0.3
	실업률(%)	3.8	4.0	3.7	2.9	2.7	△0.3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0.4
	15-64세 고용률(%)	66.8	65.9	66.5	68.5	69.2	0.6
제주	15세이상인구(천 명)	558	563	568	574	579	0.9
	경제활동인구(천 명)	390	388	395	410	409	1.2
	취업자(천 명)	382	378	383	402	401	1.2
	실업자(천 명)	8	10	12	9	8	0.0
	비경제활동인구(천 명)	168	176	173	164	171	0.4
	경제활동참가율(%)	69.9	68.8	69.6	71.4	70.6	0.2
	실업률(%)	2.1	2.5	3.1	2.1	1.9	△0.1
	고용률(%)	68.4	67.1	67.4	69.9	69.2	0.2
	15-64세 고용률(%)	72.5	70.7	71.6	74.5	74.6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023년 기준 전국의 고용률은 62.6%로 2019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제주는 0.8%p 증가한 69.2%로 조사되었다. 제주의 고용률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67.1%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2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69.9%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고용률은 2022년 전국보다 7%p 격차를 보인다. 이는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최상위 수준이다. 제주 실업률은 2023년 기준으로 전국보다 0.8%p 낮은 1.9%를 나타내고 있어 제주지역의 고용상황은 양적 고용지표(고용률, 실업률)로만 보았을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15~64세 고용률, 실업률 감소폭은 전국보다 낮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고용상황은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역 노동시장은 고용의 양적지표보다 질적지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노력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림 9-1> 전국 및 제주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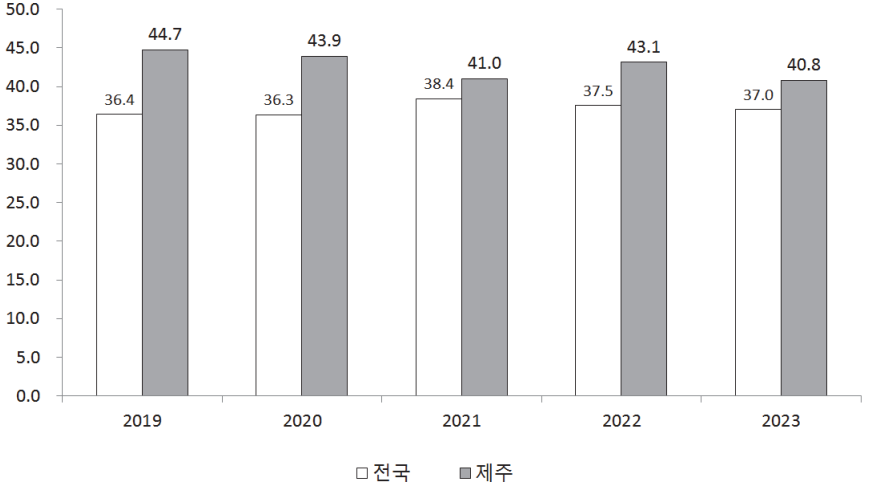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23년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과 비교하여 3.8%p 높은 40.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36.4%에서 2023년 37.0%로 소폭 상승한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38.4%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제주는 2019년에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21년 41.0%로 3.7%p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22년 2.1%p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0.2%p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2〉 전국 및 제주 비정규직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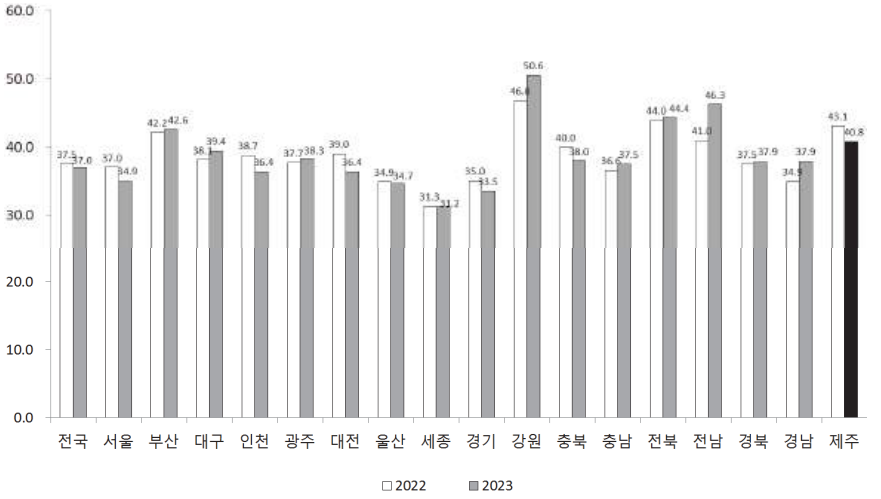


주 : 비정규직 비율이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전국 최상위이지만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국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9-3〉 참조), 2023년 기준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는 강원, 전남, 전북,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40.8%로 나타난다. 이는 2022년 43.1%(전국 4위)에 비해 2.3%p 감소한 것이다.

〈그림 9-3〉 전국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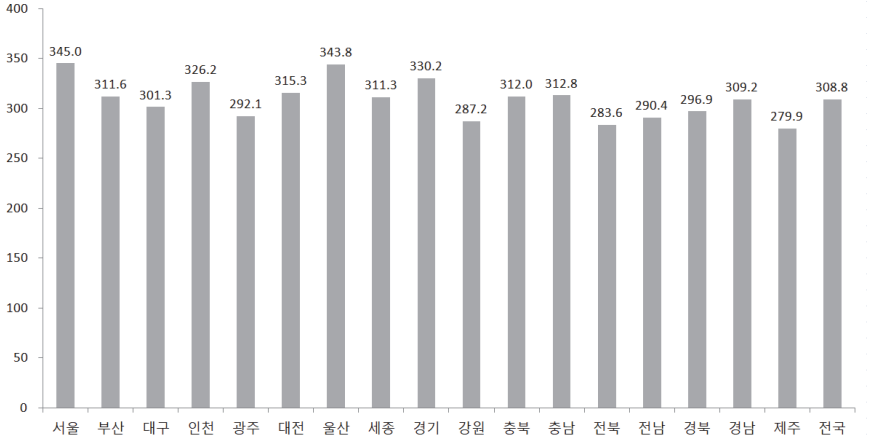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제주지역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다른 타시도에 비하여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근로환경조사, 2023년), 제주지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의 경우 평균 279.9만원으로 전국 평균 308.8만원에 비해 28.9만원 낮은 수준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6.3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49.6만원에 비해 약 13.3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임금근로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제주의 경우 전국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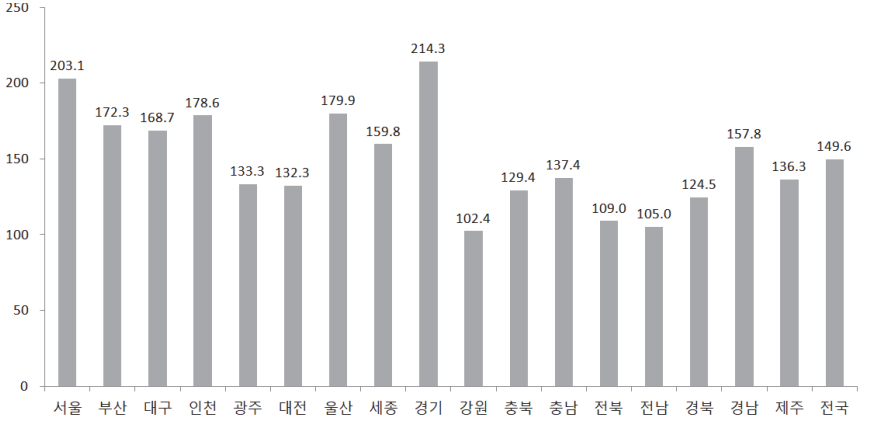
〈그림 9-4〉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자료: 근로환경조사 7차(2023년)

나. 종사상 지위별 고용 동향

종사상 지위별 고용동향을 보면(〈표 9-2〉 참조), 먼저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임금근로자는 21,828천 명, 비임금근로자는 6,588천 명으로 확인된다. 전국 비임금근로자는 2021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제주 역시 비임금근로자는 2019년 대비 3.7% 감소한 130천 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 제주는 2019년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였다가 2023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19 이후 감소를 보이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022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6.8%를 기록하였다. 제주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64.7%,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7.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전국의 상용직 근로자는 2019년 52.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56.9%를 기록하였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꾸준한 감소를 보여 2023년 각각 16.2%, 3.7%로 나타난다. 제주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는 2019년 39.8%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2023년 8.1%p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시직 근로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대비 1.8%p 소폭 감소하였다.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3.1%p까지 하락하였다. 이로써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2019~2023년)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9-2〉 종사상 지위별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

구분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계	27,123	26,904	27,273	28,089	28,416
	비임금근로자	6,683	6,573	6,520	6,588	6,588
	자영업자	5,606	5,531	5,513	5,632	5,689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38	1,372	1,307	1,365	1,420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68	4,159	4,206	4,267	4,269
	- 무급가족종사자	1,077	1,042	1,007	955	899
	임금근로자	20,440	20,332	20,753	21,502	21,828
	(전체 취업자 중 비율)	(75.4)	(75.6)	(76.1)	(76.5)	(76.8)
	- 상용근로자	14,216	14,521	14,887	15,692	16,170
	(전체 취업자 중 비율)	(52.4)	(54.0)	(54.6)	(55.9)	(56.9)
	- 임시근로자	4,795	4,483	4,634	4,678	4,617
	(전체 취업자 중 비율)	(17.7)	(16.7)	(17.0)	(16.7)	(16.2)
	- 일용근로자	1,429	1,328	1,231	1,132	1,042
	(전체 취업자 중 비율)	(5.3)	(4.9)	(4.5)	(4.0)	(3.7)
제주	계	382	378	383	402	401
	비임금근로자	135	138	134	136	130
	자영업자	112	111	108	107	106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6	24	28	30	28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5	87	80	77	78
	- 무급가족종사자	23	27	26	29	23
	임금근로자	247	240	249	266	272
	(전체 취업자 중 비율)	(64.7)	(63.5)	(65.0)	(66.2)	(67.8)
	- 상용근로자	152	160	172	183	192
	(전체 취업자 중 비율)	(39.8)	(42.3)	(44.9)	(45.5)	(47.9)
	- 임시근로자	64	53	50	59	60
	(전체 취업자 중 비율)	(16.8)	(14.0)	(13.1)	(14.7)	(15.0)
	- 일용근로자	31	27	27	24	20
	(전체 취업자 중 비율)	(8.1)	(7.1)	(7.0)	(6.0)	(5.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 취업자 동향

가. 제주의 취업 동향

제주지역의 연도별 취업동향을 살펴보면(〈표 9-3〉 참조), 2023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70.6%로 전국의 64.3%에 비해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전국 62.6%보다 6.6%p 높은 69.2%로 조사되었다. 실업률은 제주가 1.9%로 전국 2.7%보다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기간 동안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7%p 증가, 전국은 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률은 지난 5년간 전국이 1.7%p 증가, 제주가 0.8%p 증가하여, 전국이 제주보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과 제주 모두 고용지표는 더 좋아진 것으로 조사된다.

〈표 9-3〉 전국 및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국					제주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활동참가율	63.3	62.5	62.8	63.9	64.3	69.9	68.8	69.6	71.4	70.6
실업률	3.8	4.0	3.7	2.9	2.7	2.1	2.5	3.1	2.1	1.9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68.4	67.1	67.4	69.9	69.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나. 성별·연령·교육수준별 취업 동향

전국 및 제주의 성별 취업동향을 보면(〈표 9-4〉 참조), 전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9년 73.5%로 코로나19 시점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3년 73.3%를 기록하였다. 고용률은 2019년 70.7%에서 2023년 0.6%p 증가하여 71.3%로 확인되며, 실업률은 2023년 2.6%로 나타난다.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시점에서 감소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55.6%를 기록하였다. 전국 여성 실업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에는 2.8%로 0.8%p 낮아졌다.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2.5%p 크게 증가하여 2023년 54.1%를 나타낸다. 지난 5년간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서 여성 고용률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제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보다 3.6%p 높은 76.9%이고, 실업률은 전국 보다 0.8%p 낮은 1.8%로 조사되었디. 고용률도 전국 보다 4.2%p 높은 75.5%로 나타났다.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보다 8.7%p 높은 64.3%이고, 실업률은 전국 보다 0.8%p 낮은 2.0%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전국 보다 9.0%p 높은 63.1%로 조사되었다.

2019년 제주지역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과 제주 모두 코로나19 시점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제주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되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여성 고용 상황은 더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취약고용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

〈표 9-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국					제주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3.5	72.6	72.6	73.5	73.3	77.0	74.2	75.5	77.3	76.9
	실업률	3.9	3.9	3.6	2.7	2.6	2.2	2.5	2.8	2.3	1.8
	고용률	70.7	69.8	70.0	71.5	71.3	75.4	72.3	73.4	75.5	75.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3.5	52.8	53.3	54.6	55.6	62.9	63.6	63.8	65.7	64.3
	실업률	3.6	4.0	3.8	3.1	2.8	2.0	2.4	3.6	1.9	2.0
	고용률	51.6	50.7	51.2	52.9	54.1	61.6	62.0	61.5	64.4	63.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연령별 전국과 제주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연령별 고용률은 2023년 기준으로 30대가 7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40대 78.6%, 50대 77.7% 순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37.3%로 전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나, 2019년에 비해서 4.4%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지역 연령별 고용률은 2023년 기준으로 40대가 85.2%로 가장 큰 수치를 보이며, 다음으로 50대 84.6%, 30대 83.4%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국에 비하여 15~29세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주의 고용률은 15~3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2019년에 비해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60세 이상은 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제주지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전국 고령층보다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9-5〉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국					제주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0.9	60.1	60.5	62.1	62.6	68.4	67.1	67.4	69.9	69.2
15~29세	43.5	42.2	44.2	46.6	46.5	43.7	41.6	42.6	47.5	46.4
30~39세	76.0	75.3	75.3	77.3	78.9	77.7	77.0	78.1	84.0	83.4
40~49세	78.4	77.1	77.3	78.1	78.6	85.4	83.3	83.6	85.1	85.2
50~59세	75.4	74.3	75.1	77.1	77.7	84.1	81.8	81.8	81.7	84.6
60~64세	59.8	60.4	59.9	62.6	63.9	72.7	71.3	74.5	75.5	71.8
65세 이상	32.9	34.1	34.9	36.2	37.3	49.1	50.8	49.1	51.0	48.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9-6〉은 전국 및 제주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과 제주 모두 교육수준이 낮은 초졸 이하와 중졸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은 2023년 기준으로 전문대졸이 경제활동참가율(79.0%)과 고용률(7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학교졸 이상이 각각 78.5%, 76.6%로 나타난다.

제주지역 역시 경제활동참가율(84.7%)과 고용률(82.3%)이 가장 높은 학력수준은 전문대졸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대학교졸 이상, 고졸로 확인된다. 제주지역에서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과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학력수준이 낮은 초졸이하에서 제주가 2023년 7.1%p 높은 42.8%를 보이며, 고용률은 6.8%p 높은 41.4%로 기록되었다. 고용률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학력수준은 고졸로 제주지역이 7.9%p 높은 70.4%로 나타났다.

〈표 9-6〉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계	63.3	62.5	62.8	63.9	64.3	60.9	60.1	60.5	62.1	62.6
	초졸이하	36.6	36.7	36.5	35.7	35.7	35.3	35.3	35.0	34.6	34.6
	중졸	40.8	40.5	39.4	39.8	38.3	39.1	38.7	37.8	38.6	37.1
	고졸	64.3	62.6	62.7	64.1	64.3	61.7	59.8	60.2	62.1	62.5
	전문대졸	78.7	77.9	78.3	78.5	79.0	75.6	74.5	75.0	76.0	76.7
	대학교졸이상	77.4	76.6	77.0	78.4	78.5	74.8	74.2	74.8	76.5	76.6
제주	계	69.9	68.8	69.6	71.4	70.6	68.5	67.1	67.4	70.0	69.3
	초졸이하	48.1	52.1	51.5	46.5	42.8	47.6	51.3	49.3	44.6	41.4
	중졸	47.2	44.5	40.6	41.2	39.5	46.6	44.1	38.3	40.7	39.0
	고졸	71.7	69.0	70.7	74.7	71.7	70.2	66.7	68.4	73.2	70.4
	전문대졸	84.1	83.7	83.1	82.5	84.7	82.5	81.6	80.0	79.3	82.3
	대학교졸이상	80.5	79.1	80.5	81.3	81.4	79.2	77.9	79.2	80.0	80.6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다. 산업·직종별 취업 동향

2019~2023년 기간 중 전국 및 제주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증가하고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감소한다. 제주지역 역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은 증가하

고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감소한다.

제주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1.6% 증가한 24.9%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전국은 19.6%로 2019년에 비해 -2.4%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전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제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9-7>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국	계	27,123	100.0	26,904	100.0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395	5.1	1,445	5.4	1,458	5.3	1,526	5.4	1,513	5.3
	광공업	4,444	16.4	4,389	16.3	4,380	16.1	4,512	16.1	4,468	15.7
	제조업	4,429	16.3	4,376	16.3	4,368	16.0	4,503	16.0	4,461	15.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1,284	78.5	21,071	78.3	21,435	78.6	22,051	78.5	22,435	79.0
	건설업	2,020	7.4	2,016	7.5	2,090	7.7	2,123	7.6	2,114	7.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966	22.0	5,647	21.0	5,451	20.0	5,495	19.6	5,572	19.6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10,139	37.4	10,227	38.0	10,536	38.6	10,944	39.0	11,197	39.4
	전기·운수·통신·금융	3,160	11.7	3,181	11.8	3,358	12.3	3,490	12.4	3,553	12.5
제주	계	382	100.0	378	100.0	383	100.0	402	100.0	401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67	17.5	74	19.6	67	17.5	63	15.7	52	13.0
	광공업	12	3.1	13	3.4	15	3.9	16	4.0	15	3.7
	제조업	12	3.1	12	3.2	14	3.7	16	4.0	15	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03	79.3	292	77.2	302	78.9	323	80.3	335	83.5
	건설업	36	9.4	33	8.7	37	9.7	36	9.0	34	8.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9	23.3	90	23.8	93	24.3	98	24.4	100	24.9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137	35.9	134	35.4	139	36.3	156	38.8	164	40.9
	전기·운수·통신·금융	41	10.7	34	9.0	33	8.6	33	8.2	37	9.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9-8〉은 2019~2023년 기간 동안 전국과 제주의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의 취업자 비중은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판매 종사자 25.4%, 관리·전문가 18.2% 순으로 나타난다. 제주에서 2019년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직종은 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로 조사되었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가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관리 전문가 23.4%이다. 전국에서 2019년 대비 취업자수가 증가한 직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관리·전문가이다.

〈표 9-8〉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국	계	27,123	100.0	26,904	100.0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관리·전문가	5,965	22.0	5,876	21.8	5,979	21.9	6,321	22.5	6,643	23.4
	사무 종사자	4,749	17.5	4,691	17.4	4,751	17.4	4,854	17.3	4,965	17.5
	서비스·판매 종사자	6,146	22.7	5,943	22.1	5,839	21.4	5,950	21.2	6,086	2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32	4.9	1,383	5.1	1,396	5.1	1,463	5.2	1,481	5.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8,931	32.9	9,012	33.5	9,309	34.1	9,501	33.8	9,242	32.5
제주	계	382	100.0	378	100.0	383	100.0	402	100.0	401	100.0
	관리·전문가	52	13.6	58	15.3	67	17.5	72	17.9	73	18.2
	사무 종사자	58	15.2	53	14.0	55	14.4	59	14.7	63	15.7
	서비스·판매 종사자	99	25.9	97	25.7	95	24.8	101	25.1	102	25.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6	14.7	63	16.7	57	14.9	56	13.9	46	11.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117	30.6	107	28.3	109	28.5	114	28.4	117	29.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일자리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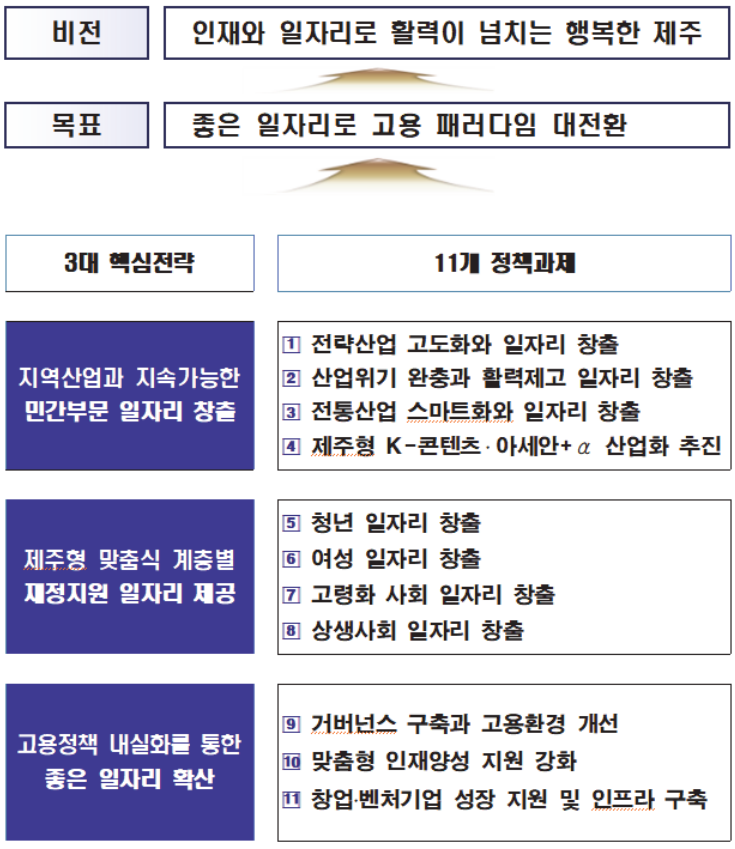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정책 방향은 2019년 1월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부터 일자리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과제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여건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방향은 ① 일자리 중심의 도정 및 미래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②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중점, ③ 생활임금 확산, 비정규직 감축 등을 통한 일자리 질을 제고, ④ 미래유망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 수립하였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여건과 노동시장 특성에서 비롯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 19 등 외부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민선7기 재정지원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유치육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로의 고용패러다임 전환 시기 도래에 따른 제주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전략산업 등의 유치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둘째 핵심전략 산업 및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며, 셋째,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정책 내실화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목표

를 두고,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신기술의 등장과 정부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가진 구조적 문제 해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 등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그림 9-5〉 민선8기 일자리 정책 목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내부자료(2024)

〈표 9-9〉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목표

(단위 : %, %p, 명)

구 분	'21년	'22년	목표				
			'23년	'24년	'25년	'26년	'22년 대비 증감률
고용률	71.6	74.5	74.6	74.7	74.8	74.8	0.3
청년고용률	42.6	47.5	47.6	47.7	47.8	47.9	0.4
여성고용률	66.1	69.3	69.4	69.5	69.6	69.7	0.4
취업자 수 (15세-64세)	330,800	345,000	345,500	346,000	346,500	347,070	0.6
상용근로자 수	172,400	183,000	183,300	183,600	183,900	184,098	0.6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51,748	154,984	155,250	155,500	155,750	155,914	0.6

주 : 고용률은 15세~64세 기준으로 작성(단, 청년고용률은 15세~29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내부자료

2023~2026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천분야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표 9-10〉 참조). 핵심목표 분야는 고용률, 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다. 목표치는 단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높은 고용률 유지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 목표치는 고용률은 74.8%, 청년고용률은 47.9%, 여성고용률은 69.7%, 취업자수(15세~64세)는 347,070명이다. 또한, 분야별 목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21,875명, 일자리 지원 261,300명, 인력양성 123,143명, 취업(알선) 157,5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9-10〉 분야별 일자리 정책 목표

구 분	일자리 계획(명)				
	소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자리창출	21,875	5,463	5,449	5,463	5,500
일자리지원	261,300	64,554	65,218	65,467	66,061
인력양성	123,143	28,999	31,204	30,953	31,987
취업(알선)	157,530	38,669	39,076	39,610	40,17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내부자료

2. 추진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일자리 정책 비전은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 목표는 '좋은 일자리로 고용패러다임 대전환'이다. 세부과제의 3대 핵심전략은 ①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②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③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두고 있는데, ① 전략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② 산업위기 완충과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③ 전통산업 스마트화와 일자리창출, ④ 제주형 K-콘텐츠, 아세안+α 산업화 추진, ⑤ 청년일자리 창출, ⑥ 여성일자리창출, ⑦ 고령화 사회일자리 창출, ⑧ 상생사회 일자리창출, ⑨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 ⑩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강화, ⑪ 창업·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다. 2024년 11개 정책과제는 약 9,813억 원의 투자계획과 계획인원은 173,924명으로 일자리창출 8,462명 일자리지원 57,574명, 인력양성 36,068명, 취업알선 71,820명으로 구성되었다.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구상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지원, 인력양성,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어 목표과제를 선정하여 예산을 투입하였다. 2022년도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서는 5대 전략·7대 중점과제인 총 60개 과제에 대하여 5,808억 원(국비 2,493억 원, 도비 2,932억원, 기타 383억 원)을 투자되었다.

〈그림 9-6〉 민선8기 일자리 정책 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2024)

최근 3년간 일자리 정책 투자계획, 일자리 실적 및 목표를 살펴보면 〈표 9-11〉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은 최근 3년간 투자계획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목표 인원에서 2022~23년도는 일자리창출보다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2024년도는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9-1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실적 및 목표

연도	투자계획 (백만원)	일자리목표(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인력 양성	취업 알선
2022	580,850	5,695	72,165	32,419	36,389
2023	769,376	5,194	57,988	28,348	38,810
2024	981,298	8,462	57,574	36,068	71,82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내부자료

〈표 9-12〉 일자리 세부 정책과제(11개) 투자계획 및 인원

구분	투자계획 (백만원)	일자리 추진계획(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인력 양성	취업 (알선)
합계	981,298	8,462	57,574	36,068	71,820
1. 전략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673,959	775	107	620	39
2. 산업위기 완충과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52,959	172	46,272	8,521	7
3. 전통산업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	78,010	139	32	2,457	46,000
4. 제주형 K-콘텐츠·아세안+α 산업화 추진	3,014	24	2	325	-
5. 청년 일자리 창출	58,719	369	1,007	17,775	20
6. 여성 일자리 창출	12,740	30	295	1,238	15,700
7. 고령화 사회 일자리 창출	33,962	240	5,167	-	-
8. 상생사회 일자리 창출	39,517	3,339	3,713	80	24
9.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	3,562	275	340	1,549	10,030
10.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1,558	2,923	-	3,361	-
11.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	23,298	176	639	142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2024년)

민선8기 일자리 정책 사업지원 방향을 살펴보면, 세부실천과제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근로자 소득안정지원'에서는 9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용장려금, 일자리 인프라 구축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일자리 정책지원 사업은 '일생활양립 문화확산 및 경단여성 일자리 확충 제공'으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일생활양립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강화,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일자리창출 및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역 일자리 관리시스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취약고용계층의 일자리 고용개선, 민간일자리 고용창출과 전략산업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계층별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성과

1.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민선8기 일자리 정책 핵심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주력산업을 육성, 미래산업의 선제적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상장기업, 국내외 성장유망기업들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67개(R&D 57개, 비R&D 10개) 과제를 선정 및 추진하고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5개 프로그램(선도기업, 스타기업, Post-BI, 수출기업, 투자생태계) 85개사를 지원하였다. 도내 주력산업 분야의 역량강화, 대표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최초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 고효율·규모화, 상용화 추진, 권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모빌리티 공공영역 우선 도입, 민간영역 확대를 목표로 자체예산 490백만원을 투입한다. 2023년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충전소 인력을 채용하고, 수소모빌리티 버스(9대), 승용(10대) 도입 완료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23.10월) 및 COP28('23.11~12.)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다. 향후 그린수소 밸류체인 내 기업 유치, 기술 이전 등 지역안착과 그린수소의 단계별 운영·안전관리 및 사양산업 전환을 병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인프라 구축·제도를 마련 등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관광 거점 인근 공유지 활용,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기존 교통 체계와 연계하는 Maas형 버티포트 구축, UAM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예산 1,050백만원을 투자한다. 2023년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완료, 수용성 확보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23.11.) 및 도민 홍보(VR체험존 운영), 글로벌 기업(2개사, '23.10.) 및 도내 기관(9개사, '23.11.)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향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여건조성,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투자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최초 상용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산업 전후방 효과로 일자리 창출, 인재 유치 및 육성으로 제주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우주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성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 유치 및 인력양성, 우주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 RIS 사업단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제주대 학생들을 항공우주분야 우주캠프에 참여,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한림공고를 선정. 5년 동안 최대 135억 원(제주도 30억, 제주도교육청 60억, 교육부 4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우주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2. 제주형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여성,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 더큰내일센터 운영은 제주의 내일(Tomorrow, My work)을 만들어가는 기업가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취·창업(직)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 도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년일자리를 조성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로 기업 구인난과 청년의 안정적 제주 정착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제주지역 청년층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활력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는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180만원의 지원금(인건비) 지원하고, 청년 참여자 기본·심화교육, 컨설팅 지원 등 교육·컨설팅을 실시하며, 출·퇴근시 월 최대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은 5인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15~39세 청년대상,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50만원~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숙소 임차 시 월 주택 임차료의 6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 청년근로자 임차 시 월 주택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신성장산업 청년 인재플러스 사업,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성일자리 창출은 일·생활 양립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여성 혹은 미취업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으로 구분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성교육(이론교육+현장실습), 제주시·서귀포시 내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양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등하원 및 임시보육, 식사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매칭 사업으로 사업예산 10,989백만원이 지원된다.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전문직업능력개발 과정, 문화복지증진사업 운영, 취창업지원으로 취창업알선과 상담, 박람회 등으로 자체예산 378백만원이 투입된다. 4차산업에 적응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미래산업 대비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SW융합콘텐츠 활용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교육시간 176시간, 교육인원 20명), 도내 청년여성 재취업 및 전문교육을 수행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중년 이전직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 안정적인 소득보장 노인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중장년 신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1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225개 기업과 근로자 333명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667개 기업과 근로자 955명이 사업참여자로 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장년의 구직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안정적 소득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소득 보장으로 노인가구의 빈곤층 전락 사전차단 및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어르신 2,925명 참여(사회서비스형 2,148명, 시장형 777명)하였다.

한편, 일자리 취약계층 포괄적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일자리지원사업, 취업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선원 고용안정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부조 형태의 제도로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매년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청년드림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표 9-14〉는 일자리박람회의 유형, 참여기업, 채용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9-13〉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실적

(단위 : 명)

연도	목표인원	추진실적				비 고
		참여자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2020	858	951	306	201	65.70%	취업성공패키지
2021	4,598	3,697	1,165	880	75.50%	
2022	5,598	3,011	895	686	76.60%	
2023	4,570	2,683	811	625	77.1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내부자료

〈표 9-14〉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취업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단위 : 개, 명)

구 분	연도	개최일자	장 소	참여기업	면접참여자	채용실적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2020	11.23.~11.27.	온라인	24	79	9
	2021	10.05.~10.22.	On·off(고용센터)	54	70	44
	2022	10.28.	한라체육관	46	168	37
	2023	11.08.	한라체육관	62	198	16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2020	09.07.~09.17.	온라인	27	114	31
	2021	06.07.~06.18.	온라인	30	75	26
	2022	05.16.~05.27.	온라인	43	30	16
	2023	9.08	제주벤처마루일원	41	72	1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내부자료

3. 좋은 일자리 확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고용환경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강화, 창업·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주형 일자리 정책·혁신 및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로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확산 전개 사업으로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표개발을 통

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생활임금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체, 서비스업종 등 생활임금 인증제 시행 및 우수기업 시상 연계 인센티브 부여하고, 우수기업 선정을 통한 홍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인증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병원, 은행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 및 사회적경제 기업조직, 장애인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임금 시행을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모델 구축 사업은 산학협력 기반의 R&D-인력양성-취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된 기반시설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술ㆍ연구인력의 제주지역 내 정착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지하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제주 지하수연구와 보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과 유관기관이 연계한 맞춤형 현장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및 인력양성으로 구분된다. 특성화고, 대학, 지역의 기능인 등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적합 훈련 수강 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의 생애 단계별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선 8기 도정 일자리 정책은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

한 제주를 비전으로 좋은일자리로 고용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의 고용구조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전환, 일과 삶의 균형, 민간일자리 확대와 좋은 일자리 확산에 중점을 두면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여 실행전략을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핵심 도정과제는 제주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설정하고, 관광서비스업 등 전통산업을 스마트화하고 전략산업을 고도화하여 일자리창출에 중점으로 두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미래신산업으로 우주산업, 제주UAM, 그린수소, 드론산업, 자율주행에 역점으로 두고 있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기존의 분야별 정책의 틀을 새롭게 바꿔 기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튼튼한 경제 만들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립된 고용정책기본계획하에서 제주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노동시장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자 등 각 계층별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적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차·3차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그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여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민간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중앙정부는 민간영역의 주도를 통한 일자리와 먹거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성장 지향성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그린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산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도정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민간 주도 일자리에 주력하여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민간일자리의 도내 육성,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의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프로세스의 단일화를 통해 일하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들의 제주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보 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민간일자리 고용통계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주도는 전입 노동인구가 타산업에서 서비스업종으로 고용변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산업구조를 관광산업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타지역에서 제조업 등 2차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차산업 전입인구의 전직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자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관광수요에 의존하는 관광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육성방향 전환 및 주력산업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하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 지속적인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대학과 연계 협업사업을 구축하여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 사업' 등 총 71개(지방비 13,030백만원 투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는 지역산업 현황과 인력수요, 지자체 발전계획 및 대학 특성화 계획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를 핵심분야로 선정한다. 특히 제주특화형 미래 첨단산업 혁신인재를 양

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융복합 지역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R&D 연구기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취업연계 계약학과 개설 등 우수인재들의 제주 정주안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교적 저숙련 노동자에서 전직 제조업에 종사한 전입자도 관광산업으로 고용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장기적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일자리 구조를 갖춘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직무전환, 전직 재취업 지원 등 사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다.

2. 맞춤형 통합고용관리시스템 구축

타지역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전입자는 미취업, 일용직 등 고용불안계층으로 남아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중장년 등 핵심연령계층에서 나타나 이들의 제주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 전입자들의 전직지원과 중장년 적합직무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입자들의 업종, 직종 등 전직 노동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들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입자의 취업연계시 전직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시 컨설팅을 통해 전환 적합성, 또는 전환시 교육훈련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지 구체화된 맞춤형 지원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입자들이 많은데, 주로 이전과 동일한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 일자리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전입자들이 미취업자로 남아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청년층은 자영업자도 증가하지만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역시 증가한다. 이는 제주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에 제주사회 적응을 위한 정착주민 적응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일자리 홍보 및 취업알선,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전략적 고용지원 정책 추진

코로나19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새로운 고용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숙련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고용구조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일자리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투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사업장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 등이 강조되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교대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어 취약계층 일자리의 축소가 예상된다.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일자리

의 변화가 예상되어 실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과 확대가 요청된다. 비대면 서비스 자동화된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및 직무로 이동하는 직무전환 교육, 재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층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무전환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사업주를 위한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 노동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의 확대 지원 등 고용유지를 높이는 일자리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근로사업장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우리사회에서 업무의 자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에서도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어(이순국, 2023년), 제주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4. 정주여건 개선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주 도민일자리 인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공무원과 공기업(공사, 공단), 그리고 전문 직종의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취업 및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주에 거주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

으며, 도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타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노인 및 중장년(신중년), 장애인 등 지원대상에 따른 다양한 고용일자리 정책 등을 점검하고 향후 민선 8기 고용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이직하는 계층은 청년층이 가장 많고 이직 원인은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역별고용조사, 2023년). 이직하는 청년들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으로 이들이 제주에서 안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완벽한 근로여건을 갖지 못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주거, 교통, 문화 등)을 위한 일자리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사업체-학교, 학생 간 네트워크 및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도내 다양한 유관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교, 교육청, 사업체,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사업장 일자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장 농축수산업

제1절 현황

제주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2023년 기준)은 26조 원으로, 전국 2,404조 원의 1.1% 수준이다. 제주의 농림어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1.6%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농림어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이다.

<표 10-1>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 및 1차 산업의 위치 (2023년)

구분		제주(A)	전국(B)	A/B
지역내총생산액(명목)		26조 원	2,404조 원	1.1%
산업구조 (비중)	농림어업	10.2%	1.6%	6.4배
	광업·제조업	3.5%	27.7%	0.1배
	전기 가스 증기업	0.8%	1.2%	0.7배
	건설업	7.2%	5.8%	1.2배
	서비스업	78.3%	63.7%	1.2배

자료 :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

1. 농축산업

가. 일반농업

(1) 농가인구 및 경지규모별 농가 현황

제주지역의 농가인구는 2023년 72,985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제주도의 농가인구 비율은 총인구 대비 10.4%의 수준이다. 2023년 제주의 농가구 수는 30,357호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다. 2023년 제주의 총인구와 총가구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농가 인구와 호수는 모두 감소했다.

<표 10-2>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현황

(단위 : 호, 명, %, %p)

구분	가구			인구				
	총가구[1]	농가구[1]	비율 (%p)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p)
					계	남자	여자	
2010	224,713	37,893	16.9	577,187	114,539	56,984	57,555	19.8
2015	256,928	33,487	13.0	641,355	93,404	46,788	46,616	14.6
2016	266,972	33,109	12.4	661,190	88,385	44,063	44,322	13.4
2017	278,203	32,200	11.6	678,772	86,463	42,889	43,574	12.7
2018	287,104	31,208	10.9	692,032	82,751	41,140	41,610	12.0
2019	293,155	31,111	10.6	696,657	83,133	42,061	41,073	11.9
2020	302,033	30,365	10.1	697,578	79,797	40,137	39,660	11.4
2021	307,529	31,549	10.3	697,476	75,548	38,434	37,114	10.8
2022	311,355	30,452	9.8	699,751	74,465	37,221	37,244	10.6
2023	313,155	30,357	9.7	700,708	72,985	36,645	36,340	10.4
('23/'22) 증감률[2]	0.6	△0.3	△0.1	0.1	△2.0	△1.5	△2.4	△0.2

주 1) 총가구 및 총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 및 인구임
2) 총가구 및 총인구수는 전년 대비 증감률(%), 비율은 증감치(%p)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농림어업조사」

경지규모별로 보면, 2023년 2~3ha미만 농가는 11.7%, 1~2ha미만 농가는 6.8%, 1.0ha미만 농가는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3ha 이상 농가는 26.1% 증가하였다. 경지규모별 비중은 1.0ha미만 농가의 비중은 전년 수준을 유지, 2~3ha미만 농가의 비중은 0.5%p, 1~2ha미만 농가의 비중은 0.7%p 감소하였고, 3ha이상 농가 비중은 1.7%p 증가하였다. 규모별 농가 수 증가율과 규모별 농가 비중으로 볼 때, 2ha미만의 중소농은 감소하고 3ha 이상의 대농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0-3〉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 호, %)

구분	총농가구	1.0ha 미만	1.0~2.0ha 미만	2.0~3.0ha 미만	3.0ha 이상
2010	37,893 (100.0)	23,673 (62.5)	8,093 (21.4)	2,658 (7.0)	3,469 (9.2)
2015	33,487 (100.0)	21,536 (64.3)	6,949 (20.8)	2,186 (6.5)	2,816 (8.4)
2016	33,109 (100.0)	22,668 (68.5)	6,230 (18.8)	2,112 (6.4)	2,099 (6.3)
2017	32,200 (100.0)	22,069 (68.5)	6,292 (19.5)	2,032 (6.3)	1,808 (5.6)
2018	31,208 (100.0)	21,471 (68.8)	6,089 (19.5)	2,085 (6.7)	1,563 (5.0)
2019	31,111 (100.0)	21,292 (68.4)	6,072 (19.5)	2,160 (6.9)	1,587 (5.1)
2020	30,365 (100.0)	21,402 (70.5)	5,391 (17.8)	1,533 (5.0)	2,039 (6.7)
2021	31,549 (100.0)	22,177 (70.3)	5,723 (18.1)	1,519 (4.8)	2,130 (6.8)

구분	총농가구	1.0ha 미만	1.0~2.0ha 미만	2.0~3.0ha 미만	3.0ha 이상
2022	30,452 (100.0)	21,522 (70.7)	5,710 (18.8)	1,269 (4.2)	1,951 (6.4)
2023	30,357 (100.0)	21,456 (70.7)	5,320 (17.5)	1,120 (3.7)	2,460 (8.1)
증감률('23/'22)	△0.3	△0.3	△6.8	△11.7	26.1

주 1) 추계자료이므로 단위 합계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2) 괄호 안은 해당연도 총농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농림어업조사」

(2)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 현황

제주지역의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의 변화를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2022년과 2023년 제주지역의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 모두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1위이다. 2023년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2년 전국평균 대비 제주도의 소득의 비율은 1.26배인데 비해, 2023년 비율은 1.19배로 하락하였다.

2023년 제주도의 농가자산은 전국평균 대비 1.58배였으나, 2022년 1.71배에서 낮아졌다. 2023년 제주도 농가부채의 전국평균 대비 비율은 2.27배로 농가부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의 비율(2.62배) 보다는 낮아졌다. 2023년 전국 평균 농가 부채가 전년대비 18.7% 증가한 데 비해, 제주의 농가부채는 3.1% 증가에 그친 것이 특징이다.

〈표 10-4〉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

(단위 : 천 원, 배, %)

구분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		
	전국평균 (A)	제주도 (B)	B/A	전국평균 (A)	제주도 (B)	B/A	전국평균 (A)	제주도 (B)	B/A
2000	35,257	37,790	1.07	244,461	368,690	1.51	30,879	44,836	1.45
2005	38,393	56,412	1.47	298,178	414,903	1.39	27,210	47,771	1.76
2010	33,695	43,102	1.28	372,476	440,956	1.18	27,210	40,539	1.49
2015	37,215	43,811	1.18	453,580	543,583	1.20	27,215	61,854	2.27
2016	35,145	43,313	1.23	474,309	622,800	1.31	26,730	63,963	2.39
2017	33,951	46,987	1.38	505,881	712,303	1.41	26,375	65,234	2.47
2018	36,062	41,689	1.16	495,687	857,199	1.73	33,269	74,585	2.24
2019	41,182	48,963	1.19	529,455	921,802	1.74	35,718	75,128	2.10
2020	45,029	49,123	1.09	565,622	948,016	1.68	37,589	82,549	2.20
2021	47,759	52,586	1.10	585,676	1,005,740	1.72	36,592	99,996	2.73
2022	46,153	58,240	1.26	616,467	1,055,109	1.71	35,022	91,654	2.62
2023	50,828	60,531	1.19	608,043	961,714	1.58	41,581	94,476	2.27
증감률 ('23/'22)	10.1	3.9	-	△1.4	△8.9	-	18.7	3.1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3)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현황

2023년 제주지역의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등 3가지 농가 경영지표 모두 전국평균에 비해 큰 수준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2023년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한 데 반해, 농업경영비가 전년 대비 23.9% 증가하여 농업소득이 오히려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비료, 농약 등의 투입재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의 증가, 인건비 급등 등으로 농업경영비의 농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경영비를 낮추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표 10-5〉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단위 : 천 원, 배, %)

구분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전국평균 (A)	제주도 (B)	B/A	전국평균 (A)	제주도 (B)	B/A	전국평균 (A)	제주도 (B)	B/A
2000	29,819	36,158	1.21	13,167	18,009	1.37	16,652	18,149	1.09
2005	33,349	44,714	1.34	18,478	24,276	1.31	14,871	20,438	1.37
2010	28,554	39,279	1.38	17,962	20,432	1.14	10,593	18,847	1.78
2015	33,654	55,293	1.64	22,398	47,580	2.12	11,257	7,713	0.69
2016	29,553	51,179	1.73	20,041	43,433	2.17	9,512	7,746	0.81
2017	27,151	49,412	1.82	18,230	37,602	2.06	8,920	11,810	1.32
2018	30,653	42,021	1.37	19,577	28,373	1.45	11,076	13,647	1.23
2019	34,436	52,019	1.51	24,175	36,742	1.52	10,261	15,277	1.49
2020	36,033	52,934	1.47	24,212	40,849	1.69	11,820	12,086	1.02
2021	37,190	52,247	1.40	24,229	38,886	1.60	12,961	13,361	1.03
2022	34,604	54,254	1.57	25,119	38,841	1.55	9,485	15,413	1.62
2023	37,922	63,361	1.67	26,779	48,130	1.80	11,143	15,231	1.37
증감률 ('23/'22)	9.6	16.8	-	6.6	23.9	-	17.5	△1.2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4) 친환경 농축산물 품질인증 현황

제주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인증 실태를 살펴보면, 농가는 1,307호(2010년)에서 1,143호(2023년), 인증면적은 2,502ha(2010년)

에서 2,344ha(2023년)로 감소했다. 2023년의 경우 농가 수는 무농약 농가(664호)가 유기농가(479호)보다 많으나, 면적은 유기 인증 면적(1,262ha)이 무농약 인증 면적(1,082ha)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유기 농산물 인증 농가 수와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10-6〉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현황

(단위 : 호, ha)

연도별	구분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2010	농가수	1,307	212	784	311
	면적	2,502	1,310	947	245
2015	농가수	1,104	263	800	41
	면적	2,594	1,447	1,109	38
2016	농가수	1,144	328	816	-
	면적	2,409	1,420	989	-
2017	농가수	1,099	332	767	-
	면적	2,388	1,464	924	-
2018	농가수	1,098	349	749	-
	면적	2,124	1,300	823	-
2019	농가수	1,171	387	784	-
	면적	2,204	1,341	863	-
2020	농가수	1,234	440	794	-
	면적	2,211	1,279	932	-
2021	농가수	1,221	477	744	-
	면적	2,226	1,269	957	-
2022	농가수	1,181	467	714	-
	면적	2,347	1,212	1,135	-
2023	농가수	1,143	479	664	-
	면적	2,344	1,262	1,082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나. 주요 작물 현황

(1) 식량작물 생산현황

제주지역의 식량작물 생산량(2023년 기준)은 47,805톤, 재배면적은 12,855ha이다. 2022년에 비해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생산량 중 감자가 31,089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콩 7,130톤, 맥주보리 4,231톤, 기장 1,488톤, 메밀 1,384톤 등의 순서이다.

2023년 콩의 재배면적은 4,903ha로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38.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메밀(2,169ha) 16.9%, 맥주보리(2,006ha) 15.6%, 감자(1,706ha) 13.3%, 기장(1,402ha) 10.9% 등의 순서였다. 2022년부터 메밀과 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10-7〉 식량작물 생산현황

(단위 : ha,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논벼		8	24	4	21	6	18	7	18	7	17
밭벼		61	156	61	157	51	135	49	131	48	128
쌀보리		98	225	95	214	119	237	107	219	99	188
맥주보리		2,725	8,250	2,626	7,902	2,506	7,108	2,189	6,403	2,006	4,231
콩		4,952	3,587	4,804	3,273	4,879	3,607	4,890	3,933	4,903	7,130
팥		3	3	3	3	5	5	6	6	6	6
녹두		66	64	64	64	64	62	61	60	60	60
고구마		124	1,599	84	1,474	66	1,116	67	1,193	50	884
감자	소계	1,938	23,087	1,651	28,671	1,733	30,642	1,742	32,582	1,706	31,089
	봄	308	6,220	293	6,296	293	6,675	303	6,664	297	6,351
	가을	1,388	12,419	1,131	17,856	1,177	18,707	1,189	20,927	1,173	19,915
	겨울	242	4,448	227	4,519	263	5,260	250	4,991	236	4,823
기장		1,257	1,265	1,550	1,496	1,538	1,614	1,467	1,561	1,402	1,488
조		23	10	21	9	22	9	21	9	22	9
메밀		1,043	773	1,058	768	994	730	1,665	1,205	2,169	1,384
옥수수(기타)		66	194	275	824	298	905	341	1,045	263	928
밀		-	-	-	-	5	1	59	222	114	263
합계		12,364	39,231	12,296	44,876	12,286	46,189	12,671	48,587	12,855	47,80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2023년 식량작물 조수입은 1,037억 원으로 전년(1,057억 원) 대비 1.9% 감소하였다(표 10-8). 2023년 식량작물의 품목별 조수입과 그 비중을 살펴보면, 감자가 556억 원(53.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콩 285억 원(27.5%), 메밀 59억 원(5.7%), 기장 57억 원(5.5%), 맥주보리 48억 원(4.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0-8〉 식량작물 품목별 조수입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조수입(백만 원)					비중(%)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논벼	29	25	23	22	23	0.0	0.0	0.0	0.0	0.0
밭벼	165	166	147	145	155	0.2	0.2	0.1	0.1	0.1
쌀보리	270	226	249	237	206	0.4	0.2	0.2	0.2	0.2
맥주보리	10,372	9,881	9,219	8,161	4,760	13.6	10.0	8.9	7.7	4.6
콩	22,306	21,898	22,708	23,968	28,520	29.2	22.1	22.0	22.7	27.5
팥	15	19	32	36	36	0.0	0.0	0.0	0.0	0.0
녹두	440	436	411	393	383	0.6	0.4	0.4	0.4	0.4
고구마	2,050	2,214	1,635	1,684	1,247	2.7	2.2	1.6	1.6	1.2
감자	32,264	54,789	58,392	58,099	55,612	42.2	55.3	56.6	54.9	53.6
조	44	31	33	31	31	0.1	0.0	0.0	0.0	0.0
메밀	-	3,282	3,146	5,399	5,920	-	3.3	3.0	5.1	5.7
기장	-	6,023	5,927	6,067	5,725	-	6.1	5.7	5.7	5.5
기타	8,530	163	1,252	1,490	1,105	11.2	0.2	1.2	1.4	1.1
합계	76,485	99,153	103,174	105,732	103,723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에는 옥수수, 밀 등이 포함 (2019년은 메밀, 기장도 포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2) 채소작물 생산현황

2023년 제주지역의 채소작물 생산량은 604,303톤, 재배면적은 13,447ha이다. 2022년에 비해 채소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생산량 중 월동무가 342,470톤(5,091ha)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양배추 88,415톤(1,622ha), 당근 48,370톤(1,245ha), 양파 38,275톤(750ha), 브로콜리 16,401톤(1,262ha), 마늘 11,039톤(1,113ha), 시설채소 9,264톤(172ha)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0-9〉 채소작물 생산현황

(단위 : ha,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월동무	4,923	320,305	5,056	359,575	5,488	390,476	5,464	380,294	5,091	342,470
배추	154	6,460	130	6,287	121	5,909	122	5,124	70	2,833
양배추	1,721	78,005	1,753	103,222	2,066	126,065	1,548	91,103	1,622	88,415
당근	1,067	38,991	1,357	49,527	1,206	50,435	848	28,825	1,245	48,370
마늘	1,943	35,063	1,665	27,092	1,314	19,772	1,275	18,602	1,113	11,039
양파	586	37,277	633	40,516	698	43,369	801	46,072	750	38,275
쪽파	420	8,475	427	6,828	449	9,149	455	7,818	309	8,535
브로콜리	1,273	18,763	1,385	22,952	1,171	18,360	1,275	16,097	1,262	16,401
시설채소	185	7,800	170	7,316	170	8,002	174	7,868	172	9,264
기타	1,517	42,553	1,699	48,240	3,275	64,137	1,875	39,978	1,813	38,701
합계	13,789	593,692	14,275	671,555	14,338	708,165	13,837	641,781	13,447	604,303

주 : 기타에는 단호박, 콜라비, 적채, 수박, 딸기, 비트 등이 포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2023년 채소류 조수입은 6,551억 원으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작황이 부진했음에도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며 전년(5,786억 원) 대비 13% 증가했다. 2023년 월동무의 조수입은 2,080억 원으로 전체 조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인 31.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조수입이 큰 품목으로는 양배추 909억 원(13.9%), 당근 863억 원(13.2%), 브로콜리 534억 원(8.1%), 양파 504억 원(7.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0-10〉 채소작물 품목별 조수입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조수입(백만 원)					비중(%)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무	181,560	106,434	162,793	177,255	208,033	31.0	21.1	25.5	30.6	31.8
배추	2,843	2,043	4,607	2,219	1,986	0.5	0.4	0.7	0.4	0.3
양배추	87,167	60,116	107,919	58,853	90,926	14.9	11.9	16.9	10.2	13.9
당근	59,151	46,108	50,297	57,622	86,341	10.1	9.1	7.9	9.9	13.2
마늘	78,201	88,446	102,627	55,929	35,171	13.4	17.5	16.0	9.6	5.4
양파	39,773	37,659	26,963	48,528	50,355	6.8	7.5	4.2	8.4	7.7
쪽파	22,204	31,646	31,316	32,308	28,834	3.8	6.3	4.9	5.6	4.4
브로콜리	52,388	47,212	51,988	48,420	53,383	9.0	9.4	8.1	8.4	8.1
시설채소	22,947	33,008	33,337	36,925	38,177	3.9	6.5	5.2	6.4	5.8
기타	38,771	52,221	67,756	61,588	61,933	6.6	10.3	10.6	10.6	9.5
합계	585,005	504,893	639,603	579,647	655,139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에는 단호박, 콜라비, 적채, 수박, 참외, 딸기, 고추, 대파 등이 포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3) 감귤 생산현황

2023년 감귤 생산량은 579,432톤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2023년 노지온주 생산량은 405,88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14,242ha로 전체 재배면적(19,726ha)의 72.2%를 차지했다. 2023년 만감류 생산량은 116,559톤, 재배면적은 4,172ha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11〉 감귤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ha, 톤)

연도별	합계		온주감귤								만감류	
			소계		노지		하우스		비가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25,796	563,341	25,131	552,724	24,323	518,731	566	27,655	242	6,338	665	10,617
2005	21,431	661,992	19,961	637,696	19,086	600,511	409	23,751	466	13,434	1,470	24,296
2010	20,747	568,478	19,046	525,652	17,921	480,565	312	21,602	813	23,485	1,701	42,826
2015	20,523	635,032	18,411	567,628	16,775	519,243	250	20,401	1,386	27,982	2,112	67,406
2016	20,491	599,642	18,230	525,727	16,610	466,817	284	21,660	1,336	37,250	2,261	73,915
2017	20,140	576,722	16,208	497,903	15,005	440,254	301	22,637	901	35,012	3,932	78,819
2018	20,090	607,638	16,154	527,475	14,898	467,600	321	22,898	935	36,977	3,936	80,163
2019	20,059	631,310	16,086	548,868	14,815	491,149	339	27,543	932	30,176	3,973	82,442
2020	20,038	654,864	16,058	572,486	14,755	515,778	363	25,358	943	31,350	3,980	82,378
2021	19,978	613,118	15,896	520,135	14,607	467,293	373	27,009	916	25,833	4,082	92,983
2022	19,871	581,858	15,709	481,867	14,405	428,977	415	25,775	889	27,115	4,162	99,991
2023	19,726	579,432	15,554	462,873	14,242	405,885	443	26,824	869	30,164	4,172	116,55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감귤 품종 및 작형별 조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지감귤의 조수입은 2000년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도 및 크기 관리 등 감귤 고품질화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2023년 노지감귤 조수입은 6,334억 원으로 전년(4,896억 원) 대비 29.4%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만감류 조수입(4,743억 원)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증가로 전년(3,774억 원) 대비 25.7% 증가하였다. 전체 감귤류 조수입에서 만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이며, 노지감귤은 47.8%, 하우스 8.5%, 비가림 7.9%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만감류의 고품질화와 고가격 전략으로 인해 만감류의 조수입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12〉 감귤류 품종별 조수입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조수입 (억 원)							조수입(%)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2023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2023
노지	2,860	4,463	4,052	2,924	4,719	4,896	6,334	77.1	74.3	60.6	48.6	49.6	47.0	47.8
하우스	682	659	745	630	1,006	995	1,124	18.4	11.0	11.1	10.5	10.6	9.6	8.5
비가림	60	181	300	480	688	752	1,047	1.6	3.0	4.5	8.0	7.2	7.2	7.9
만감류	106	703	1,588	1,988	3,095	3,774	4,743	2.9	11.7	23.8	33.0	32.6	36.2	35.8
합계	3,708	6,006	6,685	6,022	9,508	10,418	13,2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4) 감귤 생산처리현황

2023년 현재 제주도 선과장 수는 403개이며, 이중 농·감협의 선과장은 144개, 유통인은 171개이며, 법인은 88개를 운영하고 있다. 비파괴 선별기를 보유한 대형 선과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만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대형 선과장 15개 중 10개를 농·감협이 운영하고 있다.

〈표 10-13〉 감귤선과장 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선과장 (개소)	처리능력별 구분		
		소 형 (3,000톤 미만)	중 형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대 형 (10,000톤 이상)
전체	403	296	92	15
농협	91	70	15	6
감협	53	35	14	4
유통인	171	138	33	0
법인	88	53	30	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5) 특용작물 생산현황

2023년 제주도 특용작물 생산량은 7,079톤, 재배면적은 2,343ha이다. 이 중 약용작물이 5,376톤(984ha)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녹차 876톤(565ha), 참깨 220톤(474ha), 땅콩 192톤(186ha), 기타작물(선인장, 알로에, 신선초 등) 192톤(32ha), 유채 132톤(94ha), 버섯 91톤(8ha) 순이다.

<표 10-14> 특용작물 생산현황

(단위 : ha,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유채	86	119	86	119	89	124	95	133	94	132
참깨	629	287	517	244	484	228	481	231	474	220
땅콩	96	139	133	50	140	95	144	150	186	192
녹차	592	1,551	593	1,517	575	857	570	875	565	876
약용작물	968	5,086	1,088	5,739	1,071	5,710	1,039	5,564	984	5,376
버섯	7	93	7	93	8	93	8	93	8	91
기타작물	33	193	32	191	31	189	33	192	32	192
합계	2,411	7,468	2,456	7,953	2,398	7,296	2,370	7,238	2,343	7,079

주 1) 약용작물에는 더덕, 도라지, 오가피, 복분자, 석창포 등이 포함됨.
2) 기타작물에는 선인장, 알로에, 신선초 등이 포함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2023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특용작물의 품목별 조수입을 살펴보면, 약용작물이 428억 원으로 전체 814억 원 중 52.6%를 차지하고 있다. 약용작물은 더덕, 도라지, 오가피, 복분자, 석창포 등의 작물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작물은 녹차 31.5%, 땅콩 8%, 참깨 6.1%, 버섯 0.8%, 기타작물 0.7%, 유채 0.3%의 순서이다.

〈표 10-15〉 특용작물 품목별 조수입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조수입(백만 원)					비중(%)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채	190	183	186	207	205	0.2	0.2	0.3	0.3	0.3
참깨	5,310	4,620	4,788	5,215	4,966	6.0	5.6	6.5	6.4	6.1
땅콩	2,502	1,500	3,135	5,100	6,494	2.8	1.8	4.2	6.2	8.0
녹차	31,980	28,180	19,025	25,650	25,679	36.4	33.9	25.7	31.4	31.5
약용작물	46,971	47,530	45,680	44,315	42,817	53.4	57.2	61.7	54.2	52.6
버섯	385	580	667	667	653	0.4	0.7	0.9	0.8	0.8
기타작물	560	550	548	583	583	0.6	0.7	0.7	0.7	0.7
합계	87,898	83,143	74,029	81,737	81,397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약용작물에는 더덕, 도라지, 오가피, 복분자, 석창포 등이 포함됨.
2) 기타작물에는 선인장, 알로에, 신선초 등이 포함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다. 축산업

(1) 축산 농가인구

제주지역의 축산 농가인구는 2023년 15,965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제주도의 축산 인구 비율은 농업인구 대비 21.9%의 수준으로 커졌으며, 축산 농가 호수는 2023년 5,285호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여 전체 농가 수 대비 1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환경 문제 등으로 돈사 폐업 지원 사업 등을 시행했음에도 제주 농축산식품 산업에서 축산업의 중요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표 10-16〉 축산농가 및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호, %, 명)

구분	가구(호)			가구비율(%)		인구(명)			인구비율(%)	
	총가구	농가수	축산 가구	총가구 대비	농가구 대비	총인구	농업 인구	축산 인구	총인구 대비	농업인구 대비
2000	177,600	39,114	5,012	2.8	12.8	543,323	129,152	20,048	3.7	15.5
2010	244,713	37,893	5,807	2.4	15.3	577,183	144,539	22,774	3.9	15.8
2015	256,928	33,487	5,226	2.0	15.6	641,355	93,404	20,085	3.1	21.5
2016	266,972	33,109	5,030	1.9	15.2	661,190	88,385	18,761	2.8	21.2
2017	278,203	32,200	4,765	1.7	14.8	678,772	86,463	17,254	2.5	20.0
2018	287,104	31,208	4,868	1.7	15.6	692,032	82,751	15,281	2.2	18.5
2019	293,155	31,111	4,918	1.7	15.8	696,657	83,133	15,278	2.2	18.4
2020	302,033	30,365	4,947	1.6	16.3	697,578	79,797	15,430	2.2	19.3
2021	307,529	31,549	4,897	1.6	15.5	697,476	75,548	15,552	2.2	20.6
2022	311,355	30,452	4,878	1.6	16.0	699,751	74,465	15,325	2.2	20.6
2023	313,155	30,357	5,282	1.7	17.4	700,708	72,985	15,965	2.3	21.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농림어업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2) 주요 가축사육 동향

제주지역의 소 사육두수는 2023년 44,026두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소 사육두수 중 한우가 88.5%의 비중을 차지한다. 2000년 이후 한우의 사육두수는 증가세이나, 육우와 젖소의 사육두수는 감소세를 보인다. 또한 돼지 사육두수는 2023년 543,540두로 전년 대비 2.6%, 닭 사육두수는 1,86,131두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나, 말 사육두수는 14,777두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다.

<표 10-17> 주요 가축사육 두수 변화 추이

(단위 : 마리, %)

구분	소				돼지	닭	말
	계	한우	육우	젖소			
2000	27,289	10,548	11,184	5,557	335,645	1,300,049	7,348
2010	35,160	27,312	3,175	4,673	502,032	1,344,322	22,233
2015	34,264	27,668	2,301	4,295	553,872	1,659,826	15,081
2016	35,171	29,870	1,233	4,068	564,915	1,672,168	15,284
2017	39,913	34,225	1,519	4,169	557,703	1,733,061	15,177
2018	36,533	35,118	1,415	4,183	534,113	1,846,473	15,683
2019	35,337	34,064	1,273	3,939	551,168	1,810,610	14,997
2020	39,789	34,714	1,129	3,946	523,450	1,871,784	14,790
2021	40,563	35,658	1,148	3,757	547,820	1,913,918	15,038
2022	42,670	37,750	1,147	3,773	529,771	1,808,155	14,928
2023	44,026	38,978	1,076	3,972	543,540	1,816,131	14,777
증감률 ('23/'22)	3.2	3.3	△6.2	5.3	2.6	0.4	△1.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3) 초지 조성 현황

2023년 기준 초지 조성 면적은 총 15,434ha로 제주시 8,627ha (55.9%), 서귀포시 6,807ha(44.1%)로 구성되었다. 2023년 중 신규 조성된 초지보다 관리 제외된 토지가 많아 전년에 비해 초지 면적은 소폭 감소했다.

〈표 10-18〉 초지 조성 현황

(단위 : ha)

구분	2022년 말 관리 실태 (A)	신규조성 (B)	관리 제외 (C)	2023년 말 현황 (=A+B-C)
계	15,456.3	7.45	29.45	15,434.3
제주시	8,636	7.0	15.8	8,627.2
서귀포시	6,820.3	0.45	13.65	6,807.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지역 축산단지 참여 농가 수는 한우단지 22개 호, 낙농단지 4개 호, 양돈단지 91개 호, 양계단지 7개 호이다. 양돈단지의 경우, 참여 농가 수는 적지만 축산단지별 사육규모가 커서 제주지역의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가 크다.

〈표 10-19〉 축산단지 현황

구분	참여 농가수	사육규모
한우단지	22호	1,159두
낙농단지	4호	253두
양돈단지	91호	227,880두
양계단지	7호	370,000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의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2023년 가축분뇨 공

공처리시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개 소가 있으며, 처리 용량은 각각 430톤/일, 200톤/일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총 7개가 있으며, 총 1,449톤/일의 처리 용량을 보유하였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125톤/일의 처리 용량을 지녔으며, 하루 8,000kwh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였다.

〈표 10-20〉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구분		개소	처리 용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	1	430톤/일
	서귀포시	1	200톤/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7	1,449톤/일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1	125톤/일 (음폐수 30톤 포함)/ 발전용량 8,000 kWh/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라. 산림현황

(1) 소유별 산림면적

제주지역의 2023년 산림면적(2020년 시행한 5년 단위 조사와 동일)은 87,334ha로 전국 산림면적 6,334,615ha의 1.4%, 제주지역 국토면적 184,913ha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의 산림면적이 서귀포시의 산림면적 보다 1,723ha 더 크다. 사유림은 46,313ha의 면적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53%를 차지한다.

〈표 10-21〉 연도별/소유별 산림면적 현황

(단위 : ha)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산림청 소관		타 부처 소관	도유림	군유림	
		요존	불요존				
2015	88,022	19,213	1,139	16,014	4,224	365	47,067
2020	87,334	19,977	478	15,840	4,472	254	46,313
2023	87,334	19,977	478	15,840	4,472	254	46,313
제주시	44,499	9,068	212	7,137	3,246	15	24,836
서귀포시	42,835	10,909	266	8,703	1,480	239	21,477

주 : 산림기본통계의 공표주기는 5년으로 2023년 통계도 공표된 202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2) 임상별 산림면적

제주지역의 2023년 활엽수림 면적(2020년 시행한 5년 단위 조사와 동일)은 28,384ha로 전체 산림면적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립목지(23,224ha) 26.6%, 침엽수림(21,603a) 24.7%, 혼효림(14,033ha) 16.1%, 죽림(90ha) 0.1%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10-22〉 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ha)

구분	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무립목지
2015	88,022	21,628	30,599	12,601	86	23,108
2020	87,334	21,603	28,384	14,033	90	23,224
2023	87,334	21,603	28,384	14,033	90	23,224
제주시	44,499	12,010	14,417	6,180	51	11,841
서귀포시	42,835	9,593	13,967	7,853	39	11,383

주 : 1) 무립목지에 미입목지, 황폐지, 개간지, 제기가 포함됨.
2) 산림기본통계의 공표주기는 5년으로 2023 통계도 공표된 2020년과 동일 한 것으로 가정

자료 :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3) 보호수 관리현황

제주도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2017.06.28. 시행)[1],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9조(2010.11.02. 시행)[2],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2014.01.01. 시행) 등의 보호수 지정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주의 보호수 중 팽나무는 99본, 해송은 30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호수종이다. 2023년 현재 제주시에 115본의 보호수가 있다.

<표 10-23> 보호수 수종별 관리현황

(단위 : 본)

구분	팽나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해송	소나무	조록나무	은행나무	귤나무	먼나무	주엽나무	녹나무	푸조나무	육박나무	소귀나무
계	99	4	3	4	30	2	1	1	2	1	1	2	5	1	1
제주시	74	-	2	1	29	-	-	1	2	-	1	1	3	1	-
서귀포시	25	4	1	3	1	2	1	-	-	1	-	1	2	-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

1)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지정유형에 따라 보전관리유형을 구분하고 관리유형에 따라 보호관리 하도록 함.
① 지정유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구분하고, ② 핵심구역 이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호 관리토록 하였으며, ③ 핵심구역은 보전을 위한 보호를 주된 관리방향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보전을 위한 보호와 일반국민들에게 그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림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수산업

가. 어업가구 및 인구

2023년 기준 제주지역의 어업가구와 어업인구는 각각 2,751호, 5,639명으로 전국 대비 각각 6.6%,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제주도의 어업가구는 2022년에 비해 3.3%, 어업인구는 5.9% 감소하였다.

〈표 10-24〉 어업가구 및 인구

(단위 : 호, 명, %)

구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어업가구	전국	42,536	41,775	△1.8
	제주	2,844	2,751	△3.3
	비율	6.7	6.6	-
어업인구	전국	90,805	87,115	△4.1
	제주	5,994	5,639	△5.9
	비율	6.6	6.5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나. 어선세력

2023년 제주지역의 어선 척수는 총 1,931척이며, 1척을 제외하고 모두 동력 어선이다. 전년 대비 어선 척수는 9척 감소했으나 전체 톤수는 12.5% 증가했다. 따라서 어선 1척당 평균 톤수는 20.8톤으로 증가해 어선의 대형화가 진척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25〉 어선세력 추이

(단위 : 척, 톤)

구분	합계				동력 어선 수	무동력 어선 수
	척수	톤수	척당 평균톤수	전국 척당 평균톤수		
1990	2,055	14,000	6.8	9.8	1,894	161
1995	2,325	16,572	7.1	12.5	2,299	26
2000	3,303	20,107	6.1	9.6	3,289	14
2005	3,239	21,518	6.6	8.1	3,232	7
2010	2,068	17,878	8.6	7.8	2,066	2
2015	1,934	17,808	9.2	8.1	1,933	1
2016	1,952	18,796	9.6	8.0	1,951	1
2017	1,960	26,019	13.3	8.2	1,959	1
2018	1,994	31,802	15.9	8.0	1,991	3
2019	1,973	33,799	17.1	7.8	1,973	-
2020	1,962	34,571	17.6	-	1,962	-
2021	1,944	34,878	17.9	-	1,943	1
2022	1,940	35,750	18.4	-	1,940	-
2023	1,931	40,202	20.8	-	1930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현황 (2024)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농축산업

가. 일반농업 분야

2023년 일반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산업 미래 먹거리 견인을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과 소비 체계구축에 집중하였다. 특히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이었던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도 본격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 설립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센터)를 통해 작물의 수급안정 사업을 지원하였다.

제주도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연구와 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농업 기반 구축을 확대하여 제주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주농업기술원에서는 종자주권 확립, 기후변화 대응, 실용기술 개발·보급, 농업·농촌의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미래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이용원 제도를 지속 시행하였다.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 발생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적 지원을 시행했다. 농업경영비 부담과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 비료가격안정 지원, 직거래 물류비 지원 등에 투자했다.

나. 감귤산업 분야

2023년 제주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3년 제주 감귤 조수입은 1조 3,248억 원으로 2022년 1조 418억 원 대비 27.2% 증가했다. 2023년 감귤 조수입 증가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과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구축, 소비촉진 홍보 정책을 시행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출하와 높은 시장가격을 이끈 세부 정책으로는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의무화,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제도 시행, 만감류 생산량 증가, 규격 외 감귤 시장격리, 월동감귤 품질 향상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제주 감귤 가격이 높게 유지된 주요 요인으로는 노지감귤 비대·성숙기의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인한 고당도 감귤 생산, 봄철 육지부 저온피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 감소, 철저한 선별과 사전 출하조절 및 상품외 감귤 시장 유통 차단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제주도는 원지 정비, 품종갱신 등을 통해 354ha의 경제 과원을 조성했고, 고품질 감귤의 선별·출하를 위해 노지감귤 가공용 수매 및 자가격리 42,000톤을 실시하고, 광센서 선별기 보급(3개소)도 지원했다. 특히 만감류에 대해서는 출하 전 품질 검사제를 시행하여 검사 신청 대비 47.8%의 합격률을 보였고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했다.

다. 축산 분야

2023년 축산분야의 정책은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값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적극 대처하여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형 친환경 축산

업 구현을 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흑우·한우 분야에는 한우 경제형질 가속화와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우량개체 보급 등에 투자 지원하고, 낙농 분야에는 청정우유 품질관리, 젖소 생산성 향상, 착유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제주산 말의 가치상승 및 경주능력 향상, 승마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축산기자재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소규모 양돈장 폐업 등 사육시설 개선분야도 지속 지원하였다.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계장시설 보완, 육계 부화장 시설,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도축장 시설개선, 축산물 수급안정화 등 축산물 유통분야에 투자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냄새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라. 임업 분야

2023년 임업분야에서는 생활권 녹색공간과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중심의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열섬 현상 저감과 도민 휴식공간 제공 등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대응도시숲, 생활밀착형숲, 녹색쌈지숲, 학교숲 등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2023년에는 도로변 안전지대를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과 걷고 싶은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 흡수원 확충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도 진행했고, 3,807ha의 산림에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실시해 탄소 흡수원 확충 능력을 높였다. 제주의 대표 인공림인 삼나무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림순환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목재의 자원화와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문화·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산림휴양 치유공간 조성 및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애주기별 산림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수산업

2023년 수산분야에서는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신성장, 제주 해양산업 육성」의 실현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기존 어항을 활용한 마리나항 개발과 쾌적하고 특화된 연안환경 조성 등을 시행하였고,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에 맞춰 인프라 확충 및 사계절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양레저체험센터를 조성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크루즈 산업의 재개를 위해 크루즈선 제주 기항 유치 및 마케팅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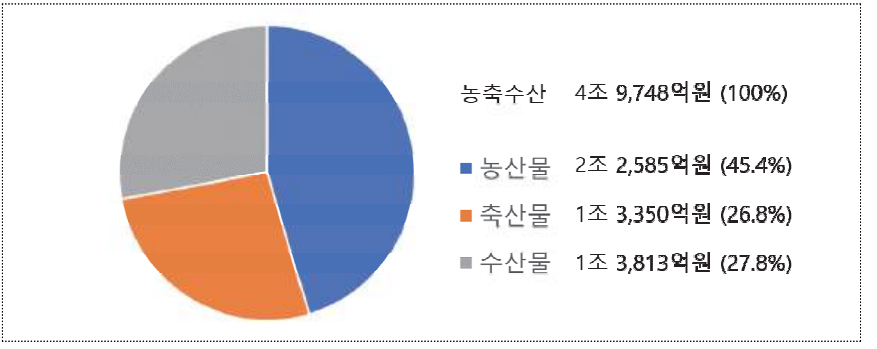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양식업의 재도약을 위해 양식업양식기반 조성 및 피해 예방, 양식품종 다변화 지원,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였다. 어선사고 예방대응, 경영안정 및 선원복지 강화 지원 등 어선어업 분야 지원과 해녀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다.

제3절 성과

1. 농축산업

2023년 기준 제주 농축수산업의 전체 조수입은 4조 9,748억 원으로 전년 4조 6,617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2조 2,585억 원(45.4%), 축산물 1조 3,350억 원(26.8%), 수산물 1조 3,813억 원(27.8%)으로 구성된다.

<그림 10-1> 2023년 농축수산업 조수입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가. 농업 분야

(1) 농가소득

제주지역의 호당 농가소득은 지난 2010년 41,089천 원에서 2023년 60,531천 원으로 47.3% 증가하였으며, 농외소득은 동 기간 58.3% 증가하였다. 2023년 제주지역의 농가소득은 전국 대비 19.1% 높은

수준이고, 농외소득은 31.4% 높은 수준이다. 제주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촌관광 등을 통해 타 지역보다 농업외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26〉 농가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

구분	전국			제주도			전국 대비	
	농가소득 (A)	농외소득 (B)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C)	농외소득 (D)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C/A)	농외소득 (D/B)
2010	32,121	12,946	40.3	41,089	16,597	40.4	127.9	128.2
2015	37,215	14,939	40.1	43,811	24,354	55.6	117.7	163.0
2016	37,197	15,252	41.0	45,842	26,062	56.9	123.2	170.9
2017	38,239	16,269	42.5	52,922	28,790	54.4	138.4	177.0
2018	42,066	16,952	40.3	48,630	21,028	43.2	115.6	124.0
2019	41,182	17,327	42.0	48,963	19,737	40.3	118.9	114.0
2020	45,029	16,608	36.9	49,123	20,389	41.5	109.1	122.8
2021	47,759	17,884	37.4	52,586	23,248	44.2	110.1	130.0
2022	46,153	19,202	41.6	58,240	25,863	44.4	126.2	134.7
2023	50,828	19,999	39.3	60,531	26,271	43.4	119.1	131.4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통계」

(2) 작목별 조수입

제주지역의 농업(농산물) 부문 조수입은 2023년 2조 2,255억 원으로 전년(1조 8,731억 원)대비 20.6% 증가하였다. 조수입의 비중 구성을 살펴보면, 과수류가 62.5%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채소류 29.0%, 식량작물 4.6%, 특용작물 3.6%, 화훼작물 0.3% 순으로 나타났다. 감귤류의 조수입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연속 1조 원을 상회했다.

〈표 10-27〉 작목별 조수입의 변화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식량작물		76,485	4.6	98,990	5.8	103,174	5.4	105,732	5.6	103,723	4.6
채 소 류		585,005	35.4	504,893	29.7	639,603	33.6	579,647	30.9	655,139	29.0
과수	소계	903,904	54.7	1,008,881	59.3	1,083,180	56.9	1,100,542	58.8	1,412,340	62.5
	감귤	850,618	51.4	950,829	55.9	1,027,131	54.0	1,041,846	55.6	1,324,793	58.7
	기타 과수	53,286	3.2	58,052	3.4	56,049	2.9	58,696	3.1	87,547	3.9
특용작물		85,826	5.2	81,828	4.8	71,280	3.7	81,737	4.4	81,397	3.6
화 훼		7,560	0.5	5,981	0.4	5,441	0.3	5,490	0.3	5,997	0.3
총 조수입		1,653,869	100.0	1,700,573	100.0	1,902,678	100.0	1,873,148	100.0	2,258,596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나. 감귤산업 분야

감귤재배 농가 수는 2023년 기준 31,763호, 재배면적은 19,726ha이다. 2023년 감귤 생산량은 579천톤으로 한국 과수 총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작물이다. 감귤 생산량은 해거리현상에 의한 연도 간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최근 품종과 작형이 다양화되면서 그 변화폭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고수익 작목인 만감류의 생산 증가가 본격화되어 2023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2021년 처음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얻었고, 2022년 1조 418억원, 2023년 1조 3,248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는 품목이 되었다. 가격이 높은 만감류

의 생산 증가와 도청 감귤유통과의 미래감귤사업단 운영 등 노지감귤의 품질 관리 노력이 감귤류의 가격 유지와 조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표 10-28〉 감귤재배 및 생산 추이

(단위 : ha, 천 톤, 호, 억 원)

연도	재배면적(ha)	생산량(천 톤)	농가수(호)	조수입(억 원)
2000	25,796	563	36,590	3,708
2005	21,430	662	30,659	6,006
2010	20,747	569	30,905	6,685
2015	20,523	635	31,458	6,022
2016	20,491	600	31,525	9,114
2017	20,140	576	30,957	9,458
2018	20,090	607	30,846	9,402
2019	20,059	631	30,711	8,506
2020	20,038	655	30,843	9,508
2021	19,978	613	30,799	10,271
2022	19,871	582	30,912	10,418
2023	19,726	579	31,763	13,24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2023년에는 감귤 가공식품 수요 정체와 감귤주스 공장의 라인 전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2,669톤을 가공용으로 사용했다. 감귤 가공식품은 초콜렛, 타르트, 젤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감귤주스의 생산에 사용된다.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혈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감귤주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귤 생과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2S 미만과 2L 이상 크기의 감귤에 대한 시장격리 정책을 확대하면서 2023년에도 노지감귤 생산량 대비 10%대 가공 비중은

유지했다.

2023년 노지감귤 수출은 3,659톤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요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 수출은 국내 가격이 높으면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감소하고, 생산량이 과잉일 때 국내 잔여물량을 밀어내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스페인, 미국 등 감귤 수출 선진국의 최고품을 선별해 수출하는 전략과는 상반된 것으로 감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선진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표 10-29〉 노지감귤 용도별 처리현황

(단위 : 톤)

연도별	합계	생과			가공	기타
		도외상품	수출	군납		
2000	518,514	398,675	5,722	1,857	27,468	84,432
2005	601,511	446,935	3,363	158	124,855	25,200
2010	480,565	335,694	1,544	1,029	80,888	61,410
2015	489,451	283,492	2,633	1,687	84,477	117,162
2016	466,817	281,618	2,227	2,206	55,925	124,841
2017	440,254	264,142	1,793	3,254	71,929	99,136
2018	497,600	281,294	1,801	1,469	62,542	120,494
2019	491,149	238,871	2,326	1,670	76,482	171,800
2020	497,689	243,218	6,302	1,092	76,939	170,138
2021	467,293	227,633	6,170	844	65,240	167,406
2022	428,977	194,701	3,012	839	64,436	165,989
2023	398,246	193,074	3,659	526	42,669	158,318

주 : 2015년산은 동·상해 피해로 인해 발생한 감모량을 기타에 포함(12,276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다. 축산업 분야

(1) 가축 사육현황

제주지역의 가축 사육두수는 2023년 소 44,026두(한우 38,978두, 육우 1,076두, 젖소 3,972두), 돼지 543,540두, 닭 1,816,131두, 말 14,777두로 집계되었다. 농가당 사육규모는 소 전체 농가 평균 63두(한우 60두, 육우 89두, 젖소 128두), 돼지 2,114두, 닭 18,723두, 말 13두로 집계되었다.

<표 10-30> 주요 가축 사육현황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소				돼지	닭	말
	계	한우	육우	젖소			
두수	44,026	38,978	1,076	3,972	543,540	1,816,131	14,777
호수	688	645	12	31	257	97	1,099
농가당 규모	63	60	89	128	2,114	18,723	13

주 : 3천수 이상 사육농가 대상 전수조사 자료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2) 축산 조수입

제주지역의 축산 조수입은 2023년 1조 3,350억 원으로, 이는 농축수산업 전체 조수입(4조 4,712억 원)의 26.7%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양돈업의 조수입이 4,686억 원으로 단일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제주의 말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경마 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1,784억 원을 기록했다.

〈표 10-31〉 축산 조수입 변화

(단위 : 억 원)

구분	총 조수입	한·육우	낙농	말	양돈	가금	양봉	기타 가축	동물 병원	기타
2022	13,939	998	281	1,650	5,345	714	214	86	422	4,229
2023	13,350	796	294	1,784	4,686	737	183	85	414	4,371
증감률 ('23/'22)	Δ4.2	Δ20.2	4.7	8.1	Δ12.3	3.2	Δ14.1	Δ1.4	Δ2.0	3.3

자료 : 제주도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2. 수산업

가. 수산물 생산

2023년 수산물 생산량은 18만 8,298톤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으나, 생산액은 1조 1,730억 원으로 4.3%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크게 완화되면서 수산물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회복되었다. 그러나 2023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되고 여전히 선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비가 높아져 제주지역 어가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다.

〈표 10-32〉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금액

(단위 : 톤, 백만 원)

구분		계	어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2000	수량	44,127	33,211	3,871	6,418	627
	금액	335,172	309,332	20,054	3,835	1,951
2005	수량	79,897	74,260	3,178	1,245	1,214
	금액	438,949	417,842	14,271	3,641	3,195
2010	수량	64,270	59,907	1,504	757	2,102
	금액	605,947	589,243	5,893	2,721	8,090
2015	수량	148,601	73,059	2,317	1,778	71,447
	금액	886,711	699,143	16,321	1,649	169,598
2016	수량	154,971	70,987	1,769	3,698	78,517
	금액	937,291	743,435	16,425	4,206	173,225
2017	수량	168,371	90,494	2,901	1,863	73,113
	금액	1,073,220	894,030	19,268	7,049	152,873
2018	수량	251,581	80,422	1,637	1,401	168,121
	금액	1,211,070	735,924	17,662	7,632	449,852
2019	수량	242,993	79,897	1,633	1,887	159,576
	금액	1,111,346	616,903	16,401	2,431	475,611
2020	수량	251,897	91,804	1,223	891	157,979
	금액	1,319,813	844,387	15,429	893	459,104
2021	수량	235,830	86,174	1,552	972	147,132
	금액	1,376,494	860,822	19,483	834	495,355
2022	수량	205,860	76,101	1,251	322	128,186
	금액	1,248,830	850,443	17,073	587	380,727
2023	수량	188,298	74,991	1,238	419	111,650
	금액	1,172,979	859,015	20,390	795	292,77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현황 (2024)

2023년 주요 어종별 생산고는 갈치 2만 6,160톤(3,275억 원), 양식 광어 2만 1,407톤(3,279억 원), 조기류 4,055톤(515억 원), 소라 1,782톤(67억 원), 옥돔 1,410톤(241억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0-33〉 주요 어종별 생산고

(단위 : 톤, 백만 원)

구분		양식광어	갈치	조기류	옥돔	소라
2005	수량	17,737	21,677	7,683	971	1,445
	금액	168,000	163,982	46,367	12,856	6,334
2010	수량	21,139	20,928	7,393	1,259	1,473
	금액	262,900	232,118	55,779	18,289	5,463
2015	수량	27,142	13,858	9,129	1,539	2,295
	금액	291,684	190,323	108,052	24,512	9,899
2016	수량	26,098	13,929	6,587	1,488	1,896
	금액	331,334	213,801	81,909	26,554	8,168
2017	수량	25,092	26,261	6,552	1,325	2,684
	금액	338,800	321,067	79,749	22,534	10,705
2018	수량	22,169	26,021	8,371	927	2,010
	금액	278,078	264,345	91,921	19,195	7,054
2019	수량	22,431	21,281	9,327	1,155	1,706
	금액	200,848	223,086	73,108	23,183	6,007
2020	수량	23,423	28,989	12,973	838	1,424
	금액	273,875	353,696	108,441	19,358	4,908
2021	수량	21,463	27,858	10,233	1,032	2,004
	금액	327,500	326,294	73,214	25,465	8,498
2022	수량	22,493	25,739	4,880	1,258	1,617
	금액	329,940	326,884	41,148	27,355	7,673
2023	수량	21,407	26,160	4,065	1,410	1,782
	금액	327,900	327,522	51,549	24,093	6,72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현황 (204)

나. 수산물 수출

제주지역 수산물 중 주요 수출 품목은 광어, 소라, 찐톳, 갈치 등이다. 복어는 생산 감소와 더불어 국내 공급이 우선시 되며 2017년부터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개선되면서 2022년과 2023년 제주의 수산물 수출량은 광어를 중심으로 회복세

를 보였다. 2023년에는 품목별로 광어 1203톤(2,488만 달러), 소라 872톤(305만 달러)을 수출하였다. 2022년 광어의 톤당 평균 수출가격은 19,861 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20,681 달러로 수출 단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표 10-34〉 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광어	소라	찐 톳	복어
2005	수량	5,307	1,395	378	-
	금액	49,771	7,495	3,283	-
2010	수량	3,872	1,126	175	45
	금액	44,560	4,622	2,202	768
2015	수량	1,856	1,421	76	8
	금액	24,833	6,262	1,228	144
2016	수량	1,733	1,144	73	9
	금액	25,743	4,865	1,483	146
2017	수량	1,538	1,223	56	-
	금액	25,516	4,710	1,091	-
2018	수량	1,214	1,087	71	-
	금액	20,397	4,025	1,197	-
2019	수량	1,410	1,140	20	-
	금액	18,922	4,227	313	-
2020	수량	1,127	655	29	-
	금액	17,933	2,330	414	-
2021	수량	975	830	37	-
	금액	22,080	2,729	515	-
2022	수량	1,236	664	23	-
	금액	24,548	2,188	288	-
2023	수량	1,203	872	8	-
	금액	24,879	3,045	12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현황(2021)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2023년 제주 농축산업 분야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조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감귤 조수입이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하고, 제주 수산업의 조수입도 수산물 가격 회복 등으로 4년 연속 1조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2년 지역경제 중 농수축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를 기록하였으며, 제주의 1차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건설업, 서비스업이 부진한 가운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 농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빈번해진 농업재해 발생, 감귤나무 노령화, 월동채소 생산 및 유통처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제주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아 제주는 전국 지자체 중 농가부채가 1위인 지역이다. 농지 구입과 영농자금, 하우스 시설 투자 등의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부채가 급증했다. 따라서 공익형직불금과 농민수당 확대 등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는 일부 품목의 과잉 생산과 시장격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이를 지원할 제주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2024년 현재 연합회의 관리대상 가입 품목은 감귤,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이다. 향후 마늘, 양파 등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체계인 만큼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며 농업 생산에 피해가 커지

고 있다. 2023년 1월 대설과 한파, 5월, 6월, 7월의 연속된 호우 피해, 8월의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11월 갑작스런 우박 피해로 인해 제주는 총 8,322ha에 걸친 농지에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상이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스마트농업 기반의 확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업디지털센터를 설립하였다. 제주 농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된 농업 정보가 필요하며, 제주 농업디지털센터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될 것이다. 농업디지털센터는 농업정책 수립과 농가 의사결정을 위한 농업정보 제공 기반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농업관측 시스템을 통해 수급관리연합회와 수급관리센터 등에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마이크로 기상 정보 기반 구축, 드론조사 확대, 국내외 생산 및 유통 정보 수집 등 제주 농산물의 공급 충격 완화에 필요한 체계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디지털센터와 수급관리연합회 등을 설립하여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자연재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상 이변에 의한 농업재해로부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2023년 현재 제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중앙정부, 35%는 제주도청, 15%는 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의 생산 리스크 관리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입 기간과 보상 기준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 제주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23년에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기간과 손해 인정 등에 변화가 있었다. 감귤의 동상해

인정 기준을 기존 0℃ 이하 48시간 지속에서 -3℃ 이하 6시간 지속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판매기간도 낙화기 이후인 5월 말일까지로 조정하였고 감귤 품목별로 보험의 보장 마지막 날짜를 뒤로 미루어 변화된 생산 및 출하 현실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다른 품목들도 가입 및 보장 기간, 보상기준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부터 상승한 금리가 농어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부채가 많은 제주 농가의 특성 상 금리 상승은 농어가의 자금 경색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일반융자 및 재해대책특별융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제주도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자부담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농어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2023년 8월부터 일본이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하여 제주 수산물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방사능 신속 측정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 연근해의 해양 방사능물질 조사 지점 수의 확대와 조사 빈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홍보하여 제주 수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함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1장 제조업

제1절 현황

1. 제조업

가. 생산액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액은 8,188억 원으로 제주지역 GRDP의 3.1%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제조업 비중이 25.6%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표 11-1>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액(명목) 현황

(단위 : 억 원, %)

연도별	제주				전국		
	GRDP[1]	제조업			GRDP[1]	제조업	
		생산액[1]	비중[2]	전국대비 비중		생산액[1]	비중[2]
2015	181,421	6,814	3.8	0.1	17,431,419	4,848,325	27.8
2016	200,201	7,481	3.7	0.1	18,348,681	5,048,572	27.5
2017	216,723	8,183	3.8	0.2	19,358,096	5,427,057	28.0
2018	220,405	7,888	3.6	0.1	20,078,116	5,578,002	27.8
2019	222,671	7,498	3.4	0.1	20,429,813	5,386,126	26.4
2020	216,688	7,261	3.4	0.1	20,624,899	5,294,701	25.7

연도별	제주				전국		
	GRDP[1]	제조업			GRDP[1]	제조업	
		생산액[1]	비중[2]	전국대비 비중		생산액[1]	비중[2]
2021	227,571	7,666	3.4	0.1	22,241,797	5,836,090	26.2
2022	242,823	7,569	3.1	0.1	23,275,957	6,161,952	26.5
2023[p]	260,133	8,188	3.1	0.1	24,041,907	6,153,597	25.6

주 : 1) 2020년 기준, 2) GRDP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2023년 기준 지역 내 산업 특화도를 나타내는 제주지역 제조업의 입지상 계수는 0.12로 나타나 대표적인 비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의 입지상 계수도 0.91로 하락하며 제조업 내 기반산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제주지역 제조업 입지상 계수(LQ)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기반산업 여부
제조업	0.14	0.14	0.13	0.13	0.13	0.13	0.13	0.12	0.12	x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19	1.08	1.09	1.06	0.99	0.99	1.04	1.00	0.91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04	0.04	0.04	0.04	0.04	0.05	0.04	0.04	0.04	x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0.24	0.24	0.25	0.31	0.29	0.29	0.33	0.27	0.25	x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0.07	0.08	0.07	0.07	0.08	0.09	0.08	0.07	0.06	x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0.21	0.23	0.23	0.20	0.19	0.17	0.14	0.13	0.15	x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0.03	0.03	0.04	0.04	0.04	0.04	0.05	0.04	0.05	x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8	0.07	0.07	0.07	0.07	0.07	0.07	0.06	0.06	x

주 : 1) 명목 기준
2) 입지상 계수 = (제주지역의 i산업의 GRDP/제주 전산업 GRDP)/(전국 i산업의 GRDP/전국 전산업 GRDP)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22년 기준 제주지역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3,695개, 종사자 수는 13,561명으로, 전 산업 대비 각각 3.8%,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내 1개 업체당 종사자 수는 3.7명으로 전 산업 업체당 종사자 수(3.3명) 보다 0.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체는 대부분 단독사업체(93.3%)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체 구분별 업체당 종사자는 '본사, 본점 등(20.8명)', '공장, 지점 등(9.2명)', '단독사업체(3.0명)' 순으로 나타나 산업 규모의 영세함을 알 수 있다.

2015년~2022년 기간 동안 제조업 사업체 수는 연평균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 산업(8.3%) 대비 2.3%p 낮은 반면, 종사자 수는 동기간 연평균 2.1%로 전 산업 연평균(3.6%) 대비 1.5%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제주지역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전년대비	연평균
전산업	사업체 수	55,155	57,791	60,063	62,871	66,098	94,001	96,131	96,334	0.2	8.3
	종사자 수	250,000	258,188	262,747	276,942	286,304	318,891	323,316	320,419	△0.9	3.6
	업체당 종사자 수	4.5	4.5	4.4	4.4	4.3	3.4	3.4	3.3	△1.1	△4.3
제조업	사업체 수	2,449	2,425	2,418	2,556	2,658	3,623	3,704	3,695	△0.2	6.1
	(비중)	4.4	4.2	4.0	4.1	4.0	3.9	3.9	3.8		-
	단독	2,297	2,276	2,272	2,389	2,477	3,408	3,462	3,448	△0.4	6.0
	본사, 본점 등	35	40	42	47	51	72	82	88	7.3	14.1
	공장, 지점 등	117	109	104	120	130	143	160	159	△0.6	4.5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전년대비	연평균
종사자 수	11,721	11,634	11,672	12,081	12,373	13,851	13,819	13,561	△1.9	2.1
(비중)	4.7	4.5	4.4	4.4	4.3	4.3	4.3	4.2		-
단독	9,404	9,159	9,145	9,115	9,570	10,697	10,245	10,265	0.2	1.3
본사, 본점 등	900	1,129	1,152	1,482	1,383	1,784	2,030	1,834	△9.7	10.7
공장, 지점 등	1,417	1,346	1,375	1,484	1,420	1,370	1,544	1,462	△5.3	0.4
업체당 종사자 수	4.8	4.8	4.8	4.7	4.7	3.8	3.7	3.7	△1.6	△3.7
단독	4.1	4.0	4.0	3.8	3.9	3.1	3.0	3.0	0.6	△4.4
본사, 본점 등	25.7	28.2	27.4	31.5	27.1	24.8	24.8	20.8	△15.8	△3.0
공장, 지점 등	12.1	12.3	13.2	12.4	10.9	9.6	9.7	9.2	△4.7	△3.9

주 : 1) 17년부터 10차 산업분류로 조사되었으며, 16년 이전 자료는 9차 산업분류를 10차로 연계하여 서비스됨에 따라 16년 이전자료 중 일부 사업체가 대상외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9차 기준 사업체수, 종사자수보다 작을 수 있음
- 예) 9차산업분류에서 10차 산업분류로 개정되면서 일부 산업분류가 농업으로 변경된 경우 발생(가축의 인공수정업 등), 개인이면서 농업인 경우, 조사대상외
2) 16년은 세세분류, 15년은 소분류로 제공됨
3) 2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그 기준에 준하여 전국 세세분류, 시도 소분류로 제공하니 자세한 자료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참고 바람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2년 기준 제주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영세기업(1~9명)'은 93.0%로 전 산업(95.4%) 대비 2.4%p 낮은 반면, '소기업(10~49명)'은 6.5%로 전 산업(4.0%) 대비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의 경우, '영세기업(1~9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54.1%로 전 산업(53.7%) 대비 0.4%p, '소기업(10~49명)'은 31.5%로 전 산업(22.4%) 대비 9.1%p 높은 반면, '중기업(50~299명)'은 7.0%로 전 산업(15.7%) 대비 8.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종사자 수의 경우, '영세기업(1~9명)' 2.1명, '소기업(10~49명)' 17.7명, '중기업(50~299명)' 59.0명으로, 전 산업 대비 영세기

업은 0.3명 많은 반면, 소기업 및 중기업은 각각 0.9명, 39.0명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4〉 제주지역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2			2021	2022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업체당
전산업	계	96,131	96,334	203	100	323,316	320,419	△2,897	100.0	3.3
	영세기업(1~9명)	91,670	91,931	261	95.4	173,355	172,165	△1,190	53.7	1.9
	소기업(10~49명)	3,885	3,851	△34	4.0	72,179	71,778	△401	22.4	18.6
	중기업(50~299명)	541	513	△28	0.5	54,396	50,271	△4,125	15.7	98.0
	중견기업(300~999명)	29	33	4	0.0	13,457	14,626	1,169	4.6	443.2
	대기업(1,000명 이상)	6	6	0	0.0	9,929	11,579	1,650	3.6	1,929.8
제조업	계	3,704	3,695	△9	100.0	13,819	13,561	△258	100.0	3.7
	영세기업(1~9명)	3,466	3,437	△29	93.0	7,682	7,340	△342	54.1	2.1
	1~4명	3,081	3,093	12	83.7	5,197	5,127	△70	37.8	1.7
	5~9명	385	344	△41	9.3	2,485	2,213	△272	16.3	6.4
	소기업(10~49명)	220	241	21	6.5	4,016	4,274	258	31.5	17.7
	10~19명	143	170	27	4.6	1,877	2,246	369	16.6	13.2
	20~49명	77	71	△6	1.9	2,139	2,028	△111	15.0	28.6
	중기업(50~299명)	17	16	△1	0.4	1,526	944	△582	7.0	59.0
	50~99명	13	14	1	0.4	920	944	24	7.0	67.4
	100~299명	4	2	△2	0.1	606	…	…	…	…
	중견기업(300~999명)	1	1	0	0.0	…	…	…	…	…
	300~499명	-	-	-	-	-	-	-	-	-
	500~999명	1	1	0	0.0	…	…	…	…	…
	대기업(1,000명 이상)	-	-	-	-	-	-	-	-	-

주 : 해당 범위 내 사업체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업체를 특정할 수 있어 종사자 수가 공표되지 않아 '…'로 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종사자수와 세분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2년 기준 제조업 세부 업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 사업체가 1,098개(29.7%, 22개 증가)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제품 제조업 348개(9.4%, 2개 증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5개(8.0%, 16개 감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3개(6.6%, 1개 감소), 가구 제조업 237개(6.4%, 8개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제조업 세부 업종별 종사자 수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이 4,890명(36.1%, 102명 감소)로 가장 많았으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49명(8.5%, 6명 감소), 음료 제조업 1,045명(7.7%, 12명 감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69명(5.7%, 79명 감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5〉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2			2021	2022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제조업	3,704	3,695	△9	100.0	13,819	13,561	△258	100.0
식료품 제조업	1,076	1,098	22	29.7	4,992	4,890	△102	36.1
음료 제조업	58	58	0	1.6	1,057	1,045	△12	7.7
담배 제조업	0	0	0	0.0	0	0	0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8	150	2	4.1	288	273	△15	2.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5	103	△2	2.8	209	175	△34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4	30	△4	0.8	46	42	△4	0.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16	122	6	3.3	227	237	10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	35	△1	0.9	371	332	△39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8	143	△5	3.9	345	314	△31	2.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	2	0	0.1	12	13	1	0.1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2			2021	2022		
			증감	비중			증감	비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3	144	1	3.9	633	593	△40	4.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13	3	0.4	280	323	43	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5	71	△14	1.9	422	405	△17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1	211	0	5.7	1,155	1,149	△6	8.5
1차 금속 제조업	28	28	0	0.8	69	78	9	0.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11	295	△16	8.0	848	769	△79	5.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	29	5	0.8	168	193	25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1	54	△7	1.5	227	213	△14	1.6
전기장비 제조업	117	114	△3	3.1	450	494	44	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9	129	0	3.5	421	414	△7	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16	△2	0.4	41	59	18	0.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22	△3	0.6	66	53	△13	0.4
가구 제조업	229	237	8	6.4	394	443	49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6	348	2	9.4	630	583	△47	4.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4	243	△1	6.6	468	471	3	3.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각년도

다. 매출액 현황

2022년 기준 제주지역의 제조업 매출액은 32,44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업체당 매출액은 8.78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42.65억 원)의 2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제주지역 제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억 원, %)

구분	2021			2022						
	사업체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사업체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579,050	21,712,401	37.50	586,532	25,013,026	3,300,625	15.2	42.65	5.1	13.7
제주	3,704	31,577	8.53	3,695	32,443	867	2.7	8.78	0.3	3.0
(전국대비)	0.6	0.1	22.7	0.6	0.1			20.6		

주 : 2020년부터 사업체 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됨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2. 주력 산업 : 청정바이오산업[1)]

가. 청정바이오산업 개요

제주지역의 전통 주력산업인 청정바이오산업은 '청정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식음료, 뷰티제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된다[2)]. KSIC 분류를 기준으로 16개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헬스케어제품, 간편식가공식품, 맞춤형피부미용제품, 천연물기반화장품, 기능성화

1) 2021년부터 제주지역 주력산업이 (기존)청정헬스푸드산업에서 (개편)청정바이오산업으로 전환됨
- (청정헬스푸드산업) 제주지역 청정원료 기반의 식음료품, 건강기능성 식품 등의 제조, 가공·판매
- (청정바이오산업) 청정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의약품, 뷰티향장제품, 홈케어제품 등의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확대

2) 제주특별자치도(2024),「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p.요약5

장품, 메디바이오, 천연세정제품이 청정바이오산업의 주요 육성품목에 해당한다.

〈표 11-7〉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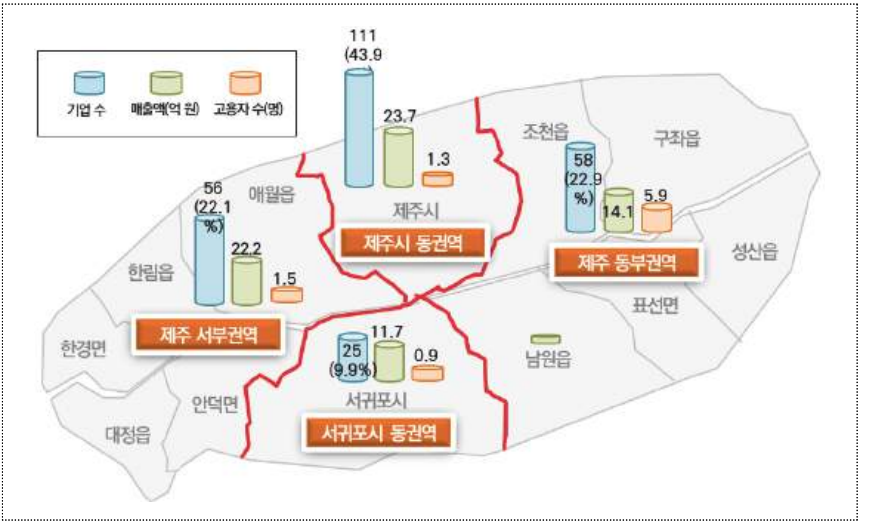
KSIC		업종명	KSIC		업종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0792	차류 가공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12), 「2024년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p.17

나. 청정바이오산업 현황

청정바이오산업에 속한 기업의 지역 분포를 보면, 43.9%가 제주시 동권역에 집적화되어 있으며, 제주 서부권역에 22.1%, 제주 동부권역에 22.9%, 서귀포시 동권역에 9.9%의 기업이 분포하고 있다. 평균 매출액은 제주시 동권역이 23.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고용자 수는 서귀포시 동권역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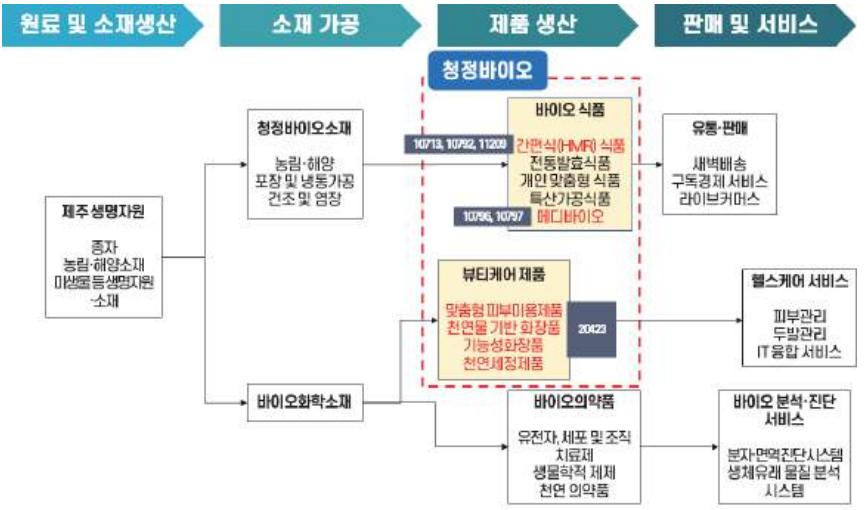
〈그림 11-1〉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 기업의 지역 분포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12), 「2024년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p.18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는 〈그림 11-2〉와 같으며, 지역 내 다수의 기업이 제품 생산, 판매 및 서비스 업종에 해당한다.

〈그림 11-2〉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12), 「2024년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p.17

다. 청정바이오산업 관련 지역 내 혁신기관

제주지역 내 청정바이오산업 관련 주요 혁신기관은 〈표 11-8〉과 같다.

〈표 11-8〉 제주지역 내 청정바이오산업 관련 지역혁신기관 현황

유형	기관명	주요 업무내용
연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역특산품종 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산림 유전자원 보존 및 자원화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해양생물 및 자원 연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및 감귤 관련 연구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식물·작물영향 연구
	감귤연구소	감귤 품종 육성·육종기술개발 시험연구

유형	기관명	주요 업무내용
연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수출농업 지원 및 종자 산업
	원예연구과	원예경영 연구
	감귤아열대 연구과	감귤육종 및 아열대과수 연구
	친환경연구과	작물보호 및 농업환경 연구
	농산물 원종장	원예종안 및 작물 종자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제주도 및 동중국해 어업자원 관련 연구
	제주한의약연구원	한의약 소재 발굴 및 개발
지원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분야(식품, 화장품) 기업지원
	바이오융합센터	바이오분야 기업지원(시제품생산,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생물자원탐색 및 정보구축, 바이오소재 산업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용암해수산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제주본초RIS사업단	기술(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제주씨푸드RIS사업단	제주 수산가공기업 관련 기업지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 제조 기술지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역 농수산식품 관련 수출 관리, 기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응용연구, 생산 및 기업 연계 등
	제주산학융합원	산학연 중개, 경영지원 정보 제공, 교육 및 훈련
대학	제주대학교	관련 분야 기초과학 연구·개발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아열대 농업 생명과학분야 연구·개발
	해양과학연구소	해양과학 분야 연구·개발
	기초과학연구소	바이오 기초 과학 분야 연구·개발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아열대 원예 산업 분야 연구·개발
	친환경농업연구소	친환경 농업 분야 연구·개발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감귤 화훼 분야 연구·개발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의료융합기술센터	기반기술연구, 동물실험, 임상실험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센터	아열대, 열대생물 유전자 소재 개발
	화장품과학연구센터	화장품 분야 연구·개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마필산업 연구·개발
	제주관광대학교 스파연구소	뷰티 관련 분야 연구·개발

자료 : 연구자가 「2022년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2021.12)」 및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진흥계획(2019.12)」, 「2020년도 제주대학교 통계연보」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주력 산업 : 뷰티향장산업

가.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우리나라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 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정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예방 혹은 위생/미화 목적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구분되고 있다. 화장품은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별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구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최근 염모제, 제모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다.

화장품산업은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유통 및 판매에 관련한 산업이다. 화장품산업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강한 기호성과 유행성 등의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경제발전과 연계성이 큰 성장산업이다. 시장변화에 민감하고 기호성과 유행성이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징을 지닌다. 최근, 화장품 기술개발의 확산에 따라 고기능화장품 및 개인 맞춤형화장품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분석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1년 및 2022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4,303억 달러 및 4,632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연평균 4.4%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화장품 시장도 2019년에 비하여 역성장을 나타낸 바 있다.

〈표 11-9〉 글로벌 화장품산업 시장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2018-22)
시장규모	389.5	408.1	398.2	430.3	463.2	4.4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uromonitor의 재인용

2022년 권역별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이 1,629억 달러로서 권역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화장품 선진시장인 유럽 및 북미는 각각 1,098억 달러 및 1,046억 달러 규모로 세계 2, 3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8-2022 연평균성장율 면에서는 중동/아프리카가 12.9%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10〉 2018-2022년 권역별 화장품산업 시장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2018-22)
북미	86.4	88.4	85.8	95.6	104.6	4.9
유럽	99.0	101.3	95.8	100.6	109.8	2.6
아시아/태평양	141.7	153.3	151.3	161.5	162.9	3.5
중남미	42.2	43.7	43.0	46.1	53.4	6.0
중동/아프리카	20.1	21.4	22.4	26.5	32.6	12.9
합계	389.5	408.1	398.2	430.3	463.2	4.4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uromonitor의 재인용

2022년 국가별 화장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964억 달러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711억 달러), 일본(269억 달러), 브라질(234억 달러), 독일(154억 달러) 순으로 시장 규모를 나타내었다. 2022년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118억 달러로 세계 9위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10개국 중에서 2018-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6.8% 성장을 기록한 인도로 분석되었다.

〈표 11-11〉 화장품 산업 상위 10개국의 시장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2018-22)
1	미국	79.4	81.2	78.7	88.2	96.4	5.0
2	중국	55.9	64.4	69.4	75.9	71.1	6.2
3	일본	29.8	30.2	25.9	25.7	26.9	△2.5
4	브라질	18.9	19.7	20.7	20.8	23.4	5.5
5	독일	15.5	15.8	15.4	15.4	16.8	2.1
6	영국	14.2	14.2	13.2	13.7	14.6	0.7
7	인도	10.0	10.8	10.6	11.8	13.1	6.8
8	프랑스	12.7	12.6	11.7	11.9	12.7	△0.1
9	한국	11.1	11.3	10.4	11.3	11.8	1.5
10	멕시코	8.4	8.8	8.3	9.2	10.1	4.7

〈표 11-12〉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체(개)	6,487	7,580	8,942	9,359	10,116	11,869
생산액(억원)	155,028	162,633	151,618	166,533	135,908	145,102
전년대비 증감율 (%)	14.7	4.9	△6.8	9.8	△18.4	6.8

자료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및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각각 13조 5,908억원 및 14조 5,102억원을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큰 폭(-18.4%)의 생산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6.8% 생산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표 11-13〉 우리나라 화장품 무역수지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액(A)	수입액(B)	무역수지(A-B)	무역수지 증감율
2019년	6,524,789	1,250,580	5,274,209	6.1
2020년	7,572,097	1,168,098	6,403,999	21.4
2021년	9,183,570	1,305,238	7,878,332	23.0
2022년	7,953,197	1,325,134	6,628,063	△15.9
2023년	8,462,378	1,313,388	7,148,990	7.9

자료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84억6천만 달러(한화 약 11조468억 원·원화 기준 성장률 7.5%)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2023년 화장품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억2천500만 달러(한화 약 1조7천145억 원)로 무역수지는 71억5천만 달러(한화 약 9조3천32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표 11-14〉 국내 화장품 영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조업체	2,328	2,911	4,071	4,428	4,548	4,567
책임판매업체	12,673	15,707	19,769	22,716	28,015	31,524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	-	-	112	185	217	23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 정보,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국내 책임판매 업소수는 31,524 개소로 2019년 15,707 개소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 2023년 제조업체수는 4,567개소로 2020년(4,071개소) 이후 증가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는 2023년 231개소가 등록되었다. 맞춤형화장품 산업은 2020년(112개소) 시행 이후 아직까지는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제주 지역 화장품산업의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도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 기업수는 총 302개사로 조사되었다. 302개의 화장품책임판매사 중에는 화장품제조업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125개 등록업체 기준으로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비누제작 업체가 식약처에 화장품업으로 의무 등록함에 따라 2019년부터 화장품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1-15〉 제주 화장품기업 연도별 현황(식약처 등록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화장품책임판매업	125	169	221	232	280	302

화장품산업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가 있다. 제주대 화학·코스메틱스학과는 2014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대학 최초의 화장품 관련 특성화 학과이다. 화학·코스메틱스학과에서는 화장품학, 화장품제조학, 기능성화장품학 등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는 교육부

의 평생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미래융합대학 건강뷰티향장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졸업의 선취업 후진학 학생 및 30세 이상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화장품 및 뷰티산업 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도내에는 뷰티산업 관련 전문학사 양성 과정으로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와 제주관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제조업

제주는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술혁신, 성장기반 조성 등을 통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제5차 제주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2018년~2022년), 바이오산업 진흥계획(2020년~2029년), 항노화산업 종합계획(2022년~2026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융 및 경영, 창업분야(경영안정 및 창업 활성화)

중소 제조기업의 육성기금 안정화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 환경 및 노후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였다.

〈표 11-16〉 2023년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금융/경영/창업 분야 지원시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금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융자/ 직접수행(도)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 제조업, 사회적 기업 등 9개 업종, 90억원 이하(업종별 차등)	32,50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경영안정지원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 등 42개 업종, 2천만원~5억원 이하(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두드림(Do-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업체(道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업체)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실행에 따른 보증서 발급(보증한도 업체별 5천만 원 이내)	200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출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자영업자 보증금액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생계자금, 운영자금) 보증기간 : 15년 이내 원금 일시상환(최초 2년씩, 1년씩 연장) 보증금리 : 경영안정자금 최대 1.4% 일반자금 최대 4.9% 제1금융권 대출가능 보증수수료 : 연 0.7% 고정	200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융자/ 직접수행(도)	지원대상: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등 융자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 이율: 연 2% 융자한도: 식품제조업·가공업 7천만원 이내 등	500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융자/ 직접수행(도)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한 업체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융자금리: '23. 1/4분기 기준 3.26%	15,40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융자한도: 경영안정자금(개인 1.2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기준 / 법인 12억원 이내, 매출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내), 개보수자금(개인 12억원 이내, 법인 24억원 이내)	
경영	중소기업 빅테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빅데이터 활용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및 빅데이터 기반 수요기업 맞춤형 경영/마케팅 분야 컨설팅 지원	60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보조/ 직접수행(도)	지원대상: 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된 법인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 설비 구축 지원	2,000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 직접수행(도)	지원대상: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지원내용: 제주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HACCP인증에 필요한 위생설비 지원	420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자를 둔 공제기금 2호 및 3호 대출업체 지원내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2호 대출(어음·수표대출) 및 제3호 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에 따른 연 1.6% 이내의 이자차액 보전	20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도내 운영 중에 있는 중소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업지역 등) 지원내용: 작업근로환경개선, 환경오염유발시설 개선	5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공기관대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전 업종(유흥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내용: 선정업체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20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출연/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 제주도에 소재는 보험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료 50% 지원(업체당 최대 300만 원)	50
	제주형 혁신성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혁신성장 기업 5개사 지원내용: 기술 제품 양산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R&D 개발 성공 후 기술확장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20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업체('20~'23년) 지원내용: 4년 지원(선정업체),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R&D 지원, 지자체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등	140
	제주형 예비 사회적 기업(컨설팅) 지원	보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원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도민, 기업, 단체 등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제도 및 요건 상담·교육,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18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 지원	보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원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도민, 기업, 단체 등 지원내용 : 협동조합 우수사례 교육, 협동조합 간 교류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18
	소상공인 경영지원 센터 운영	공기관대행/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 맞춤형 컨설팅, 노후시설개선비·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지원,폐업 절차 및 취업·업종전환 등 재기지원 등	1,453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창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국비 대응 도비 보조사업/ 도내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업체 지원내용: 업무·공간 제공, 경영·기술 자문, 세무·회계 지도, 컨설팅 등 지원, 예비기술 창업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160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당해년도 11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비용 지원 등	131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지원내용: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장비교육을 통한 지식 제조업 육성기반 마련, 디지털장비 기본교육(3D프린터, 레이저커터, 비닐커터, CNC라우터, 피지컬 컴퓨팅)	90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제주자원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컨설팅, 사업 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대행 등	65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성장육성형/시장진출형/기술혁신형) 지원	120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아이템 권리화, 시제품 제작, 시장분석, 투자유치·마케팅 등 지원	15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제주지역 벤처기업 및 벤처 희망 기업 지원내용: 벤처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인증 획득, 연장,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벤처나라 입점을 위한 컨설팅 지원	162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컨설팅 및 R&D비용,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	1,000

자료 : 연구자가「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리함

나. 기술분야(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제주는 중소 제조기업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실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였다.

〈표 11-17〉 2023년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기술 분야 지원시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기술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지원	보조/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 지역본부	지원대상: 도내 중견·중소기업 품질 분임조 지원내용: 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분임조 벤치마킹	10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지원	공기관대행/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제주본부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애로 해소 (핵심기반, 공정설계, 시제품/ 시작품 제작 지원)	162
	중소기업 R&D과제 상시 발굴 지원	공기관대행/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제주본부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R&D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제안요청서(RFP) 도출 지원 등	47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제주소재 바이오, 전통기술·문화를 활용 및 제조·서비스 융합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지원내용: 기획 단계부터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기술 개발 도내 특화자원을 대상으로 소재·기법·디자인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42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조/ 제주대학교	지원대상: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개발사업 1건 및 기술개발 우수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1건	100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지역 관련 기업 지원내용: 주력, 스타기업, 선도기업, 수출기업. 입주기업 등 지원	5,438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경제협력권사업 육성	출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지역 관련 기업 지원내용: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	328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출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스타기업 및 협업기업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 평가, 시험분석, 제품고급화, 상품기획,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 자율 기획 사업비 지원	50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우수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제품 기술개발 제품화 및 품질(성능) 인증 획득비 지원 지원내용: 제품화지원(시제품 업그레이드, 개발제품의 마케팅 비용) 및 품질(성능)인증비 지원	180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220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본사가 제주지역이며, 협약기간 내에 제조설비 설치 완료 및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20백만 원 한도 (신규 제조설비의 60%이내 보조)	90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사업	민간위탁/ 제주지식재산센터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신규, 전환, 재창업 기업 포함) 지원내용: 지식재산 창업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등 지원	53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민간위탁/ 제주지식재산센터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IP협력기반 강화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988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위탁(국가 직접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제주지역 ICT/SW 중소기업 지원내용: SW 융합 제품 개발 지원 등	324
	도내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제주테크노파크	(시제품개발) 설립 3년 이내의 본사 사업장이 제주도에 소재한 ICT 관련 기업,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제작 지원 (제품고도화) 설립 7년 이내의 본사 사업장이 제주도에 소재한 ICT 관련 기업, 기(旣) 제작완료 및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	114

자료 : 연구자가 「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리함

다. 인력 분야(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제주는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하여 전문인력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였다.

〈표 11-18〉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력 분야 지원시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인력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직접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만15~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 생애 첫 일자리 지원(50만원, 1년간) 추가고용 지원(70만원, 1년간) 더 나은 일자리 지원(60만원, 2년간)	2,548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직접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만15~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숙소 또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숙소 임차료 60% 또는 주택보조금 80%, 2년간 지원)	1,200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직접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만40~65세 이하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에 숙소 또는 주택보조비룰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숙소 임차료 60% 또는 주택보조금 80%, 2년간 지원)	180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대행/ 노사발전재단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장년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1년)	1,648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직접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50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출기업인력뱅크)	공기관대행/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에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한 사업장 청년: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 시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만 18~39세 미취업자 지원내용: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급, 직무교육·교통비 등 지원	326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도내 소재 물류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된 사업장 청년: 도내 주소를 두거나 참여 확정 시 1개월 이내 전입가능한 만 18~39세 미취업자 지원내용: 직원 신규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인건비(최대 2년 + 취업 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행복포인트, 교통비 등 지원)	6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보조/ 직업수행(도)	지원대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참여 근로자(일반)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5,446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 직업수행(도)	지원대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등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부가서비스개발, 시제품제작	1,163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비,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취득 비용 등 경상적 사업비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역특화 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보조/ 직업수행(도)	지원대상: 컨설팅 기관 및 마을기업 지원내용: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및 컨설팅 기관 운영	634

자료 : 연구자가「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리함

라. 수출 및 내수 분야(중소 제조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제주는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마케팅 활동 지원 및 품질인증체계 추진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였다.

〈표 11-19〉 2023년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수출/내수 분야 지원시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수출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보조/ 제주상공회의소	지원내용: 업체 맞춤형 찾아가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 제주지역 수출 경쟁력 제고 및 FTA 전문인력 양성, FTA 교육, 설명회, 기타 콜센터 운영, 방문객 상담 등	6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OK FTA 컨설팅	보조/ 제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검토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내용: 전문관세사에 의한 원산지 확인서 제3자에 의한 검토 및 발급, 컨설팅	25
	해외지사화 지원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제주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희망) 기업 지원내용: 해외지사화사업의 참가비 80% 지원(기업당 600만원 한도)	50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공기관대행/ KOTRA (제주사무소)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기업 지원내용: 참가비(수수료)의 100% 지원(업체당 100만원), 출장지원(연2회)	10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지원대상: 제주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지원내용: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50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2023년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수출성장·선도인 기업 지원내용: 자율마케팅 비용, 온라인 제주상품관 운영(상품 입점 지원),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홍보 판매장 구축 및 마케팅 지원 등	450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2023년에 국제 물류비가 발생한 제주도 내 수출기업 지원내용: 해외창고료, 국제운임비, 국제특송비, 해외물류네트워	10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크사업 기업부담분(산업부), CFS ~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공기관대행/제주 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수출기업 지원내용: 기업 자율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촉지원(온오프라인 마켓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프로모션 지원 등) 온오프라인 매체(SNS, OTT, 방송, 잡지 등) 활용 제주수출상품 해외 광고	250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공기관대행/한국 무역협회 제주지부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2회(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베트남 한국상품전) 참가에 따른 항공로 1사1인(50%), 편도운송비, 부스임차료·기본장치비, 통역비 100% 제반비용	60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공기관대행/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원대상: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해외현지 대형유통 매장 내 판촉행사 소요비용 80% 지원(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행사점검비 등) 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1부스 600만원 이내), 통역비 100%, 항공료 50%(1사 1인)	13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공기관대행/제주 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수출(희망) 기업 지원내용: 해외현지 대형유통 매장 내 판촉행사 소요비용 80% 지	123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원(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행사점검비 등) 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1부스 600만원 이내), 통역비 100%, 항공료 50%(1사 1인)	
	지역사회 해외 마케팅 지원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기업 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1부스 600만원 이내), 통역비 100%, 항공료 50%(1사 1인) 무역사절단: 사전컨설팅,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비 100% 등 자율선택 패키지 지원: 수출통관 컨설팅 등 해외진출 지원	604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기관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원대상: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지원내용: 수출물량(kg) x 표준물류비의 10% 지원비율(중복지원): '22년 지방 10%, 정부 5% (수출물류비 '23년 말 철폐예정, 지원규모 단계적 축소)	1,590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관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희망) 업체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설비 지원(1사·2인 기준)	2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관내 소재하는 설립한 지 1년 이상 경과 및 제조업 수출(희망) 업체	14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제주시: 협약 참가업체에 EMS 우편요금(93%) 지원 우정청: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7% 할인) 적용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가 소재한 수출(희망) 업체 지원내용: 수출상품 소개 등 홍보물 제작 지원	12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공기관대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 혁신센터	지원대상: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업체 지원내용: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25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 (EMS) 지원	보조/서귀포시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 업체 지원내용: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8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공기관대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 혁신센터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 업체 지원내용: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 수수료 지원	10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보조/서귀포시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 업체 지원내용: 항공료 및 바이어 항공료(100%), 카달로그 제작(100%), 통역료(50%)	8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내수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출연/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생산품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시즌별·테마별 프로모션, 제주식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357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	출연/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디자인패키지·BI·CI 개발 지원,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등	299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출연/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제주제품 상세이미지 촬영 컨설팅 및 촬용본 제공 등	290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구매상담회 개최 및 프로모션 진행	349.8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 지원	직접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제품·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을 적용한 광고 기획·구성	100
	제주상품 라이브커머스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홈쇼핑 방송 지원, 라이브커머스 및 제주기획전 개최 지원	250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파렛트(PLT) 당 운송료, 창고 보관료, 상·하차료 일부 지원	1,000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화 관련 기업 지원내용: 바이오 기업(제품)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운영 사업화 지원	130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지원 대상 및 내용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출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도내 화장품 생산 기업 지원내용: 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 인증제품 사업화(마케팅) 기업 지원	600
	지역주도 SW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대행/ 제주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제주지역 IT/SW 중소기업 지역 맞춤형 중소 IT/SW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 제주지역 디지털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발굴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지역 IT/SW 생태계 실태조사 수행	292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지원	보조/ (사)제주마씸	지원대상: 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 지원내용: 참여기업 선정, 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 HACCP교육 및 품질검사비 지원	70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JQ)제도 운영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JQ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 생산 기업 90개사 ('22년 말 기준) JQ인증 홍보 도내판촉행사 개최, 도외 박람회·판촉행사 참가 지원 품질개선 시설개선비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64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 구매 후 도외로 발송한 소비자 택배비용 1건당 2,500원 지원(지원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건, 50,000원 범위 내)	200

자료 : 연구자가 「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리함

2. 주력 산업 : 청정바이오산업

제주는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바이오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바이오산업 지원 조례에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기반시설 조성,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판매 및 수출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3년 6월 수립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토대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① 그린 바이오 산업 Value Chain 강화, ② 기능성 식품·화장품 산업 Scale Up, ③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그린 바이오 산업 Value Chain, 즉 '천연물·자원 연구 개발 → 소재 및 완제품 생산 →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 R&D 센터 유치, 완제품 생산 기업·인프라 유치, 스타트업의 공공 인프라 활용 기준 수립, 글로벌 대외협력·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화장품 산업 Scale Up을 위하여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바이오사료 등의 기능성 식품 고부가가치화, 청정 제주 브랜드 화장품 마케팅 강화·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 공동 제품 개발 등

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레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①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 ② 레드 바이오 산업화 기반 마련, ③ 제품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천연물 기반 후보물질 발굴 및 천연물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 국내외 유수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레드 바이오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레드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및 육성·지원 정책 마련, 레드 바이오 시장 전·후방사업 기업 집적을 통한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산·학·연·관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실험용 면역 결핍 돼지(무균 돼지) 양산 및 생체원료 제품 개발, 줄기세포기술 기반 치매발현 흑돼지 양산 체계 구축, 치매발현 흑돼지 활용 치매 원인 연구·치매 치료 신약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① J - 해양 바이오 밸리 조성, ②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③ 해조류 등 제주 특화자원 활용 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J - 해양 바이오 밸리 조성을 위하여 해양 바이오 산업화센터 구축, 해양미세조류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석 식품·화장품·의약품 산업 육성, 용암해수를 활용한 '제주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조류 등 제주 특화자원 활용 산업화를 위해서는 해조류 양식단지 조성, 제주 자생 해조류 기능성 식품·화장품·의약품 소재 연구·개발, 대량 발생 해조류의 원료화·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주력산업 : 뷰티향장산업

가. 추진경과

제주도 화장품 산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되어 5단계를 거치며 변화되었다. 전략산업 1단계(2003년-2012년) 육성기간에는 제주지역 화장품산업을 위한 여건 조성, 기반 구축 및 외부 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 기간 내에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는 2004년 '화장품공장'을 구축하고 제주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건립되어 생물자원탐색, 정보은행 구축, 바이오소재 산업화 등을 통해 제주 청정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1-20〉 제주도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

단계 (사업명)	기간	지원내용
1단계 (전략산업)	· 2003년-2007년 · 2008년-2012년	-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선정 -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기반구축(제주바이오융합센터 신축, 제주 TP 화장품공장 신축, 종다양성연구소 구축) - 도외 화장품기업 유치
2단계 (광역선도산업/ 특화산업)	· 2012년-2014년	- 건강뷰티소재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뷰티향상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3단계 (경제협력권사업)	· 2014년-2018년	-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지구 조성 - 제주 화장품산업 융합·연계 활성화

단계 (사업명)	기간	지원내용
4단계 (경제협력권사업)	· 2018년-2020년	프리미엄 소재 산업 소재 및 피부미용업까지 전후방 지원
5단계 (주력산업)	· 2021년-2023년	맞춤형 진단치료제 및 건강뷰티서비스 정보·ICT 혁신기술 접목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제주화장품산업은 2단계(2013-2014년), 3단계(2014-2018년) 및 4단계(2018-2020년)를 거치면서 단일 지역을 벗어나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제주는 충북과 산업협력권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화장품뷰티산업의 융합·연계 활성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도'의 비젼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5단계(2021-2023년)에서 제주지역 특화산업은 주력산업을 스마트관광산업, 청정바이오산업 및 그린에너지산업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육성되었다. 5단계에서 제주 화장품산업은 청정바이오산업 내에 포함되어 육성되었으며 지역협력 혁신성장산업으로 바이오진단치료 의료기기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표 11-21〉 도내 화장품 관련 지원기관 현황

기관명	기능 및 역할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지역 화장품기업 지원(기술, 사업화,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제주 TP 화장품 공장(CGMP) 운영 - 제주인증화장품(Made in Jeju) 제도 운영 - 제주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2022년)
제주대학교	- 화장품 인력 양성(화학·코스메틱스학과, 건강뷰티향장학과) - 화장품산업 분야 R&D

기관명	기능 및 역할
제주지역산업진흥원	– 제주지역산업 육성 정책 기획 및 전략 구축 – 기업지원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사)제주산학융합원	– 화장품분야 인력양성(대학졸업생 배출 및 재직자 교육) – 화장품산업 분야 산학협력(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특화 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 제주 한의약 소재 활용 화장품개발 연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 화장품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 – 화장품 용기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운영 – 제주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
제주창조경제혁신 제2센터	– 제주 창조경제 활성화 상생펀드 기금 출연 – 화장품산업 1인기업 지원

현재 제주도 내 화장품산업 관련 지원기관으로 제주 테크노파크 내 바이오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제주지역산업진흥원, (사)제주산학융합원, 제주한의약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있다. 제주 화장품산업은 이들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육성되고 있다.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산업 인력 양성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 뷰티향장품산업 관련 연구과제 지원 현황

제주지역에서는 화장품·뷰티산업 분야에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지원되고 있다. 2022-2023 제주지역산업진흥원 자료를 바탕

으로 화장품 분야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에 15개 과제, 중소기업부가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22개 과제가 파악되었다. 과제당 연간 사업비는 산업부의 경우 최대 9.3억, 중기부의 경우는 최대 3.0억에 이르고 있다. 연구과제 구성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므로, 기업당 과제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1.0억 내외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2022년에 46억 2백만원, 그리고 2023년에는 75억 7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화장품 분야, 제주 천연물(육상식물, 해양식물, 용암해수 등) 유래 소재 및 원료 개발 분야, 그리고 이에 따른 기능성 제품 개발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기능성 연구 분야에는 피부 보습, 장벽 케어, 항노화, 항균, 체지방 개선, 그리고 모발 관련 두피 개선, 탈모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1-22〉 2022-2023년 뷰티화장품 관련 연구 과제 지원 현황

연번	사업명	과제명	사업비(백만 원)	
			'22	'23
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피부 건강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플랫폼 개발	930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및 관광 분야 맞춤형 화장품/식품 추천 서비스 개발	130	-
3		맞춤형 화장품/식품 제주 원료 상용화 연구개발	482	-
4		피부효능 개선 제형 및 제품화 기술 개발	385	-
5		해양 부산물 유래 펩타이드 개발 및 이를 함유한 맞춤형화장품 개발	385	-
6		제주 유래 천연물과 바이오 소재 융합 기술을 이용한 바디슬리밍용 메조테라피 소재 개발	-	500
7		제주 천연자원 활용 엑소좀 소재 발굴 및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개발	-	350

연번	사업명	과제명	사업비(백만 원)	
			'22	'23
8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칸나비스 유래 추출물을 활용한 제주형 기능성 제품 기술 개발	-	323
9		제주산 생물자원을 활용한 피부트러블 개선용 프리바이오틱스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	350
10		손톱 AI 분석 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뷰티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및 제품 개발	-	330
11		개인 맞춤형 두피 및 탈모 관리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	330
12		제주 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Open Lab 구축 운영	-	1372
13		신품종 비티-케어(자이언트 병풀) 재배 기술 확립 및 용암해수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원료 개발	-	300
14		제주 오름 자생식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식물성 콜라겐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	300
15		제주 천연자원 활용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	300
16	지역특화산업육성	피부 유효 기능성을 갖는 자생식물을 직접 첨가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기술 적용 화장품 개발 및 산업화	170	-
17		제주 용암해수 및 해양자원 기반 식물 유래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융합 클린뷰티 코스메틱 개발 사업	200	-
18		제주산 풋귤 가공부산물을 활용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200	-
19		제주산 복령과 특산 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발효 화장품 개발	170	-
20		제주 청정 연안 습지식물을 이용한 피부 보습 및 피부 장벽 개선 소재 개발 및 제품화	190	190
21		광생이 모자반에 초음파 추출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200	300
22		제주산 편백 성분 연구를 통한 소재 및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	190	190
23		용암해수 및 어성초를 생물전환한 신규 화장품 원료 및 클린 뷰티 화장품 개발	200	-

〈표 11-23〉 2022-2023년 화장품 관련 연구 과제 지원 현황(계속)

연번	사업명	과제명	사업비(백만원)	
			'22	'23
24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생물 전환 비자나무를 활용한 두피 스케일링 제품 개발 및 사업화	200	-
25		제주 특화소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기능성 화장품 개발	190	190
26		스피루리나 유래 Phycocyanobilin(PCB) 기반 피부 항노화 소재 개발 및 기능성 화장품 산업화	180	-
27		제주산 생물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200	200
28		동물명 유래 제주 천연자원 및 용암해수를 활용한 클린뷰티 제품 개발	-	200
29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지역생물 자원의 고도화 및 이를 활용한 두피개선 화장품 개발	-	200
30		상생협력을 통한 제주 천연자원 활용 클린뷰티 소재 및 제품 개발	-	300
31		효모 발효 생산 스핑고신 1-인산을 이용한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	200
32		제주 특산주 부산물을 이용한 피부노화 네트워크 개선 소재 개발	-	200
33		제주산 프리바이오틱스 및 항균성 복합 천연소재를 이용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개선 여드름 피부에 적합 화장품 개발	-	196
34		제주 청정 용암해수 앰플 및 고점도/ 고분자 영양성분을 표피층까지 손실없이 전달하는 스킨케어 무바늘 주사기 개발(비의료 공산품)	-	190
35		제주 유래 천연 소재 원료화를 통한 동물실험 대체형 인체 장기칩 개발	-	200
36		제주 돌외(Gynostemma pentaphyllum)를 이용한 피부건강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개발	-	190
37		제주 특화 향기식물을 활용한 나노기술 기반의 기능성 향기 제품 개발	-	178
합계			4,602	7,579

제3절 성과

1. 제조업

가. 연평균 성장률

2015년~2023년 기준 제주지역 GRDP 연평균 성장률은 2.5%인 반면, 제업은 1.0%로 1.5%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기간 전국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2.3%) 대비 1.3%p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제조업의 GR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01%p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0.07%p),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0.04%p) 등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0.14%p)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24〉 제주지역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및 실질기여도

(단위 : %, %p)

구분	전국			제주		
	'15~'23	'19~'23	'23 실질 기여도	'15~'23	'19~'23	'23 실질 기여도
GRDP(시장가격)	2.5	2.0	1.43	2.5	1.2	3.04
제조업	2.3	2.1	0.45	1.0	0.2	0.0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3.9	4.5	△0.02	1.1	2.6	△0.0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3.6	△2.2	△0.03	△2.7	0.8	0.00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0.5	△1.3	△0.03	0.9	△4.3	△0.0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0.2	0.3	0.01	0.0	△3.3	△0.04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3.4	△6.9	△0.03	△4.3	△8.7	0.0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7.1	6.8	0.39	17.4	16.4	0.14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7	3.1	0.17	△3.3	△4.5	△0.02

주 : 실질기여도는 GR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나. 생산, 출하, 재고지수

2017년을 기점으로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지수는 2017년 112.2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02.7로 감소하였으며, 출하지수는 2017년 119.2에서 2023년 109.0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수준이다. 재고지수는 2017년 54.8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하며 2023년 전년대비 29.0% 감소한 63.0을 기록하였다.

〈표 11-25〉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

(단위 : 2020=100,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생산	94.0	96.1	98.4	99.7	100.2	100.0	108.8	109.8	106.9
	(증감률)	△0.3	2.3	2.3	1.4	0.4	△0.2	8.8	0.9	△2.6
	출하	100.0	101.5	102.5	102.4	102.2	100.0	105.0	105.3	104.8
	(증감률)	0.3	1.5	1.0	△0.1	△0.1	△2.2	5.0	0.3	△0.5
	재고	87.6	84.9	92.4	98.6	96.0	94.5	106.1	110.4	108.1
	(증감률)	5.3	△3.1	8.9	6.7	△2.6	△1.6	12.3	4.1	△2.1
제주	생산	101.9	105.1	112.2	106.2	105.5	100.0	105.5	105.7	102.7
	(증감률)	7.1	3.1	6.7	△5.4	△0.6	△5.2	5.5	0.2	△2.8
	출하	107.3	115.4	119.2	105.5	104.6	100.0	104.5	103.7	109.0
	(증감률)	3.9	7.6	3.3	△11.5	△0.9	△4.4	4.5	△0.8	5.1
	재고	62.6	80.1	54.8	78.3	95.2	113.8	111.9	88.7	63.0
	(증감률)	27.2	27.9	△31.6	43.0	21.6	19.5	△1.7	△20.7	△29.0

주 : 원지수 기준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그림 11-3〉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9.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2.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6%)'의 생산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4.4%)', '음료 제조업(-7.4%)'의 감소세 전환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31.9%)' 등의 감소세 지속 영향으로 전년대비 생산지수가 2.8% 감소하였다.

〈표 11-26〉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2020=100, %)

원지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조업	**7.1**	**3.1**	**6.7**	**△5.4**	**△0.6**	**△5.2**	**5.5**	**0.2**	**△2.8**
식료품 제조업	0.7	△12.4	2.7	△15.7	△6.4	△2.5	2.5	3.3	△4.4
음료 제조업	14.3	2.2	8.9	12.4	5.4	△0.7	4.4	0.8	△7.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1	△15.5	△9.6	20.7	△1.1	△1.1	0.0	△12.4	△1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6.2	1.1	△5.6	13.1	△12.1	0.9	△2.9	△21.2	△3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4.6	2.2	38.3	52.8	6.0	19.9	14.2	1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	12.4	1.9	△32.5	△12.2	△10.1	6.2	△9.2	△16.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7	21.7	10.1	△23.2	△12.8	△28.8	4.1	1.4	0.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11.2	△25.4	△2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02.0	43.2	4.6	34.4	51.6	34.5	△10.0	69.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20.1	22.5	9.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출하지수를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6.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3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18.2%)'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료 제조업(0.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7.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6%)'의 증가세 지속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4.1%)'의 증가세 전환 영향으로 전년대비 출하지수가 5.1% 증가하였다.

〈표 11-27〉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출하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2020=100, %)

원지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조업	**3.9**	**7.6**	**3.3**	**△11.5**	**△0.9**	**△4.4**	**4.5**	**△0.8**	**5.1**
식료품 제조업	△8.0	△4.9	△3.7	△12.5	△4.6	2.8	△3.8	△1.5	△1.5
음료 제조업	8.6	8.9	5.0	2.5	4.8	△2.6	3.0	7.4	0.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4	△16.8	△10.6	22.7	△2.0	△0.2	△1.0	△12.7	△16.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4.3	△8.4	7.5	7.7	△5.8	3.6	3.0	△19.7	△32.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88.8	34.0	15.4	52.8	6.0	24.2	14.0	27.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4	19.2	△1.2	△30.8	△15.2	△11.6	6.3	△10.1	△18.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1	21.7	7.1	△24.8	△14.5	△28.7	5.1	△0.2	3.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9.0	△27.4	△18.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76.0	43.2	△4.4	51.6	29.5	48.9	△6.2	64.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20.1	22.5	9.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재고지수를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1.3%)을 제외한 업종의 재고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제조업의 전년대비 재고지수가 29.0% 감소하였다.

〈표 11-28〉 제주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재고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2020=100, %)

원지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조업	**27.2**	**27.9**	**△31.6**	**43.0**	**21.6**	**19.5**	**△1.7**	**△20.7**	**△29.0**
식료품 제조업	38.6	7.6	△18.9	21.7	△10.0	△7.9	△0.1	18.9	1.3
음료 제조업	41.3	53.8	△55.9	109.2	97.5	31.3	48.4	△41.8	△64.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5.3	22.5	△15.9	5.9	11.3	△3.0	△19.6	△34.1	△43.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3	88.8	△39.2	24.4	△32.4	△33.4	10.1	33.9	△28.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5	15.5	△13.2	59.5	61.3	△30.9	6.8	6.1	△27.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56.6	76.4	△77.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9	△52.9	235.5	△28.6	172.2	△31.1	△63.3	△84.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다. 제주지역 산업단지 성과

2023년 4분기 기준 제주지역의 산업단지 성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1.4% 증가한 284개 업체가 산업단지 내 입주하였으며, 실가동률은 2022년 4분기 대비 0.3%p 감소한 98.9%로 나타났다. 고용자 수는 2022년 4분기 대비 6.5% 증가한 4,308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생산액(17,573억 원) 및 수출액(61,789천 달러)은 각각 48.4%, 132.8%로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표 11-29〉 제주지역 산업단지 성과 증감률 추이

(단위 : 개, 명, 억 원, 천 달러, %)

구분		2022년 4분기					2023년 4분기				
		입주업체	가동업체	고용	생산	수출	입주업체	가동업체	고용	생산	수출
국가(2개)	첨단과학기술단지	203	203	3,131	9,262	22,760	206	206	3,383	14,748	59,003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	–	–	–	–	–	–	–	–	–
일반(1개)	용암해수산업단지	19	19	176	375	2,183	18	18	176	428.91	1,851
농공(3개)	소계	58	56	737	2,204	1,601	60	57	749	2,396	935
	구좌	22	20	194	881	336	23	20	201	1,040	661
	금능	17	17	154	456	109	18	18	158	435	–
	대정	19	19	389	867	1,156	19	19	390	920	274
합계		**280**	**278**	**4,044**	**11,841**	**26,544**	**284**	**281**	**4,308**	**17,573**	**61,789**
(증감률)		4.1	6.5	3.0	△43.7	△32.6	1.4	1.1	6.5	48.4	132.8

주 : 1) 생산 및 수출자료는 누적자료임
2)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현재 미개발된 단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 주력 산업 : 청정바이오산업

가. 사업화 매출액[3)]

2023년 기준 청정바이오산업의 전체 사업화 매출액은 162.59억 원(R&D분야+비R&D분야)으로 목표치(160억 원) 대비 101.6%를 달성하였으며, 총성과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주력산업 R&D 분야 내 청정바이오산업의 사업화 매출액은 107.46억 원으로 목표치(106억 원) 대비 101.4%로 주력산업 R&D 분야 총

3) 수혜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기준임

성과의 43.5%를 차지하며, 총투입 예산(국비+지방비) 기준 1억 원당 사업화 매출액은 증가한 3.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력산업 비R&D 분야 내 청정바이오산업의 사업화 매출액은 55.13억 원으로 목표치(54억 원) 대비 102.1%로 주력산업 비R&D 분야 총성과의 26.2%를 차지하며, 총투입 예산(국비+지방비) 기준 1억 원당 사업화 매출액은 6.2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11-30> 청정바이오산업 사업화 매출액 창출 성과

(단위 : 억 원, %)

구 분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목표 달성도	
				총성과	국비 성과	지방비 성과	총성과	국비 성과	성과 목표치	달성도
총 계				**457.02**	**330.58**	**126.43**	**2.34**	**3.32**	**353**	**129.47**
R&D	R&D 합계			246.96	189.33	57.62	2.12	2.1	221	111.75
	주력산업	계속	스마트관광	20.44	16.35	4.09	1.7	1.36	10	204.4
			청정바이오	105.48	93.52	11.96	7.33	6.49	46	229.3
			그린에너지	25.58	17.95	7.63	1.99	1.4	13	196.77
		신규	지능형관광서비스	4.81	2.02	2.79	0.31	0.21	12	40.08
			청정바이오	1.98	1.97	0.01	0.09	0.15	60	3.3
			그린에너지솔루션	5.17	4.03	1.14	0.39	0.54	14	36.93
		혁신선도		12.3	12.3	-	2.05	2.05	12	102.5
	R&D 주력 소계			175.78	148.15	27.62	1.86	1.95	167	105.26
	R&D 기타 소계			71.18	41.18	30	3.28	2.96	54	131.81
비R&D	비R&D 합계			210.07	141.25	68.81	3.46	3.26	132	159.14
	주력산업	기업지원	지능형관광서비스	30.89	10.29	20.6	4.98	2.91	5	617.8
			청정바이오	55.13	46.33	8.8	6.22	5.23	54	102.09
			그린에너지솔루션	30.37	18.84	11.53	11.42	-	11	276.09
		성장사다리		88.55	61.97	26.58	2.65	2.65	57	155.35
	비R&D 주력 소계			204.95	137.43	67.51	4.01	3.84	127	161.38
	비R&D 기타 소계			5.12	3.82	1.3	0.54	0.5	5	102.4
기타	기타 합계			-	-	-	-	-	-	-
	기타 소계			-	-	-	-	-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4), 「2024년도(2023년 실적) 제주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p.36 일부 발췌

나. 신규 고용[4)]

2023년 기준 청정바이오산업의 전체 신규 고용 수는 68.75명(R&D 분야+비R&D분야)으로 목표치(67명) 대비 102.6%를 달성하였으며, 총성과의 24.9%를 차지하고 있다.

주력산업 R&D 분야 내 청정바이오산업의 신규 고용자 수는 43.22명으로 목표치(35명) 대비 123.5%로 주력산업 R&D 분야 총성과의 29.7%를 차지하며, 총투입 예산(국비+지방비) 기준 1억 원당 신규 고용자 수는 1.22명으로 나타났다.

주력산업 비R&D 분야 내 청정바이오산업의 신규 고용자 수는 25.53명으로 목표치(32명) 대비 79.8%로 주력산업 비R&D 분야 총성과의 19.5%를 차지하며, 총투입 예산(국비+지방비) 기준 1억 원당 신규 고용자 수는 2.88명으로 나타났다.

<표 11-31> 청정바이오산업 신규 고용 창출 성과

(단위 : 명, %)

구 분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목표 달성도	
				총성과	국비 성과	지방비 성과	총성과	국비 성과	성과 목표치	달성도
총 계				276.37	195.88	80.49	1.41	2.01	285	96.97
R&D	R&D 합계			145.35	108.39	36.96	1.25	1.2	142	102.36
	주력산업	계속	스마트관광	27.17	24.53	2.64	2.26	2.04	20	135.85
			청정바이오	27.72	23.83	3.89	1.93	1.65	14	229.3
			그린에너지	21.02	14.56	6.46	1.64	1.13	15	196.77
		신규	지능형관광서비스	11.34	7.34	4	0.74	0.75	25	40.08
			청정바이오	15.50	12.41	3.09	0.74	0.92	21	3.3
			그린에너지솔루션	8.55	1.10	7.45	0.65	0.15	16	36.93
		혁신선도		6.89	6.89	-	1.15	1.15	6	102.5
	R&D 주력 소계			118.19	90.66	27.53	1.25	1.19	117	101.02
	R&D 기타 소계			27.16	17.73	9.43	1.25	1.27	25	108.64

4) 주력산업으로 창출된 신규 고용

구 분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목표 달성도	
				총성과	국비 성과	지방비 성과	총성과	국비 성과	성과 목표치	달성도
비R&D	비R&D 합계			131.02	87.49	43.53	2.16	2.02	143	91.62
	주력산업	기업지원	지능형관광서비스	20.92	10.95	9.97	3.37	3.09	15	139.47
			청정바이오	25.53	18.07	7.46	2.88	2.04	32	79.78
			그린에너지솔루션	8.17	4.40	3.77	3.07	-	5	163.4
		성장사다리		72	50.39	21.61	2.15	2.15	88	81.82
	비R&D 주력 소계			126.62	83.81	42.81	2.47	2.34	140	90.44
	비R&D 기타 소계			4.4	3.68	0.72	0.46	0.49	3	146.67
기타	기타 합계			-	-	-	-	-	-	-
	기타 소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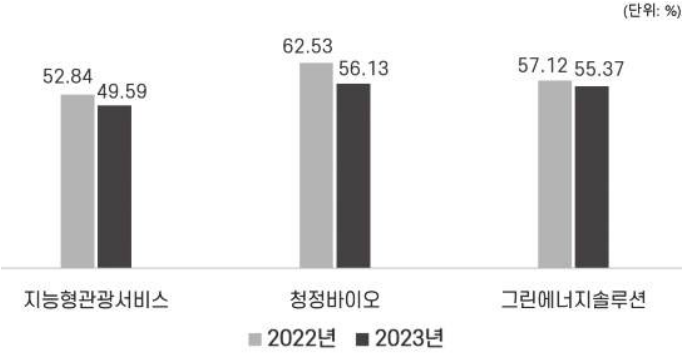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4),「2024년도(2023년 실적) 제주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p.36 일부 발췌

다. 청년 고용 비중[5)]

2023년 기준 청정바이오산업 내 청년 고용 비중은 전년대비 6.4%p 감소한 56.13%로, 그린에너지솔루션(55.37%), 지능형관광서비스(49.5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청년 고용 비중'은 주력산업으로 창출된 신규 고용 중 30세 미만 청년 고용 비중을 의미함

〈그림 11-4〉 청정바이오산업 청년 고용 비중 추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4), 「2024년도(2023년 실적) 제주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보고서」, p.4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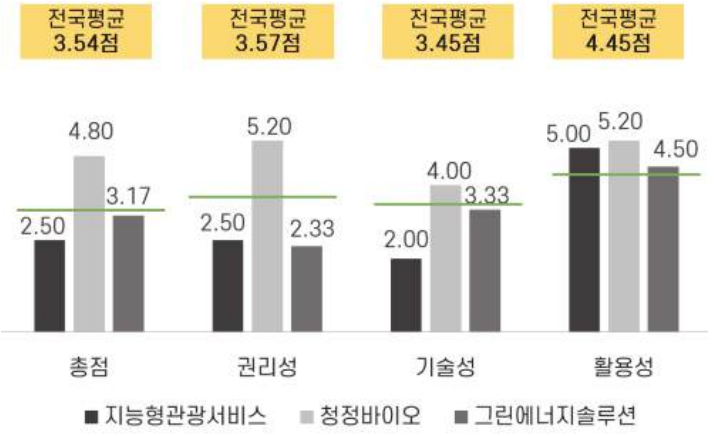
라. 기술개발 활용률[6)]

2023년 기준 제주 지역산업육성사업 SMART 특허 점수는 총 3.69점으로 성과목표(3.44점) 대비 목표치를 102.27%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정바이오산업은 4.80점으로, 그린에너지솔루션(3.17점), 지능형관광서비스(2.50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청정바이오산업으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활용 비중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임

〈그림 11-5〉 청정바이오산업 SMART 특허 점수

(단위: 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4), 「2024년도(2023년 실적)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보고서」, p.39 재인용

3. 주력 산업 : 뷰티향장산업

가.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

제주지역 화장품기업 1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도 종사자 수는 975명과 997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2020년(924명)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1-32〉 제주 화장품기업 종사자 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종사자 수(명)	924	945	975	997
전년 대비 증감율(%)	-	2.3	3.1	2.4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제주 TP가 조사한 화장품기업 154개사의 본사 소재지를 살펴보면, 153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 기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제주도에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에서 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제주시 127개사(82.5%), 서귀포시 27개사(17.5%)로 대부분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33〉 제주 화장품기업 본사 소재지별 분포

구분	빈도(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153	99.4
서울특별시	1	0.6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154개 응답기업의 종업원수 분석 결과, 92.2%에 이르는 142개사가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조업원 10명 이상~30명 미만 11개사(7.1%), 30명 이상 1개사(0.7%) 순으로 분석 되었다.

154개 기업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개인사업체 85개사(55%), 법인 68개사(44%) 및 기타 1개사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화장품책임판매 98개사(63.6%), 화장품제조 55개사(35.7%)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1개사(0.7%)로 분류되었다.

〈표 11-34〉 제주 화장품기업 조사 응답기업 종업원 수

구분	빈도(개)	비율(%)
10명 미만	142	92.2
10명 이상 ~ 30명 미만	11	7.1
30명 이상	1	0.7
전체	154	100.0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조사 대상 154개 화장품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22년과 2023년도 각각 1,338억원 및 1,41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5.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11-35> 제주 화장품기업 매출액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매출액(백만 원)	104,728	114,734	133,801	141,516
전년 대비 증감율(%)	-	10.1	17.0	5.8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응답기업의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1억 이상~5억 미만 구간'이 63개사(4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억 미만'이 43개사(27.9%), '5억 이상~10억 미만'이 23개사(14.9%), '10억 이상~50억 미만 '이 21개사(13.6%), '50억 이상~100억 미만'이 2개사(1.3%), '100억 이상'이 1개사(0.6%)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1229개 기업(83.8%)으로 제주 화장품 기업 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표 11-36> 응답 기업의 매출액(2022년 기준)

구분	빈도(개)	비율(%)
1억 미만	43	27.9
1억 이상 ~ 5억 미만	63	40.9
5억 이상 ~ 10억 미만	23	14.9
10억 이상 ~ 50억 미만	21	13.6
50억 이상 ~ 100억 미만	2	1.3

구분	빈도(개)	비율(%)
100억 이상	1	0.6
무응답	1	0.6
전체	154	100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수출액을 살펴보면 응답기업 중 16개 사에서 수출 실적이 보고되었다. 16개 사의 수출액은 2020년 4,551천 달러, 2021년 3,579천 달러, 2022년 3,592천 달러 그리고 2023년 4,459천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실적은 2021년에 하락하였다가 2023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표 11-37〉 제주 화장품기업 수출액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고 기업수	16	16	16	16
수출액 (천 달러)	4,551	3,579	3,592	4,548
전년 대비 증감율(%)	-	△21.4	0.4	26.6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나. 사업 지원 성과

2022-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화장품 산업 분야의 예산 지원 실적이 〈표 11-39〉에 정리되어 있다. 국가 직접 지원의 인프라 사업으로 제주화장품원료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어 제주 TP 종다양성연구소 부지에 공장이 완공되어 2022년 개소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58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제주화장품 피부임상센터가 2023년 제주산학융합원 내에 구축되었다. 이를 통하여 제주 화장품의 기능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홍보함으로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인프라 사업(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제주TP 화장품공장의 리뉴얼 공사가 진행되어 2024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었다. TP 화장품 공장은 C-GMP 시설로서 제주 기업의 화장품 OEM 생산 기지로 산업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도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까지 지원되었다. 개인 맞춤형화장품 산업은 국내외에서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플랫폼 개발, 원료 개발, 스마트 팩토리 및 피부진단기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에 2022-2023년도에도 예산이 12억 투입되었다. 메이드인 제주(Made in Jeju) 인증화장품은 2024년 9월 현재까지 66개 업체에서 716 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장품 마케팅 지원사업, 박람회 및 학술포럼 개최 사업 등이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11-38〉 2022-2023년 화장품산업 관련 지자체의 예산 지원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 지원액(천원)	
		2022년	2023년
국가직접 지원사업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000,000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사업	824,000	2,918,000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600,000	700,000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 사업	480,000	470,000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300,000	300,000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600,000	600,000
	제주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35,000	35,000
	제주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50,000	54,000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 포럼 지원 사업	130,000	117,000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 사업	100,000	90,000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1. 주력 산업 : 청정바이오산업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은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정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실제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성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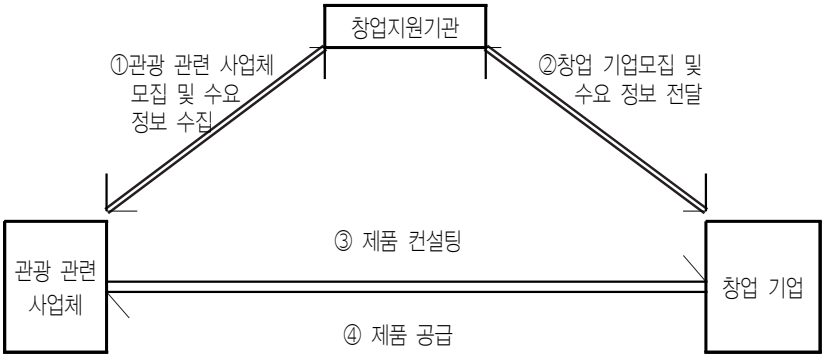
가. 식품산업의 중간수요 연계 생산 지원

식품산업 창업 기업이 규모화되기 이전에 폐업하게 되는 주 원인은, 시장성(수요)이 확보되지 않은 상품 개발에 의존하여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창업 기업이 일정 수준이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내 중간 수요를 타겟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주지역 청정바이오산업 시장은 중간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해당 중간수요 시장은 타지역 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지역 식품산업의 전방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

계, 즉 관광산업의 중간수요를 타겟으로 한 시장 진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시장 진출 지원 사업 모델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제주지역 식품산업 시장 진출 지원 모델(예시)[7]



① 단계(제주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 모집 및 수요 정보 수집): 제주지역 식품산업 제품을 중간재로 소비하고자 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모집하여, 수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임
- 창업지원기관은 지역 재료를 활용한 식품을 소비(중간 수요)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모집하고, 해당 중간 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② 단계(창업 기업 모집 및 수요 정보 전달): 창업지원기관(제주테크노파크 등)은 수집된 수요 정보를 공개하고,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공개된 수요 정보에 부합한 제품 개발 의향이 있는 창업 기업을 모집함

③ 단계(제품 컨설팅): 모집된 관광 관련 사업체와 창업 기업이 연계·협력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단계임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획·개발 과정에서 관광 관련 사업체와 창업 기업은 연계·협력함으로써 품질 경쟁력 및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함
- 관광 관련 사업체의 제품(식품)에 대한 니즈를 창업 기업에게 전달하고, 창업 기업은 이러한 니즈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임

④ 단계(제품 공급): 개발된 제품을 창업 기업이 관광 관련 사업체에게 공급하는 단계임
- 이 과정에서 관광 관련 사업체와 창업 기업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함

7) 고태호(2020)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나. OEM 및 ODM 생산 지원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설비 구축이 이루어지다 보니, 구축된 설비가 방치·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수요 규모가 일정 수준 확보될 때까지는, 생산 설비 지원 보다는 OEM 및 ODM 생산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OEM 및 ODM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표시제 음료 제작 지원 사업' 등과 같은 OEM 및 ODM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능성 표시제 음료 제작 지원 사업(제주테크노파크)
- 사업 목적: 제주 청정바이오소재와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기능성 음료의 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제주 바이오 산업의 제품군 확대 및 신규판로 개척
- 지원 대상: 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
- 지원 규모: 기업당 15백만원 범위
  - 기업당 15백만원 범위에서 음료 제작을 위한 원료, 디자인, 부자재(박스, 라벨, 병, 기타) 등 재료구입 지원
- 지원 내용: 제주형 기능성표시제 음료 제작 지원
  - 기능성 표시제 원료(기능성원료 29종*)와 제주특화원료 및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주형 기능성 표시제 음료 개발·제작 지원
- 지원 유형
  ① 기술지원형 (ODM): 지원기관에서 제품개발부터 생산 제작까지 지원
  ② 생산지원형 (OEM): 수혜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 제작 지원

다. 지역자원 활용 식품산업 활성화

식품산업은 생활과 직결된 필수소비재 산업으로 경기변동 및 계절 등 환경 변화에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 식품산업

은 중간수요가 높은 산업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청정자원을 활용한 원재료 성장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다.

이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식품산업의 중간수요를 타겟으로 한 원재료 및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매 지원 등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반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중간수요를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역 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재 및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시제품개발 지원 확대, 플랫폼 구축 등 식품산업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2. 주력 산업 : 뷰티향장산업

가. 제주화장품인증(JCC) 기반 공동 마케팅 및 수출 다변화

제주 화장품은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 수출 다변화를 통한 매출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 화장품인증(Jeju Cosmetic Cert; JCC)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동마케팅이 필요하다. 제주 화장품 기업은 규모가 작고 개별 기업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및 마케팅 역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제주(Jeju)는 국제적인 관광지

로서 외국에서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Jeju)의 인지도를 화장품 제품에 접목하여 지역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5월 2일 출발한 것이 제주화장품인증(JCC) 제도이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지명도를 기반으로 한 메이드인 제주(Made in Jeju) 인증화장품은 2024년 9월 현재까지 66개 업체에서 716 품목에 달하고 있다. JCC 인증 화장품 품목 수를 보면 2019년 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우선 JCC 인증 화장품 품목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JCC 인증 화장품 규모가 확대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동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표 11-39〉 제주 화장품인증(JCC) 획득 제품현황

('24년 09월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인증 제품수	73	86	87	108	89	76	62	42	56	716
업체 수	16	29	13	19	27	28	18	15	13	66

현재 국내 화장품 수출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 위주의 수출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에 안착하고 있다. 2023년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3.1% 감소한 대신 미국으로의 수출은 44.7%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 외 홍콩(27.4%), 베트남(32.8%), 러시아(42.2%), 대만(11.1%), 태국(24.5%) 등에서도 전년대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40〉 우리나라 화장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2년		2023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년대비 증가율
1	중국	3,612	45.4	2,777	32.8	△23.1
2	미국	839	10.5	1,214	14.3	44.7
3	일본	746	9.4	802	9.5	7.5
4	홍콩	394	5.0	502	5.9	27.4
5	베트남	375	4.7	498	5.9	32.8
6	러시아	287	3.6	408	4.8	42.2
7	대만	200	2.5	222	2.6	11.0
8	태국	155	1.9	193	2.3	24.5
9	싱가포르	119	1.5	129	1.5	8.4
10	말레이시아	115	1.4	121	1.4	5.2
전체수출액(163개 국가)		7,953	100	8,462	100	6.4

자료 : 무역협회

도내 화장품기업 현황 조사에서, 응답 기업 154개 사 중에서 30개 기업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중화권(중국, 홍콩)과 동남아가 각각 19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북미 19개사 일본 3개사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국가가 41개 국가로 전체 68.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은 K-뷰티를 기반으로 아시아권으로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 화장품 회사도 수출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도내 화장품기업의 경우 브랜드파워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수출 마케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Jeju) 혹은 메이드인제주

(Made in Jeju)를 중심 테마로 한 글로벌 공동마케팅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제주화장품 상설 매장을 공동운영하거나 전시회 부스를 공동 운영하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제주 제품 해외 공동마케팅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 화장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Jeju)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단의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표 11-41〉 제주 화장품기업 수출 지역 분포(2022년 기준)

구분	빈도(개)	비율(%)
중화권(중국, 홍콩)	19	31.7
동남아	19	31.7
북미	13	21.6
일본	3	5.0
러시아	2	3.3
유럽	2	3.3
중남미	1	1.7
기타	1	1.7
전체	60	100.0

자료 : 제주화장품산업 실태조사분석 응답기업 보고서, JTP(2023)

나. 제주 화장품 원료 산업화 시스템 구축 및 활용

2022년 11월 제주 TP 종다양성 연구소 부지 내에 '제주화장품원료센터'가 구축되어 개소식을 가졌다. 제주 화장품원료센터는 정부사업(과제명: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축되

었다.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제주도 지방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원료생산 공장을 신축하였다. 또한, 추출기(100L), 농축기(500L), 향료 추출기,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의 생산 장비를 구축하였다. 화장품원료센터는 제주를 글로벌 화장품 원료 공급 기지화 하는 비전으로 제주 유래 식물 등 특화자원의 화장품 원료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주 화장품 원료생산 거점화 및 기업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1-42〉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총 사업기간	2018. 04. 01 - 2022. 12. 31(57개월)
총 사업비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내용	-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위한 집적화된 기업지원 시설 구축 -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원료 시제품개발/연구 장비구축 및 공정기술 개발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업 Spherical Insights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원료 시장(Global Functional Cosmetic Ingredients Market)' 보고서 따르면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원료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5.9%로 성장해 68억 7,000만 달러(약 9조 4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산 화장품 원료는 청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 생물자원의 다양성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2019년 기준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등록된 제주 화장품 원료는 321종이다. 이 중 국제화장품원료집(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ICID)에 등재된 원료는 전체 원료 중 85%에 달하는 270여 종이다. 특히, 제주산 화장품 원료의 원료명에는 '제주 Jeju' 영문이 함께 붙어 등재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지역 이름으로 ICID에 원료가 등재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 화장품 원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정 소재의 이미지와 더불어 기술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화장품 원료화의 핵심 기술로는 원료의 기능성 검증, 지표 성분의 규명, 제품의 규격화 및 산업화 공정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인력과 더불어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주 천연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는 이러한 인프라를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2016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주화장품인증(Jeju Cosmetic Cert) 제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이와 더불어 제주 화장품 원료(Jeju Cosmetic Ingredient)의 인증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외에서 무분별하게 홍보되고 있는 제주화장품 원료를 소비자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주 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제주 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제주 화장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 유효성 피부임상 데이터를 통한 화장품 경쟁력 확보

청정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주 화장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접목되어야 한다. 화장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시험을 시행하는 피부임상 기관이 필요하다.

〈표 11-43〉 제주 피부임상센터 구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화장품 피부임상솔루션센터 구축 사업(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총 사업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총 사업비	58억 원 (국비 40억 원, 지방비 18억 원)
내용	- 피부 임상 장비 구축 및 운영 - 화장품 및 소재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

피부임상센터는 인체를 대상으로 피부 첩포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관이다. 도내에는 2023년 제주산학융합원에 국가지원사업에 의하여 피부임상센터가 구축되었다. 제주산학융합원 피부임상센터에는 화장품의 기능성(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및 유효성(보습개선, 피부탄력개선, 피부유분개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피부주름측정기, 피부 3차원 진단기, 피부탄력측정기, 자외선차단지수 측정기 등)가 구축되어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포 수준의 in-vitro 시험평가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기업이 화장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피부임상 시험 결과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을 화장품 광고 실증제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하는 경우에는 과대광고가 되어 식약처의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화장품의 우수성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피부 임상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청정 제주 원료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제주 기

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 지역 내에 기업지원 전략으로 피부임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화장품 기업은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매출과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12장 관광산업

제1절 현황

1. 제주방문 관광객 수 현황

2022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3,889,502명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13,370,529명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12,661,179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709,350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이후 내국인 관광시장은 하락세, 외국인 관광시장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2014~2023년 관광객 유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광객	계	15,852,980	14,753,236	14,313,961	15,286,136	10,236,445	12,008,437	13,889,502	13,370,529
	(증감률)	(16.0)	(△6.9)	(△3.0)	(6.8)	(△33.0)	(17.3)	(15.7)	(△3.7)
	내국인	12,249,959	13,522,632	13,089,129	13,560,004	10,023,678	11,960,159	13,803,058	12,661,179
	외국인	3,603,021	1,230,604	1,224,832	1,726,132	212,767	48,278	86,444	709,35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023년 관광형태별 내국인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관광이 12,038,545명(95.1%), 단체관광객이 622,634명(4.9%)으로 여전히 개별관광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대비,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관광행태별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2022년~2023년)

(단위 : 명, %)

월 별	개별관광			단체관광		
	2022년	2023년	변화율	2022년	2023년	변화율
1월	1,144,788	984,829	△14.0	22,113	31,887	44.2
2월	1,003,414	999,875	△0.4	22,941	41,495	80.9
3월	860,696	987,104	14.7	9,132	52,679	476.9
4월	1,125,440	1,043,984	△7.2	49,329	71,678	45.3
5월	1,267,786	1,012,041	△20.2	34,177	118,974	248.1
6월	1,238,619	1,053,438	△15.0	39,229	38,723	△1.3
7월	1,223,571	1,014,889	△17.1	33,274	31,753	△4.6
8월	1,197,430	1,057,606	△11.7	76,722	36,771	△52.1
9월	970,035	969,563	0.0	81,464	63,018	△22.6
10월	1,145,339	1,003,272	△12.4	126,194	98,727	△21.8
11월	1,041,980	974,657	△6.5	93,059	30,241	△67.5
12월	946,255	937287	△0.9	50,071	6,688	△86.6
총계	13,165,353	12,038,545	△8.6	637,705	622,634	△2.4

주 : 2014년부터 통계 집계 방식의 변경으로 개별관광은 '개별관광+부분패키지관광객'을 의미하며, 단체관광은 '패키지관광객'을 의미함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년 외국인 국적별 내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관광객 709,350명 중 중국인 관광객 410,535명, 대만인 관광객이 69,941명, 일본인 관광객 53,482명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종식으로 외국인 관광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3> 2015~2023년 외국인 국적별 내도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624,260	3,603,021	1,230,604	1,244,832	1,726,132	212,767	48,278	86,444	709,350
일 본	59,233	47,997	55,359	86,634	87,975	7,638	972	3,213	53,482
미 국	16,898	33,605	32,651	31,270	39,827	9,696	10,746	12,387	27,688
대 만	17,839	38,046	28,994	51,331	87,981	10,185	304	2,646	69,941
중 국	2,237,363	3,061,522	747,315	666,120	1,079,133	103,288	6,381	9,891	410,535
홍 콩	22,732	44,757	48,952	49,085	56,268	10,168	191	1,535	17,357
싱가포르	29,620	50,566	33,732	28,572	26,345	2,680	227	12,870	37,232
말레이시아	39,892	66,207	49,524	68,353	67,877	10,092	763	3,385	9,847
기 타	200,683	260,321	234,077	263,467	280,726	59,020	28,694	40,517	83,26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 제주방문 관광객 지출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방문시 관광객들의 현금지출 및 결제 수단으로 일반화된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2023년 제주 관광산업 카드 소비 금액은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 추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카드 소비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관광객의 카드 소비금액은 전년 대비 3.2%(약 1,100억 원) 감소하였으며 그중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4,030억 원 감소하여 12.3% 감소하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약 2,940억 원으로 나타나 18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4〉 연도별 제주관광산업 카드소비 금액 현황

구 분	카드소비금액(십억원)			전년대비증가율(%)			상대비율(%)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3년	1,449	1,242	207	-	-	-	85.7	14.3
2014년	2,586	1,524	1,062	78.4	22.7	412.1	58.9	14.1
2015년	3,282	1,956	1,326	26.9	28.3	24.8	59.6	40.4
2016년	4,074	2,225	1,849	24.1	13.8	39.4	54.6	45.4
2017년	3,572	2,744	828	△12.3	23.3	△55.2	76.8	23.2
2018년	3,852	2,784	1,068	7.8	1.5	29	72.3	27.7
2019년	4,114	2,810	1,304	6.8	0.9	22.2	68.3	31.7
2020년	2,347	2,184	163	△43.0	△22.3	△87.5	93.1	6.9
2021년	2,949	2,873	76	25.6	31.5	△53.4	97.4	2.6
2022년	3,440	3,278	162	16.6	14.1	113.2	95.3	4.7
2023년	3,330	2,875	456	△3.2	△12.3	181.5	86.3	13.7

자료 : 제주관광공사(2024.06), 신용카드 매출액 BIG-DATA 분석 9 : 제주방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2014-2023),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vol.19.

2023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매업이 1조1,106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4.3%(1,840억 원) 감소하였다. 내국인 소비는 18.6%(2,370억 원) 감소했으며, 외국인 소비는 305.6%(550억 원) 증가했다.

〈표 12-5〉 연도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카드 소비 금액

(단위 : 십억 원)

구 분	1. 소매업			2. 숙박업			3. 음식점업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2013년	581	491	90	161	114	47	288	256	32
2014년	1,386	564	822	237	135	102	401	335	66
2015년	1,772	721	1,051	258	150	108	504	449	55
2016년	2,344	814	1,530	290	169	121	638	550	88
2017년	1,607	915	692	249	195	54	718	692	26
2018년	1,706	886	820	316	191	125	729	696	33
2019년	1,967	890	1,077	279	197	82	792	752	40
2020년	938	837	101	202	173	29	731	723	8
2021년	1,143	1,134	9	301	253	48	955	950	6
2022년	1,290	1,271	18	353	293	60	1,180	1,164	16
2023년	1,106	1,034	73	353	238	115	1,117	1,039	78

구 분	4. 운수업			5. 예술·스포츠·여가업			6. 기타서비스업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2013년	263	248	15	111	90	21	46	43	3
2014년	365	328	37	134	103	31	63	59	4
2015년	542	452	90	127	109	18	80	75	5
2016년	576	491	85	137	117	20	89	84	5
2017년	779	735	44	130	122	8	88	85	3
2018년	894	820	74	131	120	11	75	71	4
2019년	853	762	91	137	127	10	86	82	4
2020년	287	268	19	115	110	5	74	73	1
2021년	250	245	5	167	160	7	133	131	2
2022년	276	225	52	201	191	10	140	134	6
2023년	466	314	152	175	157	18	112	93	19

자료 : 제주관광공사(2022.3), 신용카드 매출액 BIG-DATA 분석 7 : 제주방문 관광객 카드 소비 분석(2013-2021),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vol.16.

3. 관광수입 현황

2023년 기준 제주도 관광수입은 7조 2,350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2년 7조 9,400억 원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관광시장은 5조 9,430억 원, 외국인 관광시장은 1조 2,920억 원으로 추계됐다.

〈표 12-6〉 제주도 관광수입 추세

(단위 : 십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국인	4,405	4,215	5,887	7,135	5,943
외국인	2,961	576	644	805	1,292
총계	7,366	4,791	6,531	7,940	7,235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4. 관광사업체 운영 현황

2023년 제주관광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에 1,578개소와 서귀포시에 572개소가 있어 총사업체는 2,150개소로 조사되었다. 2022년 2,107개소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폭은 미미하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이 1,079개로 가장 많으며, 관광숙박업 418개소, 관광객 이용시설업 104개소, 카지노업 8개소, 국제회의업 47개소, 유원시설업 81개소, 관광편의시설업 4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12-7〉 관광사업체 현황(2022년~2023년)

(단위 : 개)

구 분			2010년	2022년			2023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996	2,107	1,564	543	2,150	1,578	572
여행업	계		718	1,077	1,015	62	1,079	1,011	68
	종합여행업		88	353	333	20	377	350	27
	국내외여행업		95	149	137	12	172	158	14
	국내여행업		535	575	545	30	530	503	27
관광숙박업	계		109	420	202	218	418	199	219
	호텔업	소 계	67	356	172	184	353	169	184
		관광호텔업	50	119	78	41	118	77	41
		한국전통호텔업	1	1	–	1	1	–	1
		가족호텔업	15	62	32	30	61	31	30
		호 스 텔 업	1	168	61	107	168	61	107
		소형호텔업	–	6	1	5	5	–	5
	휴양 콘도미니엄업		42	64	30	34	65	30	35
관광객이용시설업	계		33	100	53	47	104	55	49
	종합휴양업		–	3	2	1	3	2	1
	전문휴양업		25	44	18	26	43	17	26
	자동차야영장업		–	19	11	8	17	10	7
	일반야영장업		–	26	19	7	32	22	10
	관광유람선업		6	7	2	5	8	3	5
	관광공연장업		2	–	–	–	–	–	–
	한옥체험업		–	1	1	–	1	1	–
국제회의업	계		16	44	42	2	47	44	3
	국제회의시설업		1	1	–	1	1	–	1
	국제회의기획업		15	43	42	1	46	44	2
카지노업			8	8	6	2	8	5	3
유원시설업	계		12	78	41	37	81	41	40
	종합유원시설업		–	4	1	3	4	1	3
	일반유원시설업		11	22	7	15	22	7	15
	기타유원시설업		1	52	33	19	55	33	22

구 분		2010년	2022년			2023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관광편의시설업	계	100	380	205	175	413	223	190
	관광유흥음식점업	3	1	1	–	1	1	–
	관광극장유흥업	3	3	1	2	1	1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5	4	3	1	4	3	1
	관광식당업	40	192	118	74	202	120	82
	관광순환버스업	–	2	2	–	2	2	–
	관광사진업	1	2	2	–	2	2	–
	휴양펜션업	48	112	36	76	117	37	80
	관광면세업	–	7	6	1	7	6	1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18	6	12	20	6	14
	관광지원서비스업	–	39	30	9	57	45	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현황자료

2023년 제주도내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총 7,274개소이며, 객실수는 79,402실이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은 총 418개소이며, 이중 호텔업이 353개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이 65개소이다. 휴양펜션업 117개소 1,000실, 일반숙박업 633개소 21,477실, 생활숙박업 301개소 8,341실, 농어촌민박 5,790개소 14,622실, 유스호스텔 15개소 716실이다.

〈표 12-8〉 숙박시설 현황(2021년~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숙박시설 총계	6,199	77,577	6,737	78,376	7,274	79,402
관광숙박시설 소계	422	33,662	420	33,320	418	33,246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관광숙박업	호텔업 소계		362	24,573	356	24,055	353	23,895
	호텔업	관광호텔	125	16,059	119	15,559	118	15,521
		전통호텔	1	26	1	26	1	26
		가족호텔	62	4,058	62	4,058	61	3,965
		호 스 텔	170	4,338	168	4,271	168	4,268
		소형호텔	4	92	6	141	5	115
	휴양콘도미니엄업		60	9,089	64	9,265	65	9,351
휴양펜션업			109	942	112	973	117	1,000
일반숙박업			643	21,602	633	21,579	633	21,477
생활숙박업			219	7,474	247	7,846	301	8,341
농어촌민박			4,789	13,026	5,309	13,835	5,790	14,622
유스호스텔			17	871	16	823	15	71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현황자료

제주도내 숙박시설이 과잉공급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로 숙박시설 중 휴업 또는 폐업하는 숙박시설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로는 숙박시설 업종별로 휴업·폐업 건수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관광숙박업 중 휴업한 업체 수는 9개소, 폐업한 업체 수는 5개소로 나타났다. 일반숙박업 중 폐업한 업체 수는 21개소이며, 농어촌민박의 폐업 수는 243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12-9〉 숙박시설 휴업·폐업 현황(2023년 기준)

구분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휴업	계	9	708	1	8							7	305
	제주시	5	379	1	8							4	194
	서귀포시	4	329	-	-							3	111
폐업	계	5	296	-	-	21	1,161	9	877	243	603	-	-
	제주시	4	255	-	-	14	643	2	695	167	395	-	-
	서귀포시	1	41	-	-	7	518	7	182	76	208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현황자료
주 : (휴업) '23. 12. 31.기준 현재 휴업업체 수, (폐업) '23. 1. 1.~12. 31.까지 폐업업체 수

2023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2,415,970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수 비중이 가장 높은 달은 10월, 5월, 11월 등의 순이며, 반면 1월과 12월은 상대적으로 이용객들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전인 2019년 보다는 이용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10〉 제주도내 골프장 월별 이용객 현황(2019년, 2022년~2023년)

(단위 : 명, %)

구분	2019년			2022년			2023년			2022/2023 증감율
	도내	도외/외국인	소계	도내	도외/외국인	소계	도내	도외/외국인	소계	
1월	53,406	43,422	96,828	67,131	126,766	193,897	48,407	56,430	56,430	△45.9%
2월	56,286	51,210	107,496	58,292	130,778	189,070	62,021	88,037	88,037	△20.6%
3월	82,811	85,932	168,743	87,280	145,609	232,889	90,813	117,808	117,808	△10.4%
4월	85,723	108,907	194,630	94,133	186,105	280,238	84,991	145,938	145,938	△17.6%
5월	97,665	120,835	218,500	104,772	200,633	305,405	96,818	150,877	150,877	△18.9%

구분	2019년			2022년			2023년			2022/2023 증감율
	도내	도외/외국인	소계	도내	도외/외국인	소계	도내	도외/외국인	소계	
6월	97,613	106,633	204,246	90,400	171,666	262,066	92,991	140,583	140,583	△10.9%
7월	94,631	71,151	165,782	94,713	132,133	226,846	86,101	94,937	94,937	△20.2%
8월	90,146	91,159	181,305	89,345	139,242	228,587	85,709	109,848	109,848	△14.4%
9월	78,723	67,547	146,270	85,171	127,666	212,837	93,071	120,645	120,645	0.4%
10월	96,157	124,744	220,901	105,768	185,091	290,859	110,555	166,265	166,265	△4.8%
11월	92,963	134,018	226,981	86,698	166,755	253,453	92,664	151,751	151,751	△3.6%
12월	76,593	83,229	159,822	54,321	89,837	144,158	54,860	73,850	73,850	△10.7%
총계	1,002,717	1,088,787	2,091,504	1,018,024	1,802,281	2,820,305	999,001	1,416,969	2,415,970	△14.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4). 체육진흥과 현황자료.

2023년 기준, 카지노 매출액은 257,9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카지노 매출액에서 1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2-11> 연도별 도내 카지노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변화율
2008년	85,338	36.2%
2009년	88,469	3.7%
2010년	101,771	15.0%
2011년	101,757	△0.01%
2012년	143,897	41.4%
2013년	216,920	50.7%
2014년	224,880	3.7%
2015년	209,579	△6.8%
2016년	176,030	△16.0%
2017년	178,803	1.6%

구분	매출액	변화율
2018년	511,169	185.9%
2019년	190,309	△62.8%
2020년	69,295	△63.6%
2021년	48,801	△29.6
2022년	80,750	65.5
2023년	257,919	219.4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년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 MICE는 총 195건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31.3% 수준이다. 전체 참가자 수는 80,311명으로 이 중 외국인 참가자 수가 18,264명, 내국인 참가자 수는 62,0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2〉 연도별 제주지역 국제 MICE 개최 현황(2012년~2023년)

(단위 : 회, 명)

구분	건수(회)	참가자 수(명)		
		외국인	내국인	전체
2012년	286	42,493	54,914	97,407
2013년	407	40,874	76,887	117,761
2014년	445	89,256	72,508	161,764
2015년	465	60,462	69,908	130,370
2016년	475	67,162	80,713	147,875
2017년	491	47,421	79,275	126,696
2018년	595	49,383	126,738	176,121
2019년	623	64,779	108,511	173,290
2020년	8	637	141	778
2021년	541	5,073	100,873	105,946
2022년	197	21,178	71,501	92,679
2023년	195	18,264	62,047	80,311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년 참가자 규모별 국제 MICE 개최현황은 300명 미만이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명 이상이 50.0%로 소규모와 중규모 이상의 국제 MICE가 균형있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 2023년 참가자 규모별 국제 MICE 개최 현황

(단위 : 회, %, 명)

구분	개최 현황		참가자 수	
	건수(회)	구성비(%)	내국인(명)	외국인(명)
300명 미만	83	50.0	9,937	6,890
300명~500명 미만	37	22.3	7,060	4,920
500명~1,000명 미만	17	10.2	6,614	3,787
1,000명 이상	29	17.5	46,370	25,153
계	166	100	69,981	40,750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5. 관광개발사업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사업장 및 유원지개발사업장 37개소에 대한 투자실적은 98,917억 원으로 계획대비 57.2% 달성하였다.

〈표 12-14〉 관광개발사업장·유원지 개발사업장 투자·고용 추진 현황

구분	계획/실적 비율		2022년	2023년
투자	계획(억원)		173,535	172,905
	실적(억원)		100,418	98,917
	비율(%)		57.9%	57.2%
고용	전체	계획(명)	29,046	29,460
		실적(명)	7,244	7,550
		비율(%)	24.9%	25.6%
	도민	계획(명)	22,617	21,933
		실적(명)	5,785	6,025
		비율(%)	79.9	79.8
지역업체 참여	전체 공사(억원)		52,902	53,511
	지역업체(억원)		26,480	27,594
	비율(%)		50.1%	51.6%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6. 관광교통 현황

2023년도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운송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선의 경우 운항횟수(158,952편), 여객수송실적(27,901,266명)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선의 경우 운항횟수(8,134편), 여객수송실적(1,195,005명)으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12-15〉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국제선 수송실적(2019년~2023년)

(단위 : 편, 명, 톨)

구분		합계			국내선			국제선		
		운항	여객	화물	운항	여객	화물	운항	여객	화물
2019	도착	87,669	15,657,540	121,197	78,902	14,310,049	109,932	8,767	1,347,491	11,265
	출발	87,697	15,658,854	137,649	78,928	14,338,292	119,717	8,769	1,320,562	17,932
	계	175,366	31,316,394	258,846	157,830	28,648,341	229,649	17,536	2,668,053	29,197
2020	도착	69,085	10,494,489	77,449.2	68,018	10,363,092	76,310.9	1,067	131,397	1,138.3
	출발	69,171	10,560,207	93,935.5	68,029	10,408,806	91,901.6	1,142	151,401	2,033.9
	계	138,256	21,054,696	171,384.7	136,047	20,771,898	168,212.4	2,209	282,798	3,172.3
2021	도착	80,101	12,924,322	86,880.7	80,097	12,923,952	86,879.2	4	370	1.5
	출발	80,129	12,878,228	102,044.9	80,045	12,873,817	101,876.3	84	4,411	168.6
	계	160,230	25,802,550	188,925.6	160,142	25,797,769	188,755.6	88	4,781	170
2022	도착	84,796	14,833,863	96,298	84,472	14,786,444	95,774	324	47,419	524
	출발	84,828	14,869,799	114,662	84,505	14,823,306	114,036	323	46,493	626
	계	169,624	29,703,662	210,960	168,977	29,609,750	209,810	647	93,912	1,150
2023	도착	83,555	14,563,903	105,890	79,488	13,958,803	100,548	4,067	605,100	5,342
	출발	83,531	14,532,368	96,719	79,464	13,942,463	90,205	4,067	589,905	6,514
	계	167,086	29,096,271	202,609	158,952	27,901,266	190,753	8,134	1,195,005	11,85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4), 2024 주요행정통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주도에 기항한 크루즈선이 전무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2023년 크루즈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61,013명이 방문하여 2019년 대비 37.8% 증가하였다.

〈표 12-16〉 연도별 크루즈 관광객 현황(2010년~2023년)

(단위: 회, 명, %)

구분	입항회수(회)	관광객 수(명)	관광객 수 변화율 (%)
2010년	49	55,423	45.3%
2011년	69	64,995	17.3%
2012년	80	140,496	116.2%

구분	입항회수(회)	관광객 수(명)	관광객 수 변화율 (%)
2013년	184	386,139	174.8%
2014년	242	590,400	52.9%
2015년	285	622,068	5.4%
2016년	507	1,209,106	94.4%
2017년	98	189,732	△84.3%
2018년	20	21,703	△88.6%
2019년	29	44,266	104.0%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26	61,013	37.8% ('19년 대비)

자료 : 연도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2022년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관광산업부문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1].

첫째, 주민주도형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을 위해 마을·권역별 핵심 타겟을 설정하고 대표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한 소득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웰니스 여행 목적지'로 제주 브랜딩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주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핵심 고객군을 설정하고 세부시장별 니즈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제주 웰니스 관광 실현을 위한 추진 로드맵과 3대 추진전략 및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관광 잠재 수요 유입을 위한 팸투어, 현지 관광설명회 등 적극적인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제직항노선 재개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넷째, 관광업계 경영안정자금 등 재정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여행객 감소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관광사업체 경영위기에 처함에 따라 관광업계 조기 회복 및 일상회복을 위하여 경영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 장기화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1

1) 문화체육관광부(2023.08), 202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인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코로나로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의 부담감면을 위하여 공유오피스 지원 및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인 탐나오를 활용하여 여행상품 판매 활성화 등 간접지원하였다. 일상회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2. 2023년

2023년 제주관광은 “제주 관광 대전환의 시대, 세계적 관광교류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2]. 2023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첫째,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제주기점 중국 항공노선이 ’23년 3월 시안-제주노선을 시작으로 상하이, 베이징, 선양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개되었다. 외국인 관광객 항공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직항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여 7개국 14개 도시 61편의 전세기를 유치하였다.

둘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관광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 마을관광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마을(13개)을 육성하고 마을의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마을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한 소득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

2) 제주특별자치도(2023.02), 2023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p.31.
3) 문화체육관광부(2024.08),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도록 지원하였다. 도내 카름스테이마을 3개마을과 호스트 80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카름스테이 5선, 10선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였고 마을여행 기획전을 운영하여 OTA플랫폼을 연계한 마을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하였다.

셋째,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특정 국가 VIP 고객에 의존적인 불안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 카지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대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정 국가 VIP 고객에 의존적인 불안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 카지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대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제주 카지노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이양 받았다.

넷째, 청정환경과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였다.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고용률을 제고하고 장기 지속되는 관광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 정상화를 독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2023년 관광개발사업장 4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점검 시 지연 사업장에 대한 사업정상화를 독려하여 2023년 6월 말 기준 도민고용률 79.8%,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51.6%로 실질적 투자 효과를 제고하였다.

제3절 성과

1. 2022년

제주관광의 정책집행 성과를 양적 지표 측정이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2년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는 13,80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하였다.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제주무사증·국제선 재개(2022.6), 입도객 PCR 의무검사 폐지(2022.10) 등 관광 제한요인 해소로 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하였다.

둘째, 2022년 국내·외 MICE 행사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외 MICE 유치목표 100건을 초과하여 114건을 유치하였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8월 발표한 2021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여행지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지역관광발전지수'관련 4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었다.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에서 발표한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는 제주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2. 2023년

제주관광의 정책집행 성과를 양적 지표 측정이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제주도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709,350명으로 2022년 86,444명 대비 7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관광시장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의 성과가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관광 통합브랜드인 '카름스테이' 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제3회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에서 카름스테이 마을 중 2개마을(구좌읍 세화리, 남원읍 신흥2리)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었다.

셋째, 제주의 천혜 환경을 보존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중문관광단지 인수를 추진하였다. 제주 청정환경에 대한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2023년 3월 6일, 송악산 유원지 일원 사유지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상 등을 통해 "송악산 토지매입 합의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감정평가 등)를 완료하였으며, 투자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2023.12.14.)하여 송악산 일원 사유지를 매입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중문관광단지 시설 일괄매각 우선협상을 제안(2023. 7. 14.)함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인수의향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2023. 8. 9.)하였으며 이후, 제주도민 이익 극대화 및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에 따르면, 2023년 국제 관광객 수는 약 1,300백만명으로 2019년 약 1,465백만명과 대비하여 약 89%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9년 대비 약 65% 회복하여 타 대륙보다 회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2024년 국제관광은 2024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19년 대비 약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회복 속도, 인플레이션, 교통 및 숙박 비용에 미치는 영향, 지정학적 긴장 및 갈등의 전개 등과 같은 경제 상황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2024년 5월에 실시한 전문가 패널조사[5]에 의하면, 이러한 국제관광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통과 숙박시설의 고비용, 세계경제환경, 극심한 기상 현상, 하마스/이스라엘 분쟁, 인력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확신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제관광 현황 및 전망분석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에 내국인 관광시장과 외국인 관광시장을 구분하여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제관광 및 국내관광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진단하여 국내·외 관광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 관광수용태세 개선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국

4) UN Tourism, World Tourism Barometer (PPT version), Volume 22·Issue 2·May 2024.
5) https://www.unwto.org/

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의 증가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관광목적지의 비전,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어떤 관광목적지를 지향한다는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6].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전략을 제주관광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변동에 대한 메시지를 도내 관광업계, 지역주민 등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실국간 통합적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제주관광전략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광기본법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제1항에서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최근 관광문제는 문제의 성격이 불명확한 난제(wicked problems)가 많다. 따라서 다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관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정책 결정·집행시, ① 규제와 허용(예: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촉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제도 정비 추진), ② 경제적 인센티브(예: 잘하는 집단에는 인센티브 제공), ③ 자발적 참여체계(예: 인증제 도입 등), ④ 지원체계(예: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참여 유도, 지역주민·관광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부문의 이해관계집단(정부, 관광사업체, 관광객, 지역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6) 제주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2022), 2022 제주경제백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가이드라인 개발과 탄소중립형 관광지·관광이벤트·관광상품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7].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 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역 전략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된 사업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Green Plan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일환으로 관광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연계한 관광산업 부문 시책사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SDGs 달성을 위한 시책을 일본 내각부가 평가하여 'SDGs미래도시'로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관광상품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이벤트 개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기반에서 과학적으로 생산된 데이터(통계,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불확실한 미래 관광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관광정책

---

7) 관계부처합동(2024.10.30.),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충남 당진, 제주도, 충남 보령, 서울 노원구 등 4곳 선정.

8)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2023.09.27), "지속 가능한 가능한관광관광"을 위한 일본의 관광분야 SDGs 사례조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관광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객 실태조사, 관광의 사회·경제·환경 영향,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데이터 생산, 분석, 가공, 이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부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간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내 사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중장기계획하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주민주도형 농어촌 마을관광의 외연을 확산시켜야 한다. 카름스테이 마을뿐만 아니라 농어촌휴양마을 등을 대상으로 미식관광, 치유관광, 레저스포츠관광, 생태관광, 워케이션 등 마을 마다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미식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셰프(chef),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을 농어업인, 관광객 등을 연계하는 마을 미식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 음식 레시피와 음식만들기 소개(숏폼 제작 등 SNS 활용). 마을의 성과를 전도로 확산하기 위한 연차별 지원체계 마련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DIY 컨셉을 기반으로 한 카나리아 제도 레시피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는 사용자 참여와 브랜드와의 상호 작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곱째, 접근가능한 관광시장에 대한 단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2023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6%인 13억 명이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

며, 관광시설,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은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접근성은 인권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며, 이는 관광목적지와 관광기업이 모든 방문객을 포용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다[9].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② 관광약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 ③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약자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10]. 최근 접근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장애인 뿐만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나[11], 장애인 관광시장, 노인 관광시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9) https://www.unwto.org/accessibility
10) 문화체육관광부(2024.08),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1) 이경찬·김남조(2023),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분석. 『관광연구논총』, 35(1).

제13장 건설업 및 교통

제1절 현황

1. 건설업

가. 생산액

건설업은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2023년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60,133억 원이며 이 중 건설업 분야는 17,322억 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년의 전국 평균 5.4%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다.

전국의 경우 건설업 생산액 비중은 2020년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주도의 건설업 생산액은 2017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1> 건설업의 GRDP 비중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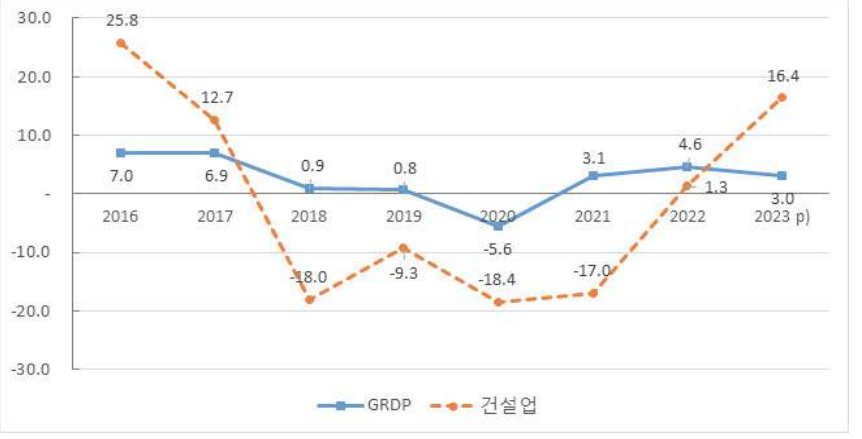
연도별	전국			제주		
	GRDP	건설업	비중	GRDP	건설업	비중
2015	17,431,419	809,078	4.6	181,421	14,977	8.3
2016	18,348,681	923,301	5.0	200,201	19,423	9.7
2017	19,358,096	1,027,720	5.3	216,723	22,793	10.5
2018	20,078,116	1,057,455	5.3	220,405	19,644	8.9
2019	20,429,813	1,086,054	5.3	222,671	18,507	8.3
2020	20,624,899	1,103,197	5.3	216,688	15,421	7.1

연도별	전국			제주		
	GRDP	건설업	비중	GRDP	건설업	비중
2021	22,241,797	1,134,270	5.1	227,571	13,344	5.9
2022	23,275,957	1,211,872	5.2	242,823	14,305	5.9
2023(p)	24,041,907	1,299,791	5.4	260,133	17,322	6.7

주 : 2020년 기준 명목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난 9개년(2015~2023년)간 제주도의 GRDP는 연평균 4.6% 성장하였으나 건설업은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건설업 분야의 생산액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업의 생산액 성장률이 GRDP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023년부터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음(-)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2022년부터 양(+)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1〉 제주도 건설업의 생산액 성장률



주 : 2020년 기준 실질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나. 지역경제 특화도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는 관심 항목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Isserman(1977)이 경제구조와 분화(differentiation)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측도이다. 즉,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 산업의 지역 간 상대특화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분할계수 혹은 특화계수로도 불린다. 입지계수(LQ)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특화정도는 높고, 반대로 '1' 이하이면 해당 산업이 전국에 비해 낮게 분포해 있음을 나타낸다.[1)]

제주도 건설업 분야의 특화도를 종사자수와 총생산액으로 구분하여 입지계수(LQ)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업 종사자수는 2015년에 1.34를 나타낸 이후에 2019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2022년의 입지계수는 1.20으로 제주도 17개 산업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집적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 총생산액은 2020년까지는 종사자수보다 입지계수가 높았으나, 2021년부터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09를 나타낸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의 입지계수는 1.19로 제주도 산업 중에서 8번째 순위이다.

---

1) 오민홍 외(2008)에 의하면 입지계수(LQ)가 1.25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 집적(集積, agglomeration)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3-2〉 건설업의 입지계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사자수	1.32	1.31	1.34	1.32	1.25	1.17	1.07	1.23	1.27	1.20
총생산액	1.73	1.78	1.85	2.01	2.09	1.80	1.65	1.40	1.22	1.19

주 : 2023년 종사자수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22년까지 분석하였으며, 총생산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명목기준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다. 건설수주 실적

제주도 건설업의 사업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건설수주 실적을 〈표 13-3〉과 같이 공공, 민간, 민자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시 〈표 13-4〉와 같이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건설수주 실적을 확인하였다.

2023년 제주도의 건설수주 실적은 16,43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8% 감소하였다. 수주 실적을 수주액 순으로 살펴보면, 민간 건설사업은 10,807억 원(비중 65.8%)으로 전년 대비 40.6% 감소하였고, 공공 건설 사업은 5,623억 원(비중 34.2%)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다. 민자 건설 사업(국내외국기관 실적 포함)은 실적이 없다.

〈표 13-3〉 건설수주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계	11,439	△27.1	7,894	△31.0	13,080	65.7	22,766	74.1	16,430	△27.8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공공	2,193	△58.6	3,415	55.7	2,735	△19.9	4,493	64.3	5,623	25.1
민간	9,246	△10.9	4,476	△51.6	10,239	128.8	18,184	77.6	10,807	△40.6
민자	-		3		106	4,147.2	89	△16.0	-	

주 : '-'은 수치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2023년 제주도의 건설수주 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시장의 영향이 큰 건축부문은 12,0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9% 감소하였고, 공공에서 주도하는 토목부문은 4,422억 원으로 29.5% 증가하였다.

〈표 13-4〉 부문별 건설수주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계	11,476	△26.8	7,894	△31.2	13,080	65.7	22,766	74.1	16,430	△27.8
건축	9,585	△6.8	5,201	△45.7	7,729	48.6	19,350	150.4	12,008	△37.9
토목	1,891	△65.0	2,693	42.4	5,351	98.7	3,416	△36.2	4,422	29.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라. 건축현황

제주도 건설업 분야의 건축 현황을 허가와 착공으로 구분하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로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연면

적 추이를 〈표 13-5〉와 같이 살펴보았다.

2023년 제주도의 건축허가 연면적은 2,670천㎡이고 전년대비 14.5%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주거용건물의 건축허가는 연면적 1,221천㎡로 전년대비 17.9% 감소하였고, 상업용은 802천㎡로 전년대비 8.7% 감소하였다. 공업용은 연면적 29천㎡로 전년대비 54.7% 감소하였고, 기타용도는 연면적 617천㎡로 전년대비 10.8% 감소하였다.

〈표 13-5〉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합계	1,899	△18.7	1,739	△8.4	2,088	20.1	3,122	49.5	2,670	△14.5
주거용	699	△30.2	592	△15.3	855	44.4	1,488	74.0	1,221	△17.9
상업용	668	△24.5	644	△3.6	596	△7.5	878	47.3	802	△8.7
공업용	19	16.4	22	16.1	86	290.9	64	△25.6	29	△54.7
기타	513	18.9	481	△6.1	551	14.6	692	25.6	617	△10.8

주 : 기타(문교사회용, 농수산용, 공공용, 그 외 용도)
자료 : 2022년 기준 제63회 제주통계연보, 제주도청 내부자료

2023년 제주도의 건축 착공 연면적은 1,076천㎡이고 전년 대비 39.4%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건축착공 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별로 주거용은 연면적 452천㎡로 전년대비 48.6% 감소하였고, 상업용은 연면적 331천㎡로 전년대비 20.6% 감소하였다. 공

업용은 연면적 20천㎡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고, 기타용도는 연면적 272천㎡로 전년대비 40.9% 감소하였다.

〈표 13-6〉 건축착공 현황

(단위 : 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연면적	증감률
합계	1,617	△28.1	1,302	△19.5	1,625	24.8	1,775	9.2	1,076	△39.4
주거용	658	△28.1	479	△27.2	756	57.8	879	16.3	452	△48.6
상업용	545	△22.5	443	△22.5	469	5.9	417	△11.1	331	△20.6
공업용	15	△28.9	11	△28.9	15	36.4	19	26.7	20	5.3
기타	398	△1.6	369	△0.6	485	31.4	460	△5.2	272	△40.9

주 : 기타(문교사회용, 농수산용, 공공용, 그 외 용도)
자료 : 제주도청 내부자료

바. 건설업체 수

제주도의 건설업체 수는 2022년 말 기준 9,492개이고 전체 산업체 수 96,334개의 9.9%를 차지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산업의 사업체수는 전년대비 0.2% 증가하였고, 종합건설업은 1.5%, 전문직별 공사업은 0.5% 증가하였다.

〈표 13-7〉 건설업체 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구분	전 산업	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계
2020	94,001	1,346	7,947	9,293

구분	전 산업	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계
2021	96,131	1,377	8,057	9,434
2022	96,334	1,398	8,094	9,49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사업체조사 등록기반 10차 개정

제주도 건설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상인 건설업체는 12개이고, 20명 이상~99명인 건설업체는 152개로 비중 1.6%이며, 10명 이상~19명인 건설업체는 397개로 비중 4.2%이며, 9명 이하인 건설업체가 8,931개로 비중 94.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8〉 종사자 규모별 건설업체 수

(단위 : 개, %)

종사자 규모별	2020		2021		2022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합계	9,293	100.0	9,434	100.0	9,492	100.0
1 - 4명	7,768	83.6	7,766	82.3	8,056	84.9
5 - 9명	912	9.8	1,044	11.1	875	9.2
10 - 19명	396	4.3	426	4.5	397	4.2
20 - 49명	170	1.8	163	1.7	132	1.4
50 - 99명	30	0.3	19	0.2	20	0.2
100 - 299명	12	0.1	14	0.1	10	0.1
300 - 499명	3	0.03	1	0.01	1	0.01
500 - 999명	1	0.01	1	0.01	1	0.01
1000명 이상	1	0.01	-	-	-	-

주 : '-'은 수치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사업체조사」

2. 교통

가. 자동차 등록대수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역외세입차량[2] 제외)는 2012년 말 기준 270,546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0만대를 넘어섰으며, 2024년 6월말 기준 412,657대로 집계되었다.

연평균 증가대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연도별 증가대수는 10,000대 이하로 감소하였고, 특히, 2023년의 경우 2,270대로 나타났으며, 2024년의 경우 1,600여대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3-9〉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역외세입차량 제외 자동차 등록대수	전년 대비 증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2012	210,802	18,935	64,094	657	294,488	270,546	-
2013	247,543	19,659	66,523	701	334,426	281,031	10,485
2014	293,527	20,634	69,177	779	384,117	300,829	19,798
2015	339,547	21,392	73,181	895	435,015	314,825	13,996
2016	368,293	21,139	76,781	1,030	467,243	351,506	36,681
2017	399,597	20,703	78,728	1,169	500,197	370,262	18,756
2018	451,887	20,190	80,217	1,284	553,578	383,659	13,397
2019	495,054	19,751	80,052	1,358	596,215	387,632	3,973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사업자(캐피털사)가 소유 차량을 제주지역에 등록한 경우로 제주지역 자동차등록대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타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역외세입차량 제외 자동차 등록대수	전년 대비 증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2020	513,493	18,844	81,588	1,417	615,342	394,649	7,017
2021	555,377	18,294	83,188	1,735	658,594	402,703	8,054
2022	582,331	17,763	87,854	1,976	689,924	409,590	6,887
2023	594,139	17,239	89,721	2,192	703,291	411,860	2,270
2024	598,788	17,024	90,232	2,271	708,315	412,657	797

자료 : 1)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자동차등록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각 년도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련 주요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각 년도
주) : 2024년의 경우 2024년 6월 말 기준

나.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2024년 6월말 버스 등록대수는 2,736대로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말 기준 57개 업체, 2,088대의 전세버스가 2024년 6월말 기준 51개 업체, 1,765대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택시 등록대수는 2024년 6월말 기준 5,319대로 매년 소규모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여자동차(렌터카)의 경우 2024년 6월말 기준 29,785로 2014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9월 2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4,998대로 전년대비 31대 증가하였다.

〈표 13-10〉 제주지역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

구분	버스	택시	대여자동차	화물자동차	합계
2014	2,873	5,401	20,720	3,601	32,595
2015	2,833	5,396	26,338	3,367	37,934
2016	2,865	5,390	29,583	3,815	41,653
2017	3,103	5,362	32,053	3,929	44,447
2018	3,051	5,353	32,872	4,092	45,368
2019	2,899	5,332	30,303	4,282	42,816
2020	2,802	5,328	29,658	4,415	42,203
2021	2,758	5,323	29,800	4,481	42,362
2022	2,744	5,318	29,793	4,682	42,537
2023	2,736	5,319	29,785	4,967	42,807
2024	2,736	5,319	29,785	4,998	42,838

주1) : 버스는 2016년까지 시외, 시내, 공영, 마을,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로 구성. 2017년부터 민영(준공영제), 공영, 마을, 관광지순환,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로 구성

주2) : 택시는 개인택시와 일반(법인)택시로 구성

주3) : 화물자동차는 2018년까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구성. 2019년부터 일반화물과 개별화물로 구성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련 주요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각 년도

다. 전기차 등록대수

전기차 등록대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말 9,258대에서 2018년 등록대수 1만대, 2020년 2만대, 2022년 3만대를 넘어섰고, 2023년 말 기준 39,393대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율은 2017년 말 2.49%에서 2023년 말 기준 9.56%로 증가하였다.

〈표 13-11〉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 및 비율

(단위 : 대, %)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전기차 등록대수	전기차 비율	비고
2017	371,117	9,258	2.49	18.01.08 기준
2018	384,098	15,480	4.03	19.01.02 기준
2019	368,784	18,128	4.69	20.01.06 기준
2020	393,912	21,216	5.39	21.01.04 기준
2021	401,825	25,427	6.33	22.01.05 기준
2022	409,590	32,976	8.05	22년 말 기준
2023	411,898	39,393	9.56	23년 말 기준

주1) : 전기차 등록대수는 차량의 이전·말소가 반영되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전기차 누적 보급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 자동차 등록대수와 전기차 등록대수는 역외세입차량대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제주연구원 제주 EV 리포트, 각 년도, 전기차 월간동향,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23년 말 기준 등록된 전기차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자가용이 30,921대, 영업용으로 렌터카가 5,251대, 택시 2,018대, 버스 179대, 화물 523대, 관용은 50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2〉 제주지역 전기차 용도별 등록대수

(단위 : 대)

구분	자가용 (승용, 트럭)	영업용				관용	합계	비고
		렌터카	택시	버스	화물			
2023	30,921	5,251	2,018	179	523	501	39,393	23년 말 기준

자료 : 전기차 월간동향,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라. 항공기 이용 현황

제주지역 항공기 이용객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1년 회복세를 보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2,900여만 명을 회복하였다. 아울러 국제선 이용객도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3년 전체 이용객은 29,096,271명, 국내선 이용객은 27,901,266명, 국제선 이용객은 1,195,005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제주지역 항공기 연간 이용객은 2,900여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225여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13〉 제주지역 항공기 이용객

(단위 : 명)

구분	국내선			국제선			합계
	소계	도착	출발	소계	입국	출국	
2007	11,031,811	5,473,484	5,558,327	1,264,615	638,288	626,327	12,296,426
2008	11,704,899	5,796,165	5,908,734	743,185	376,158	367,027	12,448,084
2009	13,017,272	6,461,423	6,555,849	626,091	319,449	306,642	13,643,363
2010	15,010,737	7,444,941	7,565,796	713,623	361,086	352,537	15,724,360
2011	16,482,948	8,188,202	8,294,746	718,930	364,573	354,357	17,201,878
2012	17,357,551	8,625,923	8,731,628	1,085,496	549,082	536,414	18,443,047
2013	18,492,770	9,189,401	9,303,369	1,562,468	786,052	776,416	20,055,238
2014	20,940,279	10,449,069	10,491,210	2,257,517	1,137,802	1,119,715	23,197,796
2015	24,243,711	12,115,320	12,128,391	1,993,851	1,006,011	987,840	26,237,562
2016	26,965,479	13,457,016	13,508,463	2,741,885	1,389,577	1,352,308	29,707,364
2017	28,327,411	14,149,048	14,178,363	1,276,952	644,273	632,679	29,604,363
2018	27,555,827	13,762,677	13,793,150	1,899,478	963,974	935,504	29,455,305
2019	28,648,341	14,310,049	14,338,292	2,668,053	1,347,491	1,320,562	31,316,394
2020	20,771,898	10,363,092	10,408,806	282,798	131,397	151,401	21,054,696
2021	25,797,769	12,923,952	12,873,817	4,781	370	4,411	25,802,550
2022	29,609,750	14,786,444	14,823,306	93,912	47,419	46,493	29,703,662
2023	27,901,266	13,941,934	13,959,332	1,195,005	605,100	589,905	29,096,271
2024	13,608,849	6,782,411	6,826,438	1,124,963	566,011	558,952	14,733,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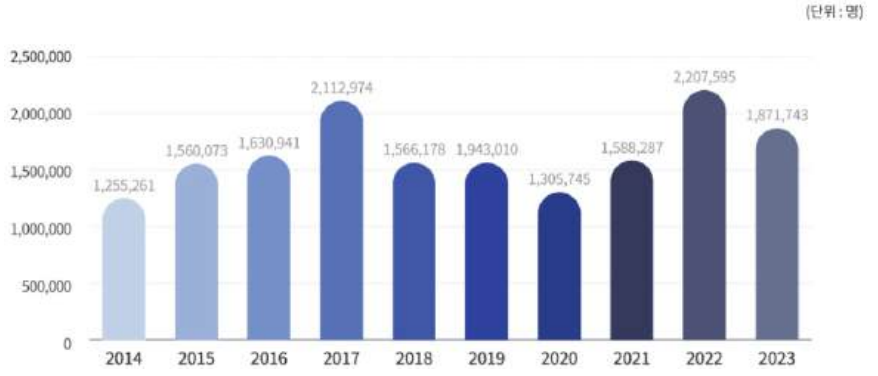
주 : 2024년의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마. 여객선 이용 현황

제주와 타 지역, 제주와 제주 내 섬지역(가파도, 마라도)을 연결하는 제주 연안여객선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31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 221만 명, 2023년 187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크루즈선 입항인원은 2016년 121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23년 크루즈 운행이 재개되어 10만 명이 입항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6월말까지 35만 명이 입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3-2〉 제주지역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빅데이터, 연안여객선 통계

〈표 13-14〉 제주지역 크루즈선 입항인원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	590,400	622,068	1,209,106	189,732	21,703	44,266	-	-	-	100,66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크루즈선 입항실적

마. 노선버스 및 택시 이용 현황

제주지역 노선버스(민영, 공영, 마을, 관광지순환버스) 이용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노선버스 이용객은 59,516천 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6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 택시 이용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이용객수는 2021년 59,665천 명, 2022년 57,445명으로 나타났다.

〈표 13-15〉 제주지역 노선버스 및 택시 이용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노선버스 이용객수	택시 이용객수
2006	32,930	93,728
2007	35,484	93,935
2008	38,050	93,559
2009	41,823	93,191
2010	43,522	93,907
2011	46,174	90,078
2012	48,052	88,726
2013	51,142	82,412
2014	55,283	78,917
2015	56,382	79,889
2016	56,599	81,426
2017	56,381	80,639
2018	62,453	79,994
2019	64,846	79,398
2020	50,374	75,168
2021	53,134	59,665
2022	57,728	57,445
2023	59,516	-
2024	30,731	-

주 : 2024년의 경우 6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현황, 택시 이용객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건설업

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고금리·고물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활성화 계획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를 제고하고 대기업과의 해외 진출 협력관계 증진에 힘쓴다.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건설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공공자금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한도를 상향(70%→80%)하는 등 선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행정안전부 선금지급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나. 미분양 주택 해소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관단체·기관과 관계 전문가, 시·도 행정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정례회의를 통해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 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 주체 자구책 마련,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에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 4,000여㎡(27만 9,000여평) 부지에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가칭,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을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호수의 50%인 2,750호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에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빗물과 중수도를 재이용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2. 교통

가. 대중교통 신규 사업 지속 추진: 도심급행 및 수요응답형 노선 운행

제주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신규 도심급행 노선인 300번, 301번, 302번에 대한 운행이 시행되었다.[3] 함덕↔하귀 구간을 운행하는 300번과 301번의 경우 기존 노선 대비 14분이 단축되고, 제주국제공항↔제주국제대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302번의 경우 기존 노선 대비 10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노선의 경로, 경유 정류장수, 시간표 및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신규 도심급행 노선이 구성되었는데,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300번의 경우 기존 300번 급행 노선에서 2개 정류장을 미경유하고, 301번의 경우 기존 300번 급행 노선에서 시청 대신 터미널을 경유하고, 3개 정류장을 미경유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신설된 302번의 경우 기존 365번 간선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장 중 10개 정류장만 경유하게 된다.

3) 제주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8일 개통,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3.6.19

〈그림 13-3〉 신규 도심 급행노선 운행 개시 내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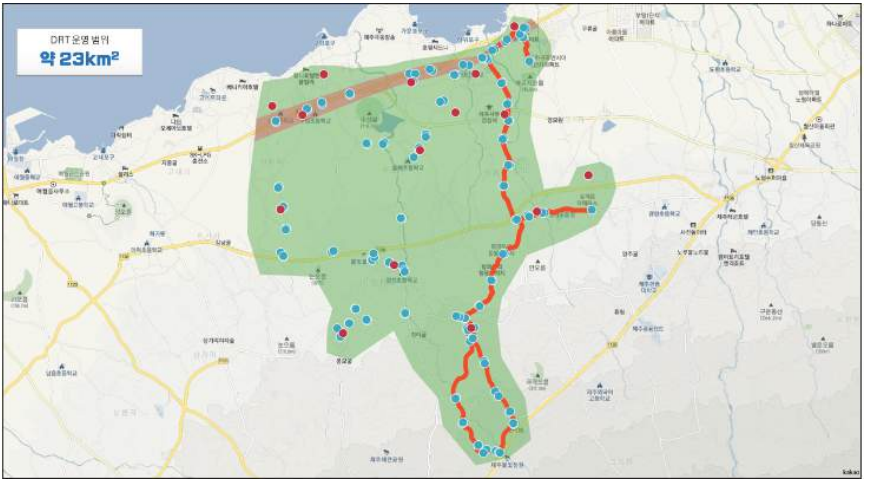
아울러 2023년 10월 31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원 및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노선버스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제주 수요응답형(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노선에 대한 운영이 시작되었다[4]. 수요응답형 노선은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호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선, 정류소,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을 의미한다. 제주에서는 '오세요'의 제주도 방언인 '옵서'를 차용하여 옵서버스라고 명명하였다.

4) 제주 수요응답형(DRT) 버스,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3.8.4.
"부르면 온다" 수요응답형(DRT) 옵서버스 제주 누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3.10.31.

〈표 13-16〉 제주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시범운영

구분	내용
운행지역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대(23.3km2)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대(28.7km2)
운행대수	- 제주시 공영버스 4대 투입 - 서귀포시 공영버스 4대 투입
사업기간	- 2023.10.31.~2024.4.30.(6개월)
소요예산	- 3억원
운영방식	- 정기노선 운행(첨두시) - 수요응답형(비첨두시)
운영시각	- 제주시: 오전9시부터 오전1시40분까지, 오후6시부터 오후9시30분까지 - 서귀포시: 오전9시10분부터 오후12시50분까지, 오후6시부터 오후9시20분까지
운행요금	-현재와 동일

〈그림 13-4〉 옵서버스 시범운행 구역: 애월읍



자료 : 수요응답형버스(DRT) 시범운영 사업 시행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3-3173호

〈그림 13-5〉 옵서버스 시범운행 구역: 남원읍

자료 : 수요응답형버스(DRT) 시범운영 사업 시행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3-3173호

나. 수소버스 운행

제주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민선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수소버스 시범운행을 2023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그린수소를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그린수소는 튜브트레일러 4대를 활용해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로 이송한 후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 일정에 맞춰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3년 10월 23일 함덕과 한라수목원을 오가는 노선(311, 312번)을 대상으로 수소버스 9대를 투입하여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수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 번에 수소 20kg를 주입하는데 30분이 소요되고, 연비는 15km/kg 정도, 300km를 운행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그림 13-6〉 그린수소 수송 튜브트레일러

자료 : 그린수소 버스 시범운행… "탄소 없는 제주 성큼", 제주경제일보, 2023.9.4

다. 도심항공교통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을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 · 관리 ·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아울러 도심형항공기는 항공기,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 버티포트는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과 사무시설, 도심항공교통회랑은 도심형항공기의 항행로로 지

정된 상공의 공간 구역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 13-7〉 도심형항공기 및 버티포트

자료: 제주 도심항공교통(J-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자료, 2023.10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까지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 분야와 활발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0월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3년 하반기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8월 제주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한 상황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초자료 분석, 도심항공교통 운영개념서 수립, 입지분석 및 선정, 도심항공교통 수요 예측 및 분석,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 검토, 건축 계획, 분야별 계획, 총사업비 선정, 추진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3절 성과

1. 건설업

가. 건설단체 및 건설 대기업 간 상생협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 8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 및 건설대기업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였다. 협약식에는 제주도, 건설단체(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회)와 도내에 진출한 건설 대기업(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화건설부문, 태영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HJ중공업) 등 총 15개 기관단체에서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및 건설 대기업의 제주지역 내 사업 추진 지원 △제주건설업체의 국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시장 개척비 지원 및 컨설팅 실시 △제주건설업체의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및 국내외 건설시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한 공동 노력 등이다.

나. 2040년 제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에 '2040년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미래비전으로 삼아 도민의 도시, 청정도시, 지속가

능한 도시, 활력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9개의 전략을 마련했다.

공간구조는 3광역 중심, 2권역 중심, 14지역 중심 체계로, 생활권은 적정 인구규모를 고려해 5개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했으며, 일상생활권으로 제주형 n분 생활권 구상을 제시했다.

도시관리방안으로 도심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밀도 관리를 유도해 주거지역은 압축적 토지 이용, 상업지역은 용도의 복합화 및 밀도의 다양화를 통한 도심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으며, 지역중심은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관리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산간지역과 비시가화구역은 보전·이용·중간 영역으로 구분해 영역별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성장 기반의 제주형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2024년 7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하였다.

전면 개편된 조례안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과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20~30%) 30% ▲재건축·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 요청 동의율(1/2이하 범위)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주택·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2. 교통

가. 도심급행 노선 이용객 증가

2023년 6월 28일 운행을 시작한 신규 도심급행 노선(300번, 301번, 302번)의 이용객이 7월 75,386명에서 8월 81,212명, 9월 91,907명, 10월 99,479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5] 하루 평균 이용객은 7월 기준 2,432명/일에서 8월 2,620명/일, 9월 3,064명/일, 10월 3,209명/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행시간 절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행 시작 이후 3개월 동안 도심급행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 확대 지정 요청, 퇴근시간대 만차에 따른 일부 노선버스의 증편 요청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5) 더 빨리, 더 많이!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3.11.15

나. 옵서버스로 버스 배차간격 및 운행거리 감소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행 중인 제주 옵서버스를 통해 배차간격과 운행거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행 기간 중 애월읍 수산리의 버스 배차간격은 옵서버스 도입 이전 평균 60분에서 옵서버스 도입 이후 16분으로, 남원읍 태흥리의 경우 43분에서 11분으로 크게 단축됐으며, 노선버스 일평균 운행거리는 옵서버스 도입 전 2,290㎞에서 도입 후 1,954㎞로 3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6] 고령층의 이용 불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으로 인한 배차 지연, 노선버스에서 옵서버스로 변경 시간 조정 등 개선사항도 도출되었으며, 이를 보완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고정노선 버스가 오후 2시까지 운행되고 이후에는 옵서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버스 이용자 수요가 급감하는 남원읍 태흥리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일 옵서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6) "부르면 온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더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4.4.29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1. 건설업

제주도의 건설업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6.7%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산업이다.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내수와 고용 등 경제 전후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안정은 제주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공사원가 상승 및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의 위축에 따른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무여건이 취약한 제주도 건설사의 경우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제주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미분양주택과 특히 악성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해소, PF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도내에서 추진 예정인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제주도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건축공사에서 제주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차원의 주택 공급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것을 확대함은 물론 건설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 및 건설대기업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건설 대기업과

지역 건설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참여 확대,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상황, 진출 전략, 정부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전문가·건설 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건설 분야 사업 조기 발주와 집행으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건설업은 재해율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다. 2022년과 2023년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14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건으로 가장 많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면서 제주도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존 552곳에서 11,454개소로 늘었다. 건설업은 기존 33곳에서 1,404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에서는 단기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정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시공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 교통

가. 수요응답형 노선 운영 확대 및 최적 운영 전략 파악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부터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지역을 한림, 한경, 성산, 표선까지 확대하였다. 확대 지역은 공영버스 노선 중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일평균 이용객 수가 80명/일 이하인 노선이 운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선 형태,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로서 제주지역에서는 4개 읍·면의 8개 노선을 통합하여 옵서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7)]

버스 이용수요가 적거나 없는 구간과 시간대의 불필요한 버스 운행을 줄이고, 실제 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노선이 계속해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운행 여건, 근로 여건 등에 따라 최적 버스 운행 대수를 선정하고, 이용객에게 수용성 높은 운행 방식(고정형, 수요응답형 운행 시간대 설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최적 운영 전략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며, 이동 시간과 불편을 줄여 준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복지 측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고정 노선 방식과 달리, 이용수요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에 따라 운행되는 버스는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 연료비와 운행비를 절감

7) 제주도,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지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4.7.11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부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소 모빌리티 구축 및 경제성 확보 방안 도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 등 포함하여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 모빌리티 기술 개발, 정부 및 민간 협력 강화, 대중 인식 개선 및 시장 수요 창출, 안전성 확보 및 규제 강화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먼저 수소 모빌리티 구축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부터 함덕과 한라수목원을 오가는 노선(311, 312번)에 수소버스 9대를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수소 모빌리티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용차나 공공 교통수단에서 먼저 그린수소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형 상용차, 버스, 트럭, 심지어는 기차와 선박까지 수소 연료전지 기술 적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후 점진적으로 개인 승용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역시 그린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증과 시범사업 단계로서, 경제성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소 모빌리티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린수소의 비용이 노선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

유 혹은 전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면 수용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기분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앞당기는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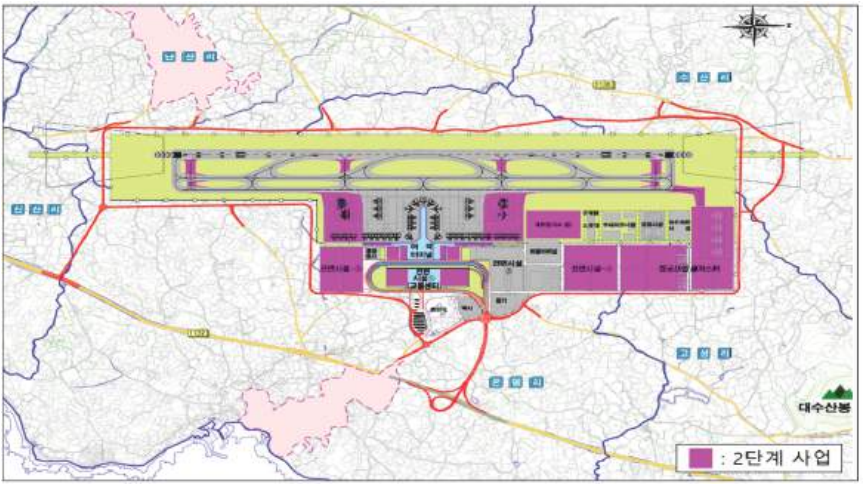
다. 제주 제2공항 고시에 따른 교통부문 선제적 준비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506,201㎡을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2055년 기준 여객 1,992만 명(국내선 1,815만 명, 국제선 177만 명), 화물 120천 톤을 공항수요로, 5조 4,532억 원을 1단계 사업 총사업비로 제시하였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제시된 국내선, 국제선 운영 계획 등 제주국제공항과 제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방안, 국가 외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계 교통망 계획 등 제2공항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교통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의 규모와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산업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부문별 변화에 대한 예측과 미래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8〉 제주 제2공항 공항배치도



자료: 제주 제 공항 2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56호, 2024.9.6.

제14장 유통 및 물류

제1절 현황

1. 유통 분야

가. 유통환경 동향

(1)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의 지속적 성장

2023년 국내 온라인 쇼핑 상품거래액은(통계청, 2024.2) 228조 8,51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전체 소매판매액 639조 7,431억 원 중 25.4%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모바일 거래액이 169조 257억 원으로 73.9%를 차지하였다.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 여행 및 교통서비스 등의 서비스(66조 1,482억 원), 의복, 화장품 등 패션(55조 2,178억 원), 음·식료품 등의 식품(40조 6,921억 원), 가전(29조 9, 878억 원) 순이었는데, 2024년 온라인 시장은 9% 정도 성장한 25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사업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쿠팡(34.9%), 네이버(20.6%) 순으로 나타났다.

(2) 해외직구 폭증

2023년 온라인 해외직구 규모는 6조 7,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는데, 이 같은 직구 시장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저가 상품 공세를 펼친 중국이 해외직구 규모를 견인하였다. 2023년 중국 직구 구매액은 총 3조 2,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2% 급증해 전체 직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구 구매액의 줄곧 1위를 지켜온 미국은 같은 기간 7.3% 줄어든 1조 8,574억 원으로 처음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일본도 엔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1.0% 늘어난 4,7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 별로는 의류·패션 관련 상품(43.5%), 생활·자동차용품(35.9%), 스포츠·레저용품(65.5%) 등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6,561억 원으로 해외에서 사들인 구매는 늘었지만 국내 사업체가 해외에 파는 역 직구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미국(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중국(-12.6%), 일본(-15.2%) 등에서 감소했다.

(3)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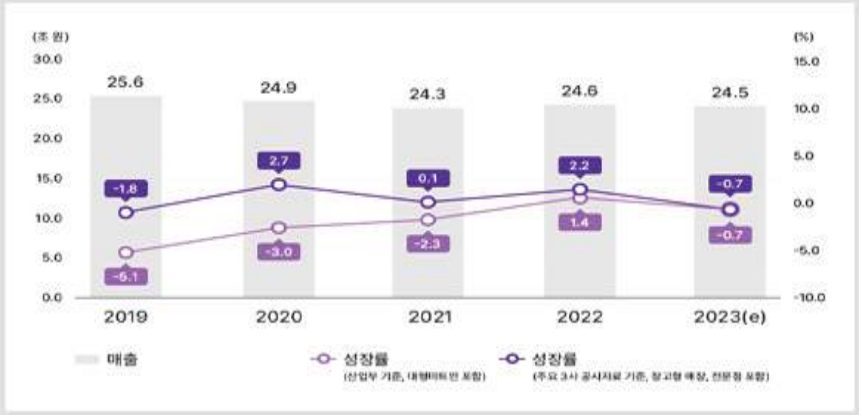
대형마트 시장은 1~2인 가구 증가,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최근 10년 간 저성장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3년 대형마트 시장은 전년 대비 0.7% 역 신장한 가운데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식품의 경우 매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생활, 가전 문화, 의류 등 비식품 카테고리는 역신장하였는데,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겹치며, 극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짠테크 소비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품 측면에서는 자체브랜드(Private Brand)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지속적인 성

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시그니처', 롯데마트 '오늘 좋은'이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7조 4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던 백화점은 2021년 33조 7천억 원, 2022년 37조 7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3년 매출은 약 0.8% 성장한 38조 원 이었다. 상품 부문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백화점 성장을 견인했던 명품 카테고리가 2023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고, 코로나 기간에 수요가 급증했던 가정용품도 매출 비중이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식품과 잡화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림 14-1> 대형마트 매출액과 성장률



(4) 체리슈머(cherry sumer)[1)]

구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를 체리피커(cherry picker)라고 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가성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

1) 김난도 외, 트랜드코리아, 2023.

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인 소비자를 체리슈머(cherry sumer)라 한다. 이러한 절약을 실천하는 합리적인 실속 소비 경향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팬데믹을 거치며 전례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폭락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비용대비 효용이 뛰어난 상품을 골라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체리피커는 다소 부정적인 얌체 이미지를 내포한 말이지만, 체리 슈머는 불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끼리 합치고 나누고 쪼개며, 극한의 합리적인 소비자들 을 말한다. 향후 불황이 심화되면 이러한 현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5) 알파 세대의 등장

알파 세대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컬으며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이 수년간 여러 세대를 연구하다가 Z세대를 잇는 새로운 세대를 부르는 명칭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붙인 이름이다. 알파 세대는 아날로그를 접해보지 않은 최초의 세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디지털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습득 하는데 익숙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적극 활용 하는 세대이며,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모두가 유일한 존재라는 의식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짧은 영상을 선호하며, 디지털 환경이 익숙한 알파 세대는 넘쳐나는 정보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습득하는 것을 추구한다. 짧은 영상

기반의 SNS 플랫폼인 틱톡은 10대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릴스(Reels), 유튜브쇼츠(Shorts) 등 숏폼 동영상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콘텐츠 소비자이며 창작자이며, 이전 세대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 지었던 환경이었으나, 알파 세대는 디지털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성세대와 달리 용돈이 풍족한 알파 세대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6) 디토소비(Ditto Consumption)[2)]

'나도'라는 의미의 디토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채널의 선택을 따라 결정하는 디토소비는 구매 의사결정의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특정 인물 또는 가치관이 맞는 콘텐츠를 쉽게 필터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마다의 소비 패턴을 더욱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팬덤층을 형성했던 조건 없이 맹목적인 따라 함이 아니라,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을 좇아 조금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다. 디토소비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며, 특정 인물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디토소비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디토소비는 소비자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2) 김난도 외, 트랜드코리아, 2024.

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를 잃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7) 토핑 경제

토핑 경제는 음식에서의 '토핑 추가' 개념에서 착안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되,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소비 트렌드를 가리킨다. 이러한 토핑 경제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는 단순히 물건 구매를 넘어,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고, 제품을 개인화하는 경험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소비 패턴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 방식은 고객들에게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 자신이 선택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제품에 대한 개인적 애착을 느끼게 된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데, 기업은 이를 통해 차별화된 소비 경험과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기본 메뉴에 추가 샷이나 시럽을 선택해 자신만의 음료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토핑 경제는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제주지역 도소매 사업체 수

2022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도·소매업체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0%이며, 종사자 수는 1.39%이었다. 제주지역의 도·소매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감소하였으며, 2021년 다소 회복되었다. 2022년 전국의 도·소매업체 수는 1,519,505명으로 2020년 대비 3.05% 감소하였으며, 제주인 경우 2022년 도·소매업체 수는 21,342개로 2020년 대비 3.39%가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는 전국인 경우 2020년 3,689,068명에서 2022년 3,577,370명으로 111,698명이 감소(-3.03%)하였으며, 제주는 2020년 49,822명에서 2022년 49,596명으로 226명이 감소(-0.45%)하였다.

<표 14-1> 전국 및 제주지역 도·소매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업체 (개)	전국	1,022,739	1,027,109	1,028,323	1,567,298	1,536,229	1,519,505
	제주	14,383 (1.41%)	14,679 (1.43%)	15,252 (1.48%)	22,092 (1.41%)	21,872 (1.42%)	21,342 (1.40%)
종사자 (명)	전국	3,173,320	3,250,867	3,289,652	3,689,068	3,668,167	3,577,370
	제주	42,840 (1.35%)	44,152 (1.36%)	46,341 (1.41%)	49,822 (1.35%)	50,976 (1.39%)	49,596 (1.39%)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
자료 : 통계청(KOSIS), 도소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2024.2.

다. 대형할인점

제주지역의 대형할인점은 1999년 12월 이마트 제주점(매장 면적 8,014㎡)이 최초로 개설되었다. 2003년 8월 이마트 신제주점(매장 면적 7,148㎡)이 개설되었으며, 2006년 1월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홈플러스 서귀포점(매장면적 6,441㎡)이 개설되었고, 2006년 6월 이마트 서귀포점(매장 면적 7,799㎡)이 개설되었으며, 2007년 8월에는 롯데마트 제주점(매장면적 10,972.66㎡)이 개설되었다. 2023년 말 현재 제주지역의 대형할인점(매장면적 3,000m^2 이상)은 제주시에 3개 점, 서귀포시에 2개 점으로 모두 5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표 14-2〉 제주 대형할인점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대형할인점	점포수	5	3	2
	매장면적	40,374	26,134	14,24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3.12.31.

〈표 14-3〉 제주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상호명		소 재 지	개설일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	매장 면적(㎡)
대형 마트	(주)신세계 이마트 제주점	삼도2동 1259	'99.12.29	27,825.6 (8,014)	8,014
	(주)신세계 이마트신제주점	노형동 919	'03. 8.26	24,136.38 (7,148)	7,148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동 708	'07. 8. 8	24,520.1 (10,972.65)	10,972.65

상호명		소 재 지	개설일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	매장 면적(㎡)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서귀포점	서귀포시 동흥동 1558	'06. 1. 5	21,123.56 (8,790)	6,441
	(주)신세계 이마트서귀포점	서귀포시 법환동 841-2	'06. 6. 8	13,367.32 (11,827)	7,79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3.12.31.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23년 12월 말 현재 제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상설시장 24개소와 정기시장 10개소로 총 34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제주시에 23개, 서귀포시에 11개가 소재해 있다. 정기시장(오일시장)은 제주시에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한림 민속 오일시장, 세화 민속 오일시장, 함덕 오일시장 4개소가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중문 오일시장, 대정 오일시장, 고성 오일시장, 성산 오일시장, 표선 오일시장 6개가 소재해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요 취급 상품은 〈표 1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수축산물, 의류/신발, 가공식품, 음식점업, 기타소매업, 근린생활 서비스 잡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전통시장의 주요업종 비율은 기타소매업18.9%, 의류 신발 17.3%, 농산물 15.7%, 음식점업 13.5%, 수산물 10.0% 등 순이었는데, 제주지역 전통시장 주요업종 구성은 농산물이 31.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17.2%, 의류/신발 15.5%, 가공식품 10.4%, 음식점업 10.1% 순이었다.

〈표 14-4〉 전통시장(전국/제주)의 주요 취급 상품 현황(2022년)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전국	15.7%	3.3%	10.0%	8.2%	17.3%
제주	31.0%	2.7%	17.2%	10.4%	15.5%
구분	가정용품	음식점업	기타소매업	근린생활서비스	합계
전국	5.3%	13.5%	18.9%	7.8%	100
제주	4.5%	10.1%	7.0%	1.6%	100

자료 : 통계청(KOSIS), 2024.

제주지역 전통시장 34개 시장 중에서 연동 시장, 대유대림 상가, 탑동 유니코, 성산 오일시장은 기능이 상실되어 유명무실하거나 영업이 중단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되고 있어 제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관리 주체인 행정시장(동 소재) 및 읍·면장(읍·면 소재)은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14-5〉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2023년)

구분	지역	시 장 명	소 재 지	매장면적(㎡)	주요판매품목
상설시장(24)	제주시(19)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	2,322	농축수산물, 식당
		동문재래시장	제주시 관덕로 14길 20	22,769	농축수산물, 잡화, 의류, 식당
		㈜동문시장	제주시 동문로 16	2,314	양품, 포목, 식당
		동문수산시장	제주시 오현길 81	2,642	수산물 전문매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	3,748	농축수산물, 양품, 포목, 식당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관덕로13길 12	3,547	양품, 의류, 잡화, 식당
		중앙로상점가	제주시 중앙로 85	18,950	양품, 의류, 잡화, 식당
		보 성 시 장	제주시 동광로1길 32	2,613	농축수산물, 식당, 한복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1425-3	3,895	양품, 의류, 잡화
		도 남 시 장	제주시 신성로 91	3,220	양품, 의류

구분	지역	시 장 명	소 재 지	매장면적(㎡)	주요판매품목
상설시장(24)	제주시(19)	신 산 시 장	제주시 고마로17길 11	1,430	농수축산물,잡화,식당
		화북종합시장	제주시 진동로5길 31	824	농수축산물,식당
		연 동 시 장	제주시 삼무로11길 16	3,483	농수축산물,잡화
		대유대림상가	제주시 남광로 181	5,567	잡화,의류
		탑동유니코	제주시 탑동로 38	4,537	잡화,의류
		한림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18	3,100	농축수산물,식당
		누웨마루거리상점가	제주시 은남4길 46	9,295	양품,의류,잡화,식당
		한림중앙상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	3,933	식당,의류,잡화
		로얄쇼핑센터	제주시 신대로12길52	17,625	양품,의류,잡화,식당
상설시장(24)	서귀포시(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15,939	농축수산물,식당,잡화,의류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22-7	1,000	농축수산물, 잡화, 의류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가	서귀포시 이중섭로 1-34, 명동로 1-55	-	식당, 의류, 잡화
		서귀포중심상가	서귀포시 태평로 353번길 24	-	식당,의류,잡화
		시계탑상가거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8,539	식당,의류,잡화
		동홍8번가	서귀포시 동홍남로 80	15,549	식당,의류,잡화
		표선사거리 상점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59	16,005	식당,의류,잡화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25일대	2,428	먹거리골목,잡화
정기시장(10)	제주시(4)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18,067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한림민속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2,900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세화민속오일시장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1412	3,183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함덕오일시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2,578	과일, 야채, 수산물, 약초 등
	서귀포시(6)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토평서로11번길 150	10,916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제연로188번길 12	3,887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5	7,548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2,794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37번길 6	513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935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3.12.31.

2021년~2023년까지 3년 동안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일 평균 매출액과 이용고객 수는 〈표 1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23년 일 평균 매출액은 2022년 대비 1.3% 증가 한 8,630만 원이었고, 2023년 일 평균 이용고객 수는 2022년 대비 12.0% 증가 한 6,837명이었다[3]. 2023년 일 평균 매출액은 2021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2022년보다 1.3%가 증가하였고, 일 평균 이용고객 수는 21년 대비 35.0%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보다 12.0%가 증가하였다.

〈표 14-6〉 최근 3년간 전통시장·상점가 일평균 매출액 및 이용고객 수

일평균 매출액(만원)					일평균 이용고객 수(명)				
2021	2022	2023	증감률(%)		2021	2022	2023	증감률(%)	
			'21 대비	'22 대비				'21 대비	'22 대비
8,870	8,516	8,630	△2.7	1.3	5,033	6,090	6,837	35.0	12.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10

2. 물류 분야

가. 물류 산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물류 관련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기업은 모두 598,404개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6,973개 기업이 있어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

3) 23년도 일평균 매출액과 이용고객 수는 카드매출에 따른 매출액 조사가 아니며, 용역비의 한계로 전수 조사가 아닌 2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별 이용객/상인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따른 매출액과 이용고객 수 조사가 이루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음.

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전국 종사자는 1,337,919명인데, 제주지역은 18,200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이를 업종별 제주지역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육상운송업체는 총 6,698개 업체로 2020년 대비 8.4%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운수업의 9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2,806명으로 전국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상운송업체는 전국 935개소로 2020년 대비 18.0%가 감소하였는데, 종사자 규모는 26,142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주는 27개소, 종사자 수는 595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국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업은 전국에 72개소가 있는데, 2020년 대비 30.9%가 증가하였으며, 제주에는 1개소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가 전국에는 23,401개소로 2020년 대비 4.1%가 증가하였으며, 전국 종사자는 222,152명인데, 제주는 247개소로 2020년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963명으로 2020년 대비 11.6% 증가하였다.

〈표 14-7〉 운수업 업종별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 분		2020년		2022 년	
		기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기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육상운송업	전국	528,409	1,021,792	573,996	1,052,027
	제주	6,180	12,119	6,698	12,806
	비중	1.17	1.19	1.17	1.22
수상운송업(명)	전국	1,140	25,289	935	26,142
	제주	29	579	27	595
	비중	2.54	2.29	2.88	2.28
항공운송업	전국	55	35,455	72	37,598
	제주	1	3,126	1	2,836
	비중	1.82	8.82	1.38	7.54

구 분		2020년		2022 년	
		기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기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	전국	22,471	173,626	23,401	222,152
	제주	221	1,759	247	1,963
	비중	0.98	1.01	1.06	0.88
전국총계		552,075	1,256,182	598,404	1,337,919
제주총계		6,431	17,583	6,973	18,200

자료 : 통계청(KOSIS), 운수업 종사자수, 2024.2.

나. 제주지역 운수업 매출액

2022년 제주지역 운수업 매출액은 1,780,193백만 원으로 전국의 232,486,026백만 원의 0.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700,732백만 원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가 232,865백만 원(13.1%), 수상운송업이 144,093백만 원(8.1%) 이었다.

〈표 14-8〉 제주지역 운수업 매출액(2022년)

구분	산업별	종사자수 (명)	급여액 (백만원)	운송수단 및 창고수 (수)	매출액 (백만원)
전국	총 계	1,337,919	34,499,081	-	232,486,02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1,052,027	21,537,912	830,836	81,864,100
	수상운송업	26,142	1,700,081	3,409	63,358,709
	항공운송업	37,598	1,916,106	734	23.377,314
	창고 및 관련 서비스업	222,152	9,344,982	13,011	63,885,903
제주	총 계	18,200	378,227	-	1,780,19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12,806	186,498	11,146	700,732
	수상운송업	595	23.465	54	144,093
	항공운송업	2,836	-	-	-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업	1,963	48,239	16	232,865
전국 대비 비중		1.4%	1.1%	-	0.8%

자료: 통계청(KOSIS), 2024.1.

다. 물류시설 현황

(1) 물류창고

제주지역에 등록된(2023년 2월 1일 기준) 물류창고는 총 67개인데(주소 및 기업명이 중복되거나 한 기업이 1개의 물류창고에 다양한 유형으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면 등록된 물류창고는 총 48개임), 2018년(115개) 대비 41.7%가 감소하였다.

〈표 14-9〉 제주지역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물류시설법		관세법	화학물질 관리법	식품 위생법	축산물 위생법	수산식품 산업법	합계
	창고업	항만창고	보세창고	보관저장업	냉동냉장	축산물보관	냉동냉장	
개수	26	0	2	0	16	23	0	67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s://www.nlic.go.kr/)

(2) 항만

제주도 내 항만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관리 무역항은 제주항, 서귀포항 2개소이고, 지방관리 연안항은 성산항, 애월항, 한림항이며, 국가관리 연안항은, 화순항, 추자항으로 모두 7개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방파제 길이는 제주항이 4,011m로 가장 길며, 성산항 2,144m, 한림항 1,510m 순이었고, 제주항의 최대 접안능력이 19척이며, 서귀포항은 10척이다. 제주항의 최대 접안능력은 여객선인 경우 80,000DWT, 화물은 20,000DWT이며, 서귀포항, 성산항, 화순항은 5,000DWT이다.

〈표 14-10〉 제주지역 항만시설 현황

구분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			국가관리연안항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추자항
접안시설	안벽(m)	2,623	1,480	660	494	785	420	-
	물양장(m)	758	897	1,067	438	995	170	1,146
방파제(m)		4,011	183	2,144	740	1,510	995	505
접안능력	접안능력(계)	19	10	10	6	7	3	1
	최대 접안능력(DWT)	여객 80,000 화물 20,000	5,000	5,000	1,000	2,000	5,00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 2023.8.

(3) 공항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교통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현재 공항 1개소가 운영 중인데,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향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 시설은 활주로가 2본으로 년 18.9만회의 수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계류장의 시설 규모는 449,393㎡로 일반 40대, 소형 2대 총 42대의 계류장을 확보하고 있다. 여객터미널 면적은 국내 75,900㎡로 연간 2,7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제선은 49,967㎡ 규모로 연간 43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화물터미널의 면적은 국내선이 15,908㎡로 연간 31톤/년 수용이 가능하고, 국제선 규모는 1,922㎡로 17천톤/년의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차장은 142,184㎡로 3,578대를 수용 할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도민 및 국내외 여객 운송을 전담하는 기반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물터미널은 연간 33.5만 톤(국내 31.8

만 톤, 국제 1.7만 톤)의 화물을 처리 가능하며, 제주국제공항 항공화물은 주로 Belly Cargo(여객+화물) 형태로 운송되고 있다.

〈표 14-11〉 제주공항 시설 현황

구 분		국내	국제
시설현황	소재지	제주시 공항로 2	
	부지(㎡)	3,497,380	
	활주로(㎡)	3,180×45, 1,900×45	
	계류장(㎡)	449,393	
	여객터미널(㎡)	75,900	49,967
	화물터미널(㎡)	15,908	1,922
	주차장(㎡)	147,364	
처리능력	운항 횟수(년)	172,000(슬롯 35회)	
	연간처리능력(회)	141,000	
	23년 활용률(%)	88.4%	
	여객(만명)	3,175	
		2,740	435
	화물(만톤)	33.5	
		31.8	1.7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시설현황, 2024.7.

라. 물동량 현황[4)]

(1) 물류시설 별 화물 운송 비중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만과 공항을 통해 화물이 운송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화물은 제주항 및 서귀포항 등, 제주국제공항

4)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및 개선방안, 2023.8.

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제주지역 화물 운송 분담률은 항만이 99.1%, 제주국제공항은 0.9%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12〉 제주지역 화물 운송 분담률

(단위: 천 톤, 비중)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화물량	비중	화물량	비중	화물량	비중
항만	19,309	99.1%	20,806	99.1%	22,538	99.1%
공항	171	0.9%	189	0.9%	211	0.9%
합계	19,480	100%	20,995	100%	22,749	100%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항만물류정보, 2)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2) 항만 물동량

2023년 제주의 전체 항만 물동량은 약 22,551.3천 톤으로 2020년 대비 16.8% 증가하였다. 그중 내항 화물이 22,550.4천 톤으로 전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항 화물 입항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8,671.8천 톤(38.5%)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 항목이며, 유류 1,650.8천 톤(7.3%), 철재 1,184.1천 톤(5.3%) 시멘트 826.8천 톤(3.7%), 모래 820.7천 톤(3.6%) 등 건설 관련 품목 순이었다.

출항화물의 총계는 9,336.9천 톤인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기타 품목으로 8,968.4천 톤으로 전체 출항 품목의 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귤, 채소류 품목은 368.4천 톤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내항 화물의 총입항량은 22,551.3천 톤인데 비해, 총 출항량은 9,336.9천 톤으로 입항량이 2.4배 많은 실정이어서 비대칭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제주 물류 개선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내항 화물과 출항화물의 기타 항목의 세부 분류를 꼭 시행할 필요가 있다.

〈표 14-13〉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물동량

(단위 : 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0,263,148	19,308,876	20,805,723	22,538,052	22,551,312
내항 화물	합 계		20,245,049	19,296,009	20,793,981	22,522,824	22,550,356
	입항	소계	12,577,617	11,473,802	12,186,537	13,182,726	13,213,475
		양곡	2,793	916	0	0	0
		유류	1,378,118	1,219,418	1,246,119	1,537,061	1,650,824
		비료	112,179	66,062	52,129	74,465	58,884
		무연탄	-	625,466	671,198	0	-
		시멘트	910,989	0	1,053	717,037	826,821
		목재	60,820	1,025,268	960,791	2,185	337
		철재	906,217	309,080	363,202	953,546	1,184,073
		모래	947,479	858,871	704,112	810,831	820,723
		기타	8,259,022	7,368,721	8,187,933	9,087,601	8,671,813
	출항	소계	7,667,432	7,822,207	8,607,444	9,340,098	9,336,881
		감귤·채소	352,853	520,139	436,826	332,867	368,442
		기타	7,314,579	7,302,068	8,170,618	9,007,231	8,968,439
외항 화물	합 계		18,099	12,867	11,742	15,228	956
	입항	소계	12,301	12,154	10,791	14,574	0
		모래	-	0	0	0	0
		기타	12,301	12,154	10,791	14,574	0
	출항	소계	5,798	713	951	654	956
		기타	5,798	713	951	654	95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2024.8.

마. 물류 산업 현안 종합[5)]

제주지역 물류 산업 현안을 정리해보면 지리적 특징과 제주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물류 산업, 물류 기업의 영세성으로 화물 생산성 및 운송 효율성이 낮고, 제주국제공항 항공물류 육성 사업 부재, 추가택배비 부담과 신선식품 배송 불가, 화물량의 계절적 편차가 크다는 등의 특성과 문제점이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대부분의 화물이 항만을 통해 운송되면서 관련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표 14-14〉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종합

분야	주요 현안	세부 내용
기업	물류기업 영세성	· 도내 물류기업은 소규모 영세성으로 화물 생산성 및 운송 효율성이 낮음
	물류기업 매출액 감소	· 도내 물류기업 매출액 감소
	화물량 계절적 편차	· 도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화물 부재, 성수기·비성수기별 화물량의 계절적 편차가 큼
시설	제주시 물류창고 밀집	· 제주시를 중심으로 물류창고들이 밀집되어 제주시 외 지역들은 화물의 보관, 품질관리 기능이 낮음
	대형 물류 보관시설 부재	· 지역 내 분산화된 물류 보관 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는 대형 물류 보관시설 부재
항만	제주항 외 물동량 감소	· 제주항 외 타 지역항만들의 물동량은 감소중임
	제주항 물동량 집중	· 제주항 물동량 집중으로 선석포화 및 항만 혼잡 발생
해운	낮은 통계데이터 품질	· 반출기준 품목별 통계 데이터에서 기타 품목이 97% 차지하여 데이터의 품질이 낮음
	제주↔전남 화물 집중	· 제주지역 화물이 전남 항만 위주로 운송되어 수도권, 경상권 등 재운송시 운송거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공항	항공물류사업 부재	· 제주국제공항 항공물류 육성 사업 부재
	화물처리량 감소	· 제주국제공항 화물처리량 감소 및 회복세 둔화
생활	추가택배비 부과	· 택배 운임 상승으로 도민 택배비 부담 증가
	신선식품 배송 불가	· 전자상거래·홈쇼핑 등 제주지역 신선식품 배송 불가

자료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 산업 현안 및 개선 방안, 2023.8.

5)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및 개선방안, 2023.8.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가. 지원 예산

2022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 규모는 99,940백만 원이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84,548백만 원(84.%),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2,234백만 원(12.2%), 골목상권 살리기 홍보마케팅 강화 1,387백만 원(1.4%),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소비 변화 대응 959백만 원(1.0%),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812백만 원(0.8%) 순이었다.

또한, 2023년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지역상권의 새로운 도약 지원 및 전통시장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 61,480백만 원이었다. 이를 사업별로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2,500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52.9%), 제주지역 화폐(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00백만 원(16.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행정시) 8,076백만 원(13.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행정시) 1,050백만 원(1.7%), 공동물류 지원 1,000백만 원(1.6%) 순으로 지원하였다.

〈표 14-15〉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총 계	**99,940**	**14,599**	**85,228**	**1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화 지원 〈소계〉	**84,548**	**12,000**	**72,513**	**35**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30,000		30,000	
소상공인 민생포럼 개최지원	20		14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0,000		30,00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0		200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570		570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	166		150	16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100		100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 지원	33		20	13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운영 지원	111		11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648		648	
제주 지역화폐(탐나는 전) 운영	22,700	12,000	10,700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지원 〈소계〉	**812**		**812**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운영	38		38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운영	108		108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	540		540	
원상복구 지원사업	50		50	
소상공인 건강검진지원	40		40	
소상공인 영상공모전	3		3	
소상공인 SNS서포터즈	33		33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소비변화 대응 〈소계〉	**959**	**300**	**629**	**30**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82		82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주지역 상권살리기 지원	27		27	
제주 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 기획전 연계사업	250		250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600	300	270	30
골목상권 살리기 홍보 마케팅 강화 〈소계〉	**1,387**		**1,361**	**26**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40		40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4		40	4
누웨마루거리 문화축제 지원	33		30	3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57		457	
제주제품 국내판로 지원	249		249	
골목상권 업종 전문 컨설팅 지원	64		45	19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500		500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소계〉	**12,234**	**2,299**	**9,913**	**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행정시)	8,516		8,508	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행정시)	2,450	1,960	49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460	184	276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200		200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쇼핑몰 및 SNS 홍보 마케팅 지원	136		129	7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11		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30		30	
환경 친화적 전통시장 조성 시범사업	61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경영 마인드 개선교육 및 홍보	60		54	6
전통시장 상권 활력 유도를 위한 청년몰 육성	310	155	135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비예산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8.

〈표 14-16〉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총 계	**61,480**	**22,837**	**38,142**	**50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소계〉	**45,745**	**20,000**	**25,436**	**309**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0		2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2,500	20,000	12,500	
폐업 자영업자 브릿지 보증 전환	500		250	250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570		570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	166		150	16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 지원	86		43	43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500		500	
제주 지역화폐(탐나는 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00		10,000	
공동물류 지원	1,000		1,000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110		110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회 운영 지원	113		113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소계〉	**1,796**	**680**	**1,11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794	680	114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120		120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	131		131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운영	34		34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운영	140		140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85		385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51		51	
소상공인 건강검진지원	37		37	
원상복구 지원	50		50	
희망더하기 재기 지원	54		54	
지역상권 새로운 도약 지원 〈소계〉	**3,063**	**620**	**2,311**	**132**
지역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		50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356		356	
메타버스 기반 전통시장 표준 플랫폼 연구 개발 지원	925	500	300	125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240	120	120	
제주 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 기획전 연계	250		250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357		357	
제주제품 국내판로 지원	349		349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392		392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주지역 상권살리기 지원	27		27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40		40	
소상공인 매장 이용 홍보	44		40	4
누웨마루거리 문화축제 지원	33		30	3
전통시장 활력 보강 〈소계〉	**10,876**	**1,537**	**9,279**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행정시)	8,076		8,076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행정시)	1,050	840	21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460	184	276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348	280	63	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200		200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쇼핑몰 및 홍보 마케팅 지원	200		154	46
전통시장·상점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73	33	4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	9		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30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경영 마인드 개선교육 및 홍보	30		22	8
전통시장 상권 활력 유도를 위한 청년몰 육성	400	200	2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8.

나. 탐나는 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탐나는 전을 발행하였다. 탐나는 전은 종이형 상품권과 카드형과 모바일형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이형 상품권은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사용 시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에는 사용액 30%까지(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종이용 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세 가지 종류이며, 지역 화폐를 80% 이상 사용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탐나는 전은 제주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2023년 탐나는 전 발행 규모는 총 387,010백만 원으로, 카드형·모바일형 336,553억 원(87.0%)과 종이형 상품권 30,757억 원(7.9%)으로 발행되었다. 2022년 발행 규모 444,568백만 원이었으며, 사용액은 453,323백만 원으로 유통률은 102.0% 이었다. 카드 모바일 발행액은 301,968백만 원이었고, 유통률은 100.6% 었으며, 지류는 50,356백만 원으로 유통률은 117.9% 이었다. 2023년 발행 규모는 2022년보다 12.9% 감소하였다. 2021년 탐나는 전의 발행액은 464,811백만 원이었고, 사용액은 419,289백만 원으로 유통률은 90.2%이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주로 유통되는 탐나는 전의 유통률은 2021년 90.2%에서 2022년 102.0%, 2023년 102.7%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발행 규모와 정책발행 비율은 2021년

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표 14-17> 탐나는 전 발행 및 판매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발행액			사용액(b)	유통률 (b/a)
		합계(a)	할인	비할인		
2023년	**소 계**	**387,010**	**128,537**	**258,473**	**397,648**	**102.7%**
	카드·모바일	336,553	110,134	226,419	351,292	104.4%
	지류	30,757	18,403	12,354	27,621	89.8%
	정책발행	19,700		19,700	18,735	95.1%
2022년	**소 계**	**444,568**	**279,951**	**164,617**	**453,323**	**102.0%**
	카드·모바일	301,968	241,597	6-,371	303,681	100.6%
	지류	50,356	38,354	12,002	59,371	117.9%
	정책발행	92,244		92,244	90,271	97.9%
2021년	**소 계**	**464,811**	**398,624**	**66,187**	**419,289**	**90.2%**
	카드·모바일	338,562	326,659	11,903	310,767	91.1%
	지류	78,828	71,965	6,863	61,624	78.2%
	정책발행	47,421		47,421	46,898	98.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08.

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

도서 지역 특성상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 일부(50%)를 지원하여 매출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2017년부터 계속된 공공기관 대행사업이다. 택배비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구매 후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구매상품을 도외로 발송한 소비자들이며, 택배비용 1건당 2,500원을 지원 하는데 개인당 연간 최대건수는 20건(50,000원)이다.

〈표 14-18〉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	200	200	200	2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8.

2. 물류 분야

가.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6)]

빅데이터 발달, 플랫폼 활성화로 일반 시민의 물류 활동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 등의 물류 환경 변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도·인프라 등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수요자·생산자 및 물류 관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활용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제주의 지리적 제약 극복을 위한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배송 불가 상품 배송, 창고 및 보관함 공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수요·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물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화주와 운송업체 간의 모바일 플랫폼 상 정보공유를 통한 운송시스템을 공유하고, 도내 창고업종과 제주기업, 도소매기업 간 창고데이터 공유를 통해 공유서비스 확대 및 공유 보관함의 실시간 사용을 위한 연동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간 공유물류 플랫폼 내에서 거래된 물량의 품목별, 물량·크기별 물류 거래 가격 등 수집된 데이터를 연중으

6)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기본계획, 2024.4.

로 축적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제주산 상품 공동 배송을 위한 제조업체가 배송물량을 「모당」에 등록하면 물류기업이 배송물량을 접수하고, 도내 또는 도외로 공동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며, 소비자가 “배송 불가 상품”을 온라인에 주문 내역을 「모당」에 등록하면 육지 거점센터로 배송하여 제주 거점센터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며, 창고 및 보관함 소유자가 플랫폼 「모당」에 유휴 공간을 등록하면 이용자가 공간 현황 확인 후 예약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표 14-19〉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운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600	602.2	1,003.55

나. 물류체계 개선

물류체계를 고도화하여 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중소제조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물류 지원과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운영 활성화로 물류 서비스개선, 도민 부담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를 통한 물류비 개선, 물류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물류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3년 물류 체계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4,188,928천 원인데, 이는 21년도 보다 무려 15.9배가 증가한 금액이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에 12,880,000천 원(90.8%), 공동물류 지원 1,003,550천 원(7.1%), 물류경쟁력 강화 215,000천 원(1.5%), 지역주도형 물류 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60,378

천 원(0.4%) 순이었다.

<표 14-20> 물류체계개선 지원 예산

(단위 : 천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892,283	807,264	14,188,92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2024.8.

다. 연안항 연차별 투자 실적

제주지역의 화순항, 애월항, 성산포항, 한림항, 추자항 5개 연안항 투자는 2021년 18,582백만 원, 2022년 24,850백만 원, 2023년 19,692백만 원이었는데, 3년간 총 63,124백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를 개별항 투자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화순항이 26,17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자항 11,294백만 원, 성산포항 10,357백만 원 등 순이었다.

<표 14-21> 연안항 연차별 투자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
		18,582	24,850	19,692
화순항	26,179	7,359	10,945	7,875
애월항	7,578	1,500	2,265	3,813
성산포항	10,357	1,600	3,047	5,710
한림항	7,716	6,014	1,702	
추자항	11,294	2,109	6,891	2,294
합 계	63,124	18,582	24,850	19,69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4.9.

제3절 성과

1. 유통분야

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역상권법 제정 시행('22.4.8)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위해 제주 지역상권 이용객 및 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상생 및 혁신상권 조성을 통한 행복상권이라는 제주 지역상권 비전과 지역사회와 동행, 상권역량 발전, 관광객 및 소비자 향유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 역량 있는 지역상권, 주민과의 동행 상권, 네트워크 역량 보유상권의 네 가지 전략별 표준사업모델을 제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상권 이용객 및 상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결 및 친절성 등 상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고, 상인들도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전략별 표준사업 모델로 지역 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주다움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별 문화적 가치 기반 차별화, 지역상권 활성화 펀드조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역량 있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서 지역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역상권 환경정비와 관광경험과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체험 및 소비를 결합한 서비스디자인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민과의 동행 상권 전략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대상 웰니스 상품 판매 활성화, 경유 및 향유지로서의 지역상권 형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네트워크 역량 보유상권 전략으로는 관광형 전통시장 및 향토 음식 풍물시장과의 동선 연계 및 지역상권 내 매력 공간화를 통한 지역상권 관광 시장화, 지역 상권별 집중 테마 대상 탐나는 전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였다.

나. 민관협력형 배달 앱 '먹깨비' 운영

'먹깨비'앱은 2022년 12월 과다한 민간 배달 앱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민관협력형 배달 앱이다. 도입 초반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 체제와 공격적 마케팅 환경에서 성장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꾸준한 서비스개선과 과감한 이벤트 전략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제주지역 대표 골목상권 배달 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연말까지 주문 건수는 총 191,202건이며, 총매출액은 4,733,415천 원이었다.

민관협력형 배달 앱 '먹깨비'는 민간 배달 앱 중개수수료(6.8%~12.5%)보다 5.3%이상 저렴한 1.5%로 앱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매출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절감액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먹깨비'의 지속적인 서비스개선과 낮은 가맹점 수수료, 다양한 혜택 제공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문 시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결제하면 기존 할인에 탐나는 전 추가 할인 혜택과 5% 페이백(최대 1,000포인트) 지원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1석2

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직까지 '먹깨비'의 도내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혜택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효과가 있고, 배달비 상승이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이벤트와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22〉 민관협력형 배달 앱 '먹깨비' 운영 실적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2022.12.1.개장)	2023년	합 계
주문건수	12,596	178,606	191,202
총매출액	286,267	4,447,148	4,733,41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9.

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시장의 감소추세에 따른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확산이 필요하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진출 확산을 위한 역량 제고 마련하여 상인 대상 홍보 및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하였다.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에서 보조금(정액) 지원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과 연계하고, 운영 중인 플랫폼의 참여업체 확산 및 상품 다양화를 추진하여 제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표 14-23〉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22년까지	'23년 최종	2024년	2025년이후
합 계	1,754,062	1,049,806	64,256	320,000	320,000
국고보조금	185,000	185,000	-	-	-
자체재원	1,569,062	864,806	64,256	320,000	320,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4.9.

2. 물류 분야

가. 물류체계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과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물류 지원, 제주형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운영 활성화로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도민 부담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를 통한 물류비 개선과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하여 제주지역 물류 산업을 활성화하였다.

나.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개선

2023년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개선 예산은 19,527.7백만 원이었는데,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을 시행하였다. 2021년 신 시장 개척사업 참가기업 수출실적은 80억 원 이었는데,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2023년 목표치를 100억 원으로 25% 상향되었다.

또한, 공동물류 사업 확대를 통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10% 이용 물동량을 증가시켜 공동물류 지원 목표 실적도 32,073(PLT)로 증가하였는데,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실적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다. 제주지역 항만 정비 사업 추진

제주지역 항만 정비 사업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통한 국내 제1의 크루즈 허브항만 실현,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및 물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항을 이용하고 있는 국제여객 및 국제크루즈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제주기항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해양관광 레저 수요 증가 등 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제주 신항 건설 및 제주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내항의 여객기능은 제주 신항으로 이전하여 해양 관광지구로 전화하고, 화물기능은 외항으로 이전하고, 여객부두 및 화물부두 이전으로 유휴화 된 기존 공간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 하며, 해경 부두는 외항에 신규 해경 부두로 이전하여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로 활용하기 위한 내항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항만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181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표 14-24〉 제주지역 항만 정비 사업 추진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11,181	7,500	11,5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9.

제4절 육성 과제 및 제언

1. 유통 분야

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유통환경 변화 적응력 강화

최근 유통환경의 주요 동향은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의 지속적 성장과 해외직구 폭증,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지속적인 저성장과 가성비를 극대화 하기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체리슈머 등장, 아날로그의 경험이 없어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습득하는데 익숙한 알파 세대의 대두, 디토소비 트렌드, 토핑 경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통플랫폼 변화와 유통환경 변화속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이 약화 되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유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의 신기술·소비패턴 등 유통 트렌드 변화에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및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 기획적 연계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의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부의 유통 분야 지원 사업 정책추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여 유통업계의 혁신적인 익일 배송과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배달서비스 강화 트렌드에 맞추어,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쟁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달시스템 구축과 협업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

성과 관리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제2조 제6호),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과 관리란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관리 책임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2년~202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약 161,420백만 원이었다. 그중에는 항목별로 동일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신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항목별 예산지원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 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 지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수립된 소상공인, 지역상권 관련 사업 계획의 실행률 강화

제주지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등에 관련되어 기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과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 전통시장별 활성화 계획이 담긴 중장기발전방안, 제주 골목상권 활성화

를 위한 중장기계획, 제주시, 서귀포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지역상권법 제정 시행(2022.4.8)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기본계획들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 중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는 등의 문제로 좋은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제주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발전계획과 기본계획들에 대한 통합 및 사업 집행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고, 선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물류 분야

가. 물류 분야 통계 구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제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품목별 물동량 및 유통경로 관련 통계 부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간 화물운송비, 복화, 공차, 공 창고 등에 관한 정보 분석 등의 제주 물류 통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통계는 물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물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개발과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물류 통계는 기존의 통계지표 및 실태자료가 일관성 있게 생성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제주도청 및 유관기관의 물류 관련 DB를 상호연계 한

제주 통합물류 정보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 제주항만 물동량은 총 22,551,312톤이었는데, 내항 화물의 입항 항목 중 기타 항목이 8,671,813톤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항 항목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항목은 8,968,439톤으로 96.1%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항만 총 물동량의 78.2%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입되는 물류 항목과 반출되는 물류 항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여 분류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 공동물류 정책 수립과 물류 효율성 제고 등의 제주 물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 추진

도서 지역은 주로 본토에서 떨어진 섬이나 육지의 일부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하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도서의 성격에 따라 담당부처가 다르며, 운송사 및 택배사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송 시 육로로 이동이 불가하고, 선박과 항공 이용료, 위탁배송 등 추가배송 비용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7]. 서해5도인 경우 행정자치부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도 지역의 보호·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도서 지역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

7) 하혜영, 도서(섬)지역의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11.1

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처별로 지원하는 도서의 범위가 다른데, 어느 곳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서가 있다. 예를 들어,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도서는 '만조 시에 바다를 둘러싼 지역'을 말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10년이 지난 도서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도서개발대상도서에 10인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관계 법률의 명칭도 함께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률명을 '도서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발전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다.[8)]

현재 제주지역 택배비는 내륙과 비교하여 평균 3,000원 이상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다. 내륙지역은 무료배송이지만 주소를 제주지역으로 입력하는 경우 추가 배송비 5,000원이 부과되며, 제주지역으로 배송된 제품을 다시 반품시키는 경우 추가 배송비가 다시 부과되는 실정이다. 또한 신선식품과 같이 냉동, 냉장 등 일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 제품들은 추가 배송비가 일반 택배보다 더 많이 부과되거나 배송이 불가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내륙의 신선식품 공급업체들은 수요가 많지 않은 제주지역에 신선식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추가 배송료를 더 부과하고 있으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및 신선식품들은 제주도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여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지역 택

8) 박진경 외,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p.103.

배화물은 해상운송을 통한 자동화물 형태로 운송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지출되어 이용자들에게 도서 산간비 명목의 운임이 부과되는 것이 추가 배송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택배 추가 배송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1인 최대 20건 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행정자치부의 지원 도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도서 개발 촉진법 개정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다. 지역 물류 기본계획 추진 예산확보와 지속적 실행

2009년 10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물류 기본계획은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물류 환경 변화, 선진 물류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주도 물류에 대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한 후 세부 추진 분야 및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1차 물류 기본계획은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예산확보가 미흡하여, 2015년까지 물류 계획의 실행률은 10~20% 수준에 불과하였다.

2차 제주지역 물류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 계획으로 총 2조 5,985억 원을 투입하여, 물류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물류체계 효율화 제고,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물류체계지원의 4개 추진전략에 12개 추진과제와 21개 기본과제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표 14-25〉에서 보는바와 같이 2차 제주지역 물류 기본계획도 21개의 기본과제 중 물류단지 구축, 해상

항공 체계 구축, 표준 컨테이너 이용, 물류장비 현대화 추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인력 국가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전기차 사업연계 물류서비스 발굴,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이용 사업 발굴, 물류부분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물류서비스 제공의 10개 과제(47.6%)는 전혀 시행이 안 되었다. 그러므로, 물류기본계획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 실행과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해가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의 당위성과 필연성 논리를 정립하여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

〈표 14-25〉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기본계획(2016~2025) 추진과제 및 추진 결과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결과	비고
1. 물류 인프라와 물류네트워크 구축	물류거점시설 정비 및 구축	물류시설 정비 및 구축	△	제주신항기본계획 고시('19.8.), 등
		물류단지 구축	×	
	간선운송체계 구축	해상·항공체계 구축	×	
		도로확충/교통흐름개선 추진실적	△	
2. 물류체계 효율화 제고	물류DB구축	물류 DB 구축사업 추진실적	○	제주통합물류정보 시스템 구축
	물류표준화 확산 및 활성화 추진	표준 컨테이너 이용실적	×	
		물류장비 현대화 추진실적	×	
	지구단위별 물류환경 개선	지구단위별 물류환경 개선실적	×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주도형 공동물류 사업 및 물류지원 추진	공동물류 사업 추진 실적	○	공동물류 이용 확대
	물류기업과 물류인력 역량 제고	물류기업간 교류실적	○	공동물류 민관 협업 실무협의체
		국가 및 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실적	×	
	물동량 창출 및 물류시장 개척지원	관광 연계형 물류서비스 발굴 실적	△	
		6차산업 기반 물류서비스 발굴 실적	○	안테나숍 개설 등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결과	비고
4.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지원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전기차 사업연계 물류서비스 발굴	×	
		친환경 화물자동차 보급실적	○	전기화물차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이용 사업 발굴 실적	×	
	물류부분 공적기능 강화	사회적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	
		물류서비스 제공	×	
	물류부문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실적	○	보관함 설치·운영
		긴급물류체계 구축	△	
		안전운송체계 구축	△	

자료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기본계획, 2024.4.

제15장 투자유치 및 기업 이전

제1절 현황

1. 투자유치

가. 관광개발사업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21개소가 투자금액 46,335억 원의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중 5개소가 준공 완료되었으며, 11개소가 일부 준공(운영 중)이 되어 운영 중이며, 5개소는 공사 중이다.

투자금액은 당초 46,335억 원이 계획되었으나 실적은 20,138억 원으로 계획 대비 43.5%에 불과한데, 이 중 준공 완료는 102.8%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준공(운영 중)은 45.2%에 달하고, 공사 중은 22.5%에 불과하다.

공사실적은 11,484억 원이었으나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5,543억 원으로 총공사실적의 48.3%에 불과한데, 이 중 준공 완료는 33.9%에 불과하고, 일부 준공(운영 중)은 46.2%, 공사 중은 77.6%에 달한다.

전체 고용은 당초 5,264명이 계획되었으나 실적은 1,628명으로 계획 대비 30.9%에 불과한데, 이 중 준공 완료는 109.7%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준공(운영 중)은 40.1%, 공사 중은 1.2%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 5,264명 중 도민 고용은 4,488명으로 85.3%로 계획되었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92.0%, 일부 준공(운영 중)은 87.4%, 공사

중은 80.7%로 계획되었다.

전체 고용실적 중 도민 고용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3.8%로 당초 계획 대비 8.5%p 증가하였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96.1%로 4.1%p 증가, 일부 준공(운영 중)은 93.5%로 6.1%p 증가, 공사 중은 65.2%로 15.5%p 감소하였다.

<표 15-1> 관광개발사업 현황(2022.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억 원, 명, %)

구분		합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운영	일부 준공(운영 중)	공사 중
개소	계	21	5	11	5
투자금액	계획(A)	46,335	3,972	28,781	13,582
	실적(B)	20,138	4,085	13,000	3,053
	비율(B/A)	43.5	102.8	45.2	22.5
공사실적	총계(A)	11,484	2,546	7,185	1,753
	지역업체 실적(B)	5,543	863	3,320	1,360
	비율(B/A)	48.3	33.9	46.2	77.6
고용계획	전체(A1)	5,264	401	2,904	1,959
	도민(B1)	4,488	369	2,539	1,580
	비율(B1/A1)	85.3	92.0	87.4	80.7
고용실적	전체(A2)	1,628	440	1,165	23
	도민(B2)	1,527	423	1,089	15
	계획 대비 비율(A2/A1)	30.9	109.7	40.1	1.2
	실적전체대비비율(B2/A2)	93.8	96.1	93.5	65.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나. 유원지개발사업 현황

2022년 6월 말 기준 16개소가 투자금액 125,082억 원의 유원지개

발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중 3개소가 준공 완료되었으며, 13개소가 일부 준공(운영 중)이 되어 운영 중이다.

투자금액은 당초 125,082억 원이 계획되었으나 실적은 77,913억 원으로 계획 대비 62.3%에 불과한데, 이 중 준공 완료는 101.8%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준공(운영 중)은 60.0%에 불과하다.

공사실적은 44,633억 원이었으나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21,394억 원으로 총공사실적의 47.9%에 불과한데, 이 중 준공 완료는 48.9%, 일부 준공(운영 중)은 47.8%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은 당초 24,206명이 계획되었으나 실적은 5,151명으로 계획 대비 21.3%에 불과한데, 이 중 준공 완료는 95.2%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준공(운영 중)은 19.9%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 24,206명 중 도민고용은 19,010명으로 78.5%로 계획되었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82.1%, 일부 준공(운영 중)은 78.5%로 계획되었다.

전체 고용실적 중 도민 고용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3.3%로 당초 계획 대비 5.2%p 감소하였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74.3%로 7.8%p 감소, 일부 준공(운영 중)은 73.2%로 5.3%p 감소하였다.

〈표 15-2〉 유원지개발사업 현황(2022.6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억 원, 명, %)

구분		합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운영	일부준공(운영 중)
개소	계	16	3	13
투자금액	계획(A)	125,082	6,755	118,327
	실적(B)	77,913	6,878	71,035
	비율(B/A)	62.3	101.8	60.0

구분		합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운영	일부준공(운영 중)
공사실적	총계(A)	44,633	4,570	40,063
	지역업체실적(B)	21,394	2,234	19,160
	비율(B/A)	47.9	48.9	47.8
고용계획	전체(A1)	24,206	458	23,738
	도민(B1)	19,010	376	18,634
	비율(B1/A1)	78.5	82.1	78.5
고용실적	전체(A2)	5,151	436	4,715
	도민(B2)	3,774	324	3,450
	계획대비비율(A2/A1)	21.3	95.2	19.9
	실적전체대비비율(B2/A2)	73.3	74.3	73.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다. 투자진흥지구 현황

2022년 6월 말 기준 24개소가 투자금액 25,691억 원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지구 중 21개소가 준공 완료되었으며, 3개소가 일부준공 및 공사 중이다.

투자금액은 당초 25,691억 원이 계획되었으나 실적은 27,658억 원으로 계획 대비 107.7%를 달성하였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106.7%, 일부준공 및 공사 중은 107.9%를 달성하였다.

공사실적은 4,112억 원이었으나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4,598억 원으로 총공사실적의 111.5%에 달했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109.3%, 일부준공 및 공사 중은 118.5%에 달하였다.

전체 고용은 당초 4,184명이 계획되었으나 실적은 2,369명으로 계획 대비 56.6%에 달했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88.9%, 일부준공 및 공사 중은 39.6%에 달하였다.

전체 고용 4,184명 중 도민고용은 1,984명으로 47.4%로 계획되었

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86.6%, 일부준공 및 공사 중은 26.8%로 계획되었다.

전체 고용실적 중 도민 고용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로 당초 계획 대비 12.5%p 증가하였는데, 이 중 준공 완료는 83.8%로 2.8%p 감소, 일부준공 및 공사 중은 32.3%로 5.5%p 증가하였다.

〈표 15-3〉 투자진흥지구 현황(2022.6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억 원, 명, %)

구분		합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운영	일부준공 및 공사 중
개소	계	24	21	3
투자금액	계획(A)	25,691	6,125	19,566
	실적(B)	27,658	6,537	21,121
	비율(B/A)	107.7	106.7	107.9
공사실적	총계(A)	4,112	3,119	1,003
	지역업체실적(B)	4,598	3,409	1,189
	비율(B/A)	111.5	109.3	118.5
고용계획	전체(A1)	4,184	1,445	2,739
	도민(B1)	1,984	1,251	733
	비율(B1/A1)	47.4	86.6	26.8
고용실적	전체(A2)	2,369	1,284	1,085
	도민(B2)	1,420	1,070	350
	계획대비비율(A2/A1)	56.6	88.9	39.6
	실적전체대비비율(B2/A2)	59.9	83.8	32.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소에 사업비는 93,338억 원, 면적은 12,311천㎡에 달한다. 2022년 대비 지구

지정은 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억 원 증가하였고, 면적은 18천㎡가 증가하였다. 이를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사업비는 0.2% 증가하였고, 면적은 0.1% 증가하였다.

〈표 15-4〉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현황(2023.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천㎡, 억 원, %)

연도별	지구 지정			면적			사업비		
	개소	증감	증감률	천㎡	증감	증감률	억 원	증감	증감률
2014	49	-	-	19,515	-	-	115,223	-	-
2015	49	0	0.0	18,953	△562	△2.9	115,054	△169	△0.1
2016	50	1	2.0	18,969	16	0.1	125,661	10,607	9.2
2017	44	△6	△12.0	13,713	△5,256	△27.7	101,170	△24,491	△19.5
2018	44	0	0.0	13,828	115	0.8	109,694	8,524	8.4
2019[1)]	43	△1	△2.3	13,729	△99	△0.7	109,421	△273	△0.2
2020[2)]	41	△2	△4.7	12,953	△776	△5.7	86,384	△23,037	△21.1
2021	40	△1	△2.4	12,261	△692	△5.3	92,486	6,102	7.1
2022	43	3	7.5	12,293	32	0.3	93,138	652	0.7
2023	44	1	2.3	12,311	18	0.1	93,338	200	0.2

주 : 1) 2019년 9월 말 기준
2) 2020년 2월 말 기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자료를 재편·가공함

제주지역의 투자진흥지구 업종별 지정 건수는 전문휴양업(14개소, 31.8%), 관광호텔업(13개소, 29.5%), 종합휴양업(4개소, 9.1%)의 순이며, 면적으로는 종합휴양업(5,902천㎡, 47.9%), 국제학교(3,791천㎡, 30.8%), 전문휴양업 (1,848천㎡, 15.0%)의 순이고, 사업비 규모로는 종합휴양업(44,283억 원, 47.4%), 국제학교(19,256억 원, 20.6%), 관광호텔업(14,279억 원, 15.3%), 전문휴양업(12,025억 원, 12.9%)의 순으로 면적 및 사업비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5〉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별 운영현황(2023.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천㎡, 억 원, %)

업종	지구 지정		면적		사업비	
	개소	비중	천㎡	비중	억 원	비중
관광호텔업	13	29.5	405	3.3	14,279	15.3
국제학교	1	2.3	3,791	30.8	19,256	20.6
문화산업	2	4.5	16	0.1	231	0.2
식료품제조업	2	4.5	26	0.2	510	0.5
연수원	3	6.8	86	0.7	1,051	1.1
의료기관	2	4.5	59	0.5	952	1.0
전문휴양업	14	31.8	1,848	15.0	12,025	12.9
종합유원시설업	1	2.3	140	1.1	428	0.5
종합휴양업	4	9.1	5,902	47.9	44,283	47.4
첨단기술활용산업	1	2.3	18	0.1	200	0.2
청소년수련시설업	1	2.3	20	0.2	123	0.1
합계	44	100.0	12,311	100.0	93,338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자료를 재편·가공함

라. 외국인 직접투자

제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도착액 기준으로 2016년 및 2017년 전국 지자체 중 3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도착액 34백만 원 달러가 유입되어 FDI 실적이 전년 대비 67.0% 감소하였고, FDI 신고금액 1,086백만 달러 대비 도착액 비율은 3.1%로 전년 20.4%보다 17.3%p 하락하였다.

〈표 15-6〉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977~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액(A)	계	15,475	10,685	1,001	1,089	278	417	363	505	1,086	51
	전년대비 증가율	-	-	-	8.8	△74.5	50.0	△12.9	39.1	115.0	△95.3
도착액(B)	계	4,923	1,878	907	900	357	314	396	103	34	34
	전년대비 증가율	-	-	-	△0.8	△60.3	△12.0	26.1	△74.0	△67.0	0.0
비율(B/A)	31.8		17.6	90.6	82.6	128.4	75.3	109.1	20.4	3.1	66.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마.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1)]

2023년 말 기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누적 건수는 216건에 달하며, 총 1,952건에 1,290,638백만 원의 분양이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총 분양 건수는 1,952건으로 2022년 총 분양 건수 1,915건 대비 1.9% 증가하였고, 2023년 분양 건수는 37건으로 전년 대비 31건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총 분양 금액은 1,290,638백만 원으로 2022년 기준 총 분양 금액 1,261,643백만 원 대비 2.3% 증가하였다.

거주비자(F-2) 발급 누계현원은 투자자는 2023년 216명으로 2022

1)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10.2.1~2026.4.30이다.

년 174명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은 2023년 310명으로 2022년 293명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F-5) 발급 누계현원은 투자자는 2023년 730명으로 2022년 665명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은 2023년 1,129명으로 2022년 1,033명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7>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단위 : 세대, 백만 원, 명)

연도별	투자현황[1]		거주비자(F-2) 발급		영주권(F-5) 발급	
	건수 (세대)	금액	누계현원		누계현원	
			투자자	가족	투자자	가족
2010	3	3,077	3	-		
2011	5	2,929	8	-		
2012	152	83,306	155	236		
2013	338	205,731	476	768		
2014	558	406,199	1,007	1,731		
2015	334	211,188	1,321	2,414		
2016	181	118,352	1,455	2,679	1	-
2017	143	96,393	1,487	2,734	57	63
2018	134	89,788	1,451	2,633	225	308
2019	53	36,610	1,143	2,157	538	829
2020	4	2,595	795	1,580	627	966
2021	4	2,405	376	740	674	1,021
2022	6	3,070	174	293	665	1,033
2023	37	28,995	216	310	730	1,129
계	1,952	1,290,638				

주 : 1) 거주(F2-8)자격을 신규취득한 투자자의 분양건수만 집계되어 실제 투자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분양 중인 영주권 부여가능 리조트는 제주시 1개, 서귀포시 10개 등 총 11개가 있다.

〈표 15-8〉 분양 중인 영주권 부여가능 리조트 현황

연번	시설명	업체명	주소
1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휘닉스중앙제주(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2	롯데아트빌라스 (롯데리조트 제주)	㈜호텔롯데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252번길 124
3	녹지제주리조트 Ⅰ,Ⅱ (헬스케어타운)	녹지한국투자개발(유)	서귀포시 동홍동 2045
4	더큐브리조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유)	서귀포시 토평동 산 30-13
5	오션스타 휴양콘도미니엄	오삼코리아(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69
6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차이나테디(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34번길 204
7	백통신원리조트	백통신원(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427
8	캠퍼트리호텔앤리조트	제주중국성개발	제주시 해안로마을서4길 100 (해안동)
9	씨사이드아덴	㈜호영개발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24
10	제주신화빌라스 (제주신화월드)	람정제주개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139
11	덴앤델리조트	삼매봉개발(주)	서귀포시 태평로 156(호근동)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투자/투자관련자료실)

2. 기업 이전

2023년 12월 말 기준 제주로 이전한 기업은 총 27개 사에 투자실적은 4,118억 원, 고용인원은 2,732명에 달한다.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는 17개 사로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실적은 2,225억 원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1,664명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는 4개 사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실적은 53억 원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864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원은 6개 사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실적은 1,840억 원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204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투자실적은 152.5억 원인데 연수원 306.7억 원,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 160.7억 원, 콜센터 13.3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업체당 고용창출은 101명인데 콜센터 216명,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 98명, 연수원 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9〉 기업 이전 현황(2023.12월 말 기준)

(단위 : 개 사, 억 원, 명, %)

구분	업체 수		투자실적		고용현황		업체당	
	개사	비중	억 원	비중	명	비중	투자실적	고용현황
계	27	100	4,118	100	2,732	100	152.5	101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	17	63.0	2,225	54.0	1,664	60.9	160.7	98
콜센터	4	14.8	53	1.3	864	31.6	13.3	216
연수원	6	22.2	1,840	44.7	204	7.5	306.7	3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23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이전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화장품, 식품, 제약 등 생명 공학(BT)분야 11개 사, 정보통신업(IT) 5개 사, 기계제조 1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IT 및 BT 등 지식기술 기반 기업이 16개 사로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BT 산업을 보면 식품 6개 사(35.3%), 화장품 3개 사(17.6%), 제약 2개 사(11.8%)이다.

IT 및 BT 등 지식기술 기반 기업의 고용은 1,623명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BT 산업을 보면 식품 215명(39.4%), 제약 195명(35.8%), 화장품 103명(24.8%)이다.

IT 및 BT 등 지식기술 기반 기업의 투자액은 2,166억 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BT 산업을 보면 식품 799억 원(67.5%), 제약 283억 원(23.9%), 화장품 102억 원(8.6%)이다.

〈표 15-10〉 업종별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2023.12월 말 기준)

(단위 : 개 사, %)

구분	IT	BT				기계제조	계
		계	화장품	식품	제약		
업체 수	5	11	3	6	2	1	17
(비중)	29.4	64.7	17.6	35.3	11.8	5.9	100
고용	1,078	545	135	215	195	41	1,664
(비중)	64.8	32.7	8.1	12.9	11.7	2.5	100
투자액	982	1,184	102	799	283	59	2,225
(비중)	44.1	53.2	4.6	35.9	12.7	2.7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연도별 수도권 이전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9-2022년 중 2013년이 5개 사(29.4%)로 가장 많고, 2010년 4개 사(23.5%), 2009년,

2012년 및 2022년이 2개 사(11.8%), 2015년 및 2021년 1개 사(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도권 이전기업의 고용을 살펴보면, 2009-2022년 중 2015년이 724명(43.5%)으로 가장 많고, 2009년 338명(20.3%), 2010년 212명(1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41명(2.5%)으로 가장 적고, 2022년 72명(4.3%), 2012년 106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도권 이전기업의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9-2022년 중 2009년이 758억 원(34.1%)으로 가장 많고, 2022년 571억 원(25.7%), 2012년 271억 원(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80억 원(3.6%)으로 가장 적고, 2015년 147억 원(6.6%), 2013년 154억 원(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11> 연도별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

(단위 : 개 사, 명,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2	2013	2015	2021	2022	계
업체 수	2	4	2	5	1	1	2	17
(비중)	11.8	23.5	11.8	29.4	5.9	5.9	11.8	100
고용	338	212	106	171	724	41	72	1,664
(비중)	20.3	12.7	6.4	10.3	43.5	2.5	4.3	100
투자액	758	244	271	154	147	80	571	2,225
(비중)	34.1	11.0	12.2	6.9	6.6	3.6	25.7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제2절 정책지원 현황

제주지역 투자유치의 현 상황, 한계 요인 및 정책지원을 통한 한계 요인 극복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입지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개별입지 등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한데 첨단 1단지, 용암해수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제주 테크노파크도 포화상태에 있다.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2025년 착공 예정인 첨단 2단지, 탐라대 외에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입지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22.6.-'23.9)을 수행하였고 부지확보를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편, 도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데 전문인력 및 현장 인력 부족은 도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입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산업단지 등 부지 활용 부서·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자연·생산녹지 등 토지 이용규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는 차별화된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타 시·도 대비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조례를 개정('22.3.)하여 물류비, 직원거주비, 중개수수료 지원을 신설하고, 고용·교육훈련보조 비율을 조정하는 등 이전기업 세부지원을 신설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매칭 및 기업 보조율의 감소로 국비지원이 감소하였는데 투자진흥지구 개선을

위해 휴양콘도, 카지노업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하고 첨단산업, 식·음료제조업 등은 지원업종에 포함하는 등 지원업종 확대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셋째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부족 및 신산업 투자 기반 부족 등 취약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의 실질적인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전후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관광산업이 약화되었고, 수소 등 신산업의 도내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망산업 연관부서나 기관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유망산업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사전 답사를 연계하는 노력을 하였다.

넷째는 기존 관광개발 중심의 투자유치로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고 있고 투자 정책의 대외적 신뢰 저하 및 도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기업 유치 설명회, 소식지 등 온라인 홍보 및 유치활동을 강화하였고, 신남방국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Investor Relations: IR)을 다변화하고,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였다. 향후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대응하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조성 및 인센티브 발굴

제주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범위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자문을 위한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 자문을 위한 투자기업 관계자까지 확대하였고 그 역할을 자문 및 활동 지원으로 명확화하였다.

둘째,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설비·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이전 및 외국인 투자기업 물류비, 직원거주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고, 이전기업 입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며,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넷째,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3% 가산하고, 수도권외 이전기업 지원조건을 2년 이상 사업영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문화 및 정보통신업 건물임차료, 시설장비 구입비의 지원기준(상시고용 10명 초과 고용시 50% 범위 내 3년간 지원에서 5명 초과 고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지자체 유일의 국세감면 인센티브 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업종 확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화하고 신산업·아세안 시장 등 새로운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도를 목표로 관계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는데 주요 제도개선 사항 및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특례 법령에 있는 투자진흥지구 국세(법인·소득세) 감면업종을 확대(식품·음료제조업 중 일부 업종 한정에서 식품·음료제조업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기간(2023.12.31. 일몰)을 연장하였다.

둘째, 특별법에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신설하였다.

셋째, 조례에 투자진흥지구 투자완료 사업장의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제외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투자 전문성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 및 도내 투자유치 민관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투자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투자유치 전문가, 기관, 기업 등 15명)을 운영하였다. 워킹그룹의 주요 역할은 기관별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공유하여 종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산업별 동향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방향을 수립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아이디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 '22.3.4. 일부개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의 위촉 대상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을 재구성하였다.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선에 따라 자문관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으로 확대되었으며, 위촉 대상은 기관·단체 근무자 및 전문가에서 투자기업 관계자로 확대

되었다. 자문관의 역할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며, 투자유치 정책의 수립 및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다.

3. 성장 유망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 홍보

국내기업 제주 본사 유치 및 신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임원급 대상으로 투자홍보를 확대하고, 워케이션 설명회와 연계하여 제주 투자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며, 수도권 유망기업 중심으로 1:1 밀착 네트워킹을 하는 등 투자유치 홍보 활동의 목표 및 접근방법을 세분화하였다.

첫째, 온·오프라인 기업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의 국내기업 제주 본사 및 신증설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기업유치설명회, 기업유치설명회, 팸투어, 박람회 참가 홍보 등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기업유치설명회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제주 투자환경, 투자지원제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소개하고, 기업유치설명회는 수도권 지역 유망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기업유치 현장 설명회 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며, 팸투어는 잠재투자가를 제주로 초청하여 투자환경 답사 및 상담을 진행하며, 박람회 참가 홍보는 각종 산업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홍보 활동을 한다.

둘째, 워케이션 연계 기업 네트워크 발굴 및 수도권 기업 유치 계기 마련하고 기업 분산근무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를 촉진하는 워케이션 선도지역 조성 및 분산오피스 유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오피스 운영, 민·관 네트워크 운영, 통합 플랫폼 운영, 설명회 및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공유오피스 운영은 원격근무 시행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를 운영 및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운영은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민·관 워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통합 플랫폼 운영은 워케이션 관심 기업 및 민·관 네트워크 관리, B2B 컨설팅, 홈페이지 등 제주 워케이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설명회 및 팸투어는 수도권 주요 지역 민관과 협력하여 제주 워케이션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워케이션 관심 및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워케이션 시행 및 컨설팅 지원, 여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등을 한다.

4. 잠재 투자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및 성장 지원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지원과 투자기업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한 추가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잠재 투자기업 투자이행 및 투자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진행 중인 연계 기업·투자유치 현황과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잠재투자관리기업에 대한 부지 모색·매입, 건축 인

허가 안내 지원 등 밀착형 컨설팅으로 기업 애로 해소 및 후속 투자 유치를 실현하였다.

첫째, 잠재 투자기업 투자이행 및 투자기업 성장 지원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이행을 위한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토기업으로의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 기업의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며, 추가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였다. 또한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제주형 투자 인센티브 개편사항을 홍보하고, 투자유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등 도민 홍보를 강화하며, 상담 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잠재 투자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둘째, 신산업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투자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홍보 등 온라인 투자홍보를 강화하고 신남방국가(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및 뉴질랜드, 호주 등 투자유치 타깃 국가를 확대하고 홍보 국가를 다변화하였다. 또한 국내외국인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투자유치지원체계 개편 및 협업 강화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법상 투자유치 총괄조직인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재구성하여 「민자유치추진계획」을 통해 현행 투자유치 실적 외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외국인투자, JDC 투자 등 실적·현황을 관리하는 전반적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투자 동향 공유 등 투자유치 협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잠재투자관리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부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부지 물색 및 인허가 검토 등 밀착 지원을 하고, 관리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로 사업계획 구체화 등 투자이행을 유도하였다.

제3절 성과

2022년 이후 성과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업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관리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는데 2015년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해마관광호텔, 유대장금(예래정) 등 3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였고, 2016년에 트리아농(빌라드애월)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였다.

2017년에 제주토스카나호텔,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묘산봉 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등 7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바 있었는데, 2018년에는 더코브관광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2019년에는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였다.

2020년에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 등 2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였고, 2021년에 루스톤빌라앤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이에 따라 해제된 면적은 6,259.4천㎡, 사업비는 19,103억 원에 달한다.

〈표 15-12〉 투자진흥지구 해제 현황(2015-2023년)

(단위 : 천㎡, 억 원)

지 구 명	면적	사업비	지정일 (변경일)	업종	해제일
제주동물테마파크	581	561	05.07.13	종합휴양업	15.03.02
제주해마관광호텔	0.4	82	15.04.21	관광호텔업	15.09.18
유대장금(예래정)	9	74	09.12.30	관광식당업	15.11.17

지 구 명	면적	사업비	지정일 (변경일)	업종	해제일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29	114	10.12.29	전문휴양업	16.11.29
제주토스카나호텔	21	129	14.01.28	전문휴양업	17.02.13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1,989	3,322	06.11.27	종합휴양업	17.02.23
묘산봉 관광지	2,576	6,664	08.04.23	종합휴양업	17.02.23
이호유원지	276	4,212	09.07.01 (13.12.27)	종합휴양업	17.02.23
제주롯데리조트	414	1,978	11.11.09	전문휴양업	17.02.23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16	156	14.10.08	문화산업	17.04.05
나비곤충어류박물관	27	167	07.06.20	전문휴양업	17.06.30
더코브관광호텔	9	88	12.12.31	관광호텔업	18.04.10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102	273	09.12.30	전문휴양업	19.09.16.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	32	210	14.06.27	전문휴양업	20.02.17
부영랜드	168	966	13.02.22	종합휴양업	20.08.18
루스톤빌라앤호텔	10	107	14.12.24	관광호텔업	21.10.12
합계	6,259.4	19,10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버뮤다가 1,678백만 달러로 전체 4,702백만 달러의 35.7%를 차지하였고, 중국 26.8%, 홍콩 14.5%, 싱가포르 11.5% 및 기타 9.6%로 나타났다.

<표 15-13> 국적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1997-2023년 누적)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계	홍 콩	버뮤다	중 국	몰타	싱가포르	기타
도착액	4,702	681	1,678	1,262	90	539	452
비중	100	14.5	35.7	26.8	1.9	11.5	9.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1977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230개에 달하는데 1977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95개 사로 전체 230개 사의 41.3%를 차지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자릿수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14개 사로 전체 230개 사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외국인 투자기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 누적 대비 증가율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에는 14개 사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33.3% 증가하였고, 전년 누적 대비로는 6.5% 증가하였다.

〈표 15-1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현황

(단위 : 개 사, %)

구분		'77-'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해당 연도	기업수	95	36	26	16	11	10	6	10	6	14
	비중	41.3	15.7	11.3	7.0	4.8	4.3	2.6	4.3	2.6	6.1
전년대비 증가율		-	-	△27.8	△38.5	△31.3	△9.1	△40.0	66.7	△40.0	133.3
누적		95	131	157	173	184	194	200	210	216	230[1)]
전년누적대비 증가율		-	37.9	19.8	10.2	6.4	5.4	3.1	5.0	2.9	6.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주 1) : 2023년말 현재 현존기업 기준

2023년 12월 말 기준 현존하는 제주 외국인 투자기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17개 사로 전체 199개 사의 58.8%를 차지하였고,

홍콩 7.0%, 미국 5.5%, 일본 5.0%, 버진 아일랜드 4.5%, 싱가포르 3.5% 및 기타 21개국 15.6%로 나타났다.

<표 15-15> 국적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

국 가	계	중국	홍콩	일본	버진 아일랜드	미국	싱가포르	기타 (21개국)
기업수	199	117	14	10	9	11	7	31
비중	100	58.8	7.0	5.0	4.5	5.5	3.5	15.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주 : 2023년말 현재 현존기업 기준

2023년 12월 말 기준 현존하는 제주 외국인 투자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업이 72개 사로 전체 199개 사의 36.2%를 차지하였고, 도소매업 13.1%, 호텔업 7.5%, 여행사 7.0%, 숙박업 6.5%, 음식점 6.0%, 기타 서비스 5.0%로 나타났다. 그 외 제조업 3.0%, 기타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6> 업종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

업종	계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부동산	음식점	숙박업	호텔업	여행사	도소매	기타 서비스		
기업수	199	72	12	13	15	14	26	10	6	31
비중	100	36.2	6.0	6.5	7.5	7.0	13.1	5.0	3.0	15.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주 : 2023년말 현재 현존기업 기준

2022년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첫째, 국내 기업유치 홍보 전용 웹사이트인 「인베스트제주」의 운영 활성화를 하였다. 「인베스트제주」 국내기업 유치 홍보 웹사이트 리뉴얼 및 콘텐츠 보강, 홍보 동영상 등 온라인 투자 홍보콘텐츠를 확대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제주 투자인센티브 개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 운영을 확대하고, 카카오톡 활용 1:1 투자상담 시스템 운영으로 실시간 상담에 대응하였다.

둘째,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을 통해 제주 투자환경, 지원제도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제주 투자기업 소개, 신규 인센티브 안내 등 연 5회 제작 발송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투자 기업 2개 사 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65억원 확보,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3개 사와의 본사이전 등 MOU를 체결하였고, 2022년에 투자금액 636억 원, 고용인원 73명 규모의 투자협약 및 2023년에 투자금액 210억 원, 고용인원 45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15-17〉 국내기업 유치성과

(단위 : 개 사, 억 원, 명)

연도	기업수	업 종	소재지	투자규모		구 분
				투자계획(억 원)	고용계획(명)	
2017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서울(2), 제주(1)	81	174	본사이전(2), 신설(1)
2018	6	소프트웨어개발, 전기차 중전기 제조 등	서울(2), 경기(1), 강원(1), 제주(2)	245	257	본사이전(2), 신설(4)
201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	80	76	본사이전
2020	3	낙농품, 의약품, 화장품 제조	서울(2), 경기(1)	325	114	본사이전(1), 신설(2),
2021	2	녹차 제조, 친환경비료 연구·개발·제조	제주(1), 경기(1)	417	60	본사이전(1), 증설(1)
2022	2	의약품 제조, 녹차 제조	제주(2)	636	73	본사이전(1), 신설(1)
2023	1	의학·약학 연구개발	경기(1)	210	45	본사이전(1)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투자유치 및 기업이전 방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투자유치생태계, 산업생태계 및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기본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1. 투자유치생태계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업유치는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지역 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제주도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각종 세제혜택, 자금(융자)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원재료 확보 어려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등으로 최근 들어 이전기업 유치실적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 우선적으로 투자유치의 인프라인 투자유치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제주도청의 투자유치과가 제주도 전체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청 내부 조직 및 외부 기관을 총망라한 유치 분야·대상지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지 잠재투자자 방문상담 및 투자유치활동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 서비스(before service) 및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통하여 잠재 투자자 및 기존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서비스와 도민의 수용 태세 등이 결합되어 후광효과(halo effect)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투자

기업의 제주지역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유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본의 방향과 속도, 산업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투자인센티브와 투자의 입지 매력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주의 중점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상을 통해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산업분석, 기술적 우월성, 제주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및 기간 등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주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제주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관리, 투자 진행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 중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가 완료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을 완료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전관리-모니터링-사후관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생태계

제주 이전기업들은 사업 실적이 개선되고 조세 혜택 및 부동산 자

산가치 상승 등에 의한 재무적 수익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이전기업에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 제주도정 및 도민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고려되어 온 청년실업 해소 등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공급보다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들과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존 도내 기업들이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산업연관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우선적 유치 노력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도정과 도민 혜택을 전제로 한 집중 지원 산업 지정 및 이에 대한 차등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고려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관광개발사업 중심의 투자유치보다는 제주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을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수요 창출력'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운영효과 등)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정책과 투자유치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투자

인센티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 및 기업유치에 의해 창출되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전기업의 운영효과(고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효과(고용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3. 기업생태계

개별 기업의 규모나 예상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하였던 기업유치 노력을 해당 기업의 생태계 조성 가능성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중심기업은 해당 기업 내 고용 창출뿐 아니라 지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역량을 축적하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차원보다 생태계 조성 가능성이 지역 내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하겠다. 이를 향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시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이든 기업환경이 나쁘면 기업들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지 않게 되어 결국 주변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즉,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며, 외국기업들도 매력을 느끼고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 갈등의 최소화 등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첫째,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

다. 각종 조세 및 투자유치 관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할 수 없고 잠재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서비스와 도민의 수용 태세 등이 결합되어야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정책의 투명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같은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외 기업의 제주지역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의 확대보다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의 대폭 철폐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환경이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병원·학교·편의시설 등 기본적 생활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면 일류 경영자와 기술자들은 제주에 오기를 꺼릴 것이므로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수적이다.

제16장 과학기술 진흥

제1절 현황

1. 과학기술진흥

가. 일반현황

(1)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연구개발비는 2,278억 원이고, 이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112조 6,460억 원의 약 0.20% 수준이다. 2022년 전국 대비 제주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약 1.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제주의 연구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의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7.46%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 전국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주체별 2022년 제주지역 연구개발비는 대학이 608억 원(전국 대비 0.59%), 공공연구소가 1,059억 원(전국 대비 0.82%), 기업이 611억 원(전국 대비 0.07%)로,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제주지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1〉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비 동향(2022년)

(단위 : 백만 원, %)

연구주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 구 개발비	전국 비중	연 구 개발비	전국 비중	연 구 개발비	전국 비중	연 구 개발비	전국 비중	연 구 개발비	전국 비중
대학	58,688	0.83	64,437	0.87	105,129	1.26	84,206	0.90	60.789	0.59
•국공립	57,330	1.86	63,527	1.94	104,373	2.76	83,538	1.98	60.430	1.33
•사립	1,358	0.03	910	0.02	756	0.02	668	0.01	359	0.01
공공연구소	56,258	0.57	58,699	0.58	70,346	0.63	94,260	0.79	105.927	0.82
•국공립	43,036	5.29	44,108	5.28	40,212	4.72	52,785	5.46	56.997	5.59
•정부출연	10,775	0.14	11,160	0.14	15,333	0.19	26,002	0.30	26.449	0.29
•병원 및 기타	2,447	0.17	3,431	0.22	14,801	1.26	15,473	0.67	22.481	0.86
기업	44,017	0.06	51,287	0.07	56,136	0.08	64,847	0.08	61.119	0.07
•정부투자기관	3,453	0.38	2,599	0.30	3,462	0.40	1,594	0.19	1.510	0.17
•민간기업	40,564	0.06	48,688	0.07	52,674	0.07	63,253	0.08	59.609	0.07
합 계	158,963	0.19	174,423	0.20	231,611	0.25	243,313	0.24	227.835	0.20

주 : 병원 및 기타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이 포함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연구개발인력의 수는 4,23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국 대비 약 0.52%에 해당한다. 제주의 연구개발인력은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연구개발인력의 증가율은 5.37% 수준이다. 연구주체별로는 대학이 2,260명(전국 대비 1.02%), 공공연구소가 988명(전국 대비 1.44%), 기업이 988명(전국 대비 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약 5분의 3인 76.7%가 대학과 공공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다.

〈표 16-2〉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인력 현황(2022년)

(단위 : 명, %)

연구주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구개발인력	전국비중	연구개발인력	전국비중	연구개발인력	전국비중	연구개발인력	전국비중	연구개발인력	전국비중
대학	1,811	0.94	1,735	0.89	2,104	1.02	2,180	1.04	2,260	1.02
•국공립	1,751	2.20	1,692	2.12	2,046	2.36	2,144	2.47	2,218	2.47
•사립	60	0.05	43	0.04	58	0.05	36	0.03	42	0.03
공공연구소	736	1.26	852	1.37	938	1.46	922	1.39	988	1.44
•국공립	373	3.05	466	3.61	576	4.49	575	4.28	589	4.44
•정부출연	80	0.25	84	0.24	90	0.27	94	0.28	102	0.29
•병원 및 기타	283	2.08	302	2.00	272	1.57	253	1.32	297	1.45
기업	714	0.16	788	0.17	798	0.17	937	0.18	988	0.19
•정부투자기관	22	0.56	21	0.55	18	0.48	18	0.47	17	0.43
•민간기업	692	0.16	767	0.17	780	0.17	919	0.18	971	0.19
합 계	3,261	0.47	3,375	0.47	3,840	0.51	4,039	0.51	4,236	0.52

주 : 병원 및 기타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이 포함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3) 연구개발 조직 현황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연구개발조직의 수는 286개이고, 이는 전국 대비 약 0.44%에 해당한다. 연구주체별로 대학이 4개, 공공연구소가 19개, 기업이 263개로, 기업이 제주지역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연구개발조직의 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8.87%씩 증가하였는데, 5년 동안 기업의 연구개발조직 수가 98개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견인하였다. 해당기간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조직 수는 3개가 증가 하였으나,

대학의 연구개발조직수는 오히려 2개가 감소하였다. 2022년 기준, 연구개발조직 당 연구개발인력의 수는 대학이 570명, 공공연구소가 52명, 기업이 3.8명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의 수는 많지만, 조직 당 연구개발 인력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3〉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조직 현황(2022년)

(단위 : 개, %)

연구주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구개발조직	전국비중	연구개발조직	전국비중	연구개발조직	전국비중	연구개발조직	전국비중	연구개발조직	전국비중
대학	6	1.64	4	0.96	4	0.97	4	0.95	4	0.96
•국공립	2	2.53	2	2.38	2	2.35	2	2.33	2	2.27
•사립	4	1.40	2	0.60	2	0.61	2	0.59	2	0.61
공공연구소	16	3.99	18	2.80	19	2.87	20	2.90	19	2.78
•국공립	10	13.89	11	7.69	11	7.69	12	7.84	11	8.03
•정부출연	3	3.95	3	1.78	4	2.45	4	2.35	5	3.03
•병원 및 기타	3	1.19	4	1.21	4	1.12	4	1.09	3	0.79
기업	165	0.34	182	0.33	204	0.35	249	0.40	263	0.41
•정부투자기관	1	2.38	1	1.82	2	3.70	2	3.39	2	3.28
•민간기업	164	0.34	181	0.33	202	0.35	247	0.40	261	0.41
합 계	187	0.38	204	0.37	227	0.38	273	0.43	286	0.44

주 : 병원 및 기타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이 포함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4) 특허 및 논문 현황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허출원 수는 1,027건이고, 특허등록 건수는 406건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지역의 특허출원의 연

평균 증가율은 6.3%이고, 특허등록의 연평균 증가율은 4.0%이지만, 2022년에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 모두 2021년 대비 각각 1.8%, 13.6%씩 감소하였다.

〈표 16-4〉 제주특별자치도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특허출원 건수	689	817	837	891	1,003	1,046	1,027
특허등록 건수	305	384	412	430	485	470	406

주 : 출원은 제1출원인의 주소지 기준, 국내 출원에 한함, 등록은 국내 권리장 중 제 1권리자의 주소 기준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재인용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공저자 기준 1,154편으로 전국의 1.50%이고, 주저자 기준 493편으로 전국의 0.82%의 비율을 차지한다.

〈표 16-5〉 제주특별자치도 SCI 논문 게재 현황

(단위 : 건, %)

연도	공저자 기준				주저자 기준			
	논문수	전국대비 점유율(%)	피인용수	1인당 피인용수	논문수	전국대비 점유율(%)	피인용수	1인당 피인용수
2020년	1,101	1.42	10,918	10.44	498	0.84	5,082	10.20
2021년	1,118	1.40	7,314	6.54	497	0.78	3,203	6.44
2022년	1,154	1.50	2,850	2.47	493	0.82	1,034	2.10

주 : 전국대비 점유율은 지역미상의 논문을 제외한 전국 논문 수 대비 제주지역 논문 수 비중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재인용

(5)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진흥조례(시행 2016.12.30.)의 제6조(협의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행정부지사와 과학기술담당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과학기술담당 과장을 간사로 포함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제주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사항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13일에, 2022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3년 12월에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심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16-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2023년 10월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임기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대학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대학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대학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대학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국제대학교	2023.3.13.-2025.3.12.
위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연구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연구원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23.3.13.-2025.3.12.
위원	***	제주산학융합원	2023.3.13.-2025.3.12.
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3.3.13.-2025.3.12.
위원	***	㈜틸론소프트	2023.3.13.-2025.3.12.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재인용

나. 연구기관 현황

(1) 연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산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는 제주연구원과 제주한의학연구원이 있고, 산하연구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있다.

<표 16-7> 지역혁신기관 현황 : 연구소(도 출연 및 산하)

기관명		지역	주요기능	설립년도
출연	제주연구원	제주시 오라동	·지역발전, 지역경제 진흥 연구 ·지방행정 관련 제도개선 연구 ·연구조사·분석 등	1997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시 영평동	·한의약 소재 라이브러리 구축 ·한의약 자원 실용화 연구 ·제주 동정귤·곽향 연구, ·한의약 자원활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서귀포 신활력플러스(귤피명품화)사업 등	2016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강정동	·원예연구 : 채소 품종육성 재배기술 연구 ·감귤·아열대 연구 : 감귤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아열대 과수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친환경연구 : 병충해, 친환경 재배모델 연구 ·농산물원종장 : 종자 생산 보급,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 등	195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서귀포시 표선면	·해양수산 연구, 종자생산, 기술보급 등	1999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2실, 5부, 9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실은 정책연구실과 행정실이고, 정책연구실 산하에 5부인 연구기획부, 자치문화연구부, 혁신경제연구부, 환경도시연구부, 기반산업연구부가 있다. 9센터는 본원산하인 제주데이터센터,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2개 센터와 협약센터인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제주학연구센터의 7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제주 한방의료, 한약의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연구개발팀, 기획운영팀의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한 제주농업, 빛나는 제주농촌'을 비전으로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을 목표로 한다. 전략과제로 미래농업 대응, 기후변화 대응, 종자주권 확립, 농업·농촌 활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은 2국 5과 5센터 1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국은 연구개발국과 기술지원국이다. 연구개발국 산하에 미래농업육성과, 친환경연구과, 과수연구과, 원예작물과, 농산물원종장, 농업디지털센터가 있고, 기술지원국 산하에 기술지원조정과와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의 4개 지역센터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1999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개소한 이후 2009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해양수산 연구·종자생산·기술보급 등을 전담하는 해양수산 전문연구기관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4과 1센터로, 해양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 수산물안전과, 광어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 기업지원기관(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지방공사, 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지원기관은 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영상문화진흥원,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회원사조직인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이 있다.

〈표 16-8〉 지역혁신기관 현황 : 기업지원기관(도 출연, 지방공사, 협회)

기관명	지역	주요기능	설립년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시 이도이동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진흥 ·지역혁신거점기관 역할 수행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동	201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이도이동	·기업성장 및 자생력 지원 ·제주상품 국·내외 판로 개척 등	1998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시 일도이동	·제주로케이션 유치, 제주기반 영상 제작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등	2018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시 도남동	·풍력발전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등	2012
제주관광공사	제주시 연동	·제주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 상품·자원 개발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등	2008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도남동	·지역상공업 관련 조사연구 및 건의사업 추진 ·기업지원, 기업정보화사업, 국제협력사업 추진 ·제주지식재산센터, 인적자원개발위 운영 등	193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시 영평동	·회원사 권익 증진사업, 홍보 마케팅 사업 ·관광 개발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1962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2단, 2본부, 1실, 4센터,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2단은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으로 산업정책기획과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2본부는 청정바이오사업본부와 미래융합사업본부이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산하에 바이오센터, 용암해수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있으며, 미래융합사업본부 산하에 에너지센터 미래산업센터가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실은 경영지원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자금, 수출, 판로, 인증,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1본부, 2처, 2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3본부는 경제혁신본부, 통상물류지원처, 기업육성처이고, 2센터는 유통혁신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자생력을 갖춘 K-콘텐츠 산업의 MECCA 조성'을 비전으로, 제주기반 영상 콘텐츠 발굴과 지역경제 생산 유발, 미래도약을 위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융복합 인재양성 및 도민 역량강화,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 기관 위상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5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5팀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영상산업팀, 문화산업팀, 교육운영팀이고, 1센터는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사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풍력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 달성과 풍력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2처,

1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처는 그린에너지 발전사업처와 미래에너지 사업처이고, 그린에너지 발전사업처 산하에 관리기관운영부, 청정에너지개발부, 발전운영사업부가 있다. 1실은 혁신경영실이고, 1센터는 청정에너지연구센터이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을 미션으로, 제주관광통합마케팅, 현장중심 고객만족 경영, 안정적 재무구조 구축, 경영전략의 고도화를 4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직은 4실로 구성되어 있다. 4실은 관광마케팅실, 관광산업실, 면세사업실, 경영기획실이고, 관광산업실 산하에 지역관광팀, 관광산업팀, 연구조사팀이 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도모, 상공인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사연구 및 건의사업, 기업지원사업, 기업정보화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제주지식센터 운영, 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고용, 산재보험 사무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의원부와 사무국으로 나뉘며, 의원부에는 관광, 지역개발, 국제협력, 교통물류, 조세금융, 첨단과학기술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 산하에는 총무기획팀, 회원지원팀, 사업팀, 통상진흥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주관광산업의 성장 발전과 회원업체의 사업발전 및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체 발전 지원 및 조정, 제주관광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관광통계 작성, 여행공제회 업무, 관광안내소 및 국내홍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4실, 1센터와 19개 업종별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4실은 경영전략실, 기획조사실, 혁신소통실, 마케팅

실이다. 1센터는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이다. 19개 업종별분과위원회는 여행업, 호텔업, 숙박업, 전세버스, 렌터카, 골프장, 면세점 등 관광산업의 각 분야를 포함된다.

(3) 대학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은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가 있다.

제주대학교에는 2023년말 기준 115개의 국책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세부현황은 총장직할기관 1개소, 연구소 19개소, 연구센터 21개소, 기타연구시설 21개소,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54개소이다. 주요 연구조직으로는 LINC사업단,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전기에너지연구센터, 화장품과학연구센터, 휴먼인터페이스미디어센터, 제주수자원연구단, 제주부동산 연구센터, 제주천연물의약물 연구센터,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연구단, 관광과 경영 경제연구소, 스마트팜 융복합혁신센터,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 풍력사업단, 에너지신산업연구소, 항공모빌리티융합연구센터,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등이 있으며 전(全) 분야 대한 다양한 연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표 16-9〉 지역혁신기관 현황 : 제주대학교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총장직할	LINC사업단	2012.08.08	LINC사업 운영
연구소(19)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2001.09.01	공학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01.09.01	관광·경제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교육과학연구소	2001.09.01	교육(인문사회, 자연과학, 영재 및 특수목적)
	기초과학연구소	1986.04.07	자연과학
	김창인실천철학연구소	2013.07.09	실천철학
	법과정책연구원	2007.11.01	사회과학, 지역사회, 정책
	사회과학연구소	2008.12.03	사회과학
	세계환경과섬연구소	2010.06.29	세계환경
	수의과학연구소	2009.03.01	수의과학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3.05.29	아열대·생명과학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2008.03.01	농학·생명과학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2011.07.14	응용과학
	의과학연구소	2003.01.14	의과학
	인문과학연구소	2008.12.03	인문과학
	초등교육연구소	2001.08.31	초등교육의 이론·실제
	친환경농업연구소	2013.05.01	친환경농업
	탐라문화연구원	1967.03.03	인문학
	평화연구소	2001.09.01	국제
	해양과학연구소	2013.11.15	수·해양 및 환경관련
연구센터(21)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996.11.15	감귤·화훼
	공과대학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	2005.11.30	청정에너지
	도박중독연구센터	2013.05.27	도박 중독 상담 및 교육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2009.06.30	마필산업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	2010.08.16	스마트그리드 산업 기술개발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2010.10.08	제주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콘텐츠 개발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2012.08.08	아시아공동체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센터	2005.02.24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 소재개발
	의료융합기술센터	2004.03.01	기반기술연구, 동물실험, 임상실험
	의학전문대학원부설환경보건센터	2010.01.07	아토피 피부염, 알르레기 비염
	이어도연구센터	2007.03.01	해양자원 및 정책
	인쇄전자기술연구센터	2010.12.31	인쇄전자기술이론연구
	전기에너지연구센터	2008.08.19	전력IT,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전기차사업단	2013.07.09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기술연구
	제주수자원연구단	2011.03.29	제주도 수자원/방재/수리/수문
	조형연구센터	2003.11.27	조형물
	줄기세포연구센터	2006.11.28	특수동물종보존, 줄기세포연구
	태풍연구센터	2014.11.12	태풍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토착미생물연구센터	2013.12.31	제주 황칠나무의 항산화 기전 연구 및 발효 표준화 연구 등
	화장품과학연구센터	2008.10.01	화장품바이오산업소재개발, 마케팅
	휴먼인터페이스미디어센터	2010.12.14	증강현실기술 및 콘텐츠 개발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54)	ICT기반정책연구센터	2020.02.13	ICT 기반 의사결정 기법 연구
	MICE&복합리조트연구센터	2022.05.04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건강기능수산식품연구센터	2017.05.19	수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관련 기능성 검증 및 개별인정 획득 수행
	건축산업기술지원센터	2015.12.23	건축산업기술 및 교육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2019.08.27	고래·해양생물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 보존관리 등
	공동자원과 지속가능한 사회연구센터	2017.06.28	제주 및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공동자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2012.06.29	과학기술
	관광디지털콘텐츠육성사업단	2016.05.30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관광서비스개발과지역경제주체간갈등해결을위한데이터사이언스교육연구단	2020.12.08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BK21 FOUR) 지원사업
	기후변화대응센터	2022.05.04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생태계 반응 및 탄소 저감 연구
	미래전략수산생명산업교육연구단	2020.12.08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BK21 FOUR) 지원사업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교육사업단	2014.02.27	영농정착교육사업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	2018.11.28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오렌지스쿨	2014.12.24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뷰티융합산업아카데미센터	2018.07.03	광역경제권산업육성사업 (뷰티향장분야)
	비임상연구센터	2014.12.24	생명소재 및 생물산업
	빅데이터기반해양융합전문인력양성사업단	2020.12.08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BK21 FOUR) 지원사업
	빅데이터연구센터	2018.10.22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양성 등
	사이버보안인재교육원	2018.07.03	사이버보안인력양성사업 외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2015.12.23	BT, 식품분석, 수질검사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생물자원컴퓨팅융합연구센터	2021.05.03	생물자원 컴퓨팅 원천 기술 연구
	소프트웨어인증센터	2018.02.19	소프트웨어 인증사업 및 관련 기초·응용 교육
	수산백신연구센터	2014.02.27	수산용 백신 개발분야
	수산종자디지털육종연구센터	2022.10.17	수산생물 유전체 기반 육종 연구
	스마트관광연구지원센터	2022.05.04	스마트관광분야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자문사업
	스마트팜융복합혁신센터	2019.08.27	스마트팜 융복합 원천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양성 등
	실용화중개연구센터	2019.05.03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기초의과학 연구 등
	아열대생물자원을활용한바이오헬스/혁신신약교육연구단	2020.12.08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BK21 FOUR) 지원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7.02.17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영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	2021.10.05	에너지 생산, 저장 및 수요관리 원천기술 연구
	제주국제동물연구센터	2017.05.19	제주 고유(재래) 가축자원의 개량, 산업화 연구
	제주에너지신산업고도화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2020.12.08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BK21 FOUR) 지원사업
	제주부동산연구센터	2014.12.24	제주부동산 연구 및 정책개발
	제주식품산업지원센터	2021.10.05	식품가공 기술 개발 및 제주산 원물을 활용한 식품가공품·기능성소재 개발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제주씨그랜트센터	2018.05.30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제주씨그랜터사업) 외
	제주양식어류번식육종평가센터	2011.12.26	제주 양식어류
	제주 유산균연구센터	2022.02.10	제주지역 유산균 균주 발굴 및 효능 연구
	제주인사이드사업단	2023.02.08	제주유래 천연 소재의 기능성 확인 및 사업화 지원
	제주잔류농약분석센터	2019.01.16	제주농식품안전성분석센터 구축사업 등
	제주천연물의약연구센터	2017.01.26	제주천연물 신약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제주특별자치도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3.06.19	제주도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제주흑우연구센터	2016.03.29	농림축산식품
	주민행복드림Job사업단	2015.08.07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014.12.24	대학과 도내외 중소기업체의 협력강화
	지능소프트웨어교육센터	2018.05.30	코딩교육운영용역사업 외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기술지원단	2019.08.27	공공분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 역량강화 교육 등
	창업교육센터	2012.04.16	대학의 창업교육 총괄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2007.07.16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사업
	코칭교육및서비스지원사업단	2015.04.6	코칭교육
	풍력사업단	2012.12.31	풍력산업
	항공모빌리티융합연구센터	2022.12.23	미래항공 모빌리티 운용방안 제공, 항공교통관리방안 및 버티포트 최적입지 설계
	해양에너지연구센터	2016.02.22	해양에너지
	향기생명공학센터	2017.08.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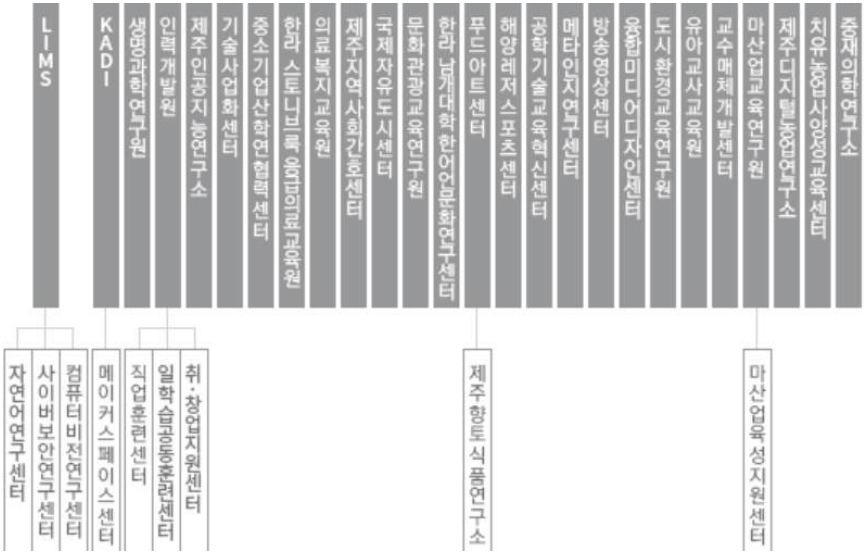
구분	연구소(센터)명	설립일자	연구지원분야
기타 연구 지원 시설 (21)	GTU사업단	2013.10.04	글로벌교원양성
	WISET제주지역센터	2003.05.0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공학교육혁신센터	2005.11.29	-
	과학영재교육원	2001.11.08	과학문화 확산, 인재양성
	관광융합소프트웨어인력양성사업단	2014.02.27	-
	교·사대연계를통한SW기반창의융합형교원양성사업단	2016.10.31	-
	국어문화원	2007.02.28	-
	국제개발협력센터	2016.11.23	-
	그린캠퍼스사업단	2013.12.11	-
	리걸클리닉센터	2011.02.23	-
	말6차산업창의인재양성사업단	2016.10.31	-
	생물다양성기반천연화장품산업인재양성사업단	2014.10.02	-
	소리어울림멘토링센터	2010.08.09	사회복지
	스마트그리드와청정에너지융복합산업인력양성사업단	2014.10.02	-
	식품영양관리지원사업단	2014.02.04	-
	실험동물센터	2010.08.09	-
	아열대농생명융복합산업인재양성사업단	2014.10.02	-
	제주국제자유도시중국비지니스무역전문인력양성특성화사업단	2016.10.31	-
	제주문화콘텐츠창의인재양성사업단	2014.10.02	-
	체육진흥센터	2001.08.31	-
	해양스포츠센터	2009.12.01	-

자료 : 제주대학교 산합협력단(iucf.jejunu.ac.kr) 주요국책사업단 현황

제주한라대학교에는 35개소의 연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연구조직으로는 LIMS, 인력개발원, 제주인공지능연구소, 생명과학연구원, 국제자유도시센터, 방송영상센터, 마산업교육연구원, 제주디지털농업연구원 등이 있다.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혁신지원사업단, LINC3.0사업단, 지방전문대활성화사업단,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단의 5개 사업단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6-1〉 지역혁신기관현황 : 한라대학교



자료 : 제주한라대학교(www.chu.ac.kr) 학교소개-산학협력단

(4) 국가연구기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유치되어 있는 주요 국가연구기관은 8곳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파트를 담당하거나 과학기술사업을 지원한다.

〈표 16-10〉 제주특별자치도내 국가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유치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시 이도이동	·지역창업자 발굴·육성,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지역 혁신 기반(네트워크, 지역재생스타트업 등) 조성 ·정보교류,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등	20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제주시 구좌읍	·육·해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원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시험평가, 글로벌 인력교류 등	2011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환경센터	제주시 한림읍	·우주전파의 관측·예보·경보 및 장비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자기·전리층·태양흑점의 관측,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등	20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제주기술실용화본부	제주시 아라일도(제주대)	·제주지역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제주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3D프린팅-인쇄전자 기술 연구 등	2015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시 서호동	·기상 R&D 역량강화 ·기상연구 기술개발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도약기반 강화 등	20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제주시 구좌읍	·해양과학기술 기초·응용과학기술연구 ·해양자원 개발, 환경보전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 공학과 해양안전 관련기술 개발 등	2015

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유치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 NIA글로벌센터	서귀포시 서호동	·글로벌 ICT협력 강화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 구축 ·ICT·전자정부 글로벌 교육 확대 등	2015
국세청주류면허 지원센터	서귀포시 서호동	·국내생산 주류 분석, 주류면허·세원관리 지원 ·국산주류의 주질 향상, 주류제조기술자의 주질관리 능력 제고 등	2015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제주시 영평동	·배터리 관리시스템 및 배터리 PACK 제조 기술 연구개발 ·고출력 박형 모터 설계 기술 등 모터기술개발 ·전력전자기술, 통합기술개발 등	201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9) 재인용 및 재구성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직접 투자 강화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하는 한편,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혁신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미래부의 설립허가를 받고, 제주지역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센터장 산하에 전략경영기획팀, 창업육성투자팀, 지역기반창업팀이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지역특성화 에너지 자립기술 개발'을 위하여 육해상 융·복합원천기술개발,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 및 시험평가, 글로벌 인력교류를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풍력연구팀, 해양융복합연구팀, 전력시스템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환경센터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예보 모델링 기술 개발,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고도화, 관측기술 개발, 우주전파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

다. 2011년에 국립전파연구원 산하의 우주전파센터로 제주지역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운영지원팀, 기획협력팀, 예보관측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기술실용화본부는 생산기술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조산업 가치고도화의 목적과 전문성 네트워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제주지역의 산업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에 설립되었고, 조직은 청정에너지전환그룹과 제주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글로벌 기상·기후 전문 연구기관으로, 예보·관측 기술지원 110% 달성, 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신규 과학정보 12건 추가개발, AI예보 적용률 75% 도달, 연구논문 질적 수준 120%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1978년 기상청 소속으로 설립되었고, 2014년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조직은 4부 3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4부는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이고, 3과는 기획운영과, 지구대기감시연구과, 인공지능기상연구과이며, 1팀은 기후변화 예측연구팀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는 기후·해양환경 변화 연구의 전초기지로, 해양 바이오 산업 연구,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연구, 제주 현안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제주바이오연구센터와 열대·아열대연구센터, 운영관리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 NIA글로벌센터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와 제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글로벌협력

본부가 제주로 이전하였다. 조직은 글로벌협력본부 산하에 글로벌디지털전환팀, D-GOV협력팀, 글로벌 아카데미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 출고 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주류면허 및 세원관리업무를 지원하고, 국산주류의 주질향상을 위해 주류제고기술 및 주질관리 분석실습 등을 지도·교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09년 탁지부 소속 양조시험소로 설립되었고, 2015년에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조직은 분석감정과, 기술지원과, 세원관리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핵심요소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한다. 2017년 KASIT 문지캠퍼스에 설립되었고, 2018년에 JDC 제주혁신성장센터 내에 실용화 본부와 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하였다. 조직은 연구개발본부와 실용화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실용화본부 산하에 기술실증팀과 기업보육팀이 있다.

2. 신재생에너지

가. 발전설비 보급 현황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은, 2023년 기준, 태양광 1,698기 559.1MW, 풍력 41개소 417.8MW, 바이오 4기 4.5MW, 수력 6기 1.2MW, 해양 1기 0.5MW 규모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이 56.9%를 차지하고, 풍력이 42.5%를 차지하는데, 두 발전원의 설비량을 합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의 99%를 차지한다.

〈표 16-11〉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비중앙급전)

연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합계
2023년	559	418	1.2	0.5	4.5	983.2
2022년	580	295	1.2	0.5	6.9	883.6
2021년	525	295	0.8	0.5	7.1	828.4
2020년	405	295	0.8	0.5	7.1	708.4
2019년	284	291	0.5	0.5	7.1	583.1
2018년	180	269	0.5	-	7.1	456.6
2017년	128	274	0.5	-	7.1	409.6
2016년	101	272	0.5	-	6.9	380.4
2015년	85	221	0.5	-	4.0	310.5
2014년	58	126	2.0	-	1.1	187.1

자료 : 전력정보통계시스템(EPSIS)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kW 미만이 836기 74.5MW, 100kW 이상 500kW 미만이 564기 194.7MW, 500kW 이상 1MW 미만이 265기 222.7MW, 1MW 이상이 33기 62.2MW의 분포를 보인다.

〈표 16-12〉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

(2023년말 기준)

연도	설비수		설비용량	
	발전기 수(호)	상대비율(%)	용량(MW)	상대비율(%)
100kW 미만	836	49.2	74.5	13.3
100kW 이상 500kW 미만	564	33.2	194.7	34.8
500kW 이상 1MW 미만	265	15.6	227.7	40.7
1MW 이상	33	1.9	62.2	11.1
합계	1,698		559.1	

자료 : 전력정보통계시스템(EPSIS)

나. 발전량 현황

2023년 연료원별 발전량(비율)은 LNG 1,427GWh(30.0%), 풍력 515GWh(10.8%), 태양광 662GWh(13.9%), 유류 372GWh(7.8%)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한국중부발전이 제주발전본부 기력발전소에서 사용하던 연료를 화석연료인 벙커C유에서 바이오중유로 전면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바이오중유 발전설비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었났다. 신재생에너지의 그 외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해양에너지가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폐기물에너지가 2020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에서 기타에너지로 분류됨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기타 발전량이 증가하였다.[1)]

〈표 16-13〉 제주 연료원별 발전량

(단위 : GWh)

구분	유류	LNG	신재생				기타	합계
			태양광	풍력	바이오	그 외		
2023년	372	1,427	662	515	1,692	3	85	4,755
2022년	522	1,340	680	572	1,614	3	85	4,815
2021년	330	1,009	588	528	1,414	3	96	3,968

자료 : 한국전력통계(KEPCO 지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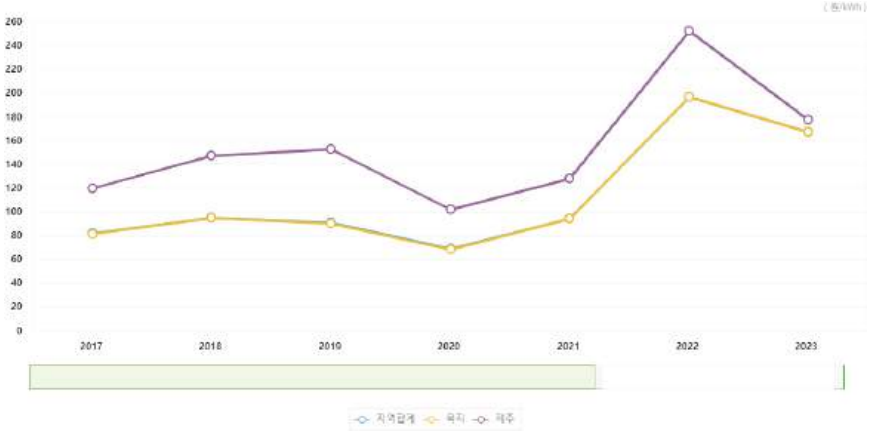
다. 신재생에너지 가격

신재생에너지의 제주SMP(계통한계가격)는 2016년 91.77원/kWh에서 시작하여, 2019년 152.78원/kWh까지 상승한 후에, 2020년에는

1) 기타에는 증류탑폐열, 여열회수, 폐열활용, 폐기물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101.54원/kWh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 2022년 252.21원/kWh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23년 176.94원/kWh로 감소하였다. 2023년 기준 제주SMP는 176.94원/kWh로 육지SMP 167.00원/kWh보다 약 9.94원 높게 나타났다. 제주SMP와 육지SMP의 차이는 2017년부터 격차가 벌어져, 2019년에 62.69원/kWh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에는 2022년에 56.17원/kWh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나, 2023년에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6-2> 육지 및 제주 전략시장가격(SMP) 추세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2023년도 전력시장 통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2020년에 평균이 42,183원/kWh였으나, 2023년 75,625원/kWh로 연평균 24.7%씩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9월에는 2020년 이래 최고

수치인 80,732원/kWh을 기록하였다.

<표 16-14>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현황

(단위 : 원/kWh,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감률(%)
1월	43,554	39,031	46,211	61,081	△13.4
2월	41,061	40,195	56,036	62,514	△16.3
3월	42,490	36,017	47,520	67,866	△19.8
4월	44,324	33,843	52,852	72,130	△23.0
5월	44,460	31,526	52,971	72,131	△25.0
6월	44,264	31,584	54,492	72,938	△25.9
7월	44,545	29,542	55,606	73,218	△28.7
8월	46,235	29,913	62,161	75,300	△31.2
9월	45,659	31,512	63,293	80,732	△32.5
10월	40,669	35,215	63,614	80,424	△31.2
11월	34,121	38,846	63,801	78,900	△33.9
12월	34,814	38,779	64,292	75,625	△31.6
평균	42,183	34,667	56,904	72,738	△24.7

자료 : 전력정보통계시스템(EPSIS)

제2절 정책지원 현황

1. 과학기술진흥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점전략분야는 '디지털트윈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청정자원의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지능형MICE산업 활성화'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16-15〉 제주특별자치도 중점전략분야

(단위 : 억 원)

중점관리사업	주요사업	예산액
디지털트윈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2021년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	120.0
	디지털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42.5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41.3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31.1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21.0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6.3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3.9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9.8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9.2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8.0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7.7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6.7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6.5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0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0
	8MW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58.5

중점관리사업	주요사업	예산액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35.8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35.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 구축	26.5
	제주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	2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19.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8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12.0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5.1
	대기측정망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5.0
청정자원의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207.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5.8
	제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61.6
	제주연구원 출연금	42.3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0.8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	35.5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32.0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	30.5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 사업	28.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6.4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26.4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21.3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	21.3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0.6
	화장품 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15.2
디지털 혁신 지능형MICE 산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1.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5.7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4.0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운영	3.0
	국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2.9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2.0
	제주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0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2.0

주 : 천만 원 미만 절사

자료 : 2023년 지방과학기술연감(KISTEP, 2023) 재인용 및 재구성

2. 신재생에너지

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선도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수소 생산, 보급, 활용, 수소 산업화·생태계 조성의 수소경제 전(全)과정에 대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2022.9.29.)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수소 생산에서는 2023년까지 3M급 생산시설을 2026년까지 12.5MW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거점별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그린수소 보급에서는 그린수소 1호 충전소(함덕)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시내·외 버스 및 청소차의 운용을 고려한 충전소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거점별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그린수소 활용에서는 수소차를 산업·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수소청소차 200대를 보급하고, 수소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1차 산업분야의 농기계, 선박 등도 수소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소항만의 조성과 그린수소의 수출·입을 통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그린수소 수소 산업화·생태계 조성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20개를 유치 및 육성하고 양질의 연관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마련을 위해 제주 수소조례를 제정하고, 그린수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별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그린수소 전용 전력요금을 신설한다.

〈그림 16-3〉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비전과 전략

비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목표

	도입(~'25년)	확산(~'30년)	선도(~'50년)
생산	초기 생태계 구축 (15MW 생산단지)	거점별 생산지 구축	산업인프라 연계한 생산단지 구축
보급	충전소 5개소 고정식 4, 이동식 1	도내 주요거점 충전소 구축 확대	미래 에너지스테이션 주유소·LPG충전소 복합 전환
활용	시내외버스, 청소차 도입	버스(300대), 청소차(200대) 트램·선박·농기계 등 활용영역 확장	산업 및 생활 전 분야 수소 전환

추진 전략

생산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국가 청정수소 자급목표 기여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보급

안정적·경제적 그린수소 유통·보급체계 구축
- 활용처를 고려한 충전소 구축 및 주유소·LPG충전소 전환

활용

공공영역 안정적 활용처 확보 후 산업·생활 등 확장
- (모빌리티) 시내외버스, 청소차, 트램, 선박 등 수소기반 전환
- (산업·생활) 산업 인프라, 발전소, 가정 냉난방 등 수소기반 전환
- (수·출입) 수소 항만을 통한 수출입 및 국가 수소경제 허브역할 수행

산업화

일자리창출 관련 기업 유치·육성 등 신성장 동력화
- (일자리) 단계별 운영·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사양산업 전환 병행
- (기 업) 그린수소 밸류체인 내 기업 유치, 기술 이전 등 지역안착
- (제 도) 제주 수소조례, 신재생에너지 연계 요금체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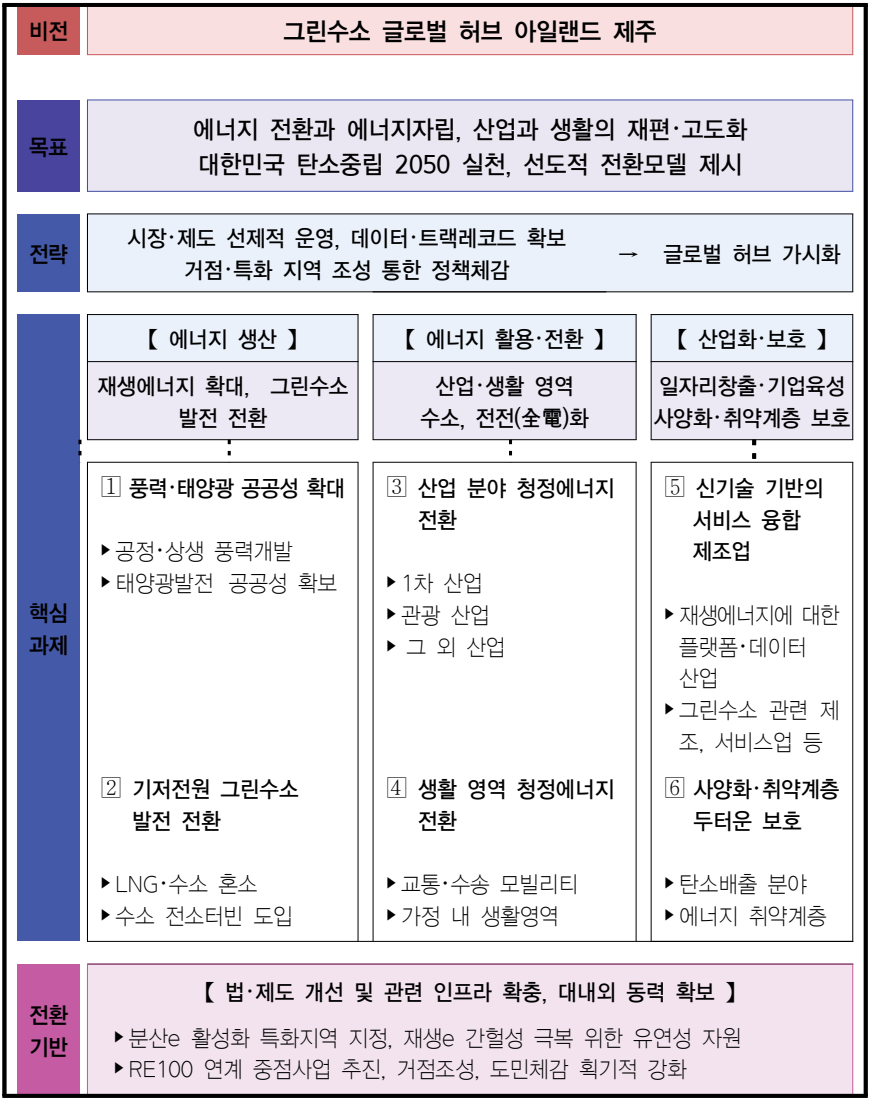
도민 이해와 수용성 확보 통한 지역주도 수소경제 구축
- 수소경제 당위성·안전성 홍보, 광범위한 분야 활용으로 확대

자료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22.9.29.)

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력 에너지의 생산, 공급, 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정에너지를 산업과 생활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2023.1.12.)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기저전원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둘째, 에너지 활용·전환에서 청정에너지를 1차산업, 관광, 교통·수송 분야 등 산업·생활의 전(全)영역으로 확대하여 전전화(全電化)에 앞장선다. 셋째, 산업화·보호에서 청정에너지를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 육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을 확충한다.

〈그림 16-4〉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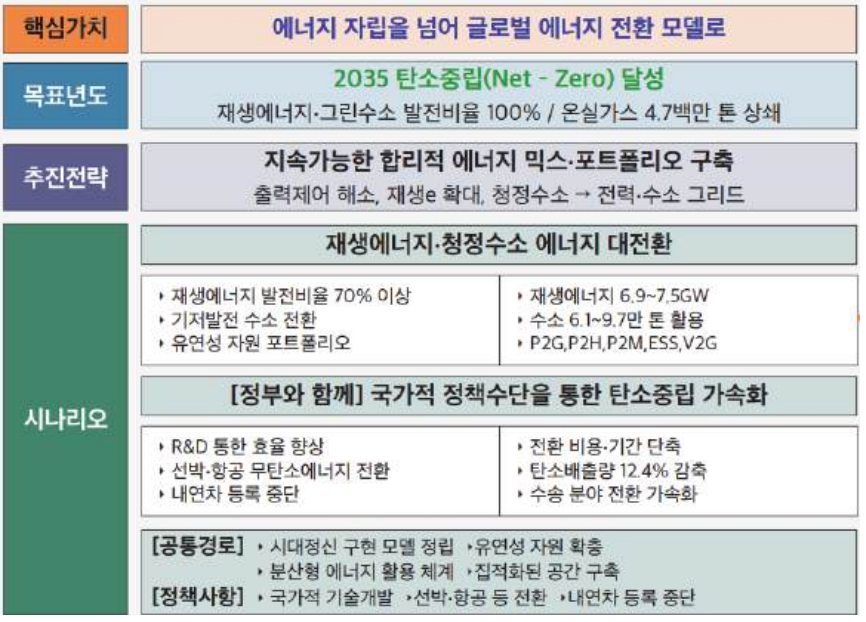


자료 :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2023.1.12.)

다.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2024.5.1.)하였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시나리오는 CFI 2030의 문제점인 목표 대비 실적 미달, 분야 협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 속에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하여 제주에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에너지 자립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모델로'를 핵심가치로 하여, 출력제어 해소,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 생산을 통한 전력·수소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하고, 수소경제를 도입하여 CFI 2030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소경제 도입을 통해 협소한 산업분야를 확대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림 16-5〉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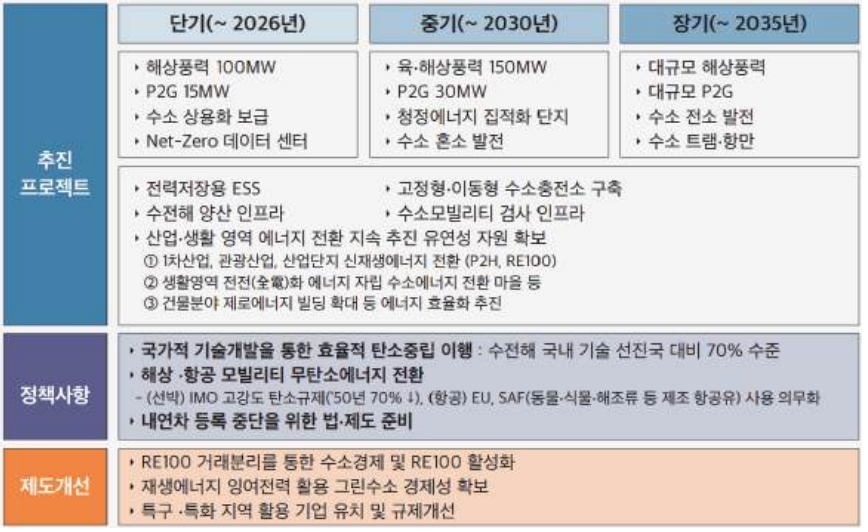


자료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제주특별자치도, 2024.5.1.)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단기(~2026년), 중기(~2030년), 장기(~2035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추진프로젝트를 설정하였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는 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GW 이상 보급, ②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 이상 달성, ③ 그린수소 연 6만톤 이상 생산, ④ 기저발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로 전환, ⑤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474만톤 상쇄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량은 풍력 5,616~6,018MW, 태양광 1,388~1,488MW로 총 7,004~7,506MW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를 달성하는 것이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시나리오인 '[정부와 함께 국가적 정책수단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포함하

였다. 해당 시나리오는 국가 R&D를 통한 수전해 효율 향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단가 인하를 통해 효율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박·항공 분야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국제사회 규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내연차 범위 설정, 사양화 산업 전환 추진 등을 통해 내연차 등록을 중단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를 가속화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16-6〉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안)의 추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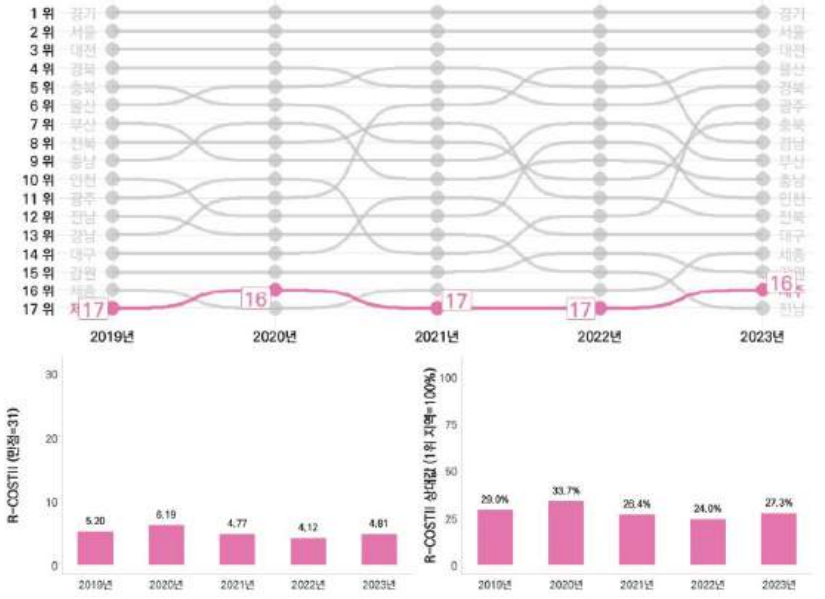
자료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제주특별자치도, 2024.5.1.)

제3절 성과

1. 과학기술진흥

2023년 기준, 제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나타났다.[2] 제주보다 순위가 낮은 지자체는 전남이다. 제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는 4.81점이다.

〈그림 16-7〉 제주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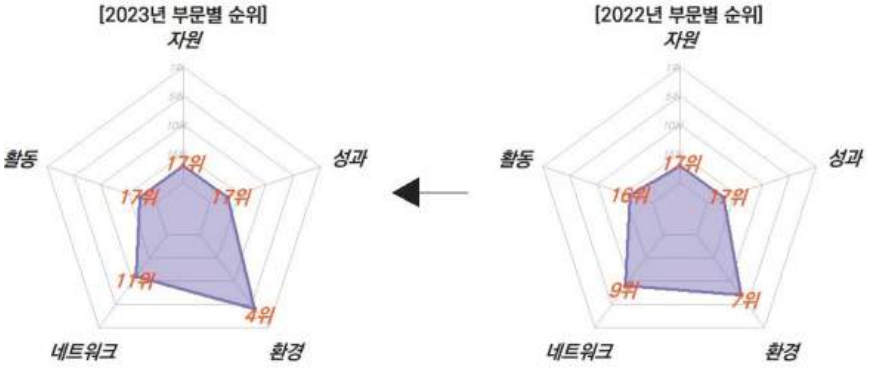


자료 : 2023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KISTEP, 2023)

2)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는 지역혁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평가모형으로, 국가과학기술역량지수를 벤치마킹하여 광역시도에 적용한 모델이다.

2023년 기준, 제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환경 부문이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부문이 11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자원, 활동, 성과)은 모두 전국 최하인 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역량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산·학·연 협력, 경제적 성과,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활동, 지식 창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8〉 제주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부문별 현황 비교



자료 : 2023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KISTEP, 2023)

세부지표에서 제주가 상위 3위권인 지표는 기업 연구비 중 정부재원 비중(1위, 2021년 기준),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중 기업간 공동/위탁연구 투자 비중(1위, 2022년 기준), 인력지원 활용 비중(2위, 2020년~2021년 기준), 해외 협력 과학기술 논문 비중(2위, 2022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

3) 세부지표는 2023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29페이지 참고

2. 신재생에너지

가. CFI 2030 개요[4)]

□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2017년 설비용량 605MW, 발전량 1,488GWh, 전력 수요 대비발전비중 30%
2020년 설비용량 1,137MW, 발전량 2,522GWh, 전력 수요 대비발전비중 44%
2022년 설비용량 1,821MW, 발전량 3,720GWh, 전력 수요 대비발전비중 59%
2025년 설비용량 2,490MW, 발전량 5,055GWh, 전력 수요 대비발전비중 67%
2030년 설비용량 4,085MW, 발전량 9,268GWh, 전력 수요 대비발전비중 106%

□ 37.7만대의 친환경 전기차 보급

2017년 전기차 대수 9,206대, 전기차 비중 2.5%, 충전기 기수 8,284기
2020년 전기차 대수 39,951대, 전기차 비중 10%, 충전기 기수 22,419기
2022년 전기차 대수 92,726대, 전기차 비중 23%, 충전기 기수 24,603기
2025년 전기차 대수 227,524대, 전기차 비중 52%, 충전기 기수 59,167기
2030년 전기차 대수 377,217대, 전기차 비중 75%, 충전기 기수 75,513기

□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TOE/백만원 실현

2017년 최종에너지소비 1,510천TOE, 전력수요 5,014GWh, 에너지원단위 0.096TOE/백만원
2020년 최종에너지소비 1,594천TOE, 전력수요 5,694GWh, 에너지원단위 0.088TOE/백만원
2022년 최종에너지소비 1,621천TOE, 전력수요 6,290GWh, 에너지원단위 0.085TOE/백만원
2025년 최종에너지소비 1,603천TOE, 전력수요 7,600GWh, 에너지원단위 0.078TOE/백만원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1,581천TOE, 전력수요 8,723GWh, 에너지원단위 0.071TOE/백만원

4)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 CFI 2030 계획 수정보완 용역(제주특별자치도, 2019)을 발췌하여 개조식으로 재작성함

□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2017년 도민 수익 사업모델 8개 2020년 생산유발 5,838억원, 취업유발 4,600명, 도민 수익 사업모델 12개 2022년 생산유발 8,688억원, 취업유발 22,000명, 도민 수익 사업모델 18개 2025년 생산유발 7,534억원, 취업유발 35,000명, 도민 수익 사업모델 21개 2030년 생산유발 10,341억원, 취업유발 74,000명, 도민 수익 사업모델 21개

나. CFI 2030 추진성과

CFI 2030 추진을 통해 제주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며, 에너지 자립 및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체에너지 육성에 집중하였다. 스마트 그리드와 청정에너지를 결합한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풍부한 풍력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기존 육상 및 고정식 해상풍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전기차 보급 증가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확대했다.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에도 힘써,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 전기차 개조 사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 및 편의 제공,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는 2022년 이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체 발전 설비의 71.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

다. 전기차 보급률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23년 말 기준, 제주의 전기차 보급비율은 전국의 5.3배 수준에 달해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CFI 2030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P4G 에너지 분야 최우수 파트너십을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주의 노력과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

다. CFI 2030 추진 한계

CFI 2030은 제주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프런티어'로 이끌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목표 달성 미흡, 에너지·수송 분야 편중 등 한계가 드러났으며, 특히 출력제한 문제는 에너지 전환 자체를 어렵게 하는 핵심 과제이다. 이에 CFI 2030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은 70%로 준수하지만, 출력제한으로 풍력 발전설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도 목표 달성률이 35.6%에 그쳐, 목표 수정 등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수송 분야에 편중된 전환 영역을 1차 산업, 관광 등 제주 기반 산업과 생활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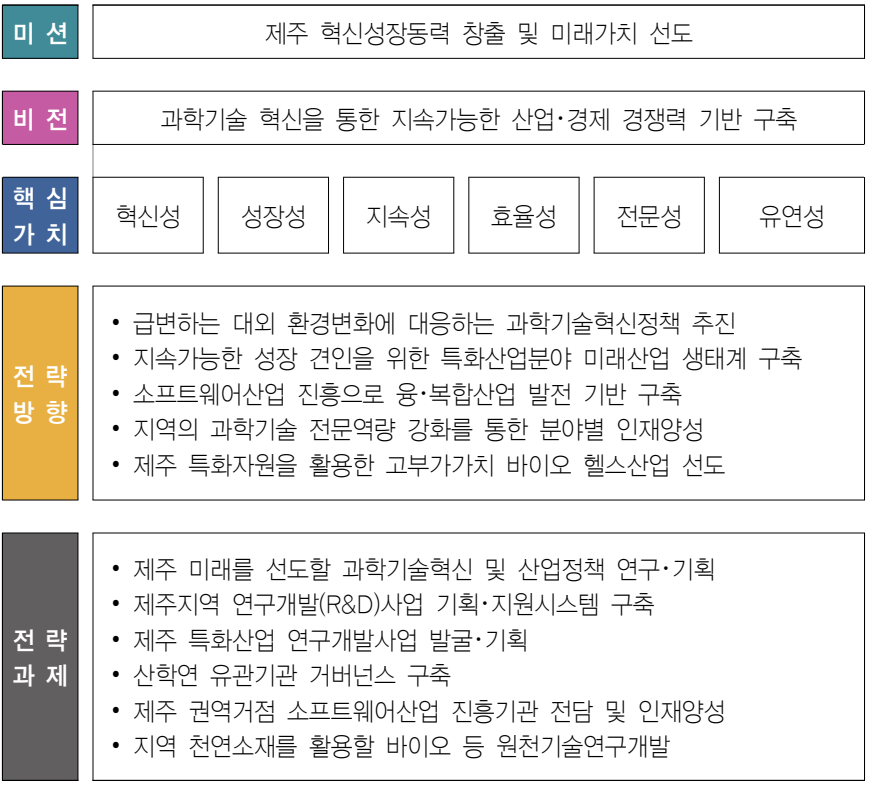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력제한 문제 해결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육성과제 및 제언

1. 과학기술 진흥

제주의 산업구조는 1차와 관광산업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기술기반의 청정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가 열악한 상황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에 지역 R&D 컨트롤 타워인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기술, 산업의 대전환시대 과학기술 혁신, 산업혁신을 통한 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성장동력 창출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견인하는 것이다.

〈그림 16-9〉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



자료 : 강영준 외(제주연구원, 2023)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기획,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연구, R&D 발굴·기획 및 유치, 사업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제주지역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환류 R&D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성장을 도모할 제주 특화산업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담으로 권역거점

진흥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천기술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로 미래의 Bio Health 산업 선도 및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총예산의 1% 이상을 R&D 예산에 투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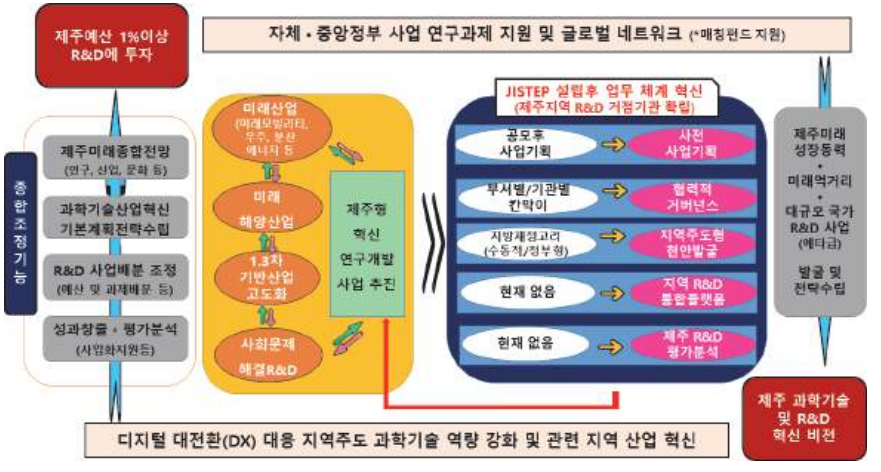
둘째, 제주 미래종합 전망, 과학기술산업혁신 기본계획전략수립, R&D 사업배분 조정, 성과창출·평가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미래산업(미래모빌리티, 우주, 분산에너지 등), 미래 해양산업, 1·3차 기반산업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 R&D 등의 제주형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제주지역 R&D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도내 유관기관 및 산학연 연계 전부처 국가 R&D 사업 및 대규모(예타급) 국가 R&D 사업 등을 공모한다.

〈그림 16-10〉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운영방안



자료 : 강영준 외(제주연구원, 2023)

2. 신재생에너지

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력계통 안정과 정전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출력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초과 공급된 전력의 계통 연결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초기에는 풍력발전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출력제한은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설비,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한 횟수와 규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3회에 불과했던 출력제한이 2023년에는 117회까지 늘어났으며, 제한된 발전량 또한 2023년에는 풍력발전량의 5.09%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공공데이터에서는 태양광 출력제한량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횟수만 공개되고 있으며, 2021년 처음 발생 이후, 2022년 28회, 2023년 64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6-16〉 연도별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현황

구분	풍력발전 출력제한횟수(회)	풍력발전 제한량 (MWh)	풍력발전 발전량 (MWh)	풍력발전 발전량 대비 제한비중(%)
2015년	3	152	352,031	0.04
2016년	6	252	470,324	0.05
2017년	14	1,300	541,225	0.24
2018년	15	1,633	534,879	0.31

구분	풍력발전 출력제한횟수(회)	풍력발전 제한량 (MWh)	풍력발전 발전량 (MWh)	풍력발전 발전량 대비 제한비중(%)
2019년	46	9,223	548,385	1.68
2020년	77	19,449	576,396	3.37
2021년	64	12,016	527,766	2.28
2022년	104	25,634	572,340	4.48
2023년	117	26,197	515,063	5.09

자료 : 출력제한횟수, 풍력발전제한량 : 한국전력거래소 시간별 제주 태양광 풍력 제한량 및 제한횟수(공공데이터포털, https://data.go.kr), 풍력발전량: 전력통계(KEPCO, https://home.kepco.co.kr)

제주의 출력제한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율은 2030년에 최소 12.5%에서 최대 3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력안정화 수단이 없는 경우 출력제한율은 2030년에 36.7%까지 급증하며, 제3 연계선과 BESS 도입 시에도 2030년 출력제한율은 1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안정화 수단이 없는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출력제한율을 살펴 본 결과, 2028년까지는 태양광 발전의 출력제한율이 높지만 그 이후로는 풍력 발전의 출력제한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출력제한은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태양광 발전량이 높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풍력 발전 설비 확대에 따라 풍력 발전량이 비교적 높은 겨울철과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인 새벽과 아침을 중심으로 출력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었던 출력제한이 겨울철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6-17〉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전망

(단위 : G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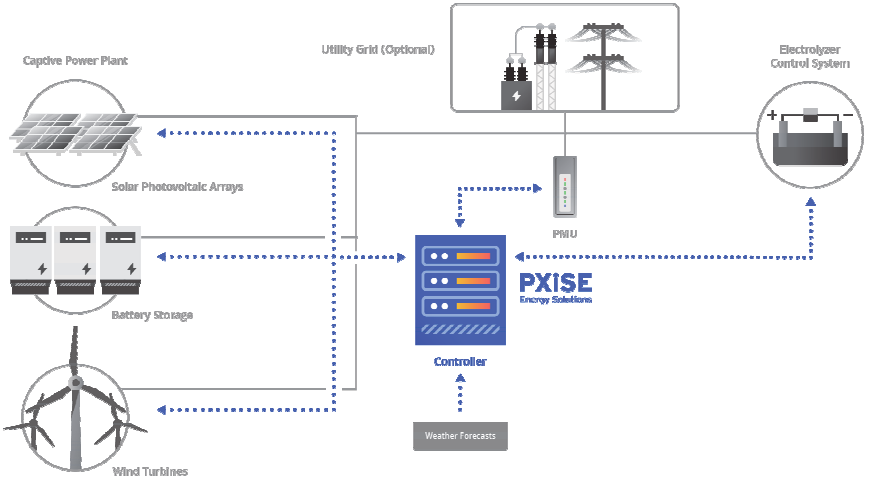
구분	발전량 (GWh)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제한량 (GWh)	제한율 (%)	제한량 (GWh)	제한율 (%)	제한량 (GWh)	제한율 (%)
2024년	2,140	214	10.0	214	10.0	214	10.0
2025년	3,137	431	13.7	71	2.3	32	1.0
2026년	3,505	499	14.2	107	3.1	32	0.9
2027년	3,870	584	15.1	147	3.8	27	0.7
2028년	4,365	1,052	24.1	363	8.3	154	3.5
2029년	4,918	1,579	32.1	650	13.2	400	8.1
2030년	5,482	2,012	36.7	933	17.0	683	12.5

주1 : 시나리오 1 : 계통안정화 수단이 없는 경우
주2 : 시나리오 2 : 제3 연계선(200MW) 2025년부터 운영
주3 : 시나리오 3 : 제3 연계선(200MW) 2025년부터 운영과 에너지저장장치(BESS) 2027년까지 160MW 구축
자료 : 강영준, 윤형석(제주연구원, 2024)

나. 수소경제로의 전환

수소 에너지는 단순히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넘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소는 Captive energy(생산량만큼 소비될 수 있는 에너지)라 불리는 만큼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수소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6-11〉 그린 수소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예시



자료 : PXISE(https://pxise.com/products/green-hydrogen/, 검색일: 2024.08.14.)

에너지 대전환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실정이다. 수소 생산 시설, 충전소, 배관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수전해 기술 고도화,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출력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소시키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록 1 해외 및 국내·제주경제일지

해 외 편

2022년

▣ 1월

◈ 아시아

3 인도네시아,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1.9%
5 태국,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2%
필리핀,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3.6%
7 일본, 11월 가계소비 (전기대비) -0.6%
필리핀,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26.5%
10 말레이시아,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9.4%
11 인도네시아,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8%
필리핀, 11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6.6%
말레이시아,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2%
12 중국국가통계국,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5%(11월 2.3%)
중국국가통계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0.3%(11월 12.9%)
일본, 11월 경상수지 8973억엔 흑자
인도,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5.6%
인도, 11월 산업생산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4%

14 인도,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8.9%

15 중국국가통계국, 12월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15개 및 6개(11월 9개 및 3개)

17 중국인민은행, 12월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9.0%(11월 8.5%)
중국국가통계국,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3%(11월 3.8%),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9%(11월 5.2%)
일본, 11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3.4%
일본, 11월 3차산업활동지수 상승률(전기대비) 0.4%
인도네시아,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5.3%

18 중국해관총서, 12월 수출 증감율(전년동기대비) 전월(21.7%)보다 하락한 20.9% 기록
○ 대미국(5.3% → 21.2%), 대EU(33.5% → 25.6%), 대일본(12.6% → 8.6%), 대아세안(22.3% → 12.0%)

19 중국국가통계국,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7%(11월 3.9%)

20 일본, 12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0.2%

21 일본,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8%
태국,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4.2%
말레이시아,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3.2%

25 중국상무부, 12월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 162.8억 달러 기록(11월 5.6%)

27 필리핀,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7.1%
필리핀, 4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7%

28 베트남, 1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6%

베트남, 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4%
베트남, 1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9%
베트남, 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3%

30 중국국가통계국,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50.1로 기준치(50) 상회(12월 50.3)

31 일본, 1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증가율 -1.0%
일본,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1.0%
태국,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6.8%

◈ 아메리카

4 브라질,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2.1%

6 브라질,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4.4%

7 미 노동통계국, 12월 실업률 3.9%
멕시코 연방 통계청, 12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7.36%
칠레,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7.2%
칠레,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1.7%

11 브라질,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0.1%

12 미 노동통계국, 12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7.0%

14 미 연준, 12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1%
미 인구통계국, 1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2.3%
브라질,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4.2%

19 캐나다 통계청, 12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4.8%

26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

27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6.9%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0.25%로 동결

칠레, 기준금리 5.5%로 1.5%p 인상 (4.0% → 5.5%)

31 멕시코 연방 통계청, 4/4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잠정치) 1.0%

칠레,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7%

칠레,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5.3%

칠레, 12월 실업률 7.2%

◈ 유럽·아프리카

3 터키, 1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36.08%

7 유로,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0%

10 유로, 11월 실업률 7.1%

터키, 11월 실업률 11.2%

12 유로, 1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2.3%

13 터키,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4%

터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6.3%

17 러시아, 11월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62.4%

19 유로, 11월 경상수지 194억유로 흑자

20 유로, 1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5.0%

터키, 기준금리 14.00%로 동결

31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1차 잠정치) 1.2%

국 내 편

2022년

▣ 1월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2022.1.4일 시행)

-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2022.7.5일 시행)

-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2.7.5일 시행)

- 상호금융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 중앙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

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

7 정부, 「'22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총 605억원 지원」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7일(금)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의 '22년도 신규과제 지원계획(188억원 내외)을 공고
- 45개 신규과제에 대한 총 지원예산은 188억원이며, 선정된 과제는 매년 4~5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4년간 지원
- 올해 신규 과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우주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

12 정부,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에 76억지원」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22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을 공고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미국(FDA·EPA)과 유럽(CE) 등 해외인증 획득으로 사업화 성공 및 수출확대에 도움

13 정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간소화, 등록제도개선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부담을 완화
-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라 리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른 기관·개인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정부,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발굴 지원」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년까지 탄소중립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20개 기업을 선정('22년 10개사, '23년 10개사)하고 '25년까지 총 276억원을 지원할 계획
- 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산업공통 분야(보일러 등)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 선정된 20개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최대 1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1.18일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조합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추가

24 정부, 「'22년 지식서비스 R&D, 총 615억원 지원」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 예산 535억원 보다 15%증가한 615억원을 지원
- 14개 신규과제 공고 이후에도 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6

개 과제)에 대한 별도공고 등을 통해 총 86억원을 지원

* (BI연계형)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유망 비즈니스모델(BM) 개발, 1차년도 복수사업자 BM개발(6개월) → 경쟁을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및 R&D지원(2년)

- 기존 65개 계속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529억원을 지원

27 정부, 「'22년도 자동차 분야 R&D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도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등 12개 사업 146개 신규과제에 총 1,189억원을 지원할 예정
-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기술, 환경규제 대응 기술 및 미래차로의 전환기 대응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933억원을 투자하여 117개 과제를 지원
- 자율주행차 분야는 국제 안전규제 대응, 탑승자의 편의 향상과 자율주행 기술 확산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를 위해 256억원을 투자하여 29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

28 금융위, 「'22년 뿌리 전용 R&D에 400억원 지원」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뿌리기업 전용 R&D사업에 전년 대비 47% 증가한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
- 총 20개의 뿌리핵심 공정기술 개발 과제를 신규로 공고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년 8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
- 신규과제는 자동차, 기계·중장비, 전자 등 전방산업의 미래트렌드를 감안하여, 지능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3대 키워드로 도출

▣ 2월

3 정부,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
- '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34.4만명)는 증가하지만 둔화되고, '15～64세'는 감소폭 확대(-320.2만명)됨
- '30년까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74.6만명)는 증가하지만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함
-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8 정부,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산자부는 2.8일(화)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22.4월부터 '24.12월까지 총 사업비 160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 구축,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지원할 계획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IoT기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 정보 공유·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력 향상·성능평가 등을 지원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8.일 시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도 보험모집 또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1일에서 2027년 3월 1일로 5년 연장

9 정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추진

- 정부는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2022년)부터 실증 검증을 추진
-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음
-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
-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

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2.18일 시행)

-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동의 없이도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 규정을 삭제·정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22.2.18.일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

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함
-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

22 정부, 「산업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실증 사업」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R&D)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공고
- '21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지원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
- '22년에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

25 정부, 「미국의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

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의 품목·기술의 대(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대(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
-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
-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실시

28 정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 확정

-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전년 대비 19.2% 증가)을 투자하여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
-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하여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
-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분야의 대형 과제에도 투자하여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
-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Spin-off)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지원서비스(C-one 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 예정

▣ 3월

4 정부, 「물류서비스 실증·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선정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선정
-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
-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
-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신규 조성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시설, 물류망, 특화사업 등을 담은 물류계획을 수립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당 최대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하고, 물류계획을 수립 예정

8 정부, 「'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1,672억원 투자」 공고
- 산자부는 금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67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22년도 신규 과제(4개 유형 총 50개 내외 과제, 482억원)를 공고
- "대학혁신기반센터(UIC)", "산업현장 수요대응형"사업을 신설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①미래기술선도형(계속 + 신규), ②산업현장 수요대응형(신규), ③대학혁신기반센터(신규), ④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계속 + 신규) 등 4개 유형으로 추진

11 정부,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자금조달」 지원
-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
-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임
-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이 가능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

21 정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최대 5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 본 사업은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22년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
-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함

29 정부,「부실시공 근절 방안」발표

-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
- ①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②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③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선정
-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
-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지속

31「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 (2022.4.1.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중소기업팩토링을 위한 중소기업자별 매출채권 매입 한도를 100억원으로 정함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신용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

▣ 4월

1 정부, 「'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스페인·노르웨이(이상에너지기술선도형)·체코(글로벌시장개척형)와의 신규 공동연구과제 3개에 대한 48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확정함
- 국가별로 ①스페인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 중 1개 과제에 3년간 18억원, ②노르웨이 이차전지 분야 1개 과제에 3년간 18억원, ③체코 원자력 분야 1개 과제에 3년간 12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
- '국가별 공동연구과제는 탄소중립 및 국내 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선도기술 확보와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국내 기업·기관의 공동연구 수요 및 상대국측 협력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함

7 정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22년중 수소산업 전(全) 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원(전년대비 약 62%가 증가)을 지원하고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원을 지원할 예정
- '22년 수소 분야 R&D는 생산, 저장, 활용 및 안전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의 수소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 생산 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10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

-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부피 절감이 가능한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수소탱크, 압축기 등 수소설비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활용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모빌리티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주입 연료 전지 원천기술개발 및 연료 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 안전 분야는 해외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진행

1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4.19.일 시행)

-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보험업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검사 등의 진행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추가하였으며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충원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4.19일 시행)

-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제1차 시험·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을 조정
- 금융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직무의 제한 범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수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위원 2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

26 정부,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시행

- 순환경제산업은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 절감 효과도 기대됨
-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제조 분야에서 재자원화, 친환경설계, 제품서비스 등 순환경제 전분야,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까지도 지원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 또는 그 협력체를 대상으로 함
- 신기술 또는 서비스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형을 기획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에 모델 개발과 실증화를 위해 최대 1억원 지원
- 순환 원료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품질·설비·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대 1억원 지원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현지 시장조사, 해외 홍보 전시관 운영, 기업 홍보와 수출 마케팅을 위해 최대 7천만원을 지원
- 또한,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라운지', '순환경제 산업대전' 등 행사와 연계해 순환경제 기업에 다양한 홍보와 사업기회를 제공할 예정

29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년)」 발표

- 산업부는 ①정부 R&D 전략과의 체계적 연계, ②중복성 없는 효율적 투자분야 선정에 중점을 두고 로드맵을 수립함
-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을 통해 6개 분과별 총 52개 신규투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매년 20개 내외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6개 분과로는 수송, 전자전기, 바이오, 기계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디지털 친환경 공정혁신·소재 선정

- 기존에는 매년 2월 다음해 추진할 신규과제를 산·학·연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연차별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만 공모할 계획

정부, 「3월 주택 통계」 발표

- '22.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74호로, 전월(25,254호) 대비 10.8%(2,720호) 증가
- '22.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3,46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2.2월, 43,179건) 대비 23.8% 증가, 전년동월('21.3월, 102,109건) 대비 47.6%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86,450건) 대비 38.2% 감소
- '22.3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50,079건으로 전월(240,881건) 대비 3.8% 증가, 전년동월(219,457건) 대비 14.0% 증가, 5년 평균(188,396건) 대비 32.7% 증가
- 3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11.2만호로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 착공 8.4만호로 34.8% 감소, 분양 6.5만호로 9.6% 감소, 준공 7.9만호로 16.8% 감소

▣ 5월

3 정부,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및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 점검을 위한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

- 화재조사결과를 반영한 배터리, 운영관리 주요개선대책으로 ①충전율 제한에서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의무화 실시 ②배터리실 내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 설치, 안전점검 의무화(1회/월) 등을 실시
- 화재조사 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주요 안전대책으로는 ①배터리 설치·운영관리 미비점보완 ②사용후 배터리,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 추가 ③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④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제시
-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① 고성능 전기저장장치 개발 및 대규모 전력계통 안정화 전기저장장치 설치 ②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③전기안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사람중심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추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22.5.3.일 시행)증」 지원

-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의 등록요건을 감리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 사항의 별도 공시의무 이행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
-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의 외부공개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화

4 금감원, 「'21년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선정 결과」발표

- ’21년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잔액은 12.4조원으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시행(’21.7월) 등으로 전년말(10.3조원) 대비 20.8%(2.1조원) 증가*

* 관계형금융잔액(전년말 대비 증가율, %) : (’19말) 9.0조원(19.0) → (’20말)10.3조원(14.4)→(’21말)12.4조원(20.8)

- 차주별로는 중소법인 대출이 9.7조원(잔액비중,78.2%), 개인사업자 대출이 2.7조원(21.8%)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년말 대비 1.5조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하였고, 중소법인 대출도 0.6조원 증가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잔액비중, 31.3%), 제조업(30.6%), 서비스업(14.4%), 음식숙박업(6.9%) 순으로 최근 도·소매업 비중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1년말에는 제조업 비중을 역전
- ’21년중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공급을 지속

*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잔존)만기 3년 이상의 비중은 10% 미만

6 정부,「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개선과제 13건 확정」 발표

-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을 활성화
-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9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5.9.일 시행)

-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동일인이 은행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금융위원회 보고 사항에서 제외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의 접수, 은행 영업양도·양수의 심사 등을 추가

12 정부,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으로 총 6개 과제에 대해 약 1.5조원을 편성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①채무조정(0.7조원) ②저금리대환(0.6조원) ③맞춤형 자금지원(1,200억원)
-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④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⑤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개선을 위한 ⑥안심전환대출(1,090억원)

27 정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발표

-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총 2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신고량(만건) : ('21.6) 6.8 → ('21.9) 10.4 → ('21.12) 13.4 → ('22.3) 17.3

-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
-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

30 정부, 「한국형 등대공장 11개사 선정」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22년도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최종 11개사를 선정
-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 BMW, 보쉬, 지멘스, P&G 등 103개사(한국은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3개사)

-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5개사, 중견기업 6개사이며, 업종은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으로 선정
- 동기업들은 미래형 지능형공장에 부합하는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공정제어 해결책(솔루션) 등을 구축
- 선정기업이 공급기업 연합체, 대학, 출연연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첨단 해결책(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
- 구축이 끝난 후에는 학생, 업계 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공장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

▣ 6월

1 정부,「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R&D) 2,418억원 지원」발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지원 대상으로 71개 기업·기관(중기부 49개, 과기정통부 22개)을 선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5년간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분야 등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3대 분야를 지원
-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기부와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자료(데이터)·연결망(네트워크)·인공지능(D·N·A : Data, Network, AI)기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를 추진
- 선정된 기업·기관은 첨단제조 분야 33개, 유연생산 분야 38개 등 총 71개로, 2022년 국비 646억원, 2025년까지 총 2,418억원을 지원하고, 2023년 이후에는 현장적용 분야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3,160억원을 지원할 계획

-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료(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 연계형 기술개발과 수요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
- 과기정통부는 제5세대 통신(5G), 인공지능·자료(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자원(제조장비·로봇 등)의 디지털화·지능화 및 제조 서비스 고도화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제조·유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22.6.7.일 시행)

-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원활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시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를 국세청 및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22.6.7.일 시행)

-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수립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또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로 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 사실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6.8일 시행)

- 주택금융 이용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 신청시 겪는 서류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공사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소관부처에 구체화하고, 자료 요청 절차 및 정보제공 동의방법을 규정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中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을 '22년 3.0%, '23년 2.8%로 전망하여 '21.12월 전망 대비 각각 △1.5%p, △0.4%p 하향 조정
- 국제 원자재價 강세, 공급망 차질 장기화, EU의 러産 원유 금수조치 영향 등을 반영하여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을 '22년 8.8%, '23년 6.1%로 조정
- 우리나라의 '22년, '23년 성장률을 각각 2.7%, 2.5%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22년 4.8%, '23년 3.8%로 전망
- 러-우 사태 악영향 심화, 물가상승 압력 확대·장기화, 통화긴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신흥국 부실 촉발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

정부, 「'고령자복지주택' 20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
-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
-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
-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

9 정부,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추진」 발표
-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7년 개통)의 연장사업
-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6.15일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용도로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최고한도를 2022년 12월 1일까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28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부처 228개 사업이며, 실업소득유지·지원(12.5조), 고용장려금(8.4조), 직접일자리(3.2조)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에 주력
-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

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

- '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

* 미평가(21개): '22년 폐지되었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목록에서 제외 사업
* 등급미부여사업(38개): 장애인사업, 실업소득유지사업, 작년 우수등급사업

- 성과평가 결과 및 경기전망,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의 적정규모 유지, 고성과사업 중심의 효율화,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력 공급 및 기업혁신 지원확대, 취업·창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 효율화 등개선방안을 마련

29 정부,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와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먼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에 850개사를 선정해 총 702억원을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능화(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는 5천만원, 고도화1은 2억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해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도 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
- 미래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년도 지원을 넘어 업체당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

-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다양한 업종별로 고도화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자제품 등 주력업종*에서 2개사, 식료품·의약품 등 기타업종** 중 2개사로 나눠 선정

* 주력업종 :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전기장비, 화학제품 등 8개 업종

** 기타업종 : 식료품, 음료, 의약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17개 업종

3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7.5.일 시행)

-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조합의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사유의 통지기간과 통지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

▣ 7월

5 중소기업벤처부, 「미래 핵심산업 기술개발(R&D) 90억원 지원」 발표

- 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등에서 미래 핵심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47개사 선정
-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과제당 최대 2~4년, 6~2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 사업
- 선정된 47개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강소기업 100',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과제에 각각 해당됨

7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상반기 조선업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 발표

- 정부는 '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국내 조선업계가 45.5%(97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
- 우리나라는 '18년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
- 코로나19 이연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였던 지난해를 제외하였을 경우, '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최고 수주량
-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전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조선업계가 수주하여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함
-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의 경우에도 전 세계 발주량(1,372만CGT) 중 58%(79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
- 국내 조선사의 '22.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전년동기(2,737만CGT) 대비 28% 증가

20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부는 그간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기업직업훈련 사업의 혁신방안을 수립
- 기업훈련 규제혁신으로 훈련의 양적·질적 성과제고를 위하여 ①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 도입, ②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③ 최소 훈련시간 및 비용 부담비율 보완 또는 폐지 등 기타 훈련규제를 정비
- 기업맞춤형 훈련서비스로 훈련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①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운영, ②우수 훈련콘텐츠 확충, ③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추진

-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활성화를 추진하여 ①공동훈련센터 운영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훈련거점 육성(특화형), ③규제혁신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모색

▣ 8월

1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1,800원대 진입」 발표
- 지난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하여 7.31(일) 기준 휘발유 1,897.3원/ℓ, 경유 1,982.6원/ℓ를 기록 중
- 6.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시행 한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수치
-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

* 국제석유제품 가격(7.1주→7.4주, $/배럴) : (휘) 127.0 → 112.9 (경유) 152.8 → 139.4

**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차는 약 2주

5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고시
-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5일 고시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총 2,010,58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고용노동부는 7.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
- 동 기간 동안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

12 정부,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61.2억불 흑자 달성」 발표

-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전년 동월(194.8억불) 대비 △0.7% 감소한 193.4억불 기록
- 일평균 수출액(8.2억불)은 역대 7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실적
  - 1위:'22년 8.2억불(23.5일), 2위:'21년 7.9억불(24.5일), 3위:'18년 7.7억불(24.0일)
- 전체 산업 수출 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비중은 '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 반도체는 역대 7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5개월 연속 100억불 상회
- 주요 5개국 중 베트남,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미국, 일본은 감소

16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 ①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②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③공급시차 단축, ④주거사다리 복원, ⑤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마련

- 도심내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 추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및 B·C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24년 중 수립,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을 추진
- 공급시차 단축을 위하여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및 신규택지(100만㎡이하)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추진
-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원가·역세권첫집을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추진 및 22년 하반기 중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 시범 사업 도입
-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편의 제고,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등 공공임대주택 혁신 추진

1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무이자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으로 제도의 내실화 도모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을 위하여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및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22.8.30.일 시행)

- 「국가재정법」상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 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투자자 안내사항 추가

▣ 9월

7 국토교통부, 「해외철도 수주지원사업」 공모 결과 발표

-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철도 수주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8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협약을 체결(8.25)하고 국제인증 취득 및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 품질인증(IRIS) 8건, 안전인증(SIL) 5건, AEO인증 1건 등 국제인증을 취득하려는 철도기술 14건 및 세계 철도 산업박람회에 전시 예정인 철도용품 4건

- 국내 철도용품 중소·중견기업은 우수한 철도기술을 보유하더라도 국제인증 취득 여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국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음

-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였으며, 22년부터는 지원금액 한도를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14 산업통상자원부,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가동

-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철강산업 피해 관련,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으로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TF*(단장:산업정책실장)을 구성하고 9.14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철강세라믹과장 등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지원기관) 철강협회, 무역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해당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단지 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의 철강재 수요현황과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전망 등을 논의
-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도 구성하여 TF와 공조를 이어나갈 방침

15 국토교통부,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2.7월 비정기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5일부터 2.53% 상승되며,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됨
-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1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체 가동

- 9.16일(금)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8.16일 발효)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최
- 산업부에서는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USTR 대표보급을 비롯하여 USTR·백악관(NSC/NEC)·상무부·재무부·국무부·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 이는 한·미 통상장관회의(9.7일)시 합의한 IRA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양국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실질적 해결방안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 발표

-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써 투자 확대, 新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너지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社, 예비 유니콘급 10개社를 성공모델로 키워낸다는 방침
- 유망 에너지혁신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약 6,000억원 이상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업화금융 확대
- 공공조달, 규제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 초기수요 창출을 통한 에너지혁신벤처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에너지혁신벤처의 성장을 가속하고, 경제적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 조성

22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기업간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정(MOU)」 서명식 개최

-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여 9.22일(목) 캐나다 토론토에서 양국 기업간 공급망 협력 업무협정(MOU) 서명식을 개최

* 매장량 : 리튬(53만톤), 니켈(280만톤), 코발트(22만톤), 희토류(83만톤), 백금족(310톤) 등

- 동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분야 협력 MOU 3건, 광해광업공단-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 MOU 등 총 4건의 업무협정(MOU)가 체결
- 이번 MOU 체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우리 기업의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

23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규제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나눔(경제효과 1조원 규모)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러-우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 ('20)△3.4 ('21)5.8 ('22e)3.0 ('23e)2.2
G20 평균 물가상승률(%) : ('20)2.8 ('21)3.8 ('22e)8.2 ('23e)6.6

-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가격 상승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23년 들어서도 지속적 물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6%p 하향 조정)
- G20 평균 물가상승률을 22년 8.2%, 23년 6.6%로 전망하여 22.6월 전망 대비 각각 +0.6%p, +0.3%p 상향 조정
- 우리나라의 22년 및 23년 성장률을 각각 2.8%, 2.2%로, 물가상승률은 각각 5.2%, 3.9%로 전망
- OECD가 제시한 성장률·물가 전망은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고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

27 국회,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
- 한-이스라엘 FTA는 16.5월 협상 개시(6차례 공식협상), 19.8월 최종 타결, 21.5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한-캄보디아 FTA는 20.7월 협상 개시(4차례 공식협상), 21.2월 최종 타결, 21.10월 정식 서명된 바 있음
- 정부는 우리측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정부는 연내 발효에 노력)

▣ 10월

1 질병관리청, 10월부터 해외입국시 1일차 PCR 의무검사 해제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의 확진율이 낮아지고(8월 1.3% → 9월 0.9%),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1일부터 해외입국후 1일차 PCR 의무검사를 해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
- 동 조치는 해외여행에 따른 국민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2.10.4일 시행)
- 기업이 파산·해산, 폐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를 확대
- 신용보증기금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새출발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구상채권의 매각 대상자를 확대

7 고용노동부,「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일자리사업 혁신계획을 발표
-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 구축 및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

-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

18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확정
-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①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②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③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
-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개편
- 또한,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합적으로 고려

26 정부, 「새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새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청년맞춤 정책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
-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도 추진

- 구체적으로는 취업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

27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
- 이를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23.3월)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

31 정부, 「부산·울산 국내 최초 원전해체연구소 착공」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울산·경북·경주시 등은 원전해체 관련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인 원전해체연구소(울산 울주군 소재,

20.8월 법인설립)를 착공(26년 하반기 준공 예정)

-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였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는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2.10.31(월)~24.10.30(수)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 앞서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9.23(금) 산업통상자원부에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
-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

▣ 11월

4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제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디

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

- 국제표준안 13종은 ①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소자의 성능·신뢰성 평가방법 등 반도체 분야 5종, ②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측정방법 1종, ③그래핀 환원도 분석 평가방법, 그래핀 기반물질 비표면적 측정방법 등 나노기술 분야 7종
- 총회와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설립한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평가그룹(SEG)* 제1차 회의도 개최

* 표준화평가그룹(Standardization Evaluation Group,SEG)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내 첨단기술 표준 분야 조직 신설, 신규 표준화 과제를 설계하는 특별 조직

5 정부,「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구성

-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하여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올해 8.4일)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
-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

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 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

9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전기를 마련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계획 수립 의향서 체결 후속조치 등을 집중 논의
  - ▪ 한수원은 APR1400 기술기반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계획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상 공정, 재원조달, 사업관리 등 상세계획을 마련할 계획
- 또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내년 1월 현장 건설소 발족을 목표로 사업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원전 업계에 일감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실시할 계획
-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SMR 국제협력 동향을 공유하고 기자재 공급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SMR 글로벌 공급망 진입전략에 관하여 논의

10 정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관계부처 합동), ②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국토부), ③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국토부) 등 다음 내용을 발표

-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
-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
-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
- 금리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 활용 및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29 국토교통부,「시멘트 운송관련 업무개시명령」발동

- 지난 11.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
-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

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정부는 12.8일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발동하였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1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종료

30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
-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0.29, 퍼밀리아드)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
-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개편,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
-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건설·제조업에는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관리, 원·하청 간 안전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
-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및 책임 확대,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
-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의 재조정,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중앙과 지역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

▣ 12월

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 ·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 인명 등)를 향후 홈페이지에 게시
  - ▪ '22.12월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
  - ▪ 구체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

*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29),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동 법 §429의2), 공매도 규제 위반(동 법 §429의3)

**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음

6 금융위원회,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제시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
  - ▪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8 국토교통부,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관련업무개시명령」 발동

- 지난 11.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른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12.8일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발동
- 한편, 11.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1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종료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
- 재건축 진단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구조 안전성 점수를 전체의 50%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어,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
  ▪ 이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
-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 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

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

1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연말 지방재정 적극집행 독려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말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강조하는 한편 한파·대설 대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상황 점검등의 보호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 특히,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안정 예산 집행관리와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요청
  - ▪ 연말까지 집행 목표(전체 예산 대비 85%)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16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발표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 선정 발표
- 이번 신규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
  - ▪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 '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
  - ▪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8.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

- 신규 사업지 26곳 중 23곳(88%)이 비수도권이며,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57.7%(읍면지역 42.3%)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기대

21 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및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발표

-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경제운용 4대 기조(자유·혁신·공정·연대)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포로 하여,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을 추진
- 한편,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
  -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수준으로 환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 및 LTV 상한을 30%로 적용
  - 규제지역을 23년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예정
  -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고,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3.1월)
  -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26 금융위원회,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발표

- 금융위원회는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 2023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11조원)한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

* [연도별 자금공급목표] 189조(21년), 194조(22년), 205조(23년)

- 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15.6조), 미래유망산업 지원(13.1조),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17.3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9.0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26.4조원)

■ 이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

27 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발표

- 금융위원회와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

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22.12.26일까지 5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30 산업통상자원부, 「美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재무부가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①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②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③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하였음을 안내
-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 가능
-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①차량 가격의 30% 또는 ②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 은금액으로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2023년

▣ 1월

2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
  - ▪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1.5일 시행)
  - ▪ 기획재정부는 1.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하고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1.5일 시행)
  - ▪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 적용 중인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간소화할 계획
  - ▪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의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

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최근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
  - (공간혁신 구역 도입)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
  -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하여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및 토지개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계획

12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정부는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결정

15 한국-UAE, 양국 투자·금융분야 협력 강화 합의

- 한국과 UAE는 양국 정상회담(1.15일, 아부다비)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UAE가 약속한 對韓 300억불 규모의 투자는 그간 UAE의 국가간 최대 투자협력 규모인 '영국과의 100억 파운드(약 122억불) 투자'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
  -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Sovereign Investment Partnership) MOU를 체결
  - 한편, 수출입은행이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17 정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인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

을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20 금융위,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등록제를 폐지
-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
-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영문공시를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25 금융위원회,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는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 및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

26 금융위원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
-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

30 정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 ▪ 인구감소에 대응한 노동공급 여력 확충을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를 통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
  - ▪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 위기를 조기 포착하여 선제 대응
  - ▪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
  - ▪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
  - ▪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

▣ 2월

2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

-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
-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임금체계구축 지원 방안을 마련
-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
-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

6 한국은행, 호주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 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은 양국간 교역 촉진 및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120억 호주달러/9.6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하였음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화물운송시장 체질개선) 지입전문회사 퇴출,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
- (안전운임제 개편)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원가산정 방식·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를 마련
- (화물차주 여건 개선)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화물차주의 여건을 개선
- (화물차 교통안전 개선) 운행기록계(DTC)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화물고정장치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

7 정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 (개장시간 대폭 연장) 개장시간을 기존 15: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익일 02:00까지 대폭 연장하고 추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
  -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대고객 전자거래 활성화, 대고

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 글로벌 수준의 거래, 결제 등 관련 인프라 마련

- (국내기관 역할·경쟁력 유지) 본·지점간 직거래 허용, 원화차입 신고의무 면제, 국내기관-RFI간 규제 적용 등의 차이 보완 등을 통해 국내기관 역할·경쟁력 유지
-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유사시 RFI의 자본거래 직접 통제 방안 마련 등 RFI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실효적 감독 방안을 마련

10 정부,「외환제도 개편 방향」발표

- 외국환거래법 제정(1999년) 이후 외환거래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로 인한 비효율, 낡은 규제의 개선 필요성, 건실한 위기대응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진적 외환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

[1단계 주요과제]

- (국민)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 확대(연간 5만 달러 → 10만 달러),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를 통해 일상적인 외환거래 불편 해소
- (기업)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연간 3천만 달러 → 5천만 달러),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외화조달 및 해외 투자 부담을 경감
- (금융기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고객 환전서비스 등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편익을 확대
- (정책수단) 시장참여자의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 등을 협의 또는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

[2단계 추진방향]

-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하여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
-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
- 위기발생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1. 지역소득

(십억 원, 1인당 천 원, %)

연도	GRDP[1]		1인당[2] GRDP		GRDP 성장률	
	명목	실질	명목	성장률	명목	기준년가격 (2015=100)
2015	18,142	19,718	30,275	–	11.9	7.4
2016	20,020	21,101	32,389	7.0	10.5	8.0
2017	21,672	22,564	34,134	5.4	6.7	4.6
2018	22,041	22,777	33,673	△1.4	0.4	△0.9
2019	22,267	22,952	33,545	△0.4	1.3	1.1
2020	21,669	21,669	32,404	△3.4	△3.4	△6.4
2021	22,757	22,346	33,861	4.5	2.9	1.2
2022	24,282	23,364	35,999	6.3	–	–
2023(p)	26,013	24,074	38,450	6.8	–	–

주 : 1) 2020 기준 자료 2) 지역내총생산(당해년 가격) / 장래인구추계 기준(2020)
자료 : 통계청

연도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감률				
	전산업	농림 어업	광제조 업	전기 가스 공급업	건설업	서비스 업	최종 소비	민간 소비	총고정 자본 형성	건설 투자	설비 투자
2010	1.8	△5.7	△11.8	2.0	3.0	3.9	4.9	3.9	7.6	3.7	20.2
2011	6.9	△0.9	4.1	19.2	13.4	7.2	2.5	1.9	14.4	17.4	10.0
2012	6.3	1.5	0.6	△5.5	12.6	6.8	7.3	7.5	10.7	10.9	11.1
2013	4.9	1.6	6.5	5.4	6.7	5.5	3.7	3.0	7.0	8.7	0.7
2014	6.9	△4.7	4.9	11.4	7.9	8.1	4.2	4.2	7.9	7.9	5.6
2015	7.4	△3.6	16.5	△5.3	15.9	7.0	6.0	5.6	15.1	18.1	10.3
2016	8.0	5.8	8.9	△9.1	25.2	5.9	4.3	3.9	20.9	24.6	11.4
2017	4.6	3.2	7.6	8.8	11.9	3.4	4.5	3.4	9.2	11.8	0.5
2018	△0.9	△12.5	△4.8	△4.4	△18.3	5.3	5.0	4.3	△13.6	△20.2	9.5
2019	1.1	△1.4	△5.7	△8.0	△10.9	3.9	4.9	3.2	△7.4	△9.8	△3.3
2020	△6.4	3.2	△4.4	9.9	△19.4	△6.4	△0.7	△3.7	△12.2	△18.3	△0.2
2021	1.2	0.5	4.8	6.5	△18.2	3.5	3.9	4.6	△10.5	△17.7	3.7
2022(p)	4.6	2.1	△2.8	23.2	△1.9	4.6	6.0	5.7	△2.2	△3.2	△0.6

자료 : 통계청

2. 실물경제

가. 제조업 생산·출하·재고지수

(원지수 2020=100, %, 전년동대비)

연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2001	68.1	1.4	83.3	2.0	96.5	△2.6
2002	70.6	3.7	82.8	△0.7	86.6	△10.3
2003	78.8	11.6	109.9	32.8	65.5	△24.4
2004	73.5	△6.8	82.3	△25.1	37.5	△42.7
2005	68.9	△6.2	81.2	△1.4	48.1	28.1
2006	71.7	4.0	80.1	△1.3	44.5	△7.5
2007	72.9	1.7	82.3	2.7	44.4	△0.1
2008	80.0	9.7	85.5	3.9	35.8	△19.5
2009	84.9	6.2	86.1	0.7	35.3	△1.2
2010	81.8	△3.7	91.9	6.7	30.1	△14.7
2011	89.2	9.1	95.8	4.2	36.2	20.3
2012	86.1	△3.5	97.2	1.4	31.5	△13.1
2013	94.0	9.1	104.5	7.6	31.3	△0.6
2014	95.2	1.3	103.2	△1.2	49.2	57.2
2015	101.9	7.1	107.3	3.9	62.6	27.2
2016	105.1	3.1	115.4	7.6	80.1	27.9
2017	112.2	6.7	119.2	3.3	54.8	△31.6
2018	106.2	△5.4	105.5	△11.5	78.3	43.0
2019	105.5	△0.6	104.6	△0.9	95.2	21.6
2020	100.0	△5.2	100.0	△4.4	113.8	19.5
2021	105.5	5.5	104.5	4.5	111.9	△1.7
2022	105.7	0.2	103.7	△0.8	88.7	△20.7
2023	102.7	△2.8	109.0	5.1	63.0	△29.0
2023.01	90.6	△14.4	101.6	5.6	79.7	△35.1
2023.02	99.6	24.3	95.3	8.0	80.2	△33.1
2023.03	110.0	△0.1	110.8	3.6	72.2	△35.5
2023.04	102.2	△5.0	103.9	3.2	72.0	△34.9
2023.05	104.2	△3.1	105.5	7.2	69.2	△41.4
2023.06	110.4	1.8	112.9	8.0	69.2	△38.3
2023.07	101.9	△4.9	104.4	2.0	71.1	△39.2
2023.08	104.1	△7.4	116.4	△1.7	71.8	△26.6
2023.09	99.5	4.2	120.2	17.4	58.4	△34.7
2023.10	98.1	△11.9	110.0	4.7	65.0	△22.5
2023.11	105.3	△9.8	117.2	5.9	59.1	△30.9
2023.12	106.7	0.6	109.7	△0.3	63.0	△29.0

자료 : 통계청

나. 투자

(천m^2, 억 원, %, 전년동월비)

연도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면적	증감률	면적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1	1,270	1.1	956	–	3,259	3.4
2002	1,784	40.5	1,278	33.7	1,909	△41.4
2003	2,081	16.6	1,674	31.0	5,166	170.6
2004	1,167	△43.9	1,011	△39.6	6,041	16.9
2005	1,029	△11.8	982	△2.9	3,146	△47.9
2006	1,202	16.8	791	△19.5	5,346	69.9
2007	1,189	△1.1	883	11.6	7,454	39.4
2008	1,554	30.7	736	△16.6	7,408	△0.6
2009	1,427	△8.2	1,099	49.3	8,917	20.4
2010	1,646	15.3	1,344	22.3	9,502	6.6
2011	2,409	46.4	1,751	30.3	9,529	0.3
2012	2,413	0.2	1,930	10.2	7,432	△22.0
2013	2,181	△9.6	1,898	△1.7	13,679	84.1
2014	3,466	58.9	2,517	32.6	10,756	△21.4
2015	3,871	11.7	3,644	44.8	14,395	33.8
2016	4,746	22.6	4,296	17.9	25,886	79.8
2017	3,529	△25.6	2,795	△34.9	13,138	△49.2
2018	2,333	△33.9	2,248	△19.5	15,684	19.4
2019	1,898	△18.6	1,616	△28.1	11,439	△27.1
2020	1,739	△8.4	1,302	△19.5	7,894	△31.0
2021	2,088	20.1	1,625	24.8	13,080	65.7
2022	2,641	26.4	1,681	3.5	22,766	74.1
2023	2,303	△12.8	1,076	△36.0	16,430	△27.8
2023.01	105	△36.2	139	13.6	911	△37.5
2023.02	192	44.7	86	△45.4	1,093	△6.3
2023.03	181	10.5	59	△64.2	1,401	△7.2
2023.04	164	△41.5	131	△3.7	2,337	104.5
2023.05	133	△65.4	106	△5.9	1,346	181.2
2023.06	195	△21.1	148	△27.2	1,966	△62.9
2023.07	329	△1.5	57	△44.2	3,803	153.9
2023.08	283	32.8	64	△75.0	606	△3.7
2023.09	151	△33.9	44	△53.1	288	△94.0
2023.10	424	180.7	65	△38.2	276	△88.8
2023.11	147	△21.0	101	△10.4	1,241	19.9
2023.12	367	133.9	76	△33.4	1,163	△9.4

자료 :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다. 소비

(원지수 2020=100, 억 원, %, 전년동월비)

연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경상)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불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0	74.4	-	91.6	-	29,256	-
2011	83.3	12.0	97.2	6.1	33,777	15.5
2012	89.3	7.2	101.1	4.0	35,301	4.5
2013	93.8	5.0	105.2	4.1	36,802	4.3
2014	94.8	1.1	105.3	0.1	39,012	6.0
2015	100.0	5.5	108.7	3.2	43,870	12.5
2016	107.6	7.6	114.9	5.7	48,295	10.1
2017	108.7	1.0	113.8	△1.0	54,563	13.0
2018	105.4	△3.0	108.4	△4.7	56,508	3.6
2019	98.5	△6.5	101.3	△6.5	58,416	3.4
2020	100.0	1.5	100.0	△1.3	52,671	△9.8
2021	105.1	5.1	101.4	1.4	60,356	14.6
2022	106.5	1.3	97.7	△3.6	70,272	16.4
2023	111.2	4.4	97.1	△0.6	-	-
2023.01	121.1	△0.2	107.7	△5.5	5,836	4.2
2023.02	89.9	△1.6	79.8	△7.3	5,454	17.6
2023.03	99.6	0.2	88.1	△5.4	5,870	17.0
2023.04	108.0	8.3	96.0	3.4	5,921	2.2
2023.05	111.9	4.7	99.2	0.4	6,222	△5.3
2023.06	107.4	2.5	94.8	△1.6	6,066	△5.4
2023.07	117.8	7.3	103.7	3.5	5,911	△5.5
2023.08	118.5	2.5	102.0	△1.6	6,501	△2.4
2023.09	123.1	10.8	104.5	5.8	-	-
2023.10	110.8	4.9	94.4	△0.8	-	-
2023.11	111.7	7.1	96.5	1.3	-	-
2023.12	114.3	5.2	98.1	△0.6	-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제주본부

3. 수출입

(천 달러, %, 전년동월비)

연도	수출액		수입액		수출입차(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
2001	44,730	12.3	66,855	27.3	△22,125	△9,433
2002	44,631	△0.2	57,895	△13.4	△13,264	8,860
2003	58,578	31.3	110,649	91.1	△52,071	△38,806
2004	69,719	19.0	110,297	△0.3	△40,578	11,492
2005	63,281	△9.2	140,977	27.8	△77,696	△37,117
2006	56,766	△10.3	244,196	73.2	△187,430	△109,735
2007	57,830	1.9	180,998	△25.9	△123,168	64,262
2008	83,299	44.0	201,627	11.4	△118,328	4,839
2009	87,384	4.9	177,894	△11.8	△90,510	27,819
2010	98,042	12.2	205,600	15.6	△107,558	△17,048
2011	99,735	1.7	226,445	10.1	△126,710	△19,153
2012	107,942	8.2	310,982	37.3	△203,040	△76,330
2013	103,285	△4.3	260,156	△16.3	△156,871	46,170
2014	106,415	3.0	325,533	25.1	△219,118	△62,248
2015	121,068	13.8	339,390	4.3	△218,321	798
2016	128,994	6.5	368,820	8.7	△239,826	△21,508
2017	155,360	20.4	410,900	11.4	△255,540	△15,710
2018	182,470	17.4	642,773	56.4	△460,390	△204,763
2019	149,041	△18.3	420,988	△34.5	△271,947	188,355
2020	154,962	4.0	335,896	△20.2	△180,934	91,013
2021	225,880	45.8	418,079	24.5	△192,199	△11,265
2022	194,533	△13.9	492,802	17.9	△298,270	△106,071
2023	194,245	△0.1	540,354	9.6	△346,109	△47,840
2023.01	13,237	△16.0	41,534	△12.7	−28,298	△28,298
2023.02	12,372	△20.8	30,334	△24.3	−17,961	10,336
2023.03	15,767	△28.1	33,312	△7.7	−17,545	416
2023.04	12,262	△24.6	31,555	△42.0	−19,293	△1,748
2023.05	12,828	△23.3	59,088	54.2	−46,259	△26,967
2023.06	14,047	△15.6	33,950	△25.8	−19,903	26,357
2023.07	18,237	56.4	30,328	△8.7	−12,091	7,812
2023.08	13,042	△4.4	33,796	△28.8	−20,754	△8,664
2023.09	15,168	9.8	32,091	△19.6	−16,923	3,832
2023.10	17,883	34.2	31,736	△3.7	−13,852	3,070
2023.11	21,553	16.1	88,532	120.8	−66,980	△53,127
2023.12	27,847	35.2	94,098	155.4	−66,251	729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통화·금융

가. 화폐발행 및 한국은행 예금·대출금

(십억 원, %, 전년동월비)

연도	화폐발행[1]		한국은행 예금[2]		한국은행 대출금[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1	253.7	△21.2	61.8	-	44.4	-
2002	264.4	4.2	32	△48.2	69.5	56.5
2003	226.6	△14.3	34.3	7.2	64.1	△7.8
2004	276.5	22.0	41.8	21.9	75.2	17.3
2005	280.9	1.6	45.2	8.1	73.5	△2.3
2006	295.6	5.2	32.7	△27.7	75.9	3.3
2007	364.7	23.4	56.1	71.6	89	17.3
2008	223.7	△38.7	58.6	4.5	90.5	1.7
2009	197.6	△11.7	63.4	8.2	83	△8.3
2010	203.0	2.7	74.8	18.0	82.7	-0.4
2011	221.4	9.1	87.4	16.8	88.8	7.4
2012	256.2	15.7	76.8	△12.1	88	△0.9
2013	249.7	△2.5	88.7	15.5	78.9	△10.3
2014	323.6	29.6	89.5	0.9	104.4	32.3
2015	368.2	13.8	48.3	△46.0	101.2	△3.1
2016	433.7	17.8	57.9	19.9	102.4	1.2
2017	583.4	34.5	63.8	10.2	102.0	△0.4
2018	722.3	23.8	59.3	△7.1	100.6	△1.3
2019	521.7	△27.8	137.2	131.4	102.1	1.4
2020	595.3	14.1	37.2	△72.9	289.3	183.4
2021	414.6	△30.3	41.5	11.5	289.3	0.0
2022	332.8	△19.7	93.2	124.4	291.9	0.9
2023	352.5	5.9	73.8	△20.8	106.7	△63.4
2023.01	131.3	△9.1	97.5	5.8	311.3	7.6
2023.02	2.7	△18.6	91.5	4.2	308.7	6.7
2023.03	21.8	37.5	91.4	△2.7	299.0	3.4
2023.04	16.2	△14.7	81.6	△6.3	289.6	0.0
2023.05	26.9	45.0	108.3	10.4	286.0	△1.2
2023.06	6.2	△52.7	101.8	2.8	250.7	△13.4
2023.07	10.3	△17.3	75.7	△20.0	220.3	△23.9
2023.08	10.6	△67.0	104.2	19.5	198.1	△31.6
2023.09	75.7	64.4	107.9	4.4	190.7	△34.1
2023.10	5.2	73.3	75.7	△22.6	148.7	△48.6
2023.11	13.0	90.7	98.1	△10.8	104.7	△63.8
2023.12	32.4	80.8	73.8	△20.8	106.7	△63.4

주 : 1) 기간중, 2) 해당기간 말잔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나.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십억 원, %, 전년동월비)

연도	예금은행 수신		비은행기관 수신		예금은행 여신		비은행기관 여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1	3,239.5	8.7	4,414.7	2.4	3,208.2	16.5	2,603.4	8.6
2002	3,751.2	15.8	4,470.8	1.3	3,952.6	23.2	2,798.5	7.5
2003	3,865.8	3.1	4,633.0	3.6	4,496.9	13.8	3,060.1	9.3
2004	3,903.0	1.0	5,028.4	8.2	4,586.1	2.0	3,451.9	12.8
2005	4,055.9	3.9	5,478.8	9.2	4,722.7	3.0	3,607.6	4.6
2006	4,186.9	3.2	5,807.7	6.1	5,038.4	6.7	3,863.1	6.9
2007	4,363.6	4.2	7,021.4	20.9	5,408.1	7.3	4,180.6	8.2
2008	4,751.9	8.9	7,724.5	10.0	5,707.8	5.5	4,690.9	12.2
2009	4,744.8	△0.1	8,029.1	3.9	5,832.6	2.2	4,106.6	△12.5
2010	5,382.9	13.4	8,595.7	7.1	5,802.7	△0.5	4,283.6	4.3
2011	6,210.7	15.4	9,105.8	5.9	6,001.2	3.4	4,618.0	7.8
2012	6,443.1	3.7	9,714.2	6.7	6,512.1	8.5	4,884.1	5.8
2013	6,703.3	4.0	10,447.9	7.6	7,325.0	12.5	5,297.5	8.5
2014	7,638.4	13.9	11,258.0	7.8	8,312.3	13.5	5,954.3	12.4
2015	8,886.4	16.3	12,514.6	11.2	10,191.0	22.6	7,093.2	19.1
2016	9,587.6	7.9	13,984.1	11.7	12,548.2	23.1	9,162.0	29.2
2017	9,896.2	3.2	15,181.0	8.6	14,707.9	17.2	10,969.3	19.7
2018	9,305.7	△6.0	16,760.2	10.4	16,633.8	13.1	12,070.4	10.0
2019	9,847.4	5.8	20,249.5	20.8	18,281.1	9.9	12,830.1	6.3
2020	10,308.9	4.7	20,212.5	△0.2	20,182.3	10.4	13,715.3	6.9
2021	10,710.3	3.9	20,828.9	3.0	21,106.6	4.6	15,369.7	12.1
2022	12,706.5	18.6	23,491.4	12.8	21,592.3	2.3	16864.7	9.7
2023	11,850.0	△6.7	24,381.0	3.8	21,990.1	1.8	17328.1	2.7
2023.01	13,557.6	18.9	23,697.1	13.0	21,472.8	1.3	16856.2	9.4
2023.02	14,173.6	25.3	23,741.2	12.9	21,479.9	1.5	16909.4	9.3
2023.03	11,957.6	4.0	24,213.1	13.3	21,387.1	△0.4	16961.6	8.8
2023.04	13,072.3	6.2	24,151.1	10.9	21,421.6	△0.5	17,050.0	8.6
2023.05	12,394.2	△1.4	24,171.7	10.0	21,492.4	△0.4	17,121.3	8.0
2023.06	11,878.9	△3.8	24,131.6	8.7	21,509.8	0.0	17,207.9	7.3
2023.07	12,964.7	2.3	24,214.6	9.7	21,596.3	0.3	17,277.6	7.0
2023.08	12,859.5	1.9	24,288.9	9.7	21,728.9	0.9	17,272.0	6.1
2023.09	11,833.2	△6.2	24,367.8	10.0	21,796.5	0.6	17,311.4	5.5
2023.10	12,548.4	△9.4	24,124.6	9.4	21,829.7	0.7	17,385.0	5.0
2023.11	11,908.6	△14.9	24,003.2	4.7	21,922.3	1.3	17,371.6	3.8
2023.12	11,850.0	△6.7	24,381.0	3.8	21,990.1	1.8	17,328.1	2.7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5. 소비자물가

(원지수 2020=100, %, 전년동월비)

연도	총지수		상품		서비스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2001	66.3	3.0	63.1	3.3	69.2	2.7
2002	68.2	2.9	65.1	3.2	70.9	2.5
2003	70.4	3.3	67.7	3.9	72.8	2.6
2004	73.2	4.0	70.9	4.8	75.2	3.2
2005	75.1	2.5	72.9	2.8	76.9	2.2
2006	76.5	1.9	73.7	1.1	78.8	2.5
2007	78.1	2.1	75.2	2.1	80.5	2.2
2008	82.1	5.1	80.8	7.4	83.3	3.5
2009	83.6	1.8	82.4	2.0	84.7	1.7
2010	86.4	3.4	86.6	5.1	86.5	2.1
2011	90.2	4.3	92.1	6.4	88.5	2.3
2012	91.3	1.2	94.9	3.0	88.0	△0.5
2013	92.5	1.4	95.7	0.9	89.7	1.9
2014	93.6	1.1	96.2	0.5	91.2	1.7
2015	94.1	0.6	96.0	△0.3	92.5	1.5
2016	95.4	1.3	96.0	0.0	94.8	2.5
2017	97.6	2.3	98.0	2.1	97.1	2.5
2018	99.3	1.7	99.9	1.9	98.6	1.5
2019	99.6	0.3	99.6	△0.3	99.5	0.9
2020	100.0	0.4	100.0	0.4	100.0	0.5
2021	102.6	2.6	104.0	4.0	101.3	1.3
2022	108.7	5.9	111.8	7.5	105.8	4.4
2023	112.0	3.0	115.1	2.9	109.1	3.0
2023.01	110.8	4.8	113.7	5.7	108.0	4.0
2023.02	111.0	4.5	113.9	5.0	108.4	4.1
2023.03	111.1	3.9	113.8	3.6	108.5	4.2
2023.04	111.3	3.3	114.0	2.4	108.8	4.1
2023.05	111.5	2.7	114.0	1.5	109.1	3.7
2023.06	111.5	1.8	113.9	0.4	109.2	3.1
2023.07	111.5	1.5	113.5	0.2	109.5	2.6
2023.08	112.5	2.3	115.8	2.7	109.4	2.0
2023.09	113.3	2.8	117.8	3.4	109.3	2.2
2023.10	113.6	3.0	118.3	4.0	109.4	2.2
2023.11	112.8	2.6	116.5	3.0	109.5	2.3
2023.12	112.7	2.6	116.0	3.2	109.7	2.0

자료 : 통계청

6. 고용

(천 명, %, 전년동월비)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인구 수	증감률	인구 수	증감률	인구 수	증감률
2001	398	0.9	272	1.3	265	1.6
2002	402	1.1	279	2.8	273	3.1
2003	406	0.8	287	2.9	282	3.2
2004	409	0.8	288	0.1	281	△0.4
2005	413	1.0	292	1.4	284	1.4
2006	418	1.2	295	1.2	289	1.5
2007	421	0.7	293	△0.5	287	△0.6
2008	425	0.9	294	0.3	289	0.6
2009	430	1.2	293	△0.3	289	0.0
2010	436	1.4	289	△1.4	284	△1.6
2011	445	2.0	299	3.3	294	3.4
2012	454	2.0	307	2.9	303	3.0
2013	465	2.4	315	2.4	309	2.1
2014	479	3.0	329	4.5	322	4.2
2015	495	3.4	346	5.2	339	5.4
2016	512	3.5	363	4.9	355	4.6
2017	528	3.0	382	5.2	374	5.5
2018	544	3.0	379	△0.6	372	△0.6
2019	558	2.6	390	2.8	382	2.6
2020	563	1.0	388	△0.6	378	△0.9
2021	568	0.8	395	2.0	383	1.3
2022	574	1.1	410	3.8	402	4.9
2023	579	0.9	409	△0.4	401	△0.1
2023.01	578	1.1	404	0.4	391	0.5
2023.02	578	1.1	401	0.0	391	△0.1
2023.03	578	1.0	404	△0.3	393	△1.0
2023.04	579	1.0	407	1.4	398	1.3
2023.05	579	0.9	409	1.5	402	1.6
2023.06	580	0.9	412	0.3	403	0.2
2023.07	580	0.8	409	0.0	403	0.5
2023.08	580	0.8	411	0.1	406	0.4
2023.09	580	0.7	412	△0.7	406	0.0
2023.10	580	0.7	413	△2.4	408	△1.9
2023.11	580	0.6	414	△2.3	411	△1.2
2023.12	580	0.6	409	△2.6	400	△1.9

자료 : 통계청

6. 고용(계속)

(%, 전년동월비)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2001	68.2	0.3	2.5	△7.4	66.5	0.6
2002	69.4	1.8	2.2	△12.0	67.8	2.0
2003	70.8	2.0	1.9	△13.6	69.5	2.5
2004	70.3	△0.7	2.4	26.3	68.6	△1.3
2005	70.6	0.4	2.5	4.2	68.9	0.4
2006	70.6	0.0	2.1	△16.0	69.1	0.3
2007	69.7	△1.3	2.1	0.0	68.2	△1.3
2008	69.2	△0.7	1.8	△14.3	68.0	△0.3
2009	68.2	△1.4	1.6	△11.1	67.1	△1.3
2010	66.3	△2.8	1.8	12.5	65.2	△2.8
2011	67.1	1.2	1.7	△5.6	66.0	1.2
2012	67.7	0.9	1.5	△11.8	66.7	1.1
2013	67.7	0.0	1.8	20.0	66.4	△0.4
2014	68.7	1.5	2.0	11.1	67.3	1.4
2015	69.8	1.6	1.9	△5.0	68.5	1.8
2016	70.8	1.4	2.2	15.8	69.3	1.2
2017	72.3	2.1	1.9	△13.6	70.9	2.3
2018	69.8	△3.5	2.0	5.3	68.4	△3.5
2019	69.9	0.1	2.1	5.0	68.4	0.0
2020	68.8	△1.6	2.5	19.0	67.1	△1.9
2021	69.6	1.2	3.1	24.0	67.4	0.4
2022	71.4	2.6	2.1	△32.3	69.9	3.7
2023	70.6	△1.1	1.9	△9.5	69.2	△1.0
2023.01	69.9	△0.7	3.1	△3.1	67.7	△0.6
2023.02	69.3	△1.1	2.4	4.3	67.6	△1.3
2023.03	69.9	△1.3	2.7	35.0	68.0	△2.0
2023.04	70.4	0.4	2.3	4.5	68.7	0.3
2023.05	70.7	0.6	1.9	0.0	69.4	0.7
2023.06	71.0	△0.6	2.1	5.0	69.5	△0.7
2023.07	70.5	△1.0	1.4	△30.0	69.5	△0.4
2023.08	70.9	△0.7	1.2	△20.0	70.1	△0.3
2023.09	71.0	△1.4	1.4	△33.3	70.0	△0.7
2023.10	71.2	△3.1	1.3	△23.5	70.3	△2.6
2023.11	71.4	△3.0	0.9	△55.0	70.8	△1.8
2023.12	70.5	△3.2	2.2	△21.4	69.0	△2.4

자료 : 통계청

7. 경기

(2020=100, %)

연도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17.01	98.1	0.9	100.5	112.7	△0.4	99.6
2017.02	98.1	0.0	100.2	113.2	0.4	100.1
2017.03	99.3	1.2	101.1	113.7	0.4	100.4
2017.04	99.1	△0.2	100.5	114.1	0.4	100.8
2017.05	100.2	1.1	101.4	114.3	0.2	101.0
2017.06	100.4	0.2	101.3	115.3	0.9	102.1
2017.07	101.9	1.5	102.6	115.8	0.4	102.6
2017.08	102.2	0.3	102.6	115.5	△0.3	102.4
2017.09	102.5	0.3	102.7	114.8	△0.6	102.0
2017.10	101.9	△0.6	101.9	114.3	△0.4	101.6
2017.11	102.0	0.1	101.8	114.7	0.3	102.1
2017.12	102.2	0.2	101.8	113.9	△0.7	101.6
2018.01	101.5	△0.7	100.9	115.0	1.0	102.8
2018.02	101.1	△0.4	100.5	115.9	0.8	103.9
2018.03	101.0	△0.1	100.2	116.3	0.3	104.6
2018.04	101.6	0.6	100.7	116.0	△0.3	104.5
2018.05	101.8	0.2	100.7	115.1	△0.8	104.1
2018.06	101.9	0.1	100.8	114.4	△0.6	103.8
2018.07	102.0	0.1	100.8	113.2	△1.0	103.0
2018.08	101.8	0.2	100.5	111.9	△1.1	102.3
2018.09	101.8	0.0	100.4	111.3	△0.5	102.1
2018.10	101.6	△0.2	100.2	111.0	△0.3	102.2
2018.11	101.1	△0.5	99.7	109.7	△1.2	101.4
2018.12	100.5	△0.6	99.0	108.1	△1.5	100.3
2019.01	101.0	0.5	99.4	106.7	△1.3	99.4
2019.02	102.0	1.0	100.4	106.7	0.0	99.9
2019.03	102.4	0.4	100.7	106.6	△0.1	100.2
2019.04	102.2	△0.2	100.5	106.0	△0.6	100.0
2019.05	102.0	△0.2	100.2	105.5	△0.5	99.9
2019.06	102.0	0.0	100.2	105.5	0.0	100.3
2019.07	102.0	0.0	100.2	105.5	0.0	100.7
2019.08	102.7	0.7	100.8	105.1	△0.4	100.7
2019.09	102.7	0.0	100.6	105.1	0.0	101.1
2019.10	103.6	0.9	101.5	105.2	0.1	101.5
2019.11	103.6	0.0	101.4	105.1	△0.1	101.7
2019.12	104.6	1.0	102.3	104.8	△0.3	101.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7. 경기(계속)

(2020=100, %)

연도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20.01	105.0	0.4	102.6	106.1	1.2	103.3
2020.02	103.1	△1.8	100.5	106.4	0.3	103.8
2020.03	99.4	△3.6	96.8	102.6	△3.6	100.3
2020.04	94.6	△4.8	92.0	95.2	△7.2	93.2
2020.05	93.6	△1.1	90.8	88.1	△7.5	86.3
2020.06	95.1	1.6	92.1	86.1	△2.3	84.4
2020.07	97.6	2.6	94.4	87.1	1.2	85.3
2020.08	100.3	2.8	96.7	89.8	3.1	88.0
2020.09	101.7	1.4	97.8	91.3	1.7	89.3
2020.10	102.6	0.9	98.4	93.0	1.9	90.9
2020.11	103.7	1.1	99.1	95.1	2.3	92.8
2020.12	103.3	△0.4	98.5	97.0	2.0	94.3
2021.01	101.0	△2.2	95.9	96.7	△0.3	93.8
2021.02	100.7	△0.3	95.3	96.6	△0.1	93.3
2021.03	103.2	2.5	97.4	97.6	1.0	93.9
2021.04	107.5	4.2	101.1	101.3	3.8	97.1
2021.05	108.8	1.2	101.9	103.4	2.1	98.7
2021.06	109.4	0.6	102.1	105.4	1.9	100.1
2021.07	109.2	△0.2	101.5	105.4	0.0	99.6
2021.08	107.9	△1.2	99.9	106.2	0.8	99.8
2021.09	106.8	△1.0	98.4	106.0	△0.2	99.1
2021.10	107.7	0.8	98.9	107.0	0.9	99.6
2021.11	109.5	1.7	100.2	108.2	1.1	100.1
2021.12	111.5	1.8	101.6	111.3	2.9	102.5
2022.01	113.4	1.7	102.9	114.3	2.7	104.7
2022.02	114.0	0.5	103.1	117.1	2.4	106.7
2022.03	113.9	△0.1	102.7	117.7	0.5	106.7
2022.04	112.2	△1.5	100.8	118.3	0.5	106.7
2022.05	114.1	1.7	102.1	119.7	1.2	107.4
2022.06	115.4	1.1	102.9	120.8	0.9	107.9
2022.07	116.6	1.0	103.6	121.0	0.2	107.6
2022.08	116.5	△0.1	103.2	119.9	△0.9	106.2
2022.09	116.3	△0.2	102.7	119.3	△0.5	105.3
2022.10	117.0	0.6	102.9	118.7	△0.5	104.4
2022.11	116.5	△0.4	102.3	118.8	0.1	104.2
2022.12	116.4	△0.1	101.8	117.0	△1.5	102.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7. 경기(계속)

(2020=100, %)

연도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23.01	115.0	△1.2	100.4	115.8	△1.0	100.9
2023.02	114.3	△0.6	99.5	114.9	△0.8	99.8
2023.03	114.6	0.3	99.4	115.7	0.7	100.3
2023.04	115.4	0.7	99.9	116.8	1.0	101.0
2023.05	116.2	0.7	100.4	116.3	△0.4	100.4
2023.06	115.8	△0.3	99.8	116.2	△0.1	100.1
2023.07	115.3	△0.4	99.1	116.2	0.0	99.9
2023.08	114.9	△0.3	98.5	116.5	0.3	100.0
2023.09	116.4	1.3	99.6	116.9	0.3	100.2
2023.10	116.8	0.3	99.7	118.2	1.1	101.2
2023.11	116.9	0.1	99.5	117.7	△0.4	100.7
2023.12	116.1	△0.7	98.6	117.8	0.1	100.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本書의 발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人士 ◇

〈집필위원〉

(가나다순)

강 기 춘 (제주상의 제주경제연구원 부원장)
강 영 준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 태 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형 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 화 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손 상 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양 영 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이 남 호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
이 순 국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승 훈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황 중 돈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김 명 동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역)
박 으 뜸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이 유 경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역)
이 한 새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최 종 윤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알 림

제주경제백서는 2023. 12.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작성기준 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주경제백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착오가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 (064)757-2164 FAX. (064)757-2167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jejucci.korcham.net

2024 제주경제백서

2024년 12월 인쇄
2024년 12월 발행

편집겸 : 제주상공회의소
발행인 : 회장 **양 문 석**
☎ (064) 757-2164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064) 758-1500